

국립국어원 2016-01-12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622-01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2011-16년 연구 보고서 종합 분석 포함)

연구 책임자 | 최호철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연구 책임자: 최호철(고려대학교)

연구 협력 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최호철

공동연구원 윤인진, 김정숙, 임영철, 박경래, 채성식

현지공동연구원 라경수, 문희진, 목종균

연구보조원 최창원, 임형욱, 김효은, 원광연, 손지은, 김희상

현지연구보조원 김태영, 김미숙, 오영민

<연구 협력 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책임 연구원	최호철(고려대학교)
공동 연구원	윤인진(고려대학교)
	김정숙(고려대학교)
	임영철(중앙대학교)
	박경래(세명대학교)
	채성식(고려대학교)
현지 공동 연구원	라경수(가쿠슈인여자대학교)
	문희진(아이치가쿠인대학교)
	목종균(간키대학교)
연구 보조원	최창원(고려대학교)
	임형옥(고려대학교)
	김효은(고려대학교)
	원광연(고려대학교)
	손지은(고려대학교)
	김희상(고려대학교)
현지 연구 보조원	김태영(와세다대학교)
	김미숙(아이치가쿠인대학교)
	오영민(간사이대학교)

<국문 초록>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2011-16년 연구 보고서 종합 분석 포함)

본 연구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 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변인에 따른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본 연구를 포함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된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는 도쿄, 나고야, 오사카 지역을 대상으로 세대, 성별, 사회 참여 여부 및 소속 단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 조사 내용은 언어 의식과 태도 및 이해도, 언어 능력, 언어 사용, 언어 학습, 한민족/조선민족 정체성,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이었고, 심층 면접 조사 내용은 가족 관계, 한국 문화, 이주 시기, 친인척 관계, 학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자유롭게 발화한 내용을 녹취하였다.

재일 동포들은 언어 의식과 태도 및 이해 영역에서 일본어를 모어로 생각하며,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재일 동포들은 한국어/조선어를 알아야 하고 또한 배우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서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긍정적인 느낌이며, 방송, 재일 동포,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언어 능력 영역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모두 평균값이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4개의 영역 중 말하기와 쓰기 능력이 듣기와 읽기 영역보다 낮게 타나났는데, 이는 다른 영역에 비해 말하기와 쓰기는 주체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영역이며, 평소 일본 사회에서 한국어/조선어를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언어 사용 영역에서 재일 동포들은 제일 잘하는 언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가족끼리 말할 때 주로 쓰는 언어, 알아듣기 편한 언어,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앞으로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은 언어에 대해서 일본어라고 응답했다.

언어 학습 영역에서 재일 동포들은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고 대체로 학교

에서 배웠다고 응답했으며, 학습 기간은 10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41.8%나 되었다. 한편, 학습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모두 한국어/조선어를 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재일 동포라면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한민족 정체성과 일본인 정체성 영역에서 재일 동포들은 재일 동포의 이주 역사에 대해서 73.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민족 역사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73.9%가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한민족/조선민족 문화에 대해서는 제사, 음식, 명절 등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민족/조선민족의 후손이라서 자랑스럽냐는 질문에 67.9%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일본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냐라는 질문에는 6.8%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67.2%는 무응답을 선택했다.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 영역에서 재일 동포들은 86.4%가 한국 방문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최근 5년간 5회 이상 방문했다고 한 응답자가 31.9%나 되었다. 한국 미디어 시청에 대한 질문에서는 시청하지 않는 비율이 33.4%로 가장 높았고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9.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재일 동포의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나타난 언어 변종은 음운 영역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 간의 음소목록이나 음절 차이로 인한 변종이 많이 나타났다. 자음의 경우 초성에서 본 조사에 참여한 2세대 이후의 재일 동포의 한국어/조선어의 자음은 평음, 경음, 격음의 분명한 대립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어휘 영역에서는 선대의 출신 지역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유 명사화된 한국어/조선어 어휘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혼용이 나타날 때, 해당 어휘의 음운이나 형태적인 변화가 있기보다는 일본어 어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법 영역에서는 부정, 사동, 피동 표현을 주로 조사하였는데, 재일 동포들은 이러한 표현을 비교적 정확하게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11년을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독립국가연합, 브라질 등 중남미, 미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를 종합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 선정 방법에 있어서 모든 연구들은 주로 재외 동포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3-4개 지역을 선택하여 조사하였고 제보자 수는 평균적으로 850명 정도를 모집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언어 인식과 태도 영역 중 모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부분에서 재중, 재미, 중남미 동포들이 한국어를 모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독립국가연합과 재일 동포는 거주국 언어를 모어라고 생

각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중남미와 재미 동포의 경우 한국어를 모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지만, 언어 능력의 필요성에서 거주국 언어 능력을 모어보다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어 사용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은 재미와 재일 동포 연구에서만 조사되었으며, 대체로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 부분에 대해서는 재중 동포의 경우 없어진다는 응답이 1순위를 차지한 반면, 독립국가연합은 한국말로 바뀔 것이라는 응답이 1순위를 차지했고, 재미와 재일 동포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1순위를 차지했다. 동포어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재외 동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느낌이라고 응답했으며, 말을 통해 한국인을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언어 능력 중 말하기 능력에 대한 조사를 종합한 결과 재중 동포들의 능력이 가장 높았고, 재일 동포의 말하기 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추측컨대, 재일 동포의 말하기 능력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2세대와 3세대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가정에서도 한국어보다는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듣기 능력도 마찬가지로 재일 동포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중남미 동포들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읽기 능력은 중남미 동포들의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재중, 재미, 재일 동포들의 순으로 나타났다. 쓰기 능력 또한 중남미 동포들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재일 동포들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언어 사용에서 제일 잘하는 언어에 대해서 재중, 재미 동포들은 한국어를 1순위로 선택한 반면에, 중남미, 재일 동포들은 거주국 언어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가족끼리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언어 학습에서 독립국가연합, 중남미는 학습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순위인 반면에, 재미, 재일 동포는 있다는 응답이 1순위를 차지했으며, 대체로 재외 동포들은 학원과 학교 등에서 학습을 했다고 응답했다. 한국어의 학습 계획에 대해서 재미와 중남미 동포는 학습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1순위를 차지했고 그 이유로는 가족 간 의사소통과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응답이 1순위를 차지했다.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중남미 동포는 89.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민족 정체성에 대한 질문 중 이주 역사에 대해 독립국가연합과 재일 동포는 높은 비율로 이주 역사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한민족 역사에 대한 학

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재외 동포들은 전반적으로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높고 문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민족 정체성에 비해 한국어 사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재외 동포들은 대부분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으며, 한국 방송을 시청한다고 응답했다.

재외 동포들의 한국어 변종을 종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어휘 영역은 가장 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변종은 ‘아버지’였고 이러한 변종은 해당 어휘의 방언형이나 동일한 뜻을 가진 거주국 어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3개 지역 이상에서의 공통적인 변종은 친족어, 일반 명사, 부사, 용언류에서 변종이 출현하였고, 마찬가지로 해당 어휘의 방언형이나 동일한 뜻을 가진 거주국 어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문법 영역의 경우, 조사 지역의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조사가 되어 변종 유형을 종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중 2개 지역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문법 변종의 유형은 부사 위치, 용언 활용, 어휘 사용, 수관형사 등에서 출현하였다.

<abstract>

A Survey on Language Us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ncluding a Synthetic Analysis of Research Reports 2011–2016)

This study aims to research and analyze the current language us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by differing social variables. Furt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synthes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well as research reports on language use of overseas Koreans during the study period from 2011 to 2015.

The research on the current language us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studied regions including Tokyo, Nagoya, and Osaka. Factors such as generation, gender, whether they participated in an organization of Korean ethnic community, and under the classification of Korean ethnic identity of organization, which organization they were involved in were taken as social variables for the analysis. Questionnaire items referred to language awareness, language attitude and the degree of understanding language; language proficiency; language use; language learning; Korean ethnic identity; and Korean media and cultural exposure. In-depth interview collected data regarding family relationship, Korean culture, when interviewees immigrated to the current residential area, relative relationship, and school, with the method of recording spontaneous speech.

When it comes to the questionnaire item related to ‘language awareness, language attitude and the degree of understanding language,’ Korean residents in Japan surveyed responded that they perceive Japanese as mother tongue, and they can more easily understand Japanese than Korean. In addition, while the rate of those surveyed who perceived the necessity of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wanted to learn them was high, the rate of those surveyed who thought they should attain better Japanese proficiency than Korean proficiency was high. Meanwhile, in regard to the item related to ‘the future of Korean language,’ people surveyed responded that they expect the future Korean

language will experience little change from the current Korean. Moreover, people surveyed showed more positive perception on Korean language than Japanese and they responded they were able to understand well about the Korean broadcasting and what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well as Korean spoke in Korean language.

In regard to the item related to language proficiency, results showed that people surveyed had a high language proficiency with the mean score more than three points out of five points. Meanwhile, out of the four language skills, people surveyed had lower scores in speaking and writing skills than in listening and reading skills. This result seems to be attributable to the facts that speaking and writing skills need more self-directed learning of learners compared to other skills and that opportunities for speaking and writing Korean language are rather limited in Japanese society.

When it comes to the item related to language use such as the language they are most fluent in; the language used mostly in daily life; the language used mostly in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the language they feel comfortable to understand; the language they think they should speak fluently; and the language expected to be used most frequently in the future, Korean residents in Japan surveyed chose Japanese language.

In regard to the item related to language learning, Korean residents in Japan surveyed responded that they had learning experience of Korean and most of them learned Korean from school in general. The rate of those surveyed who had more than 10 year-Korean learning experience was 41.8 percent. Meanwhile, regarding reasons for learning, the rate of those surveyed who learned Korean language since their family spoke Korean language was high, and the rate of those surveyed who thought it was only natural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learn Korean was the second highest.

When it comes to the item related to Korean ethnic identity and Japanese ethnic identity, the rate of those surveyed who had knowledge about migration histor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as 73.9 percent, and the rate of those surveyed who had learning experience of Korean national history was 73.9 percent. In regard to Korean culture, those surveyed reported that they were well aware of

ancestor worship ceremony, Korean food, and Korean holidays. In addition, 67.9 percent of those surveyed responded ‘yes’ to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ey feel proud of being a descendant of Korean/Chosun people.’ 6.8 percent of those surveyed answered ‘yes’ to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ey feel proud of being a citizen of Japan’ while 67.2 percent of those surveyed showed non-response.

In regard to the item related to Korean media and cultural exposure, 86.4 percent of those surveyed responded that they had ever visited Korea, and 31.9 percent of those surveyed answered that they had visited Korea more than five times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rate of those surveyed who do not watch Korean media was the highest at 33.4 percent, and the rate of those surveyed who watch Korean media less than an hour was the second highest at 29.0 percent.

Meanwhile, language varieties identified through in-depth interview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ere as follows. In terms of phonology, many of the variants appeared deriving from phonemic structure between Japanese and Korean language or difference in syllable. In terms of consonants of Korean language used by post-second generation Korean-Japanese surveyed, there wa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neutral, fortis, aspirated consonants at the initial consonant position. In terms of vocabulary of those surveyed, local dialects used in home provinces of earlier generation were likely to have considerable effects on their vocabulary. In particular, Korean language which had become proper noun was highly influenced by those local dialects. In addition, in case of the mixed use of Korean between Japanese words, in many cases, Japanese words tended to replace Korean words, instead of phonological changes or the formal changes in Korean word. In terms of grammar, this in-depth interview mainly identified the usage of negative, causative and passive expressions, which showed relatively correct grammar usage.

This study reviewed and synthesized the results of research reports on language use of overseas Koreans conducted in Japan, China,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Brazil,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study period from 2011 to

2015. In selecting regions to be surveyed, all the research analyzed in this study chose three or four areas mainly populated by overseas Koreans. The number of the informants who were recruited and surveyed was 850 people on average. The review and synthesis of those research results concluded as follows. When it comes to the item related to ‘language awareness and attitude,’ in terms of perception and attitude about mother tongue, Korean residents i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responded they perceive Korean as mother tongue while Korean residents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and Japan answered they perceive the language of a host country as mother tongue. Meanwhile, in terms of necessity of language proficiency, Korean resident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perceive stronger necessity of language proficiency of a host country compared to Korean proficiency, even though they perceive Korean as mother tongue. In addition, in terms of a survey question about the necessity of Korean language usage covered by only the research on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ose surveyed were generally aware of the necessity of Korean language usage.

In regard to perception and attitudes about the future of Korean language, the answer of ‘Korean language will disappear’ ranked first among Korean residents in China surveyed while the answer of ‘Korean language will become primary language’ ranked first among Korean residents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The answer of ‘there will be no change in Korean language’ ranked first among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the perception on Korean language, overseas Koreans showed generally positive perception on Korean language and they responded they could distinguish Korean from foreigners by their language usage.

When it comes to the item related to speaking skill, the survey results collectively suggest that Korean–Chinese showed the highest Korean speaking competence while Korean–Japanese had the lowest Korean speaking competence. The lowest Korean speaking competence of Korean–Japanese seems to be attributable to the facts that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of Korean-Japanese were born in Japan and that they use Japanese more commonly than Korean language at home. In terms of listening skill, Korean-Japanese had the lowest Korean listening competence while Korean resident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had the highest Korean listening competence. In terms of reading skill, the survey results collectively suggest that the mean score of reading competence was the highest among Korean resident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followed by the mean score of reading competence among Korean-Chinese, Korean-American, and Korean-Japanese in order. In terms of writing skill, Korean resident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had the highest Korean writing competence while Korean-Japanese had the lowest Korean writing competence.

Meanwhile, as a language they are most fluent in, Korean resident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ranked Korean as the number one while those in Japan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ranked the language of a host country as the number one. The survey on 'the language used mostly in daily life' and 'the language used mostly in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produced the same result.

In regard to the item related to language learning, the answer of 'no experience of language learning' ranked first among Korean residents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while the answer of 'I have experience of language learning' ranked first among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 general, overseas Korean responded they used the private institute or school in learning language. In regard to Korean language learning plan, 'I have learning plan' was the first ranked answer among Korean resident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Regarding reasons for learning, those surveyed had the answers of 'for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and 'because of Korean identity' ranked first. When it comes to necess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89.0 percent of Korean resident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responded that they are in nee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want to be taught by government-supported institutions.

Regarding the item related to Korean ethnic identity, in cas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the rate of those surveyed who had knowledge about migration history was high and they had learning experience of Korean national history. Moreover, overseas Korean had high recognition of ethnic identities and high consciousness of succeeding Korean culture. They also showed considerable interest in Korean culture and history. However, in contrast to high recognition of ethnic identities, they were not highly aware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Korean language use. In addition, most of overseas Korean responded they have ever visited Korea and they watch Korean media.

In regard to Korean language varieties identified through in-depth interview of overseas Korean, the survey results collectively conclud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vocabulary, the common variants found in the largest number of regions surveyed was the word meaning ‘father.’ These common variants mostly consist of the dialectal forms of the word or vocabularies with the same meaning used in the host country. In addition, the common variants found in more than three regions included the kinship terms, common nouns, adverb, and inflected word. Also, these common variants mostly consist of the dialectal forms of the word or vocabularies with the same meaning used in the host country.

In terms of grammar, it was difficult to integrate survey results and identify the types of common grammatical variants since research reports to be analyzed used the differing criteria established by researchers from different research sites. The common grammatical variants in more than two regions were found in the position of adverbs, inflected predicates, vocabulary use, and numeral pre-noun.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필요성	3
1.3. 연구 범위	5
1.4. 연구 의의	6
제2장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9
2.1. 재일 동포 사회와 문화	9
2.1.1. 재일 동포의 이주 역사	9
2.1.2. 재일 동포 단체	10
2.1.3. 재일 동포의 한국어 교육 상황	13
2.2.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범위와 방법론	17
2.2.1. 조사 대상 지역 및 제보자 선정	17
2.2.2.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 범위	20
2.2.3. 설문 및 심층 면접 조사 방법론	23
2.2.3.1. 설문 조사 설문지 설계 및 분석 방법	23
2.2.3.2. 심층 면접 조사 구술/설문지 설계	26
2.3.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결과 분석	28
2.3.1. 설문 조사 결과 분석	28
2.3.1.1. 응답자의 기본 정보 분석 결과	28
1) 기본 분석	28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8
(2) 일본 출생 여부	32
(3) 일본으로 이주 시기	33
(4) 일본으로 이주 당시 나이	34
(5) 출신 학교별 비율	35
(6) 현재 법적 지위	36
(7) 부모님의 출생지	37
(8) 부모님과 배우자 민족	38
(9)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39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40
(1) 세대별 배우자 민족	41
(2) 성별 배우자 민족	42
(3) 세대별 동포 사회 단체 참여 여부	43
(4) 배우자 민족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44
(5) 성별 동포사회단체 참여 여부	45
2.3.1.2. 언어 의식과 태도 및 이해도	46
1)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46
(1) 기본 분석	46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47
2) 더 잘 알아듣는 언어	51
(1) 기본 분석	51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52
3)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57
(1) 기본 분석	57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59

4) 일본에서 한국어/조선어의 장래에 대한 생각	68
5)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69
(1) 기본 분석	69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71
6)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78
(1) 기본 분석	78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80
2.3.1.3. 언어 능력	85
1) 전반적인 언어 능력	85
(1) 기본 분석	85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88
2) 한국어 말하기 능력	94
(1) 기본 분석	94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96
3) 한국어 듣기 능력	102
(1) 기본 분석	102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104
4) 한국어 읽기 능력	110
(1) 기본 분석	110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110
5) 한국어 쓰기 능력	116
(1) 기본 분석	116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118
2.3.1.4. 언어 사용	124
1) 언어 사용 순위	124

2) 내가 가족에게 말할 때	125
(1) 기본 분석	125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128
3)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134
(1) 기본 분석	134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136
4)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142
(1) 기본 분석	142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144
5)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151
(1) 기본 분석	151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153
2.3.1.5. 언어 습득과 한국어 교육	158
1) 한국어 학습 경험	158
2) 한국어 학습 장소	159
3) 한국어 학습 기간	160
4) 한국어 학습 이유	162
5) 한국어를 배울 때 힘들었던 점	163
2.3.1.6. 한민족 정체성과 일본인 정체성	164
1) 재일동포 이주의 역사에 대한 인식	164
2) 한민족 역사에 대한 학습 경험	165
3) 상황별 교류 상대	166
4) 집안에 남아있는 한민족/조선민족의 문화	168
5) 한민족 정체성	168
(1) 기본 분석	168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171
6) 일본인 정체성	182
(1) 기본 분석	182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184
2.3.1.7.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	188
1) 한국 방문 경험	188
2) 최근 5년간 한국에 방문한 총 횟수	190
3) 최근 5년간 한국에 체류한 기간	191
4) 하루 중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192
(1) 기본 분석	192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193
5) 즐겨보는 한국 미디어 프로그램	196
2.3.1.8. 설문조사 결과 요약	197
2.3.2. 언어 변종 조사 결과	200
2.3.2.1. 음운	201
2.3.2.2. 어휘	203
1) 어휘 혼용 양상	204
(1) 일본어 명사의 혼용	204
(2) 일본어 형용사·동사의 혼용	204
(3) 일본어 부사와 감동사의 혼용	205
(4) 일본어 조사와 어미의 혼용	205
2) 어휘의 변이형 목록	206
(1) 친족 관련	206
(2) 세시풍속	208
(3) 음식 및 식재료	208

2.3.2.2. 문법	210
1) 부정	210
2) 사동	210
3) 피동	211
2.4. 제일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제언	211
 제3장 2011-16년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종합 및 분석	215
3.1. 설문 조사 내용 종합 및 분석	215
3.1.1. 설문 조사 방법 종합 및 분석	215
3.1.1.1. 조사 대상 지역 선정 방법 종합	215
3.1.1.2. 조사 제보자 선정 방법 종합	216
3.1.1.3. 설문 조사 방법 종합 분석	220
3.1.2. 설문 조사 결과 종합 및 분석	220
3.1.2.1. 설문 조사 영역 및 내용 종합	221
3.1.2.2. 설문 조사 결과 종합 분석	222
1) 언어 인식과 태도	222
(1) 모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223
(2) 언어 능력의 필요성	224
(3) 한국어 사용 당위성에 대한 태도	225
(4) 언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	226
(5) 동포어와 거주국 언어에 대한 느낌	228
(6) 한국어 이해 정도	229
(7) 한국 말투에 대한 인식	230
2) 언어 능력	231

(1) 동포어 능력	232
① 말하기 능력	232
② 듣기 능력	233
③ 읽기 능력	234
④ 쓰기 능력	235
(2) 거주국 언어 능력	236
① 말하기 능력	237
② 듣기 능력	237
③ 읽기 능력	238
④ 쓰기 능력	239
(3) 미국 외 지역 동포(중남미 동포)의 영어 능력	239
3) 언어 사용	240
(1) 동포어 사용 순위	241
① 제일 잘하는 언어	241
②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242
③ 가족끼리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243
④ 제일 알아듣기 편한 언어	244
(2) 가족 간 언어 사용	245
① 내가 가족에게 사용하는 언어	245
② 가족이 나에게 사용하는 언어	246
(3) 상황별 언어 사용	247
①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247
② 특수한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248
4) 언어 학습	250
(1) 동포어 학습 양상	251

① 한국어 학습 양상	251
② 기타 동포어 학습 양상	257
(2) 동포어 학습 계획	257
(3) 동포어 전승 의식	260
(4)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262
5) 민족 정체성	266
(1) 이주 역사에 대한 인식	266
(2) 한민족 역사에 대한 학습 경험	267
(3)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	268
(4) 교류 대상 및 빈도	271
(5)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	272
6)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	273
(1) 한국 방문 경험 양상	274
(2) 한국 방송 시청 양상	276
3.2. 언어 변종 조사 내용 종합 및 분석	278
3.2.1. 언어 변종 조사 질문지 구성 종합	278
3.2.2. 한국어 변종 종합 및 분석	279
3.2.2.1. 어휘 영역 언어 변종 종합 분석	279
1) 체언류	279
(1) 명사류	279
① 친족 어휘	279
② 명절 및 기념일	283
③ 음식 및 식재료 관련 어휘	284
④ 일반 사물 명사	288
⑤ 기타 명사	290

(2) 대명사류	291
2) 용언류	292
3) 수식어류	301
3.2.2.2. 문법 영역 언어 변종 종합 분석	302
1) 부사위치	305
2) 용언활용	306
3) 어휘 사용	307
4) 수관형사	308
5) 조사 오류	308
3.3.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관련 2012-16 연구 종합 및 분석	309
 제4장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제언	317
4.1.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제언	317
4.2. 국가별 한국어 교육 정책 제언	323
4.2.1. 재중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323
4.2.2. 독립국가연합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325
4.2.3. 재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327
4.2.4. 재중남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328
4.2.5. 재일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330
 <참고 문헌>	333
<부록>	339

표 목차

<표 1> 재일 동포 단체	13
<표 2> 재일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기관	14
<표 3> 한국학교 초등학교의 학생 구성	15
<표 4> 설문 조사 대상 지역 및 제보자의 수	18
<표 5> 조사 지역별 세대 및 성별에 따른 제보자 수	19
<표 6> 조사 지역별 동포 사회 참여자와 비참여자에 따른 제보자 수	20
<표 7>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의 범위와 내용	22
<표 8>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설문지 구성과 내용	23
<표 9> 실제 섭외된 설문 조사 대상자 수	25
<표 10> 심층 면접 질문지	27
<표 11> 응답자 분포	31
<표 12> 일본 출생 여부	32
<표 13> 조사 대상자의 일본으로 이주 시기	33
<표 14> 조사 대상자의 일본으로 이주 당시 나이	34
<표 15> 조사 대상자의 출신 학교별 비율	35
<표 16> 조사 대상자의 현재 법적 지위	37
<표 17> 조사 대상자의 부모님 출생지	38
<표 18> 조사 대상자의 부모님과 배우자 민족	39
<표 19> 동포사회단체 참여 여부	40
<표 20> 세대별 배우자 민족	41
<표 21> 성별 배우자 민족	42
<표 22> 세대별 동포사회단체 참여 여부	43

<표 23> 배우자 민족별 동포사회단체 참여 여부	44
<표 24> 성별 동포사회단체 참여 여부	45
<표 25> 조사 대상자가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46
<표 26> 연령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48
<표 27> 세대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49
<표 28> 성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50
<표 29>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51
<표 30> 조사 대상자가 더 잘 알아듣는 언어	52
<표 31> 연령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53
<표 32> 세대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54
<표 33> 성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55
<표 34>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56
<표 35> 조사 대상자의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57
<표 36> 연령별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61
<표 37> 세대별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63
<표 38> 성별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66
<표 39>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에 따른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67
<표 40> 일본에서 한국어/조선어의 장래에 대한 생각	68
<표 41>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70
<표 42> 연령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72
<표 43> 세대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74
<표 44> 성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75
<표 45>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	77
<표 46>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78
<표 47> 연령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81

<표 48> 세대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83
<표 49> 성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84
<표 50>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85
<표 51>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	86
<표 52> 연령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89
<표 53> 세대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91
<표 54> 성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92
<표 55>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93
<표 56>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94
<표 57> 연령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97
<표 58> 세대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98
<표 59> 성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100
<표 60>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101
<표 61>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듣기 능력	102
<표 62> 연령별 한국어 듣기 능력	105
<표 63> 세대별 한국어 듣기 능력	107
<표 64> 성별 한국어 듣기 능력	108
<표 65>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듣기 능력	109
<표 66>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읽기 능력	110
<표 67> 연령별 한국어 읽기 능력	111
<표 68> 세대별 한국어 읽기 능력	113
<표 69> 성별 한국어 읽기 능력	114
<표 70>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읽기 능력	115
<표 71>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	116
<표 72> 연령별 한국어 쓰기 능력	119

<표 73> 세대별 한국어 쓰기 능력	121
<표 74> 성별 한국어 쓰기 능력	122
<표 75>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쓰기 능력	123
<표 76> 언어 사용 순위	124
<표 77> 내가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126
<표 78>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129
<표 79>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세대별 분석	131
<표 80>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성별 분석	132
<표 81>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133
<표 82>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134
<표 83>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137
<표 84>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세대별 분석	139
<표 85>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성별 분석	140
<표 86>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141
<표 87>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142
<표 88>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연령별 분석	145
<표 89>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세대별 분석	147
<표 90>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성별 분석	148
<표 91>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150
<표 92>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151
<표 93>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154
<표 94>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세대별 분석	155
<표 95>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성별 분석	156
<표 96>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157
<표 97> 한국어 학습 경험	158

<표 98> 한국어 학습 장소	160
<표 99> 한국어 학습 기간	161
<표 100> 한국어 학습 이유	162
<표 101> 한국어를 배울 때 힘들었던 점	164
<표 102> 재일동포 이주의 역사에 대한 인식	165
<표 103> 한민족의 역사 학습 경험 여부	166
<표 104> 상황별 교류 상대	167
<표 105> 조사 대상자의 한민족 정체성	169
<표 106> 연령별 한민족 정체성	172
<표 107> 세대별 한민족 정체성	176
<표 108> 성별 한민족 정체성	178
<표 109>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민족 정체성	180
<표 110> 조사 대상자의 일본인 정체성	182
<표 111> 연령별 일본인 정체성	185
<표 112> 세대별 일본인 정체성	186
<표 113> 성별 일본인 정체성	187
<표 114>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일본인 정체성	188
<표 115> 한국에 방문한 경험	189
<표 116> 최근 5년간 한국에 방문한 총 횟수	190
<표 117> 최근 5년간 한국에 체류한 기간	191
<표 118> 하루 중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192
<표 119> 연령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193
<표 120> 세대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194
<표 121> 성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195
<표 122>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195

<표 123> 즐겨보는 한국 미디어 프로그램	196
<표 124> 한국어 단모음과 재일 동포 올드커머 2세 이하의 한국어/조선어의 단모음과의 대응	203
<표 125> 친족 관련 어휘 변이형 목록	206
<표 126> 세시 풍속 어휘 변이형 목록	208
<표 127> 음식 및 식재료 어휘 변이형 목록	208
<표 128> 조사 지역 및 선정 기준	216
<표 129> 조사 체보자 수 및 선정 기준	217
<표 130> 연구별 세대 분류 기준	219
<표 131> 조사 영역 및 조사 내용	221
<표 132> 언어 인식과 태도 영역의 문항 종합	223
<표 133> 모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224
<표 134> 언어 능력의 필요성	225
<표 135> 한국어 사용 당위성에 대한 인식	226
<표 136> 동포어의 장래	227
<표 137> 동포 사회에서 사용하게 될 말의 순위	228
<표 138> 동포어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229
<표 139> 한국어 이해 정도	230
<표 140> 한국 말투 학습 의지	231
<표 141> 언어 능력 영역의 문항 종합	232
<표 142> 동포어 말하기 능력	233
<표 143> 동포어 듣기 능력	234
<표 144> 동포어 읽기 능력	235
<표 145> 동포어 쓰기 능력	236
<표 146> 거주국 언어 말하기 능력	237

<표 147> 거주국 언어 듣기 능력	238
<표 148> 거주국 언어 읽기 능력	238
<표 149> 거주국 언어 쓰기 능력	239
<표 150> 미국 외 지역 동포(중남미 동포)의 영어 능력	240
<표 151> 언어 사용 영역의 문항 종합	240
<표 152> 제일 잘하는 언어	241
<표 153>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242
<표 154> 가족끼리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243
<표 155> 제일 알아듣기 편한 언어	244
<표 156> 내가 가족에게 사용하는 언어(동포어 사용 순위)	245
<표 157> 내가 가족에게 사용하는 언어(동포어 사용 순위)	246
<표 158>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동포어 사용 순위) ...	248
<표 159>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동포어 사용 순위) ...	249
<표 160> 언어 학습 영역의 문항 종합	250
<표 161> 한국어 학습 경험 및 학습 기간	252
<표 162> 한국어 학습 기관	253
<표 163> 한국어 학습 동기 및 이유	255
<표 164>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점	256
<표 165> 독립국가연합 동포의 고려말/사할린 한국어 학습 양상	257
<표 166> 동포어 학습 계획	258
<표 167> 동포어 전승 의식	260
<표 168>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263
<표 169> 민족 정체성 영역의 문항 종합	266
<표 170> 이주 역사에 대한 인식	267
<표 171> 한민족 역사에 대한 학습 경험	267

<표 172>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	269
<표 173> 교류 대상 및 빈도	272
<표 174>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	273
<표 175>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 영역의 문항 종합	274
<표 176> 한국 방문 경험 양상	275
<표 178> 언어 변종 조사 질문지 구성 종합	278
<표 179> 문법 영역에서 나타난 언어 변종 조사 유형	302
<표 180> 2개 지역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변종 조사 결과-부사위치 ...	305
<표 181> 2개 지역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변종 조사 결과-용언활용 ...	306
<표 182> 2개 지역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변종 조사 결과-어휘사용 ...	307
<표 183> 2개 지역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변종 조사 결과-수관형사 ...	308
<표 184> 2개 지역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변종 조사 결과-조사오류 ...	308
<표 185> 2012-16년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제언 종합	310

그림 목차

<그림 1> 재일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연구 배경	3
<그림 2>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연구의 필요성	5
<그림 3> 재일 동포 언어 실태의 연구 목적	7
<그림 4> 일본 출생 여부	32
<그림 5> 조사 대상자의 일본으로 이주 시기	33
<그림 6> 조사 대상자의 일본으로 이주 당시 나이	34
<그림 7> 조사 대상자의 출신 학교별 비율	36
<그림 8> 조사 대상자의 현재 법적 지위(국적)	37
<그림 9> 조사 대상자의 부모님 출생지	38
<그림 10> 조사 대상자의 부모님과 배우자 민족	39
<그림 11> 동포사회단체 참여 여부	40
<그림 12> 세대별 배우자 민족	41
<그림 13> 성별 배우자 민족	42
<그림 14> 세대별 동포사회단체 참여 여부	43
<그림 15> 배우자 민족별 동포사회단체 참여 여부	44
<그림 16> 성별 동포사회단체 참여 여부	45
<그림 17> 조사 대상자가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47
<그림 18> 연령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48
<그림 19> 세대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49
<그림 20> 성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50
<그림 21>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51
<그림 22> 조사 대상자가 더 잘 알아듣는 언어	52
<그림 23> 연령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53

<그림 24> 세대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54
<그림 25> 성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55
<그림 26>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56
<그림 27> 조사 대상자의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1)	58
<그림 28> 조사 대상자의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2)	58
<그림 29> 조사 대상자의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평균값	59
<그림 30> 연령별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62
<그림 31> 세대별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65
<그림 32> 성별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66
<그림 33>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에 따른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67
<그림 34> 일본에서 한국어/조선어의 장래에 대한 생각	69
<그림 35>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평균값	70
<그림 36> 연령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평균값	73
<그림 37> 세대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평균값	75
<그림 38> 성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평균값	76
<그림 39>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평균값	77
<그림 40>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1)	79
<그림 41>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2)	79
<그림 42>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평균값	80
<그림 43> 연령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평균값	82
<그림 44> 세대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평균값	83
<그림 45> 성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평균값	84
<그림 46>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평균값	85
<그림 47>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 (1)	87
<그림 48>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 (2)	87

<그림 49>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 평균값	88
<그림 50> 연령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평균값	90
<그림 51> 세대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평균값	91
<그림 52> 성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평균값	92
<그림 53>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평균값	93
<그림 54>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1)	95
<그림 55>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2)	95
<그림 56>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균값	96
<그림 57> 연령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균값	98
<그림 58> 세대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균값	99
<그림 59> 성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균값	100
<그림 60>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균값	101
<그림 61>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듣기 능력 (1)	103
<그림 62>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듣기 능력 (2)	103
<그림 63>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듣기 능력 평균값	104
<그림 64> 연령별 한국어 듣기 능력 평균값	106
<그림 65> 세대별 한국어 듣기 능력 평균값	107
<그림 66> 성별 한국어 듣기 능력 평균값	108
<그림 67>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듣기 능력 평균값	109
<그림 68> 연령별 한국어 읽기 능력 평균값	112
<그림 69> 세대별 한국어 읽기 능력 평균값	113
<그림 70> 성별 한국어 읽기 능력 평균값	114
<그림 71>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읽기 능력 평균값	115
<그림 72>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 (1)	117
<그림 73>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 (2)	117

<그림 74>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 평균값	118
<그림 75> 연령별 한국어 쓰기 능력 평균값	120
<그림 76> 세대별 한국어 쓰기 능력 평균값	121
<그림 77> 성별 한국어 쓰기 능력 평균값	122
<그림 78>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쓰기 능력 평균값	123
<그림 79> 언어 사용 순위	125
<그림 80> 내가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1)	126
<그림 81> 내가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2)	127
<그림 82> 내가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평균값	127
<그림 83>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평균값	130
<그림 84>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세대별 분석 평균값	131
<그림 85>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성별 분석 평균값	132
<그림 86>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평균값 ..	133
<그림 87>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1)	135
<그림 88>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2)	135
<그림 89>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평균값	136
<그림 90>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평균값 ..	138
<그림 91>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세대별 분석 평균값 ..	139
<그림 92>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성별 분석 평균값 ..	140
<그림 93>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평균값 ..	141
<그림 94>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1)	143
<그림 95>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2)	143
<그림 96>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평균값	144
<그림 97>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연령별 분석 평균값 ..	146
<그림 98>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세대별 분석 평균값 ..	148

<그림 99>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성별 분석 평균값	149
<그림 100>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평균값...	150
<그림 101>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1)	152
<그림 102>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2)	152
<그림 103>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평균값	153
<그림 104>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평균값	154
<그림 105>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세대별 분석 평균값	156
<그림 106>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성별 분석 평균값	157
<그림 107>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평균값..	158
<그림 108> 한국어 학습 경험	159
<그림 109> 한국어 학습 장소	160
<그림 110> 한국어 학습 기간	161
<그림 111> 한국어 학습 이유	163
<그림 112> 한국어를 배울 때 힘들었던 점	164
<그림 113> 재일동포 이주의 역사에 대한 인식	165
<그림 114> 한민족의 역사 학습 경험 여부	166
<그림 115> 상황별 교류 상대	167
<그림 116> 조사 대상자의 한민족 정체성 (1)	170
<그림 117> 조사 대상자의 한민족 정체성 (2)	170
<그림 118> 조사 대상자의 한민족 정체성 평균값	171
<그림 119> 연령별 한민족 정체성 평균값	174
<그림 120> 세대별 한민족 정체성 평균값	177
<그림 121> 성별 한민족 정체성 평균값	179
<그림 122>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민족 정체성 평균값	181
<그림 123> 조사 대상자의 일본인 정체성 (1)	183

<그림 124> 조사 대상자의 일본인 정체성 (2)	183
<그림 125> 조사 대상자의 일본인 정체성 평균값	184
<그림 126> 연령별 일본인 정체성 평균값	185
<그림 127> 세대별 일본인 정체성 평균값	186
<그림 128> 성별 일본인 정체성 평균값	187
<그림 129>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일본인 정체성 평균값	188
<그림 130> 한국에 방문한 경험	189
<그림 131> 최근 5년간 한국에 방문한 총 횟수	190
<그림 132> 최근 5년간 한국에 체류한 기간	191
<그림 133> 하루 중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192
<그림 134> 연령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평균값	193
<그림 135> 세대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평균값	194
<그림 136> 성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평균값	195
<그림 137>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평균값 ...	196
<그림 138> 즐겨보는 한국 미디어 프로그램	197

제1장 연구 개요

1.1. 연구 목적

한민족이 일본으로 처음 이주한 이래, 1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대부분의 재일 동포¹⁾들은 일본 식민지 시기 혼란스러운 한반도 정세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전시에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들 중 대다수는 해방 직후 본국으로 귀국했으나, 한국 전쟁의 발발과 남북 분단으로 귀국을 미루거나, 일시적으로 귀국 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많았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일본에 정주할 수밖에 없었던 재일 동포들은 오늘날까지 일본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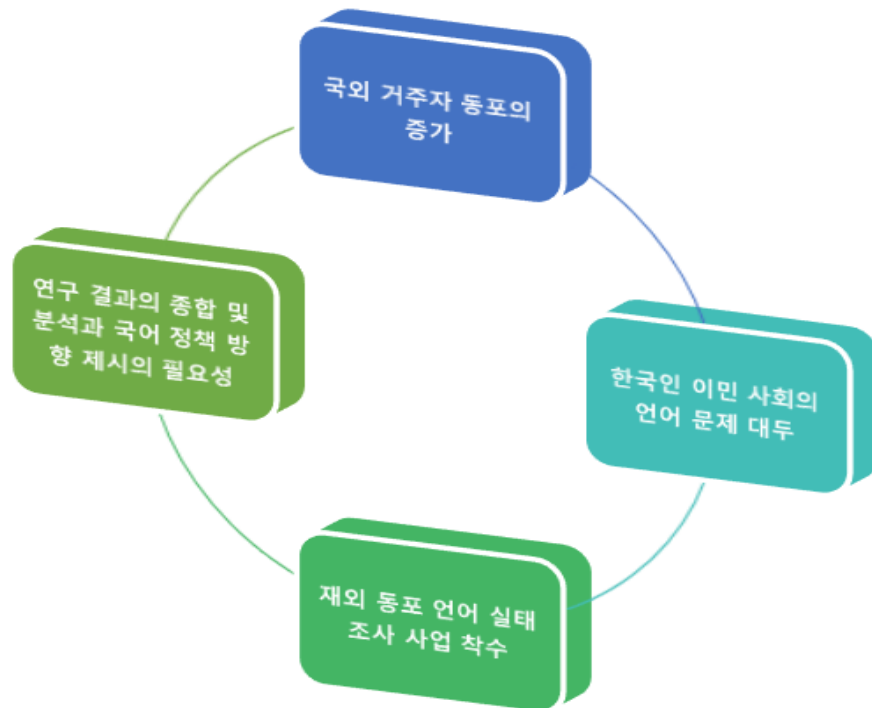
일본 식민지 시기의 재일 동포들은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일본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해방되면 귀국할 것에 대비하여 민족 교육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해방 후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분단은 ‘재일본 대한국민단(이하, 민단으로 표기)’과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이하, 총련으로 표기)’이라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조직을 탄생시켰고, 재일동포 사회의 분화는 민족 교육과 언어 사용, 한민족 전통의 계승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 사회에서 소수자(minority group)로서 살아가는 재일 동포는 “‘차별’과 ‘동화’ 사이를 방황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구조화된 사회적 갈등 속에서 삶을 강요당하며”(이영훈, 1988: 68) 더 이상은 민족적인 주체의식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들에서 2세나 3세 이하의 동포들은 민족 교육을 받지 않거나 일본으로 귀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재일 동포를 포함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동포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대두되었고 관련 연구들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재일동포의 언어 사용과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족 정체성은 언어나 문화를 통해서 전승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일 동포의 언어 연구는 동포들에게 필요한 거주국 사회의 적응과 민족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시키는 데 필요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민 사회의 언어 문제가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

1)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재일동포’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반도 출신의 사람으로서,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 조선적 사람(정진성, 2012: 259)” 및 그 후손을 모두 포함한다.

으며, 1990년대 이후 조금씩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사회적인 이유와 언어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사회적인 이유는 국외 동포 사회의 동질성과 연대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다는 점이고, 언어적인 이유는 국외 동포 사회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접촉했을 경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관한 언어 접촉 연구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임영철 외, 2011: 6). 이러한 사회적, 언어적 관심은 2010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 동포 언어 국제학술대회>로 이어졌고,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를 위한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후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도에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2012년 중국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독립국가연합, 2014년에는 미국, 2015년에는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후속 사업의 마지막 단계로서 본 연구는 재일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목적을 가진다. 첫째,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언어 능력과 학습, 민족 정체성 등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2011년부터 실시된 재외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종합하여 각 지역별 동포의 언어 특성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재일 동포뿐 아니라, 재외 동포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한국어 교육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그림 1> 재일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연구 배경

1.2. 연구 필요성

재일 동포 언어 연구의 필요성은 한반도의 분단과 함께 재일 동포 사회도 이념적으로 분화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구별된다 할 수 있다. 해방 직후 일본에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친북(親北) 성향의 총련이 설립한 조선학교와 친한(親韓) 성향의 민단이 설립한 한국학교가 있다. 특히 총련의 조선학교는 독자적인 교과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여 재일동포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고 민족교육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조선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총련 관계자 및 조선대학 졸업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규범이나 교재편찬에 있어서 북한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왔고, 총련의 산하에 있는 조직이지만 학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학제를 따르지 않고 일본의 학제를 따른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민단계 학교는 “대부분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인정하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한다”(송재목, 2011: 152). 이처럼 같은 재일 동포 사회 내에서도 상이한 민족 교육이 반세기 이상 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동포들의 한국어/조선어 사용과 민족 정체성도 함께 분화되었고 그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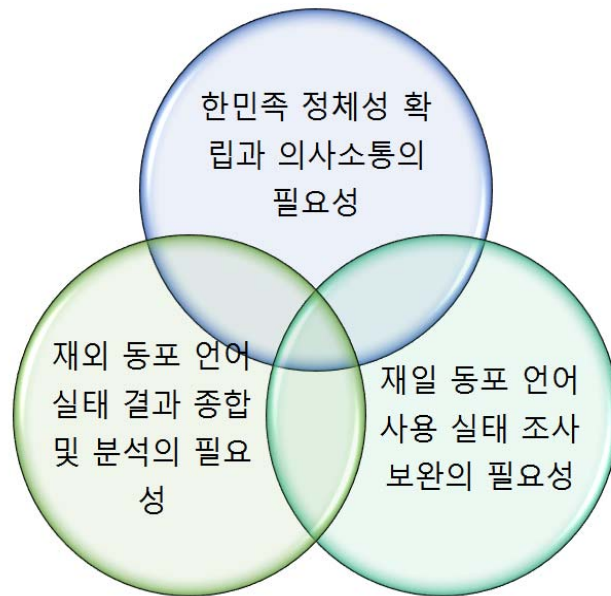
차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재일 동포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언어 실태를 종합 비교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 배경에는 거주국에서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한인들의 경우, 다른 이주민 집단과 마찬가지로 모국어와 민족 정체성이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한 사회를 다른 사회집단과 구별하는 주요한 수단이자 소속감의 표명이기도 하며”(문지희, 2013: 5), “민족성(ethnicity)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민족어(ethnic language)를 통해 한 민족 집단의 문화적 가치와 민족 주체성이 세대에 걸쳐 전승되기 때문에 민족어를 어느 정도 잘 하느냐는 민족 문화의 정체성이 세대 간에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윤인진, 1997: 257). 그래서 “독립운동은 민족어를 일차적 매개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문지희, 2013: 6), 일본 식민지 시기의 일본 정부가 한민족 정신의 표상으로서의 우리말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민족 교육을 탄압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외 동포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한민족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주 세대가 교체되는 현 시점에서 동포들의 한국어 사용이 점점 줄어든다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일 동포의 언어 사용을 연구한 오고시(1982)와 임영철(1992b, 1993)에 따르면, 일본에서 태어난 동포와 그 가정에서는 이미 일본어만을 사용하는 단일어화가 진척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의 연구 용역 과제로 임영철 연구팀이 수행한 <2011년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 보고서에서도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 1세는 5% 미만의 극소수에 불과하고 현재는 3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피식민지의 국민으로 수모와 핍박을 받은 이주 1세들과 달리, 2세 이하는 거주 의식이 강하고 귀화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고 있으며, 민족이나 혈통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고 있다. 언어 능력에 있어서도 세대가 낮아질수록 말하기나 쓰기 등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 미국, 독립국가연합, 중남미 등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차세대 동포들의 한민족 정체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 점은 그대로 언어와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민족 언어 소통이 단절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재일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의 다른 국가에서 수행된 동포들의 언어 실태 조사 결과와 종합하여, 한민족 언어 소통과 동포

사회의 결속 및 화합,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을 고취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한국어 교육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연구의 필요성

1.3.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재일 동포 언어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연구 대상의 범위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가 된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동포의 지역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오사카(약 18만 명), 도쿄(약 16만 명), 고베(약 6만 명), 나고야(약 5만 명), 요코하마(약 3만 명), 후쿠오카(약 2만 명), 히로시마(약 2만 명), 센다이(약 1만 명), 니가타(약 1만 명), 삿포로(약 5천 명) 순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2011년 연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오사카, 도쿄, 나고야를 대상으로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재일 동포의 언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재일 동포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사회 계층 및 참여 단체를 파악해야 한다.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특성이 언어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본 현지 공동 연구원 및 연구 보조원과의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재일 동포 단체 목록을 수집하고 참여자 집단과 비참여자 집단을 구분하여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의 수를 최대한 균일하게 나누었으며, 그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보자 기본 정보에 참여 집단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의 제보자 수는 도쿄 230명, 나고야 140명, 오사카 230 명으로 총 600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섭외하였고, 심층 면접 제보자 수는 도쿄 18명, 나고야 18명, 오사카 20명으로 총 56명을 섭외하여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설문지는 기존의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설계하였고, 다른 재외 동포와의 차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심층 면접 조사는 한국어 변종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 본 연구는 음운, 어휘,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균등하게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재외 동포의 한국어 인식과 태도에 대한 4가지 영역의 조사 설계와 조사 내용 측면을 종합 분석하여 제시하고, 둘째, 재일 및 재외 동포의 한국어 변종 유형과 특징을 대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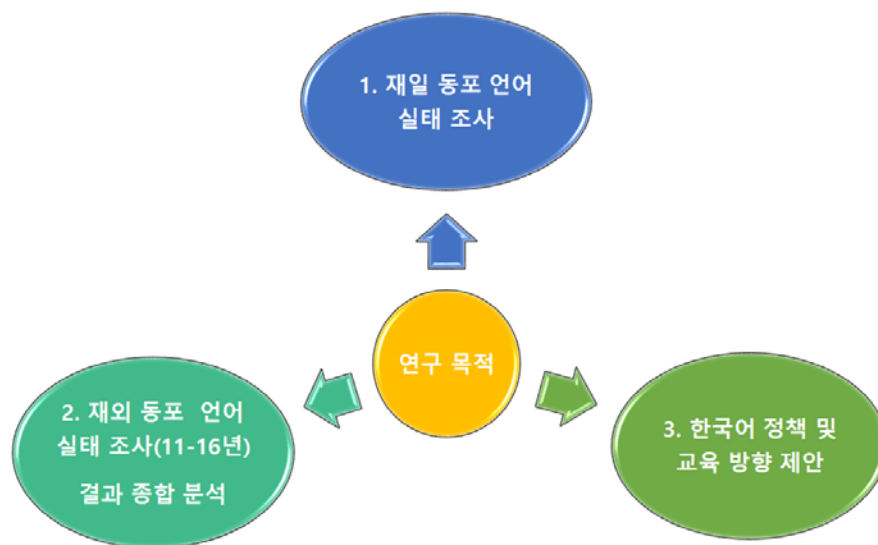
조사 설계에서는 조사 대상 지역 및 제보자 선정, 설문 및 심층 조사 항목을 대비 분석한다. 조사 내용 결과 종합 분석은 2011년-2016년의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범위의 구성 내용을 근거로 하여 예비적으로 동일 질문 항목을 추출하고 그 다음 유사 질문 항목을 추출한 뒤 추출된 항목 간 대비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결과 분석은 재일 동포의 언어 사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역사, 지리,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분석할 것이다.

한국어 변종 유형과 특징 대비 분석은 우선 선행 연구에서 조사된 변종 어휘를 수합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특징을 파악하여 발생 양상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다. 그 후에 변종 어휘의 특징을 유형별로 대비 분석한다. 아울러, 변종 어휘 분석 결과는 재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정책과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출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정책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1.4. 연구 의의

앞서 기술했듯이,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재일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세 지역에서 설문 조사와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언어 사용 및 특성, 민족 정체성 등을 분석하는 것

이다. 다른 하나는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한 2012년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실태 조사>, 2014년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언어 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를 위한 한국어 정책 및 교육 방향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그림 3> 재일 동포 언어 실태의 연구 목적

재일 동포의 언어 조사는 이미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에서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국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보급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였다는 점에서 오사카와 도쿄 지역에서 각각 81명과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중국(심층 면접 조사 48명, 설문 조사 785명), 독립국가연합(심층 면접 조사 88명, 설문 조사 976명), 미국(심층 면접 조사 60명, 설문 조사 1050), 중남미(설문 조사 700명(심층 면접 조사 세대별 100명씩 총 300명)의 연구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적인 측면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신 이민 1세가 55명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편중되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성별이나 교육 수준, 연령 등이 다양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보다 체계적

이고 철저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우선, 조사 대상 지역을 한 곳 더 추가하여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의 총 세 지역에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설문 조사의 경우,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재일 동포들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동포사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심층 면접 조사의 경우도,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물론, 동포사회단체의 사람들 중에서도 총련계 동포들과 민단계 동포들로 구분하여 한국어 변종의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총련과 민단은 반세기 이상 이념적으로 다른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조선어도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에 수행된 연구에서 한층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이고 균형 있는 방법으로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를 수행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재일 동포의 언어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11년부터 수행되어 온 재외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모두 비교분석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고 연구 결과의 일관성, 통일성, 체계성을 갖추려 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민족 정체성과 언어 소통 강화를 위한 한국어 정책을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 두 목적에 대해서 추상적이거나 상식적인 수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재외 동포 전체를 모두 포괄함과 동시에 각 지역 동포의 특성과 고유함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국어 교육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2장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2.1. 재일 동포 사회와 문화

2.1.1. 재일 동포의 이주 역사

일본 지역 동포 이주의 역사는 크게 한일합방 이전, 제1기(1910-1938), 제2기(1939-1945 8월 광복), 제3기(1945년 8월 광복-1980년대 말), 제4기(1980년대 말 이후)로 나눌 수 있다.²⁾ 여기서는 위와 같은 시기 구분으로 재일 동포의 이주 역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한일합방 이전

한일합방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한인은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합방 이전에는 한인 이주는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1기(1910-1938)

한일합방으로 한인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제한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되어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하게 되었다. 1920년대 산미증산계획을 계기로 한국의 농촌 사회가 파쇄해져 농촌 사회의 붕괴되었으며 그 결과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들의 이농현상으로 이어졌다.³⁾ 이는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던 한인들과 일본 내에서 한인 노동자의 고용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임금 상승 억제라는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식민지와 본국 사이의 노동력 이동이라는 구조적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시기의 이주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자발적인 이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때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 한인은 대부분 경상도, 제주도, 전라도 등 남한 지역 출신자들로 절대 다수가 농민 출신 남성이었다.

2) 전기호(2003:62)에서 제1기~제3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2011:17~19)에서는 보다 세분화하여 위와 같은 시기 구분을 하고 있다.

3) 김광열(2001:35~36) 참조.

3) 제2기(1939-1945 8월 광복)

그런데 1937년부터 본격적인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원활한 군수물자의 보급과 노동력의 공급을 위하여 한인들을 일본으로 강제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주로 탄광, 광산, 철강, 토목 사업들에 강제 동원되었다. 이 시기의 한인 이주자들은 대부분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하여 강제 징용된 것으로 이전 시기의 자발적 한인 이주자와는 다른 성격을 보인다.

4) 제3기(1945년 8월 광복-1980년대 말)

1945년 해방 이후, 한인들은 귀국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이 때 강제 징용당한 징용자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귀국하였다.⁴⁾ 이에 반해 일찍이 이주하여 일본에서 생활근거를 마련한 자발적 한인 이주자를 중심으로 일본 잔류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그 주요 원인으로 해방된 조국의 불안정한 정국과 일시 귀국 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본 잔류를 선택한 이들이 오늘날 재일동포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5) 제4기(1980년대 말 이후)

1980년대 말 이후, 한인들은 일본의 경제 호황기에 사업, 결혼, 유학 등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고 이들은 일본에서 새로운 한인 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통칭 ‘뉴커머’⁵⁾로 불리며, 이전 한인 이주자를 ‘올드커머’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2.1.2. 재일 동포 단체

현재 일본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재일 한인 단체로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이하 총련), 재일본한국인연합회(이하

4) 강덕상·정진성(1999: 129-155) 참조.

5) 生越直樹(2007:3-10)에 따르면, 재일 한국인은 그 이주 시기에 따라 크게 올드커머와 뉴커머라는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올드커머는 일본 강점기(1910~1945) 전후에 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으로 재일 한국인의 대부분은 이 그룹에 속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장래에도 일본에 거주할 의향을 갖고 있다. 뉴커머는 1980년대 이후 사업, 결혼, 유학 등의 이유로 이주한 사람으로 장래에 일본에 거주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따라 다시 두 그룹으로 하위 분류할 수 있다.

한인회)가 있다.

1) 민단⁶⁾

민단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재일동포들이 결성한 재일조선인연맹이 한반도의 신탁통치 문제로 좌익과 우익의 대립함에 따라 조선에서 이탈한 반공청년들이 중심이 된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과 1946년 1월에 결성한 신조선건설동맹이 합동하여 결성된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을 모태로 하여 1946년 10월에 결성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같은 해 9월 8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재일동포의 유일한 공인단체로 인정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28일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북한과의 정치적 연계를 확실히 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의 연대성을 명백히 하였다. 이후 1994년 4월 20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조직은 2002년 현재 도쿄의 중앙본부 산하에 49개의 지방본부와 317개의 지부, 2454개의 반(班)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민국의 국시(國是) 준수, 재일동포의 권익 옹호, 재일동포의 경제발전과 문화향상, 세계평화와 국제친선에 기여할 것을 강령으로 삼고 있으며,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 조직 활성화 운동, 차세대 육성 운동, 조국 평화통일 지원사업, 자립재정 확립 지원사업, 밝은 재일동포사회 구축 지원사업 등을 전개해오고 있다.

2) 총련⁷⁾

총련은 1955년 5월 한덕수의 주도로 결성되어 도쿄의 지요다구에 중앙본부를 두고 지역별로 지방본부와 지부·분회 등이 조직되었다. 그 산하에 청년동맹·여성동맹·교직원동맹·과학자협회·상공연합회 등의 계층별 단일단체를 두고 있다.

창립 이후 일본과 국교가 없는 북한의 사실상의 공관 역할과 재일동포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간 교섭창구 역할,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물질적 지원과 친북재일동포에 대한 교육사업 등의 기능을 해오고 있다.

6) 민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주소들을 참조.

www.mindan.org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8913&cid=40942&categoryId=31656>

7) 총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주소들을 참조.

<http://www.chongryon.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8916&cid=40942&categoryId=34513>

창립 초기에는 민단보다 구성원도 많고 사업도 활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의 재일동포(총련계 포함) 성묘단 모국 방문 사업, 1980년대 이후 지속된 한국의 경제 번영과 조총련계 상공인들에 대한 잦은 현금 강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등의 여파로 한국 국적 취득자가 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창립 초기의 구성원은 재일동포의 약 80%에 해당하는 43만 명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2010년 현재 약 9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조선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3만~4만 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점을 둔 교육사업도 쇠락하여 1980년대에 151개에 이르던 총련계 조선학교가 2009년 현재 100여 개로 줄어들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과거에 이념적으로 대립하던 민단과 모임을 함께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한인회⁸⁾

민단과 총련에 이은 제3의 재일동포 단체로, 2001년 5월 20일 도쿄에서 공식 발족하였다. 약칭 '한인회'라고 한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유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한 사람들, 이른바 '뉴커머(new comer)' 단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재일동포 단체인 민단과 총련과는 구별된다.

주로 요식업·숙박업·일반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4만여 명의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총 18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주권자 조직인 한국민단에 가입할 수 없고, 더욱이 정부의 손길도 제대로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어 재일동포 사회에서도 소외를 받아 왔다.

이러한 소외를 극복하고, 18만 재일 한국인들이 함께 모일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토론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취지로 결성되었다.

민단, 총련, 한인회를 포함한 주요 재일 동포 단체들은 <표 1>과 같다.

8) 한인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주소들을 참조 바람.

www.haninhe.c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6064&cid=43124&categoryId=43124>

<표 1> 재일 동포 단체

지역	동포 사회 참여자 집단	동포 사회 비-참여자 집단
도쿄	재일민단 도쿄 지부(청년회/학생회/부인회/체육회 등) 재일본한국인연합회(한인회) 도쿄한국학교 총련계 민족학교 주일한국대사관 주도쿄한국총영사관 도쿄 한국문화원 도쿄 한국교육원	재일코리안 변호사협회(LAZAK: Lawyers Association of ZAINICHI Koreans) 코리아NGO센터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문화센터 아리랑 재일본한국YMCA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재일한국청년동맹 도쿄대학/와세다대학/게이오대학 한국인 유학생회
오사카	재일민단 오사카 지부(청년회/학생회/부인회/체육회 등) 오사카 한인회 백두학원(민족학교) 금강학원(민족학교) 총련계 민족학교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 오사카 한국문화원 오사카 한국교육원	LAZAK 코리아NGO센터 공익재단법인 원코리아페스티벌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간사이 한국YMCA 재일대한기독교회 관서지방회 재일한국청년동맹 오사카대학 한국인 유학생회
나고야	재일민단 아이치 지부(청년회/학생회/부인회/체육회 등) 중부 한인회 주나고야한국총영사관 총련계 민족학교	LAZAK 재일대한기독교회 중부지방회 나고야대학 한국인 유학생회

2.1.3. 재일 동포의 한국어 교육 상황

재일 동포의 한국어 교육은 재일 동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상황 및 사회언어학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올드커머와 뉴커머, 세대, 취득한 국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양상이 다르다. 따라서 재일 동포의 한국어 교육은 다음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총련 및 민단계 소속의 전일제 학교인 민족학교에서 국어 교과로 이루어지는 것과 그 외의 교육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재일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기관

전일제 민족 학교	기타 교육 기관
총련계 조선학교 민단계 한국학교	한글학교(토요학교) 민족학급 정시제(定時制) 한국학원

1) 전일제 민족 학교

먼저 전일제 민족 학교는 재일 동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기관으로, 총련계의 조선학교와 민단계의 한국학교로 나누어진다.

총련계의 조선학교는 유치원 과정부터 대학까지의 완결된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방 이후 민족 정체성 교육이라는 취지로 시작하여 일본 정부와 북한의 갈등과 대립, 협조와 지원의 관계를 반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다(남운진, 2007:41). 「재일 동포 민족교육 현황 조사」(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2013:48)에 따르면 2013년 조선학교는 총 102개교(소재지 수 64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조선학교에는 한국 국적의 학생이 60%이상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로 재일 동포 4-5세대 정도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이들은 학교나 총련계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한국어 의사소통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2003년에는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구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으로 방침을 정하고 말하기와 듣기에 중점을 두면서 읽기와 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내용으로 국어 교과를 구성하였다. 또 학교 교육이 일본어 과목 외에는 모두 한국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교육과정에서 국어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초급 학교 입학 초기에는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1년 정도 지나면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남운진, 2007: 42). 덧붙이면 총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의 언어 규범을 따르고 있다.

민단계의 전일제 학교인 한국학교로는 도쿄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건국학교, 금강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총련계 조선학교의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과 일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학생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한국학교 초등학교의 학생 구성 (남윤진, 2007: 44)

출생지	인원수(명)	체류자격	인원수(명)
한국	311	영주자	81
일본	160	정주자	116
기타	0	일시체류자	230
		이중국적 및 외국인	44
합계	473	합계	473

일시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를 모어로 하면서 가정·지역 및 학교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본국으로 귀국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국의 교육 체제에 복귀하였을 때 문제가 없을 정도의 한국과 동등한 수준의 국어 교육 수준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일본 출생의 영주자 및 정주자인 학생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과 한국어 능력의 차이를 보이고 한국과 같은 수준의 국어 교과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 한국학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준별 분반 수업, 방과 후 보충 학습, 한국어 모어 화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와의 연계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남윤진, 2007: 45).

2) 기타 교육 기관

재일 동포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전일제 학교에서 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한국어 교육 외에도 기타 교육 기관에서 재일 동포 아동 및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재일 동포가 일본 학교에 다니는 현실을 인지하고 전일제 학교 외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러한 기타 교육 기관으로는 토요학교 등과 같은 한글학교, 민족학급, 정시제(定時制) 한국학원 등이 있다.

(1) 한글학교

한글학교는 개인이나 단체, 한국정부기관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비정규 학교로, 재일동포의 한국어 교육 기관 중 가장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통 야간과 주말을 이용하여 재일 동포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한글학교는 199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민단의 한국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요학교와 한국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민단의 한국학교에서는 일본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재일 동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쿄한국학교의 토요학교가 1993년 처음 개설된 이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시작 당시 90명에 불과했던 학생 수가 2014년 660명으로 증가했다.⁹⁾

그밖에 한국문화원이 재일동포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한 시설과 교사 역량 등의 자격 심사를 통해 한글학교로 등록하여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2015년 한국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는 155개소이며 학생 수가 564명으로 집계되었다(재외 동포 교육기관현황, 2015:5). 한글학교에서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2) 민족학급

민족학급은 민족교육을 위해 일본인 학교 안에 특별히 설치한 학급으로, 재일 동포 학생을 모두 일본인 학교에 전·입학시킨 이후 조선인으로서의 교육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48년 5월 5일 문부성과 조선인 대표 사이에 체결된 양해 각서 이후 문부성에서 ‘일반 소학교, 중학교 있어 의무 교육을 받는 것 이외에 방과 후 또는 휴일 등의 교육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각종학교에 재학시켜 조선인 독자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통달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전국의 조선인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학교의 과외 시간을 활용 한 조선인 아동·학생들의 특설 학급이 시작되었는데, 오사카에서는 특설 학급을 조선어학급이라고 불렀고, 후에 민족학급으로 변경되었다(박갑수, 2013: 194;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

9) 도쿄한국학교 홈페이지 참조(www.tokos.ed.jp).

구소, 2013: 28).

민족학급은 1952년 당시 전국의 77개 소·중학교에 설치되었고, 학생 50명에 1명씩 민족강사를 두었다. 이러한 민족학급은 강사의 노령화에 따른 퇴직과 일본 당국의 무대책 등으로 인해 1970년대 초에는 처음 수준의 1/3 수준인 10개교, 11명의 강사만 남아 쇠퇴하기도 하였으나, 1972년 특별활동 형식의 민족학급이 등장하면서 오사카 주변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 민족학급은 오사카·교토 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004년 오사카 시내에 96개교가 개설되어 있었다(박갑수, 2007: 386).

민족학급의 교육목표 중 언어·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자신과 관련된 민족의 언어·역사·문화 등에 대해 아는 동시에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민족과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大阪市民族講師會, 2004)’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민족학급의 한국어 교육은 민족교육의 일환으로 역사·문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정시제(定時制) 한국학원

일본 당국으로부터 학교 법인으로 인가 받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교토 신명학교, 애지원, 명고옥(名古屋) 한국학원 등이 있다. 한국학원에서는 저녁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성인 및 일본계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생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친다. 국적, 성별에 구별 없이 입학이 허용된다(박갑수, 2013:193).

2.2.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범위와 방법론

2.2.1. 조사 대상 지역 및 제보자 선정

2015년 외교통상부에서 조사한 재일 동포는 7,184,872명으로서 지역별 분포 수는 오사카가 184,467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도쿄(165,025명), 고베(65,828명), 나고야(58,768명), 요코하마(39,055), 후쿠오카(27,674명), 히로시마(23,604명), 센다이(11,839명), 니가타(10,708명), 삿포로(5,524명) 등의 순으로 재일 동포들이 분포하고 있다. 2011년 <국의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에서는 재일 동포 밀집 지역인 오사카, 도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연구 결과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동일하

게 오사카, 도쿄를 선정하였고, 추가적으로 상위 밀집 지역인 나고야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로서 일본 국적자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영주권자와 단기 체류자)을 포함하였다. 설문 조사의 경우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위 표집 방법(random sampling method)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금전적 제약과 연구 목적 등을 고려하여 비확률 표집방법 중 하나인 할당 표집 방법(quota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의 결과는 실제 모집단과 어느 정도 표집오차(sampling error)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제보자 선정은 성별, 연령, 혼인 유무, 학력, 이주 세대, 직업, 소속 단체, 출생지, 거주지 등 인구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할 대상자들은 선행 조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 14세 이상의 남녀 한인들로 구성하였고, 이중 단기 체류자는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자만을 표집하였다. 목표 조사 대상자 수는 도쿄 230명, 나고야 140명, 오사카 230명으로 총 6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조사 대상 지역과 제보자의 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설문 조사 대상 지역 및 제보자의 수

		설문조사			
		60세 이상	30~59세	14~29세	계
오사카	남	35	50	30	230
	여	35	50	30	
도쿄	남	35	50	30	230
	여	35	50	30	
나고야	남	20	30	20	140
	여	20	30	20	
계		180	260	160	600

심층면접 조사의 경우, 제보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이

주시기에 따라 올드커머와 뉴커머로 구분하였다. 올드커머는 다시 재일동포 사회의 참여 여부에 따라 참여자와 비참여자로 구분하였으며, 참여자의 경우 소속 단체에 따라 민단과 총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일본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나 부모 중 한쪽이 재일동포일 때, 한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 대상자로 분류하였다.

심층면접 조사의 제보자 수는 오사카 20명, 도쿄 18명, 나고야 18명으로 지역, 세대, 성별, 동포 사회 참여(민단, 총련), 비참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심층 면접에 참여하는 피면접자들은 해당 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할 정도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별 세대 및 성별에 따른 제보자 수는 <표 5>와 같다.

<표 5> 조사 지역별 세대 및 성별에 따른 제보자 수

조사 대상 지역 및 제보자 수		심층면접조사			
		60 이상	30~59	14~29	계
오사카	남	3	3	3	20
	여	3	4	4	
도쿄	남	3	3	1	18
	여	3	3	5	
나고야	남	3	3	3	18
	여	3	3	3	
계		18	19	19	56

동포 사회 참여자(민단, 총련)와 비참여자에 따른 제보자 수는 <표 6>과 같다.

<표 6> 조사 지역별 동포 사회 참여자와 비참여자에 따른 제보자 수

조사 대상 지역 및 제보자 수		심층면접조사			
		민단	총련	비참여	계
오사카	남	3	3	3	20
	여	3	4	4	
도쿄	남	4	2	1	18
	여	4	1	6	
나고야	남	3	6	0	18
	여	2	6	1	
계		19	22	15	56

2.2.2.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 범위

2016년 재일 동포 대상 언어 실태 조사는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 방법론을 바탕으로 조사된 2012년 <중국 동포 언어 실태 조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실태 조사>, 2014년 <재일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에 기초하여 설계하였고, 재일 동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 및 추가하였다.

재일 동포 언어 사용 실태의 조사 범위는 크게 ‘한국어에 대한 재일동포의 언어 의식’과 ‘사회에서 발생한 한국어 변종’ 영역으로 나뉜다. 설문조사는 한국어에 대한 재일 동포의 언어 의식 영역에 대한 조사로서 ‘언어 인식과 태도’, ‘언어 능력’, ‘언어 사용’, ‘언어 학습’, ‘한민족 정체성과 일본인 정체성’, ‘한국문화 및 미디어 접촉’ 총 6개의 영역을 그 범위로 한다.

언어 인식과 태도 부문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어와 일본어 능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어 및 일본어 학습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으로 세분하여 자세하게 조사한다. 언어 능력 부문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의 언어 능력에 대하여 각각 네 등급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언어 사용 부문에서는 언어 선택과 자주 사용하는 언어의 순위를 비롯하여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을 면밀하게 조사한다. 언어 습득과 한국어 교육 부문에서는 한국어 학습 여부, 한국어 학습 시기와 장소, 한국어 학습 동기, 한국어 교육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조사한다.

언어 사용과 능력은 개인의 사회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사용 실태에서는 민족 정체성과 국민 정체성에 관한 문항들을 개발해서 설문지에 포함했다. 언어 실태 조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도 한민족 정체성과 일본인 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개인의 사회 정체성과 언어 사용과 능력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한류의 확산과 정보화의 발달로 재일 동포들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거의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촉은 한국어 능력과 한민족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일 동포의 한국 문화 콘텐츠 접촉 수준과 방법, 한국어에 대한 태도와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6개의 조사 영역 중, ‘언어 능력’, ‘한민족 정체성과 일본인 정체성’,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 3개 영역은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에서 제시한 조사 범위에 더하여 새롭게 추가한 영역이다.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의 범위에는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언어 변종을 파악하는 것도 포함된다. 언어 변종은 그 특성상 조사 범위가 언어 형식과 관련된다. 따라서 음운, 어휘, 문법 형태가 조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심층면접조사는 사회에서 발생한 한국어 변종에 대한 조사로서 ‘음운’, ‘어휘’, ‘문법’ 3개 영역을 그 범위로 하였다.

음운 영역에서는 음운 현상과 관련된 형식의 변종이 조사 범위가 되며, 어휘는 한국어와 일본어 사용 사이에서 언어 전환(code-switching)이 일어나는 경우로서 2011년의 연구에 따르면, 부사, 조사, 접속사 등의 품사를 단위로 전환하는 것과 문장에서 주어부를 한국어로 하고 술어부를 일본어로 전환하는 문장 내 전환(intrasentential-switching)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한국어 사용에서 가족과 친족 호칭, 주방 도구 등에 대해서 한국어 단어를 차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문법은 주격 조사 ‘이’가 쓰였음에도 또다시 ‘가’가 첨가되는 경우, ‘-하다’에 해당하는 일본어의 ‘-する’가 결합한 ‘짹아する(짜다)’, ‘시이する(음식이 쉬다)’와 같은 복합 형식이 사용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음운, 어휘, 문법 외에도 다양한 중간언어 어휘들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모든 변종들이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2011-15 연구 보고서들은 주로 ‘어휘 전환’, ‘중간 언어 사용’에 대한 조사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3개 영역을 균형적으로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진행된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의 범위와 내용은 언어 인식, 언어 능력, 사용 언어, 언어 습득과 한국어 교육, 한민족 정체성과 일본인 정체성,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과 같은 재일 동포의 한국어 언어 의식 전반에 관련된 것과 재일 동포 사회에서 발생한 언어 영역들의 한국어 변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의 범위와 내용

조사 범위		조사 내용
한국어에 대한 재일동포의 언어 의식	언어 인식과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어 및 일본어 능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어 및 일본어 학습에 대한 인식과 태도
	언어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및 일본어 말하기 능력(4단계) •한국어 및 일본어 듣기 능력(4단계) •한국어 및 일본어 읽기 능력(4단계) •한국어 및 일본어 쓰기 능력(4단계)
	언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 사용 순위 •가족 간 언어 사용 •대상에 따른 언어 사용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언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학습 여부 •한국어 학습 시기와 장소 •한국어 학습 동기 •한국어 교육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한민족 정체성과 일본인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민족 정체성의 수준과 양상 •일본인 정체성의 수준과 양상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 관계 •정체성과 언어 사용 간의 관계
	한국문화 및 미디어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화 콘텐츠 시청 수준과 방법 •한국 문화 콘텐츠 시청, 한국어에 대한 태도, 한국어 능력 간의 관계 •인터넷 기반 한국어 교육 수요 조사
재일동포 사회에서 발생한 한국어 변종	음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운 변이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 전환(switching) •한국어 어휘 차용 •중간 언어 사용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법 형태소 오용

2.2.3. 설문 및 심층 면접 조사 방법론

2.2.3.1. 설문 조사 설문지 설계 및 분석 방법

앞 절에서 제시한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범위와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한 설문지의 세부 구성과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설문지 구성과 내용

하위 영역	세부 내용 (문항 수)	문항 유형	설문 예시 / 하위 항목
언어 의식	모국어 의식	선택형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언어 능력에 대한 의식	척도형	재일 동포는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	척도형	재일 동포는 한국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	척도형	재일 동포는 한국어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지어 능력의 필요성	척도형	재일 동포는 일본어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어 학습 의지	척도형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한국어의 장래	선택형	앞으로 일본에서 한국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알아듣는 말	기입형	잘 알아듣는 말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잘 해야 하는 말	기입형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후손이 쓰게 될 말	기입형	후손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말을 순서대로 쓰세요.
	한인 사회에서 쓰일 말	기입형	앞으로 재일 동포들이 사용하게 될 말을 순서대로 쓰세요.
	한국어의 긍정적 느낌	선택형	한국어는 어떤 좋은 느낌이 있습니까?
	한국어의 부정적 느낌	선택형	한국어는 어떤 나쁜 느낌이 있습니까?
	한국어 이해의 어려움	선택형	한국어의 어떤 점 때문에 알아듣기 어렵습니까?

언어 능력	잘하는 말의 순위	기입형	잘하는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한국어 및 일본어 말하기 능력(4단계)	척도형	한국어 1, 2, 3, 4단계 일본어 1, 2, 3, 4단계
	한국어 및 일본어 듣기 능력(4단계)	척도형	한국어 1, 2, 3, 4단계 일본어 1, 2, 3, 4단계
	한국어 및 일본어 읽기 능력(4단계)	척도형	한국어 1, 2, 3, 4단계 일본어 1, 2, 3, 4단계
	한국어 및 일본어 쓰기 능력(4단계)	척도형	한국어 1, 2, 3, 4단계 일본어 1, 2, 3, 4단계
언어 사용	평소에 쓰는 말의 순위	기입형	평소에 많이 쓰는 말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가족과 쓰는 말의 순위	기입형	가족끼리 말할 때 많이 쓰는 말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가족 간 언어 사용	선택형	윗세대 / 동세대 / 아랫세대 / 이민족 가족
	대상에 따른 언어 사용	선택형	재일 동포 비공식 / 재일 동포 공식 / 재일 동포 + 현지인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선택형	숫자 / 기도 / 말싸움
언어 학습	한국어 학습 여부	선택형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한국어 학습 장소	선택형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한국어 학습 기간	선택형	한국어를 배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어 학습의 어려움	선택형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한국어 학습 시 필요 사항	선택형	한국어를 배울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민족 정체성과 국민 정체성	이주 역사	선택형	한인 이주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한민족 역사 교육	선택형	한민족 역사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한민족 문화	기입형	집안에 남아 있는 한민족의 문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족 정체성	척도형	민족 정체성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정체성	척도형	국민정체성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	한국 방문 여부	선택형	한국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 뉴스 시청 여부	선택형	평소에 한국 뉴스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한국 드라마 및 오락프로 시청 여부	선택형	한국의 드라마 및 오락프로를 시청하십니까?

이상의 설문지는 도쿄, 나고야, 오사카 각 지역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현지 연구원과 조사팀의 협조 아래에서 배부되었으며, 최종적으로 632부가 수합되었다. 설문 조사의 경우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최대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제일 동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계획할 때 선정한 제보자 수와 최종적으로 수합된 설문지 수를 비교한 수치는 다음과 같다. 각 지역별로 조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나고야 지역에서는 계획한 대로 14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도쿄 지역에서는 60세 이상의 조사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목표 수치의 50%에 해당하는 35부만 확보하였다. 그 대신 다른 연령층에서 추가적인 대상자를 섭외하여 총 233부의 설문지를 수합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사카 지역에서는 전 연령층에서 계획한 수량보다 29부 더 많은 259부를 확보하였다. 결과적으로 14~29세와 30~59세 연령대에서는 각각 약 30부 정도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60세 이상은 목표한 180부보다 29부 적은 151부를 수집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실제 섭외된 설문 조사 대상자 수

		설문조사 대상자 수			
		60세 이상	30~59세	14~29세	계
오사카	남	35 (38)	50 (55)	30 (33)	230 (259)
	여	35 (39)	50 (61)	30 (33)	
도쿄	남	35 (13)	50 (56)	30 (42)	230 (233)
	여	35 (22)	50 (57)	30 (40)	
나고야	남	20 (19)	30 (31)	20 (22)	140 (140)
	여	20 (20)	30 (30)	20 (18)	
계		180 (151)	260 (292)	160 (189)	600 (632)

* 괄호 안의 수치는 실제 섭외된 설문조사 대상자 수

수집된 설문지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고, 입력된 데이터는 통계프로그램(SPS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각 항목에 대한 기본 분석은 기초통계분석을 통하여 비율과 사례수를 조사했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교차분석은 변수들의 종류에 따라 카이제곱검증

(chi-square test)과 두 독립표본 t 검정(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재외 동포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2011 국외 동포 조사, 2012 재중 동포 조사, 2013 독립국가연합 동포 조사에서는 설문 조사 결과를 빈도 분석하여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2014 재미 동포와 2015 중남미 동포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 t 검정과 일원변량분석과 같은 추론 검정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재일 동포의 언어 실태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 간의 교차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단순한 퍼센트의 증감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유의미한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향후 재외 동포의 한국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의 모든 문항들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각 문항별 사례수와 비율값을 도출하였다. 둘째, 주요 문항에 대해서는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연령, 이주 세대, 성별, 동포사회 단체 참여여부 변수들과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변수는 모두 명목척도이기 때문에 등간척도(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항들과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두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일원변량분석에서는 추가적으로 Duncan의 사후검정(Duncan's post hoc test)을 실시하여 집단 간 평균값 차이의 크기를 알아보았다. 한편, 명목척도로 구성된 설문 문항에 대해서는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2.3.2. 심층 면접 조사 기술/설문지 설계

한국어 변종 자료 조사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한국어/조선어가 일본어와의 접촉 등에 의해 변형되거나 혼합적 발달로 나타난 형태들을 말한다. 이는 재일동포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조선어의 음운, 어휘, 문법 형태들이 일본어의 영향과 유입으로 새로운 형태를 보이거나 혼종어(hybrid)를 생성한 것, 그리고 의미 차이를 보이거나 차용된 것 등을 포괄한다. 본 연구팀의 심층면접조사 기술/질문지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심층 면접 질문지

심층 면접 질문지		
유형	어휘	질문 예시
어휘	아버지, 어머니 등의 친족 명칭	부모 중에서 남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밥, 숟가락, 젓가락 등의 일상어	끼니마다 먹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온돌, 구두, 담배 등의 귀화어	바닥을 따뜻하게 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휴대전화, 가스 등의 차용어	손에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법	연결어미	(밥을 먹고 난 뒤에 텔레비전을 볼 때) 밥을 <u>먹고</u> <u>서</u> 텔레비전을 보았다.
	대우법	할아버지() 신문을 보()다. 할아버지께서 잠을 ()신다.
	부정법	(밥 먹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려면) 아니, 아직 <u>안 먹었어</u> / 아니 아직 <u>먹지 않았어</u> .
	사동과 피동	(우스운 이야기를 하여 남을 웃게 할 때) 웃기다 잘못해서 손가락이 문틈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끼이다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한민족 이주민들이 일본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적 변종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의 한국어 변종 자료의 조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의 원 방언들 간의 융합이나 자체적으로 생겨난 변종이다. 다양한 원 방언을 가진 이주민들이 일본에서 살면서 여러 방언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한국어 변종을 조사한다.

둘째, 일본어의 간섭에 따른 한국어 변종이다. 재일 동포들이 집단거주지에 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용어인 일본어와의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국어에 일본어에 의한 간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간섭에 의해 형성된 변종을 조사한다.

재일동포의 한국어/조선어 변종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어/조선어 변종 자료 조사를 위한 심층면접조사는 직접조사와 간접조사

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직접조사는 위의 심층 면접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질문지의 각 조사 항목은 기존의 연구 업적들을 참고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이 수집한 변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선정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보자들은 올드커머인 경우 일상생활에서 한국어/조선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조사에서 조사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조사의 방법 또한 병행하여 진행한다. 이러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해 질문 항목을 조사하거나 일상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보자가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내용 속에서 새로운 한국어/조선어의 변종을 포착하고, 필요한 경우 심층조사 질문지와 관련 없는 구술발화를 녹음하여 그 전사 자료를 통해 한국어/조선어의 변종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심층 면접 조사는 도쿄는 2016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나고야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오사카는 8월 27부터 8월 31일까지 각각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는 1인당 50분~ 90분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2.3.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결과 분석

2.3.1. 설문 조사 결과 분석

2.3.1.1. 응답자의 기본 정보 분석 결과

1) 기본 분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체 응답자의 수는 632명이며, 이 중에서 남자가 309명, 여자가 320명으로 거의 비슷한 성별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는 10대와 20대가 2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0대 이상(23.9%)이었으며, 다른 연령대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정도였다. 혼인여부에서는 기혼자(49.5%)가 미혼자(27.7%)보다 많았으며, 모름/무응답 비율도 22.8%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혼인여부를 묻는 설문 문항이 배우자 민족을 함께 기입하도록 설계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이 문항 자체를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 미혼자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조사(pilot study)와 사전조사

(pre-test)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했어야 하나, 시간과 비용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엄밀하게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편,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전문대학 이상이 63.4%로 고졸이하(34.5%)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아 응답자의 학력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주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응답자의 세대를 살펴보면, 1세대(26.3%)와 2세대(26.6%)가 유사했고, 3세대 이상(42.2%)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학생(19.1%),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18.2%), 사무직(18.0%)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농림·어업·임업 종사자는 0.5%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처럼 응답자들의 직업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도쿄 지역의 응답자 수는 총 233명이고, 여자(51.1%)가 남자(47.6%)보다 조금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고, 30대(14.6%), 40대(17.2%), 50대(17.6%), 60대 이상(15.0%)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도쿄 지역 응답자의 혼인 여부는 기혼자(47.2%)가 미혼자(30.9%)보다 훨씬 많았으며, 학력도 전문대학 이상(69.1%)이 고졸이하(28.3%)보다 많았다. 다음으로 세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1세대와 3세대 이상의 응답자는 각각 36.9%와 34.8%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2세대 동포의 비율(20.6%)이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학생(26.6%), 사무직(20.2%),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17.2%), 판매·서비스직(15.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나고야 지역의 응답자 분포를 살펴보면, 응답자 140명 중에 남성 응답자(51.4%)가 여성 응답자(48.6%)보다 조금 더 많았다. 연령대는 10대와 20대(28.6%), 60대 이상(27.8%), 40대(20.0%), 50대(15.7%)의 순으로 높았으며, 30대의 비율이 7.9%로 가장 낮았다. 혼인여부와 학력은 도쿄 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기혼자(53.6%)가 미혼자(22.1%)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응답자의 62.2%가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이상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은 학생(19.3%),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16.4%), 사무직(15.7%), 전업주부(14.3%), 판매·서비스직(13.6%)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 나고야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2세대(36.4%)와 3세대 이상(49.3%)의 응답자 비율이 1세대(10.0%)보다 훨씬 많았다.

마지막으로, 오사카 지역 응답자 수는 259명이고, 여성 응답자(51.4%)가 남성 응답자(48.6%)보다 조금 더 많았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2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0대와 20대(25.5%), 30대(19.3%), 40대(16.2%)의 순이었으며, 50대 응답자 비율(9.3%)이 가장 낮았다. 또한,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기혼자(49.4%)가 미혼자(27.8%)보다 많았으며, 학력도 전

문대학 이상(59.1%)이 고졸이하(39.0%)보다 많았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3세대 이상 동포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1세대(25.5%)와 2세대(26.6%)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오사카 지역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는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20.1%)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직(17.4%), 판매·서비스직(14.7%) 순이었다.

<표 11> 응답자 분포

	전 체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	
	N	%	N	%	N	%	N	%
	632	100	233	100	140	100	259	100
성 별								
남자	309	48.9	111	47.6	72	51.4	126	48.6
여자	320	50.6	119	51.1	68	48.6	133	51.4
모름/무응답	3	0.5	3	1.3	0	0	0	0
연 령								
10-29세	189	29.9	83	35.6	40	28.6	66	25.5
30-39세	95	15.0	34	14.6	11	7.9	50	19.3
40-49세	110	17.4	40	17.2	28	20.0	42	16.2
50-59세	87	13.8	41	17.6	22	15.7	24	9.3
60세 이상	151	23.9	35	15.0	39	27.8	77	29.8
모름/무응답	0	0	0	0	0	0	0	0
혼인 상태								
기혼	313	49.5	110	47.2	75	53.6	128	49.4
미혼	175	27.7	72	30.9	31	22.1	72	27.8
모름/무응답	144	22.8	51	21.9	34	24.3	59	22.8
최종학력								
고졸이하	218	34.5	66	28.3	51	36.4	101	39.0
전문대학 이상	401	63.4	461	69.1	87	62.2	153	59.1
모름/무응답	13	2.1	6	2.6	2	1.4	5	1.9
세 대								
1 세대	166	26.3	86	36.9	14	10.0	66	25.5
2 세대	168	26.6	48	20.6	51	36.4	69	26.6
3 세대 이상	267	42.2	81	34.8	69	49.3	117	45.2
모름/무응답	31	4.9	18	7.7	6	4.3	7	2.7
직 업								
농림·어업·임업	3	0.5	1	0.4	0	0	2	0.8
기능·기계 조작 및 조립	32	5.1	6	2.6	7	5.0	19	7.3
단순 노무	12	1.9	2	0.9	7	5.0	3	1.2
판매·서비스직	93	14.7	36	15.5	19	13.6	38	14.7
사무직	114	18.0	47	20.2	22	15.7	45	17.4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	115	18.2	40	17.2	23	16.4	52	20.1
전업주부	62	9.8	19	8.2	20	14.3	23	8.9
학생	121	19.1	62	26.6	27	19.3	32	12.4
무직	44	7.0	6	2.6	9	6.4	29	11.2
기타	16	2.5	7	3.0	2	1.4	7	2.7
모름/무응답	20	3.2	7	3.0	4	2.9	9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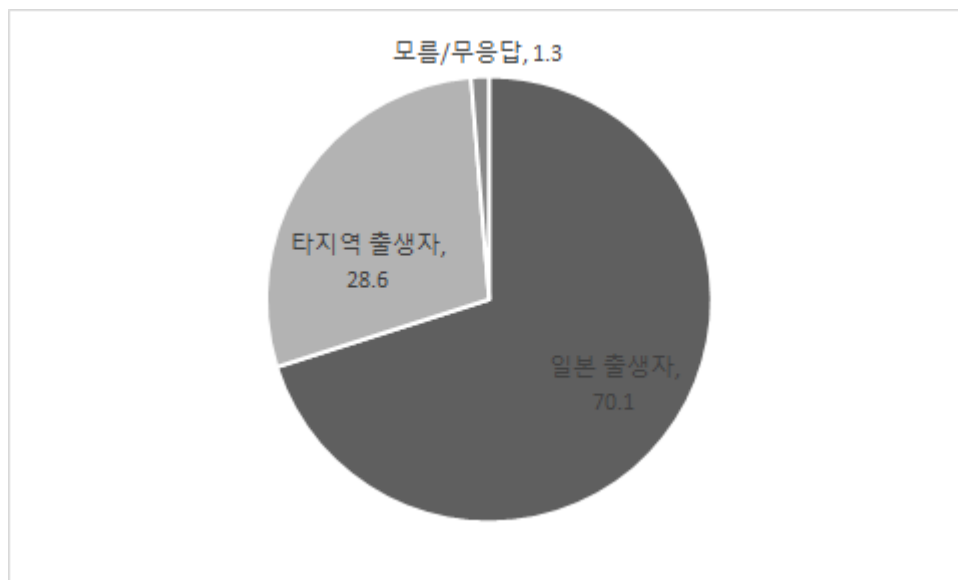
(2) 일본 출생 여부

조사 대상자는 일본 출생자의 비율(70.1%)이 타 지역 출생자의 비율(2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나고야 지역이 87.9%, 오사카 지역이 74.5%, 도쿄 지역이 54.5%로, 나고야 지역과 오사카 지역의 조사 대상자는 일본 출생의 비율이 높으며, 도쿄 지역 조사 대상자는 일본 출생의 비율과 타 지역 출생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일본 출생 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	
	N	%	N	%	N	%	N	%
일본 출생자	443	70.1	127	54.5	123	87.9	193	74.5
타지역 출생자	181	28.6	100	42.9	16	11.4	65	25.1
모름/무응답	8	1.3	6	2.6	1	0.7	1	0.4
합계	632	100	233	100	140	100	259	100



(단위: %)

<그림 4> 일본 출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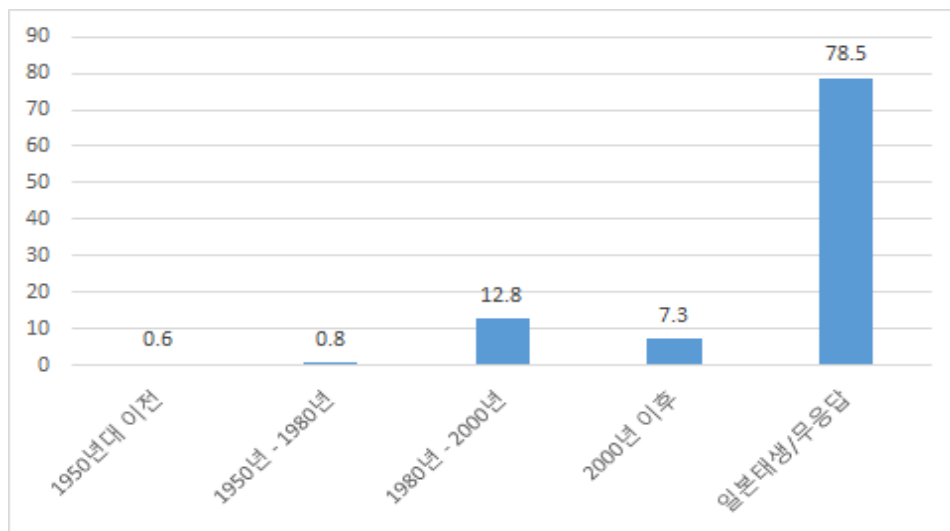
(3) 일본으로 이주 시기

일본에서 출생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 일본으로의 이주 시기를 응답한 비율은 21.5%이다. 이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으로의 이주 시기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의 비율이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주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2000년 이후 이주한 비율이 7.3%로 높았으며, 1980년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비율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일본으로의 이주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13> 조사 대상자의 일본으로 이주 시기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1950년대 이전	4	0.6
1950년 - 1980년	5	0.8
1980년 - 2000년	81	12.8
2000년 이후	46	7.3
일본태생/무응답	496	78.5
합계	632	100



(단위: %)

<그림 5> 조사 대상자의 일본으로 이주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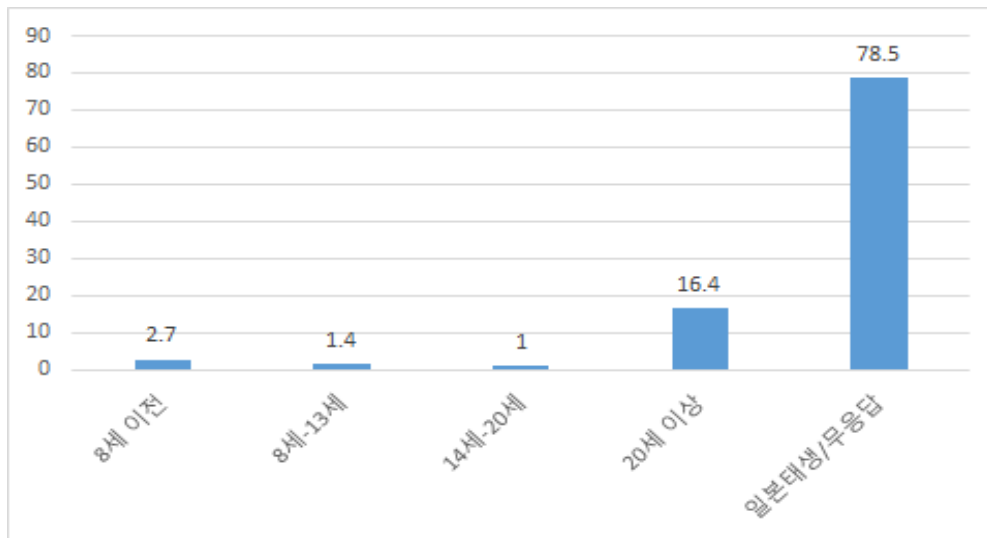
(4) 일본으로 이주 당시 나이

일본으로의 이주 당시 나이를 살펴보면, 20세 이후(16.4%)에 이주한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20세 이전에 이주한 비율은 5.1%에 불과했다.

<표 14> 조사 대상자의 일본으로 이주 당시 나이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비 율
8세 이전	17	2.7
8세-13세	9	1.4
14세-20세	6	1.0
20세 이상	104	16.4
일본태생/무응답	496	78.5
합 계	632	100



<그림 6> 조사 대상자의 일본으로 이주 당시 나이 (단위: %)

(5) 출신 학교별 비율¹⁰⁾

조사 대상자의 출신 학교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두 ‘일본 학교’를 다녔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다. ‘조선 학교’의 경우, 소학교와 중학교에선 응답자의 22.0%가 다녔지만, 상위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졌다. 이는 대학에 진학을 희망할 경우, 민족 학교보다는 일본 학교가 더 유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민족 학교의 학비가 부담이 되어서 소학교와 중학교 수준까지만 자녀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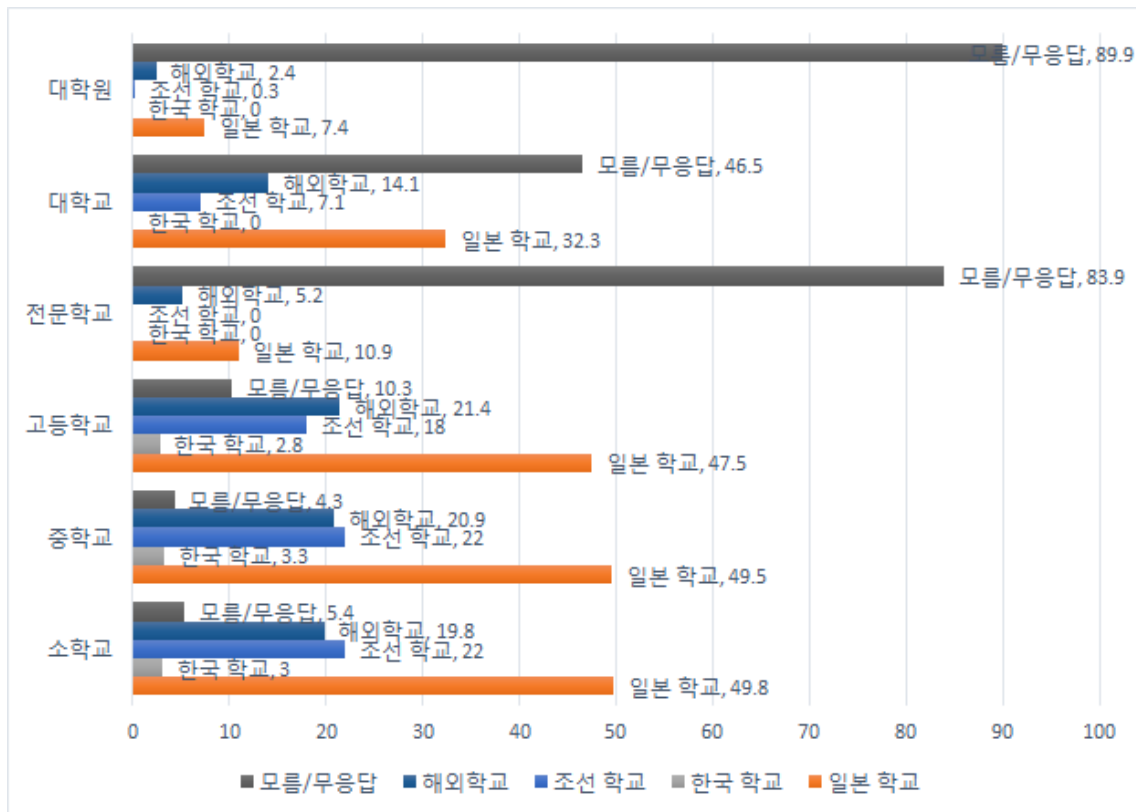
<표 15> 조사 대상자의 출신 학교별 비율

(단위: 명, %)

구 분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대학원	
	N	%	N	%	N	%	N	%	N	%	N	%
일본 학교	315	49.8	313	49.5	300	47.5	69	10.9	204	32.3	47	7.4
한국 학교 ¹¹⁾ (민단계)	19	3.0	21	3.3	18	2.8	—	—	—	—	—	—
조선 학교 (조총련계)	139	22.0	139	22.0	114	18.0	—	—	45	7.1	2	0.3
해외학교 (한국 포함)	125	19.8	132	20.9	135	21.4	33	5.2	89	14.1	15	2.4
모름/무응답	34	5.4	27	4.3	65	10.3	530	83.9	294	46.5	568	89.9
합계	632	100	632	100	632	100	632	100	632	100	632	100

10) 소학교를 ‘일본 학교’와 ‘조선 학교’ 둘 다 다닌 경우와 같이 일부 응답 중에 중복 응답이 있었으나, 그 사례수가 많지 않아서 결측값으로 처리하였음.

11) 응답자들 중에 한국 학교를 한국에 있는 학교로 오해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나, 이러한 사례는 응답자의 출생지 및 이주시기 등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수정하였음.



(단위: %)

<그림 7> 조사 대상자의 출신 학교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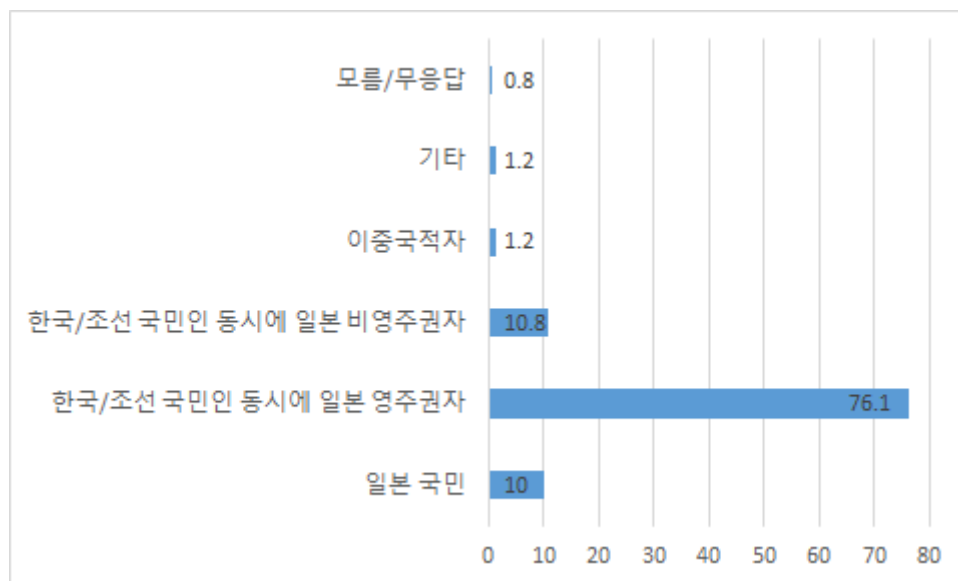
(6) 현재 법적 지위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76.1%)은 ‘한국/조선 국민인 동시에 일본 영주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고야 지역은 일본 국적만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도 25.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국적자의 비율(2.9%)과 합하면 전체 일본 국적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28.6%로, 다른 조사 지역보다 3배가량 높다.

<표 16> 조사 대상자의 현재 법적 지위(국적)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	
	N	%	N	%	N	%	N	%
일본 국민	80	10.0	18	7.7	36	25.7	26	10.0
한국/조선 국민인 동시에 일본 영주권자	460	76.1	168	72.1	95	67.9	197	76.1
한국/조선 국민인 동시에 일본 비영주권자	69	10.8	38	16.3	3	2.1	28	10.8
이중국적자	12	1.2	5	2.1	4	2.9	3	1.2
기타	6	1.2	2	0.9	1	0.7	3	1.2
모름/무응답	7	0.8	2	0.9	1	0.7	2	0.8
합계	632	100	233	100	140	100	259	100



(단위: %)

<그림 8> 조사 대상자의 현재 법적 지위(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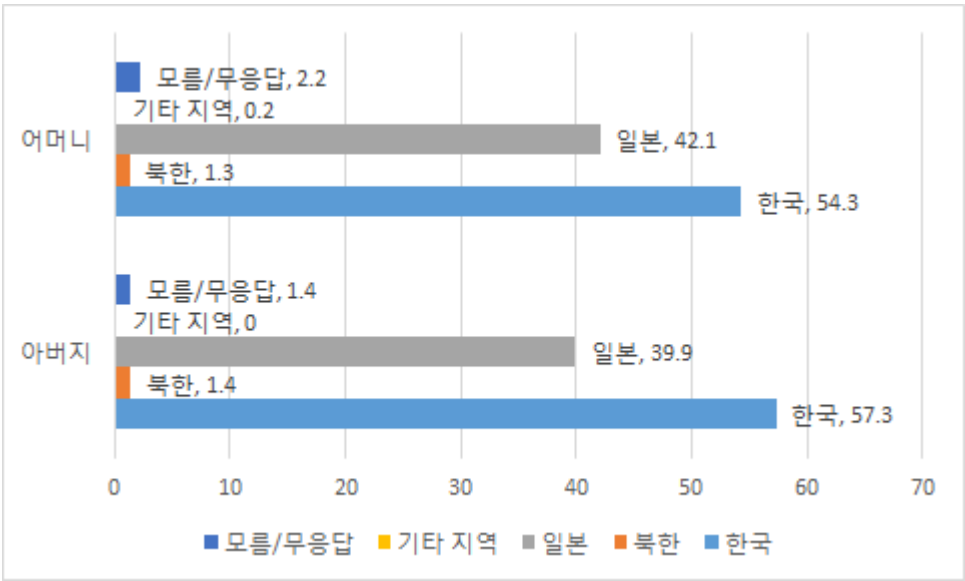
(7) 부모님의 출생지

조사 대상자의 부모 출생지는 한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 북한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일본에서 출생한 비율이 아버지가 39.9%, 어머니가 42.1%로 나왔는데, 이는 응답자 본인도 일본 출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일교포 3세 이상의 비율로 볼 수 있다.

<표 17> 조사 대상자의 부모님 출생지 (단위: 명, %)

구 분	아버지		어머니	
	N	%	N	%
한국	362	57.3	343	54.3
북한	9	1.4	8	1.3
일본	252	39.9	266	42.1
기타 지역	0	0	1	0.2
모름/무응답	9	1.4	14	2.2
합계	632	100	632	100



(단위: %)

<그림 9> 조사 대상자의 부모님 출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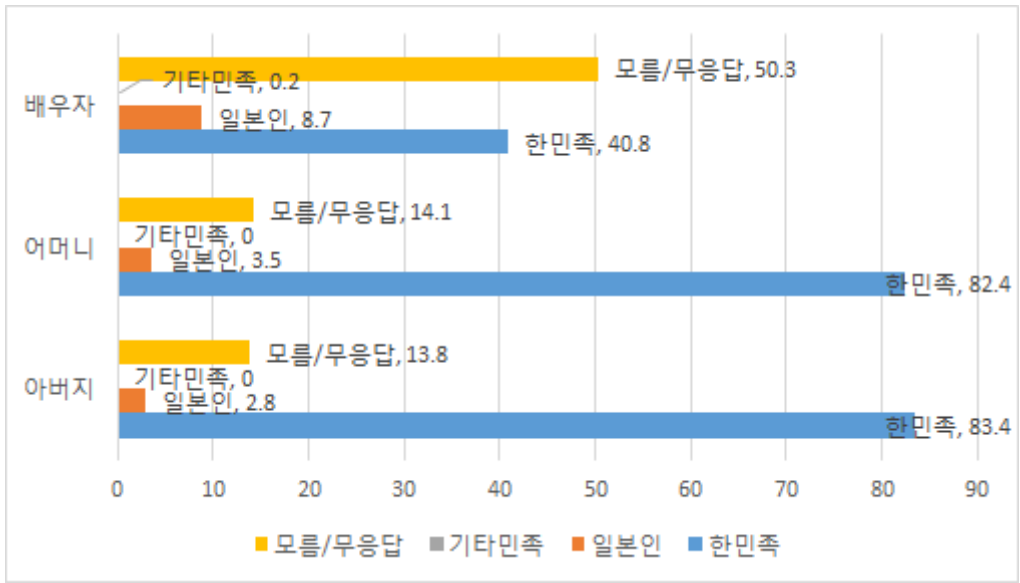
(8) 부모님과 배우자 민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모두 한민족이었으나, 부모나 배우자의 민족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조사 결과 부모의 80% 이상이 한민족이며, 일본인인

경우는 아버지가 2.8%, 어머니가 3.5%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응답자의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는 17.6%이었다. 이는 응답자의 부모 세대보다 일본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8> 조사 대상자의 부모님과 배우자 민족 (단위: 명, %)

구 분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N	%	N	%	N	%
한민족	527	83.4	521	82.4	258	40.8
일본인	18	2.8	22	3.5	55	8.7
기타민족	0	0	0	0	1	0.2
모름/무응답	87	13.8	89	14.1	318	50.3
합계	632	100	632	100	632	100



(단위: %)

<그림 10> 조사 대상자의 부모님과 배우자 민족

(9)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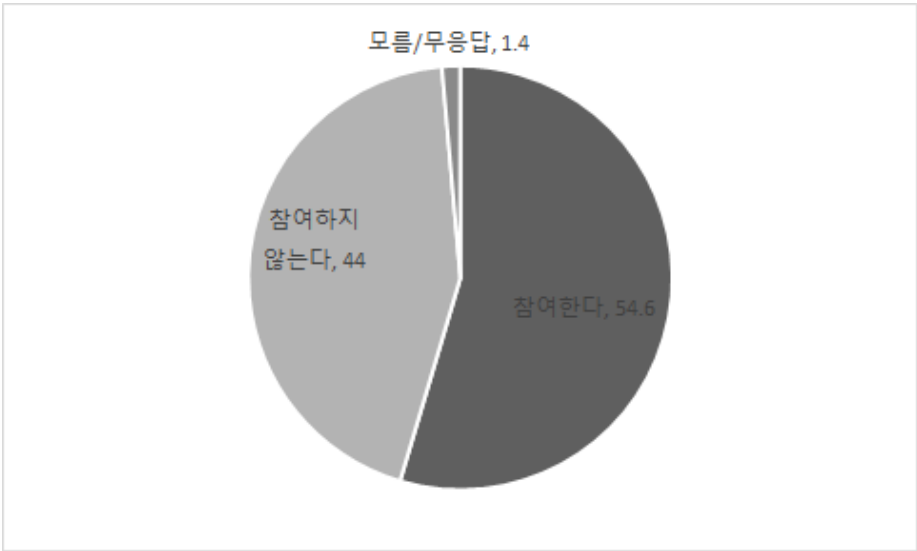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재일동포사회에 관련 있는 사람과 관련 없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아래의 <표 19>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민단이나 조총련과 같은 재일

동포단체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54.6%)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44.0%)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쿄 지역과 오사카 지역의 응답자는 참여자와 비참여자가 각각 51.1%와 47.2%, 49.8%와 49.0%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나고야 지역에서는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69.3%)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29.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19>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	
	N	%	N	%	N	%	N	%
참여한다	345	54.6	119	51.1	97	69.3	129	49.8
참여하지 않는다	278	44.0	110	47.2	41	29.3	127	49.0
모름/무응답	9	1.4	4	1.7	2	1.4	3	1.2
합계	632	100	233	100	140	100	259	100



(단위: %)

<그림 11>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재일동포들의 언어사용 실태를 더욱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밀접한 연관이 예측되는 주요 변인들 간의 교차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응답자들의 조사 항목 중에 조사 대상자의 세대, 성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배우자 민족 등의 요인들을 서로 관련지어 항목별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유효값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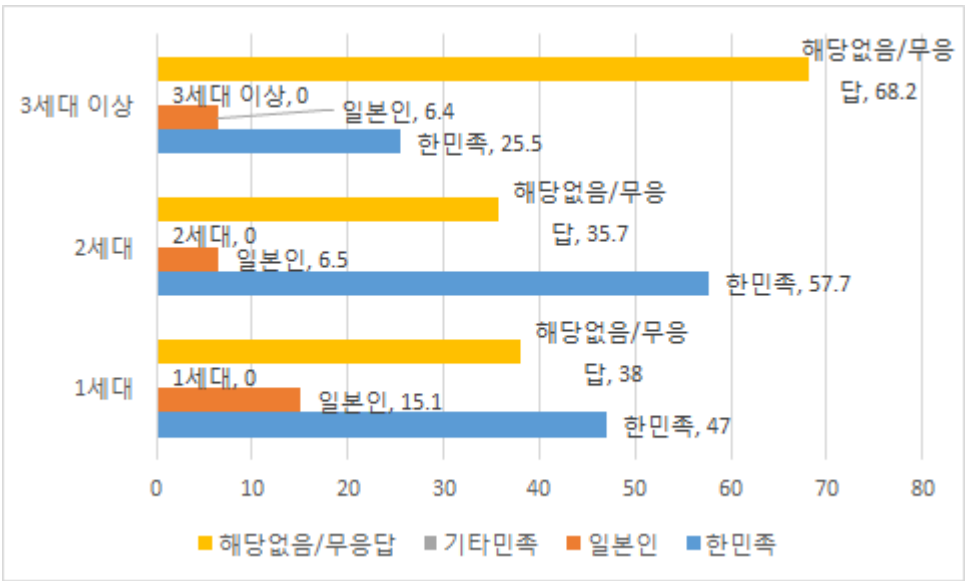
(1) 세대별 배우자 민족

조사 대상자의 세대별 배우자 민족을 살펴본 결과,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의 응답자 모두 배우자가 동일한 한민족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인 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1세대로 15.1%를 차지했다.

<표 20> 세대별 배우자 민족

(단위: 명, %)

구 분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N	%	N	%	N	%
배우자 민족	한민족	78	47.0	97	57.7	68	25.5
	일본인	25	15.1	11	6.5	17	6.4
	기타민족	0	0	0	0	0	0
	해당없음/무응답	63	38.0	60	35.7	182	68.2
	합계	166	100	168	100	267	100



(단위: %)

<그림 12> 세대별 배우자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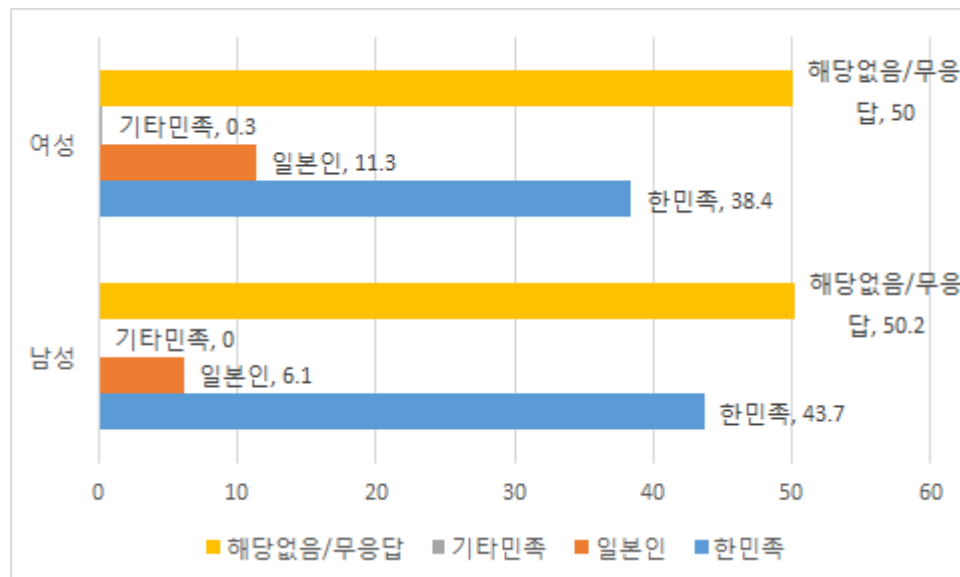
(2) 성별 배우자 민족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배우자 민족의 경우, 남성은 43.7%가 한민족 배우자인 반면, 여성은 38.4%가 한민족 배우자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인 배우자의 비율은 여성이 11.3%, 남성이 6.1%로, 여성 조사 대상자가 남성 조사 대상자보다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여 준다.

<표 21> 성별 배우자 민족

(단위: 명, %)

구 분		남성		여성	
		N	%	N	%
배우자 민족	한민족	135	43.7	123	38.4
	일본인	19	6.1	36	11.3
	기타민족	0	0	1	0.3
	해당없음/무응답	155	50.2	160	50.0
	합계	309	100	320	100



(단위: %)

<그림 13> 성별 배우자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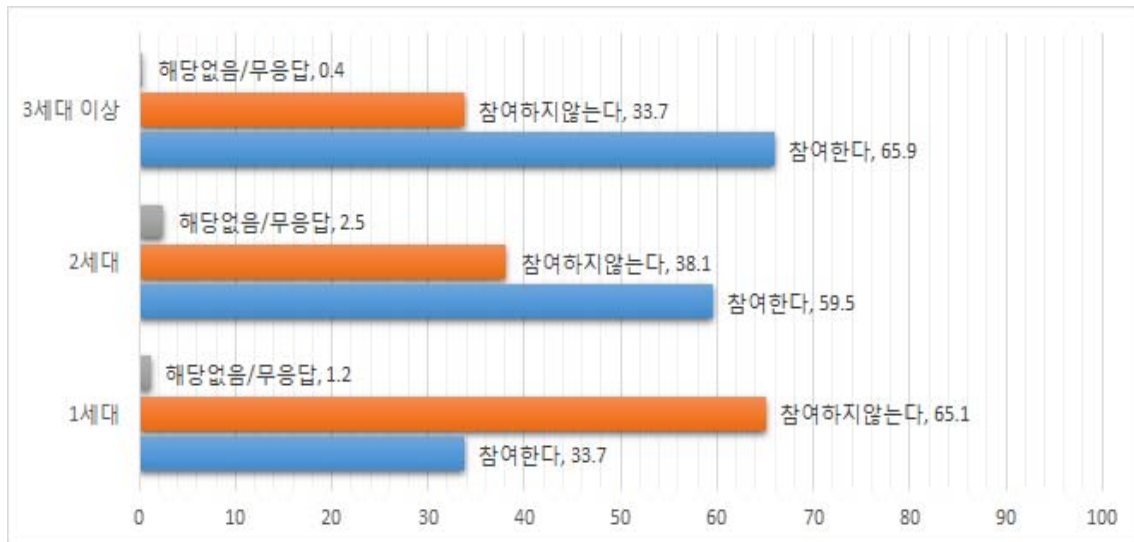
(3) 세대별 동포 사회 단체 참여 여부

조사 대상자의 세대에 따라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1세대의 경우 참여하는 비율(33.7%)보다 참여하지 않는 비율(65.1%)이 더 많은 반면, 2세대와 3세대 이상은 참여하는 비율이 각각 59.5%와 65.9%로 참여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표 22> 세대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단위: 명, %)

구 분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N	%	N	%	N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참여한다	56	33.7	100	59.5	176	65.9
	참여하지않는다	108	65.1	64	38.1	90	33.7
	해당없음/무응답	2	1.2	4	2.5	1	0.4
	합계	166	100	168	100	267	1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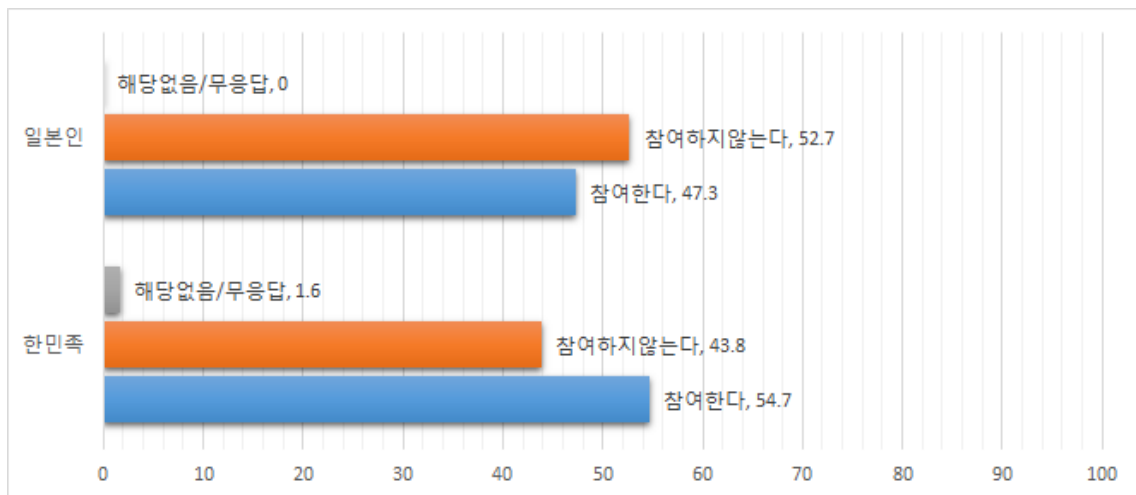
<그림 14> 세대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4) 배우자 민족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조사 응답자의 배우자가 어떤 민족인지와 동포사회단체를 참여하는 정도는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두 변수 간의 교차 비교를 살펴보면, 한민족 배우자를 둔 조사 응답자는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비율(54.7%)이 참여하지 않는 비율(43.8%)보다 조금 더 많았다. 반면, 일본인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참여하지 않는 비율(52.7%)이 참여하는 비율(47.3%)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23> 배우자 민족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단위: 명, %)

구 분		한민족		일본인	
		N	%	N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참여한다	141	54.7	26	47.3
	참여하지않는다	113	43.8	29	52.7
	해당없음/무응답	4	1.6	0	0
	합계	258	100	55	100



(단위: %)

<그림 15> 배우자 민족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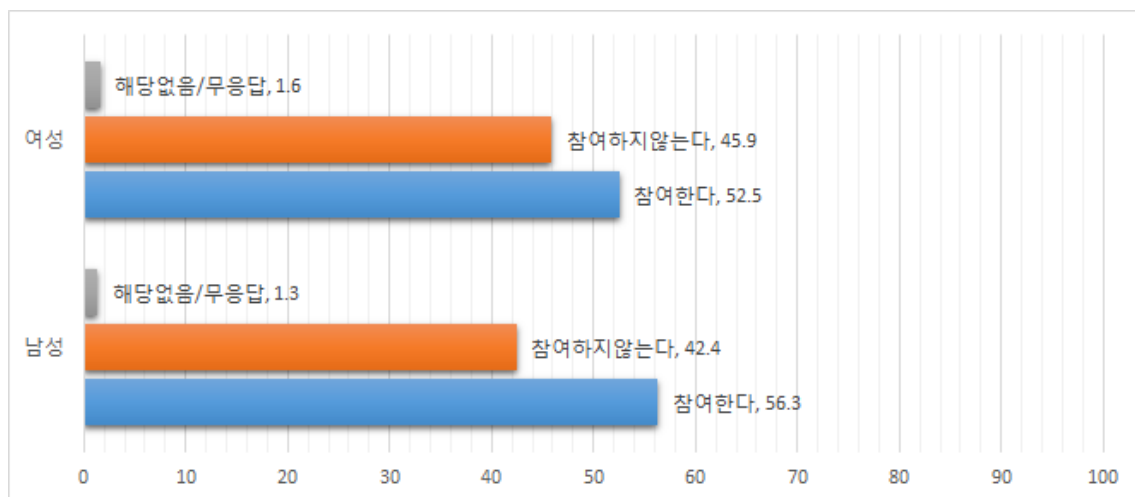
(5) 성별 동포사회단체 참여 여부

조사 대상자의 성별과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참여하지 않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표 24> 성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단위: 명, %)

구 분		남성		여성	
		N	%	N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참여한다	174	56.3	168	52.5
	참여하지않는다	131	42.4	147	45.9
	해당없음/무응답	4	1.3	5	1.6
	합계	309	100	320	100



(단위: %)

<그림 16> 성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2.3.1.2. 언어 의식과 태도 및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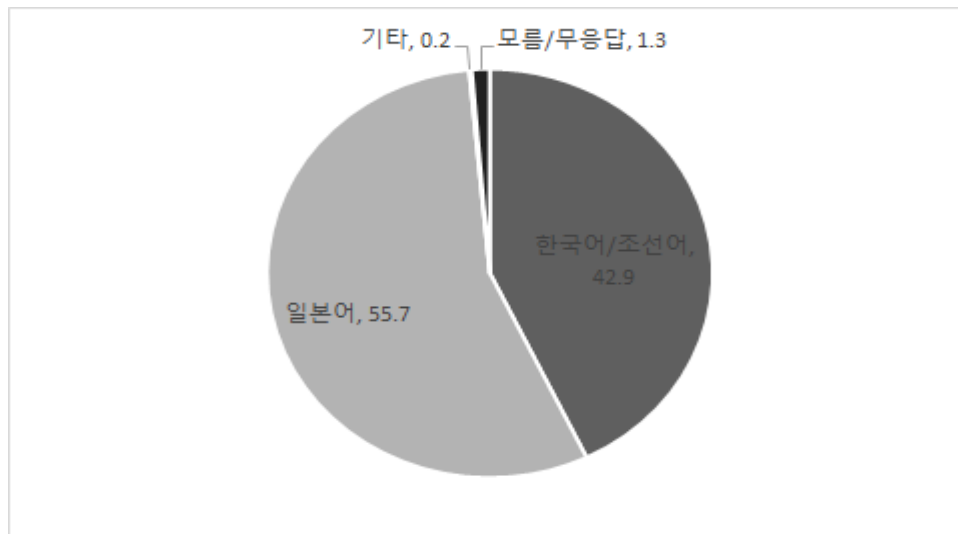
1)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1) 기본 분석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모어(제1언어)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5.7%가 일본어를 모어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반면, 42.9%가 한국어/조선어를 모어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쿄 지역의 응답자는 모어로 생각하는 언어가 한국어/조선어(49.4%)와 일본어(48.9%)가 비슷한 비율을 보인 반면, 나고야와 오사카 지역은 일본어를 모어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나고야 지역의 경우 일본어를 모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7.1%이고, 한국어/조선어를 모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0.7%로 나타났다. 이는 나고야 지역이 일본 출생자의 비율도 높고(87.9%), 일본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비율(이중 국적 포함 일본 국적자 28.6%, 영주권자 67.9%)이 높은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5> 조사 대상자가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	
	N	%	N	%	N	%	N	%
한국어/조선어	271	42.9	115	49.4	43	30.7	113	43.6
일본어	352	55.7	114	48.9	94	67.1	144	55.6
기타	1	0.2	0	0	1	0.7	0	0
모름/무응답	8	1.3	4	1.7	2	1.4	2	0.8
합계	632	100	233	100	140	100	259	100



(단위: %)

<그림 17> 조사 대상자가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조사 대상자가 모어로 생각하는 언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의 연령과 세대, 성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의 네 가지 변수를 교차해서 분석하였다. 해당 문항이 명목 척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기타’와 ‘모름/무응답’은 응답 비율이 많지 않아서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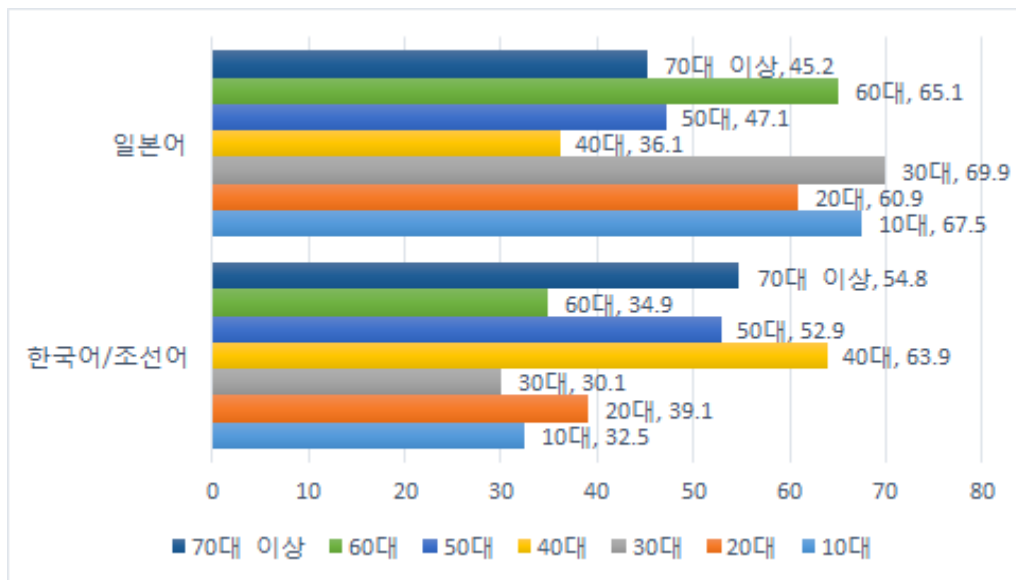
○ 연령별

조사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모어로 생각하는 언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10대, 20대, 30대, 50대는 일본어를 모어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많았으며, 40대, 50대,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한국어/조선어를 모어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더 많았다. 이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 38.201$, $df = 6$).

<표 26> 연령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단위: 명, %)

구 분			연 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한국어/조선어	N	25	43	28	69	46	37	23	271	
		%	32.5	39.1	30.1	63.9	52.9	34.9	54.8	43.5	
	일본어	N	52	67	65	39	41	69	19	352	
		%	67.5	60.9	69.9	36.1	47.1	65.1	45.2	56.5	
합계			N	77	110	93	108	87	106	42	623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2=38.201$, $df=6$, $p<.001$



(단위: %)

<그림 18> 연령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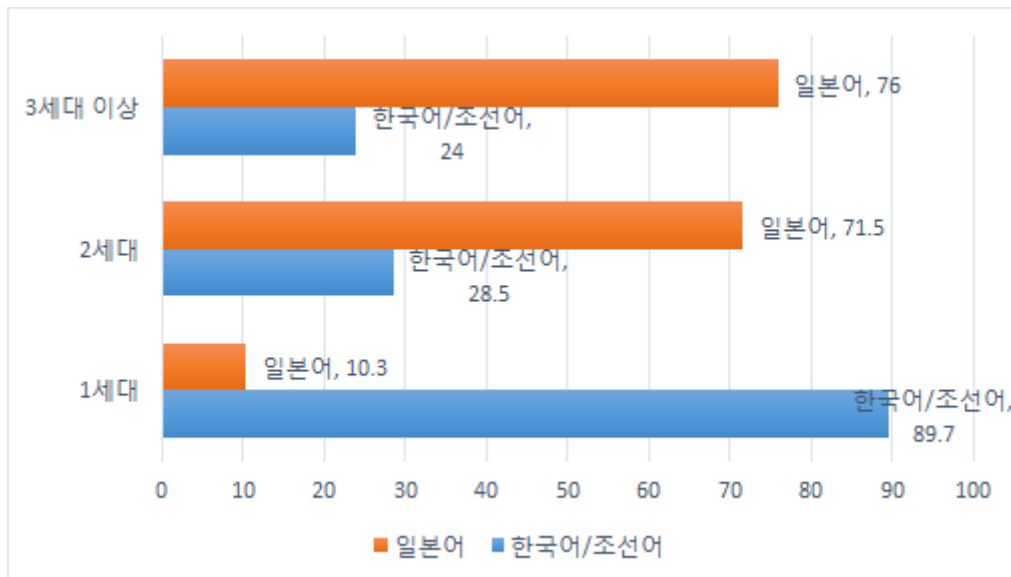
○ 세대별

재일 동포의 세대에 따라 모어로 생각하는 언어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1세대 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모어로 생각하는 비율(89.7%)이 일본어를 모어로 생각하는 비율(10.3%)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2세대와 3세대 이상의 동포는 일본어를 모어로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더 많았다. 세대와 모어로 생각하는 언어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chi^2=199.284$, $df=2$, $p<.001$).

<표 27> 세대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단위: 명, %)

구 분			세 대			합계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모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한국어/조선어	N	148	47	63	258
		%	89.7	28.5	24.0	43.5
	일본어	N	17	118	200	335
		%	10.3	71.5	76.0	56.5
합계		N	165	165	263	593
		%	100	100	100	100

$\chi^2=199.284$, $df=2$, $p<.001$



(단위: %)

<그림 19> 세대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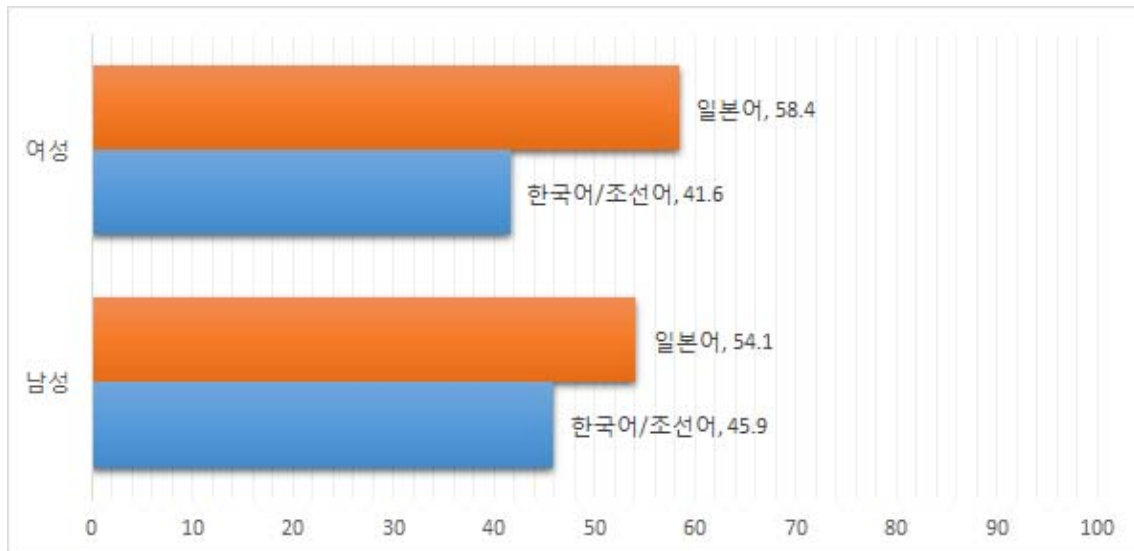
성별에 따라 모어로 생각하는 언어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일본어를 모어로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54.1%, 58.4%로, 한국어/조선어를 모어로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1.172$, $df=1$, $p=.279$).

<표 28> 성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단위: 명, %)

구 분			성 별		합계
			남성	여성	
모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한국어/조선어	N	140	131	271
		%	45.9	41.6	43.7
	일본어	N	165	184	349
		%	54.1	58.4	56.3
합계		N	305	315	620
		%	100	100	100

$\chi^2=1.172$, $df=1$, $p=.279$ (Not Significant)



<그림 20> 성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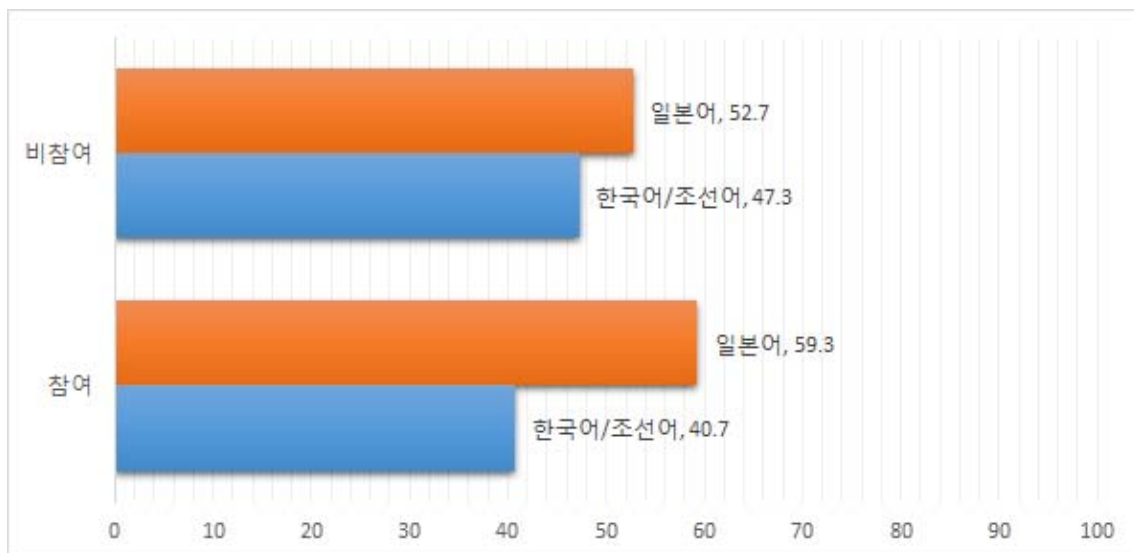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동포사회단체 참여 유무에 따른 모어로 생각하는 언어의 차이를 살펴보면, 참여한다고 응답한 집단과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 모두 일본어를 모어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chi^2=2.660$, $df=1$, $p=.103$).

<표 29>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단위: 명, %)

구 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합계
			참여	비참여	
모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한국어/조선어	N	138	130	268
		%	40.7	47.3	43.6
	일본어	N	201	145	346
		%	59.3	52.7	56.4
합계		N	339	275	614
		%	100	100	100

$\chi^2=2.660$, $df=1$, $p=.103$ (Not Significant)



(단위: %)

<그림 21>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

2) 더 잘 알아듣는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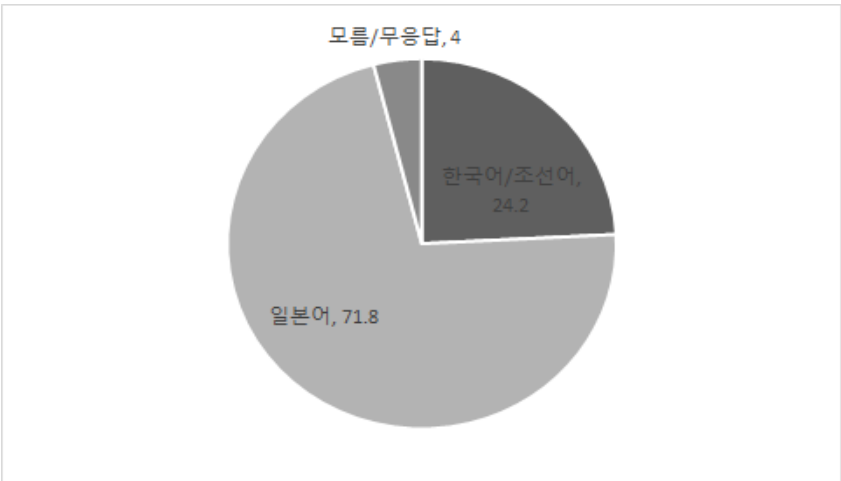
(1) 기본 분석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 중에 조사 대상자가 더 잘 알아듣는 언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항에서 ‘일본어’가 71.8%로 ‘한국어/조선어’ 24.2%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나고야 지역 응답자의 경우에는 90%가 일본어를 더 잘 알아

듣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30> 조사 대상자가 더 잘 알아듣는 언어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	
	N	%	N	%	N	%	N	%
한국어/조선어	153	24.2	86	36.9	10	7.1	57	22.0
일본어	454	71.8	133	57.1	126	90.0	195	75.3
모름/무응답	25	4.0	14	6.0	4	2.9	7	2.7
합계	632	100	233	100	140	100	259	100



(단위: %)

<그림 22> 조사 대상자가 더 잘 알아듣는 언어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 연령별

조사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더 잘 알아듣는 언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면, 전 연령층의 응답자 모두 일본어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 특히 10대는 한국어/조선어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1.8%에 불과한 반면, 일본어를 더 잘 알아듣는다는 비율은 88.2%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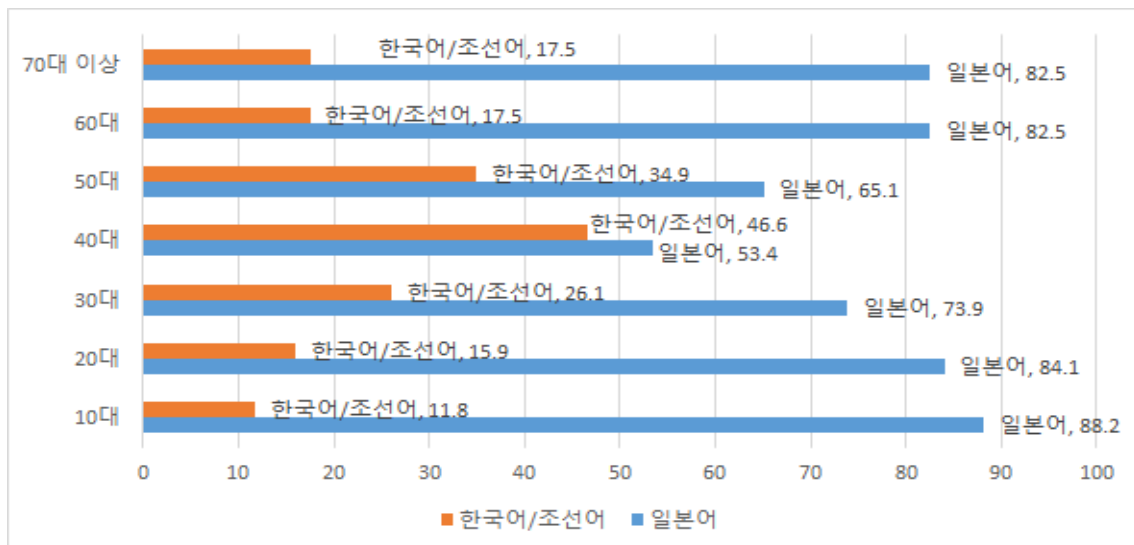
나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났다. 반면, 40대의 경우는 일본어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나, 한국어/조선어로 응답한 비율도 46.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다. 조사 응답자가 더 잘 알아듣는 언어와 연령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45.974$, $df=6$, $p<.001$).

<표 31> 연령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단위: 명, %)

구 분			연 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더 잘 알아듣는 언어	한국어/조선어	N	9	17	24	48	30	18	7	153
		%	11.8	15.9	26.1	46.6	34.9	17.5	17.5	25.2
	일본어	N	67	90	68	55	56	85	33	454
		%	88.2	84.1	73.9	53.4	65.1	82.5	82.5	74.8
합계		N	76	107	92	103	86	103	40	607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2=45.974$, $df=6$, $p<.001$



(단위: %)

<그림 23> 연령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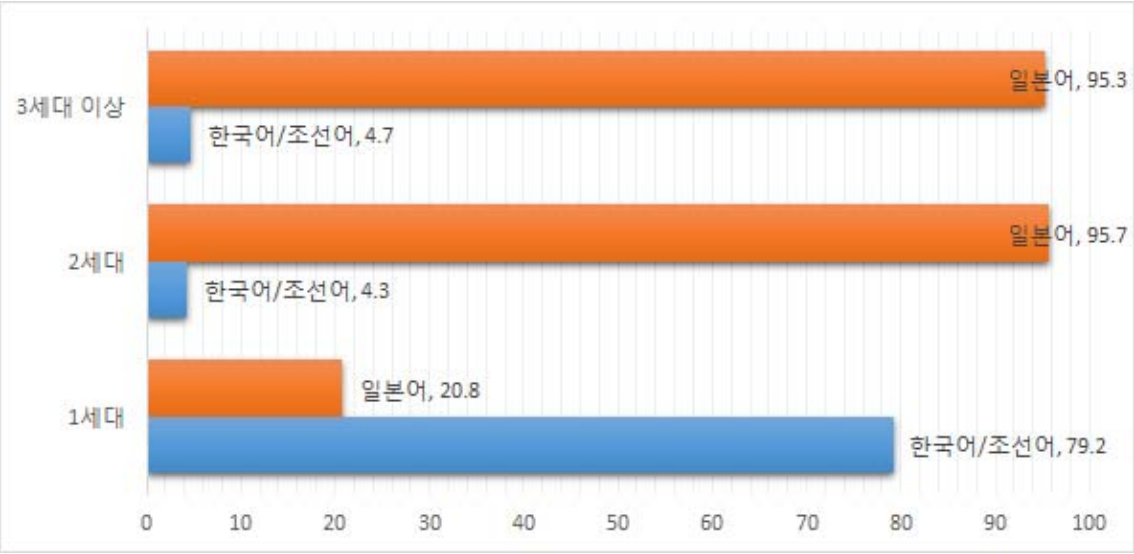
재일 동포가 더 잘 알아듣는 언어가 세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1세대의 경우 한국어/조선어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9.2%로 나타났다. 반면, 2세대와 3세대 이상의 동포들은 일본어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

한 차이는 유의확률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chi^2=341.622$, $df=2$,).

<표 32> 세대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단위: 명, %)

구 분			세 대			합계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더 잘 알아듣는 언어	한국어/조선어	N	126	7	12	145
		%	79.2	4.3	4.7	25.1
	일본어	N	33	155	244	432
		%	20.8	95.7	95.3	74.9
합계		N	159	162	256	577
		%	100	100	100	100

$\chi^2=341.622$, $df=2$, $p<.001$



<그림 24> 세대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단위: %)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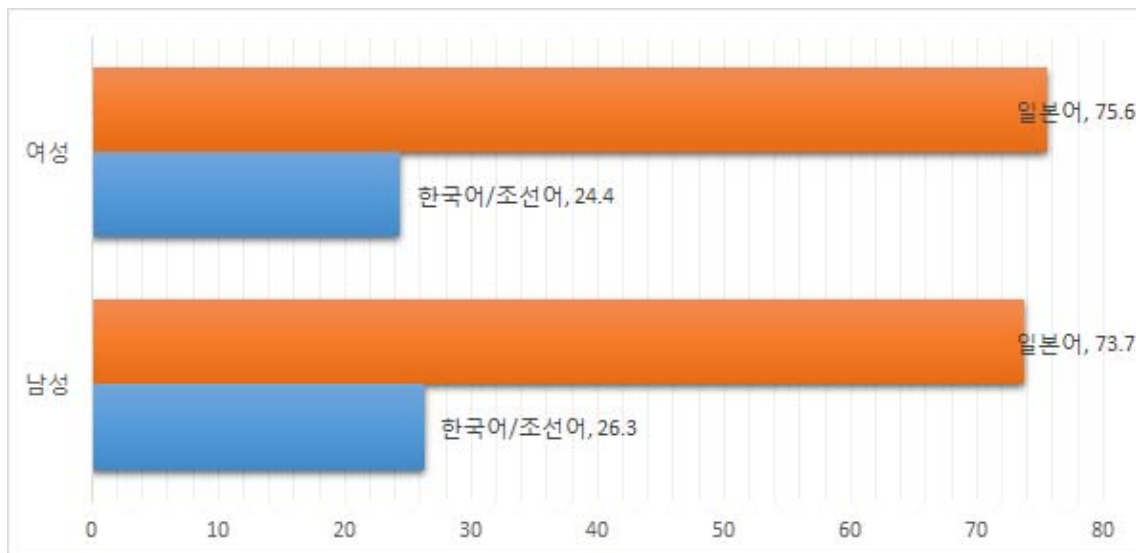
조사 응답자가 더 잘 알아듣는 언어와 성별을 교차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 일본어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i^2=.293$, $df=1$, $p=.589$).

<표 33> 성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단위: 명, %)

구 분			성 별		합계
			남성	여성	
더 잘 알아듣는 언어	한국어/조선어	N	78	75	153
		%	26.3	24.4	25.3
	일본어	N	219	233	452
		%	73.7	75.6	74.7
합계		N	297	308	605
		%	100	100	100

$\chi^2=.293$, $df=1$, $p=.589$ (Not Significant)



(단위: %)

<그림 25> 성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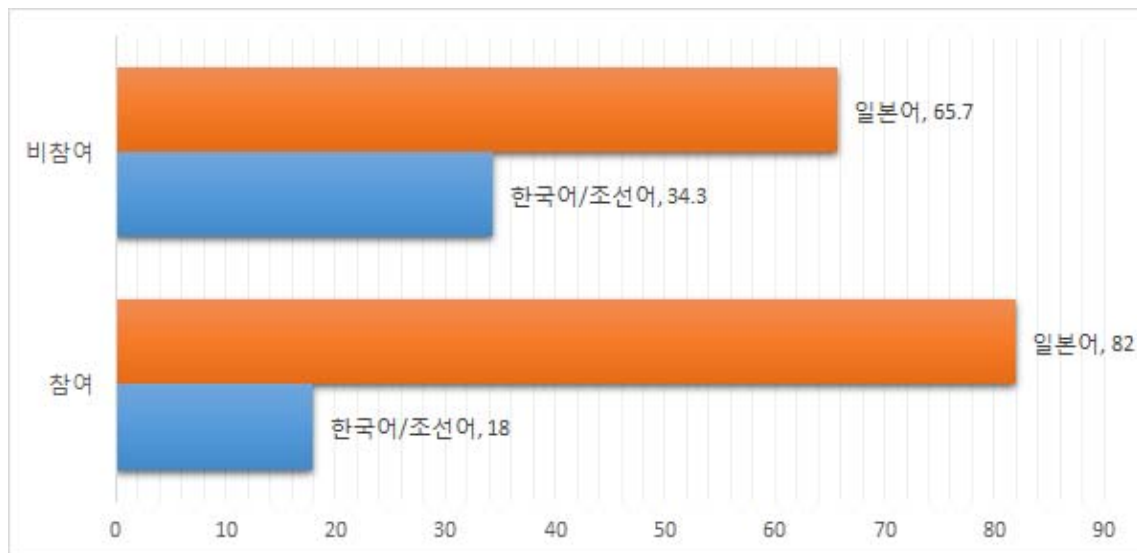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와 교차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0.704$, $df=1$,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집단 중에 한국어/조선어를 더 잘 알아듣는 비율은 18.0%, 일본어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82.0%로 나타났다. 유

사하게,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도 한국어/조선어 (34.3%) 보다 일본어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응답한 비율(65.7%)이 더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두 집단 모두 한국어/조선어 보다는 일본어를 더 잘 알아듣지만, 상대적으로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집단 보다 참여하지 않는 집단이 한국어/조선어를 더 잘 알아듣는 경향이 있다.

<표 34>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단위: 명, %)

구 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합계
			참여	비참여	
더 잘 알아듣는 언어	한국어/조선어	N	59	93	152
		%	18.0	34.3	25.4
	일본어	N	268	178	446
		%	82.0	65.7	74.6
합계		N	327	271	598
		%	100	100	100

$\chi^2=20.704$, $df=1$, $p<.001$



(단위: %)

<그림 26>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더 잘 알아듣는 언어

3)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1) 기본 분석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대한 문항은 ‘(1)그렇다’에서 ‘(5)그렇지 않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측정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83.5%)이 높으며, 한국어/조선어를 배우고 싶다는 비율(73.6%)도 높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끼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41.0%)은 그리 높지 않다. 또한 한국어/조선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40.3%)보다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64.1%)이 높다.

<표 35> 조사 대상자의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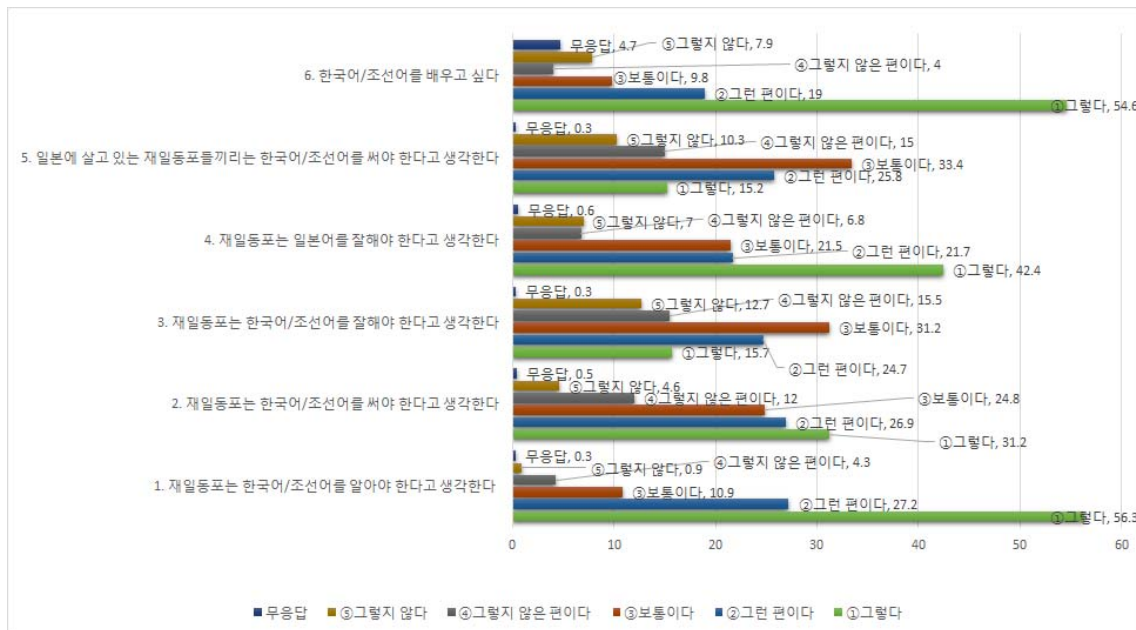
(단위: %(명))

질 문	그렇다 ¹²⁾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¹³⁾	무응답	차이 ¹⁴⁾	평균 (5점척도)
1.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83.5 (528)	10.9 (69)	5.2 (33)	0.3 (2)	78.3	4.34
2.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58.1 (367)	24.8 (157)	16.6 (105)	0.5 (3)	41.5	3.68
3.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0.3 (255)	31.2 (197)	28.2 (178)	0.3 (2)	12.1	3.15
4. 재일동포는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4.1 (405)	21.5 (136)	13.8 (87)	0.6 (4)	50.3	3.86
5.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끼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41.0 (259)	33.4 (211)	25.2 (160)	0.3 (2)	15.8	3.21
6. 한국어/조선어를 배우고 싶다	73.6 (465)	9.8 (62)	13.9 (75)	4.7 (30)	59.7	4.14

12) ‘그렇다’는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응답 비율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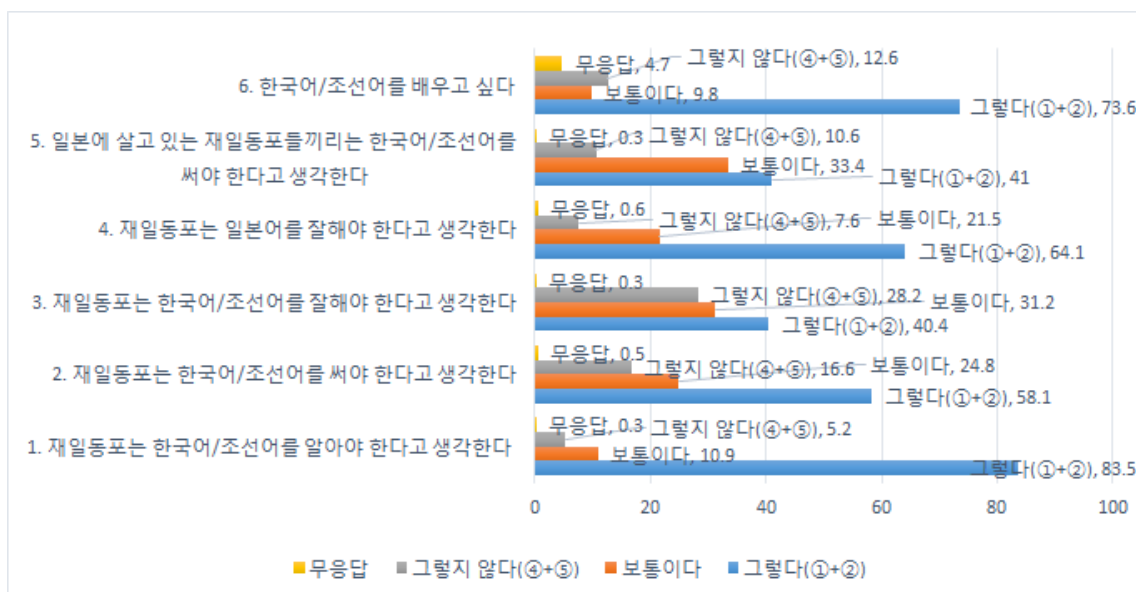
13)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응답 비율의 합

14) 차이는 ‘그렇다’의 비율에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을 뺀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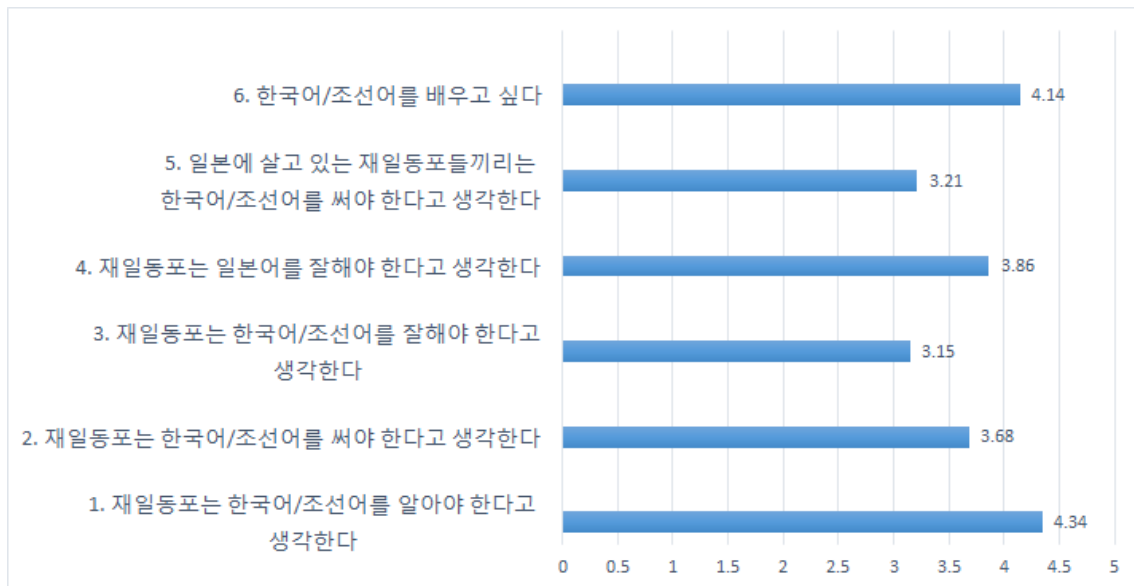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7> 조사 대상자의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1)



(단위: %)

<그림 28> 조사 대상자의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2)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29> 조사 대상자의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평균값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조사 대상자의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주요 변인들과의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연령별 차이와 세대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Duncan의 사후 검증을 통해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의 크기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성별 차이와 동포사회집단 참여 여부별 차이는 두 독립표본 t-test를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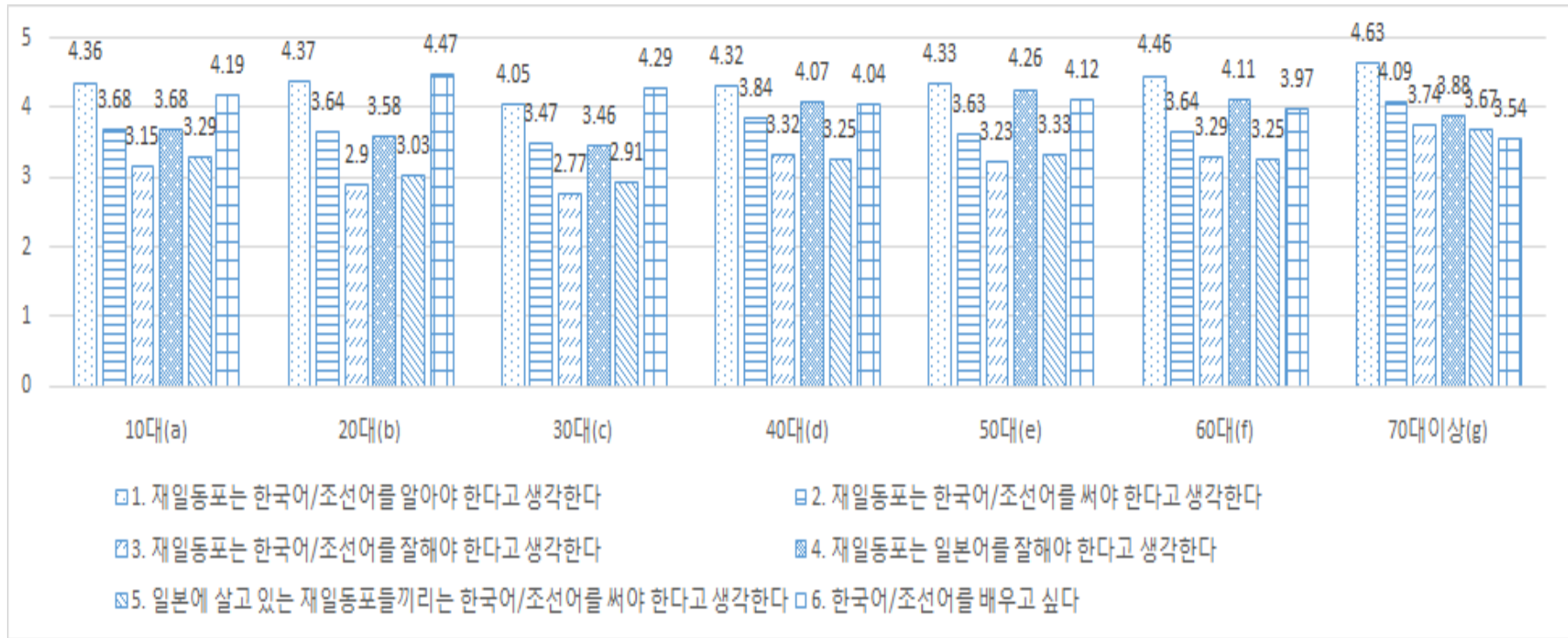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1)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경우 F값이 2.695($p=.014$)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을 실시해 보니, 10대, 20대, 60대 70대 이상의 집단이 30대 집단 보다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알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태도가 더 강한 경향이 있었다. 두 번째 문항 ‘(2)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3)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에서는 70대 이상의 집단이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40대, 3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F=4.652, p<.001$). ‘(4)재일동포는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문항에 대해서는 40대, 50대, 60대 집단이 30대보다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F=5.921$, $p<.001$). 다음으로, '(5)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 동포들끼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인식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의 응답자가 30대 응답자 보다 평균값이 더 크게 나타났다($F=2.850$, $p<.05$). 마지막으로 '(6)한국어/조선어를 배우고 싶다' 문항의 경우, 20대 집단이 한국어/조선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인식이 가장 강했으며, 그 다음이 60대, 70대 이상의 순으로 높았다($F=3.532$, $p<.01$).

<표 36> 연령별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질 문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 정
1. 제일동포는 한 국어/조선어를 알 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10대(a)	78	4.36	0.925	2.695 (.014*)	a=b=f= g>c
	20대(b)	111	4.37	0.894		
	30대(c)	93	4.05	1.036		
	40대(d)	110	4.32	0.867		
	50대(e)	87	4.33	0.936		
	60대(f)	108	4.46	0.790		
	70대이상(g)	43	4.63	0.757		
2. 제일동포는 한 국어/조선어를 써 야 한다고 생각한 다	10대(a)	78	3.68	1.222	1.821 (.093)	—
	20대(b)	111	3.64	1.126		
	30대(c)	94	3.47	1.216		
	40대(d)	110	3.84	1.088		
	50대(e)	87	3.63	1.172		
	60대(f)	106	3.64	1.266		
	70대이상(g)	43	4.09	0.895		
3. 제일동포는 한 국어/조선어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10대(a)	78	3.15	1.185	4.652 (.000***)	g>d>c
	20대(b)	111	2.90	1.272		
	30대(c)	94	2.77	1.299		
	40대(d)	110	3.32	1.157		
	50대(e)	87	3.23	1.168		
	60대(f)	108	3.29	1.160		
	70대이상(g)	42	3.74	1.251		
4. 제일동포는 일 본어를 잘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10대(a)	78	3.68	1.157	5.921 (.000***)	d=e=f >c
	20대(b)	111	3.58	1.297		
	30대(c)	94	3.46	1.381		
	40대(d)	110	4.07	1.002		
	50대(e)	86	4.26	1.087		
	60대(f)	106	4.11	1.214		
	70대이상(g)	43	3.88	1.366		
5. 일본에 살고 있 는 제일동포들끼리 는 한국어/조선어 를 써야 한다고 생 각한다	10대(a)	78	3.29	1.129	2.850 (.010*)	g>c
	20대(b)	111	3.03	1.224		
	30대(c)	94	2.91	1.161		
	40대(d)	110	3.25	1.151		
	50대(e)	87	3.33	1.053		
	60대(f)	107	3.25	1.245		
	70대이상(g)	43	3.67	1.190		
6. 한국어/조선어를 배우고 싶다	10대(a)	77	4.19	1.148	3.532 (.002**)	b>f>g
	20대(b)	105	4.47	1.048		
	30대(c)	92	4.29	1.033		
	40대(d)	103	4.04	1.350		
	50대(e)	83	4.12	1.347		
	60대(f)	101	3.97	1.292		
	70대이상(g)	41	3.54	1.583		

*p<.05, **p<.01, ***p<.001



<그림 30> 연령별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평균값

(단위: 평균값 5점척도)

○ 세대별

응답자의 세대별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차이를 살펴보면, ‘(1)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항에서는 2세대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2)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문항에서는 1세대와 2세대가 3세대 이상보다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603$, $p<.001$). 그리고 ‘(3)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 관한 인식에서도 마찬가지로 3세대 이상의 응답자보다는 1세대와 2세대 응답자의 인식이 통계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F=15.703$, $p<.001$). ‘(4)재일동포는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서는 3세대 이상과 1세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8.227$, $p<.001$). ‘(5)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끼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문항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F=8.227$, $p<.001$), 1세대와 2세대가 3세대 이상 동포들보다 한국어/조선어 사용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6)한국어/조선어를 배우고 싶다’ 문항에서는 2세대와 3세대 이상 동포가 1세대보다 평균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F=22.218$, $p<.001$).

<표 37> 세대별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질 문	세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세대(a)	166	4.34	0.982	1.310 (.270)	—
	2세대(b)	168	4.42	0.785		
	3세대 이상(c)	266	4.28	0.926		
2.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1세대(a)	166	3.95	1.119	8.603 (.000***)	a=b>c
	2세대(b)	166	3.72	1.132		
	3세대 이상(c)	267	3.48	1.202		
3.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세대(a)	166	3.44	1.131	15.703 (.000***)	a=b>c
	2세대(b)	168	3.31	1.148		
	3세대 이상(c)	267	2.83	1.286		
4. 재일동포는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세대(a)	166	3.97	1.146	3.183 (.042*)	a>c
	2세대(b)	165	3.95	1.256		
	3세대 이상(c)	267	3.70	1.292		
5.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끼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1세대(a)	166	3.45	1.087	8.227 (.000***)	a=b>c
	2세대(b)	167	3.26	1.242		
	3세대 이상(c)	267	2.99	1.168		
6. 한국어/조선어를 배우고 싶다	1세대(a)	147	3.58	1.617	22.218 (.000***)	b=c>a
	2세대(b)	165	4.20	1.133		
	3세대 이상(c)	263	4.41	0.984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 척도)

<그림 31> 세대별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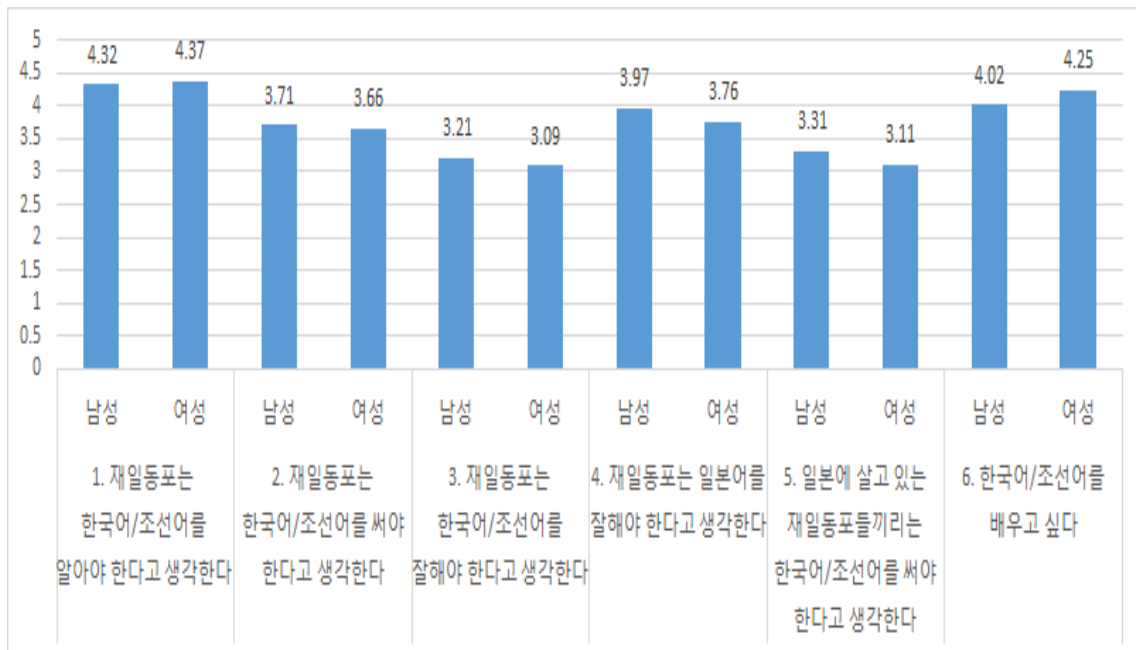
○ 성별

성별에 따른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차이를 살펴보면, 일부 문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해당 문항을 살펴보면, ‘(4)재일동포는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와 ‘(5)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끼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한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에서는 유의확률 $p < .05$ 수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한국어/조선어를 배우고 싶다’에 관한 인식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어/조선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t = -2.272$, $p < .05$).

<표 38> 성별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질 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	308	4.32	0.943	-.671	.502
	여성	319	4.37	0.869		
2.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	307	3.71	1.204	.518	.604
	여성	319	3.66	1.138		
3.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	307	3.21	1.251	1.198	.232
	여성	320	3.09	1.215		
4. 재일동포는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	308	3.97	1.205	2.193	.029*
	여성	317	3.76	1.266		
5.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끼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	308	3.31	1.204	2.076	.038*
	여성	319	3.11	1.154		
6. 한국어/조선어를 배우고 싶다	남성	291	4.02	1.278	-2.272	.023*
	여성	308	4.25	1.227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32> 성별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평균값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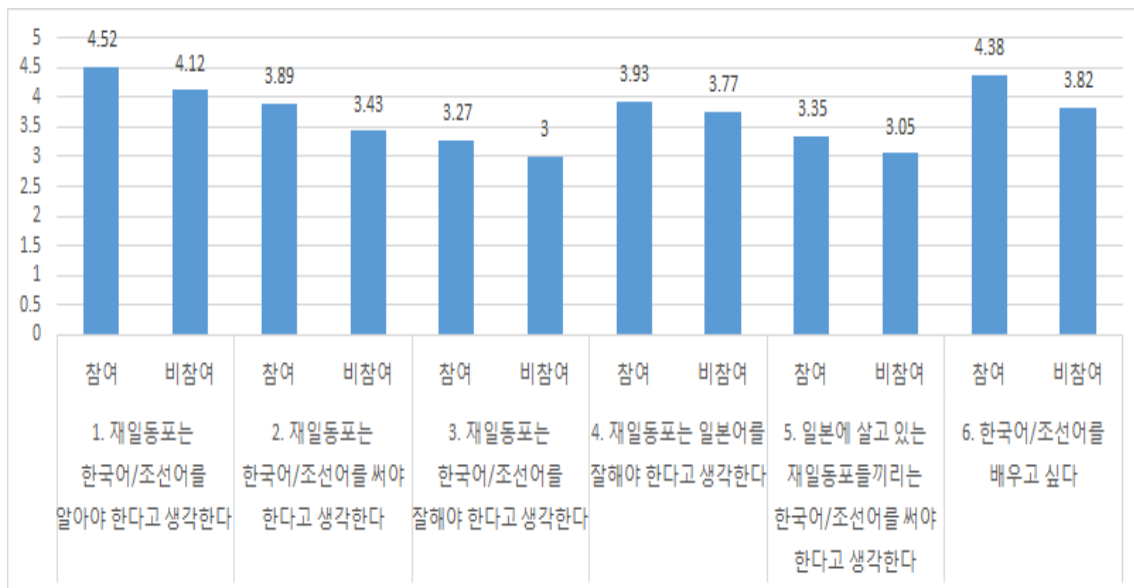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조사 대상자가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여부

별로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4)재일동포는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항을 제외한 다섯 가지 문항에서 모두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집단이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유의확률 $p<.001$ 혹은 $p<.01$ 수준에서 평균값이 더 높았다.

<표 39>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에 따른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질 문	참여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	343	4.52	0.752	5.390	.000***
	비참여	278	4.12	1.023		
2.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	342	3.89	1.108	4.868	.000***
	비참여	278	3.43	1.193		
3.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	343	3.27	1.240	2.808	.005**
	비참여	278	3.00	1.206		
4. 재일동포는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	342	3.93	1.235	1.575	.116
	비참여	277	3.77	1.235		
5.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끼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	343	3.35	1.199	3.217	.001**
	비참여	278	3.05	1.141		
6. 한국어/조선어를 배우고 싶다	참여	330	4.38	1.066	5.359	.000***
	비참여	263	3.82	1.404		

* $p<.05$, ** $p<.01$, ***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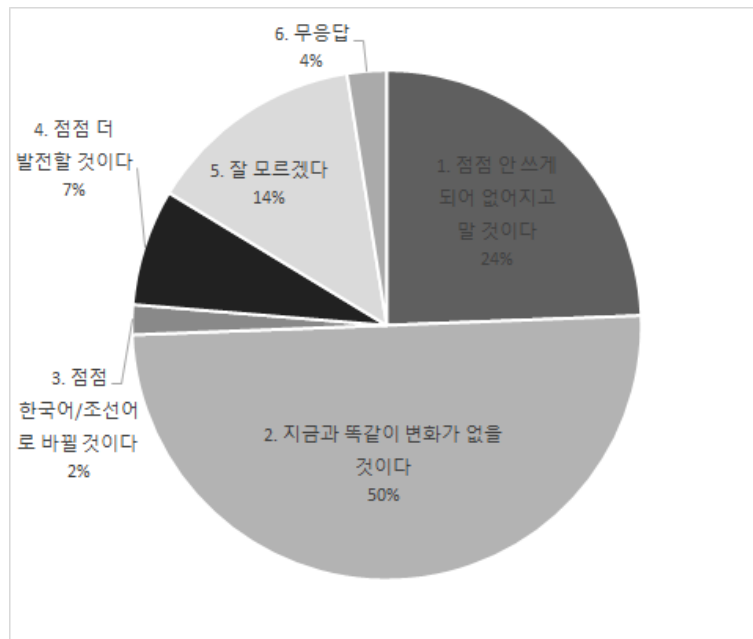
<그림 33>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에 따른 언어에 대한 의식과 태도 평균값

4) 일본에서 한국어/조선어의 장래에 대한 생각

한국어/조선어의 장래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절반(50.0%)이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발전할 것(7.4%)이라거나 점점 더 한국어/조선어로 바뀔 것(1.9%)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9.3%)은 낮다. 반면 점점 안 쓰게 되어 없어지고 말 것(24.4%)이라거나 잘 모르겠다(13.8%)고 확신이 없이 응답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38.2%)은 전체의 반 정도에 조금 못 미친다.

<표 40> 일본에서 한국어/조선어의 장래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	
	N	%	N	%	N	%	N	%
1. 점점 안 쓰게 되어 없어지고 말 것이다	154	24.4	56	24.0	47	24.0	51	19.7
2.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	316	50.0	110	47.2	73	47.2	133	51.4
3. 점점 한국어/조선어로 바뀔 것이다	12	1.9	7	3.0	1	3.0	4	1.5
4.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47	7.4	25	10.7	4	10.7	18	6.9
5. 잘 모르겠다	87	13.8	27	11.6	14	11.6	46	17.8
6. 무응답	16	2.5	8	3.4	1	3.4	7	2.7
합 계	632	100	233	100	140	100	259	100



(단위: %)

<그림 34> 일본에서 한국어/조선어의 장래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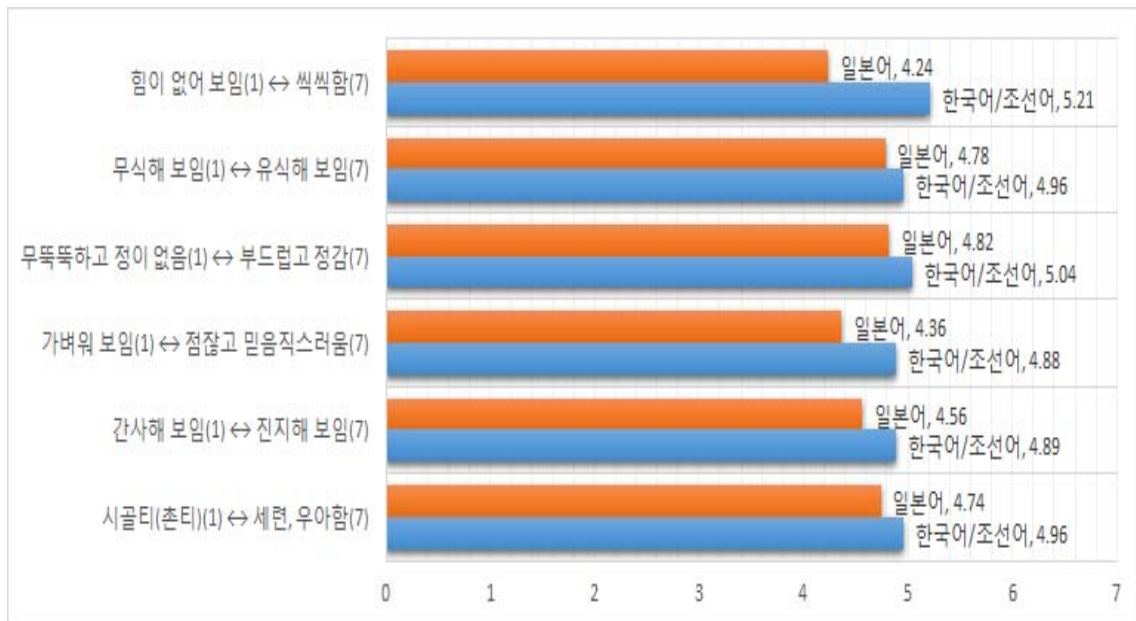
5)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1) 기본 분석

기존의 다른 국가의 재외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서 실시한 설문지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에 관한 문항을 총 6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했으며, 각각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언어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모든 항목에 있어서 한국어/조선어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 일본어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조선어를 ‘씩씩하다’고 평가하는 항목에서 평균값이 5.21인 반면, 일본어의 경우 4.24로 나타났다.

<표 41>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구 분	한국어/조선어			일본어		
	N	평균 ¹⁵⁾ (7점척도)	표준 편차	N	평균 ¹⁶⁾ (7점척도)	표준 편차
부정적 느낌(1) ↔ 긍정적 느낌(7)						
시골티(촌티)(1) ↔ 세련, 우아함(7)	595	4.96	1.371	589	4.74	1.241
간사해 보임(1) ↔ 진지해 보임(7)	593	4.89	1.363	587	4.56	1.400
가벼워 보임(1) ↔ 점잖고 믿음직스러움(7)	591	4.88	1.383	591	4.36	1.253
무뚝뚝하고 정이 없음(1) ↔ 부드럽고 정감(7)	596	5.04	1.544	593	4.82	1.397
무식해 보임(1) ↔ 유식해 보임(7)	590	4.96	1.393	587	4.78	1.239
힘이 없어 보임(1) ↔ 씩씩함(7)	594	5.21	1.377	588	4.24	1.287



(단위: 평균값 7점척도)

<그림 35>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평균값

15) 값이 클수록 한국어/조선어에 대해 긍정적 느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16) 값이 클수록 일본어에 대해 긍정적 느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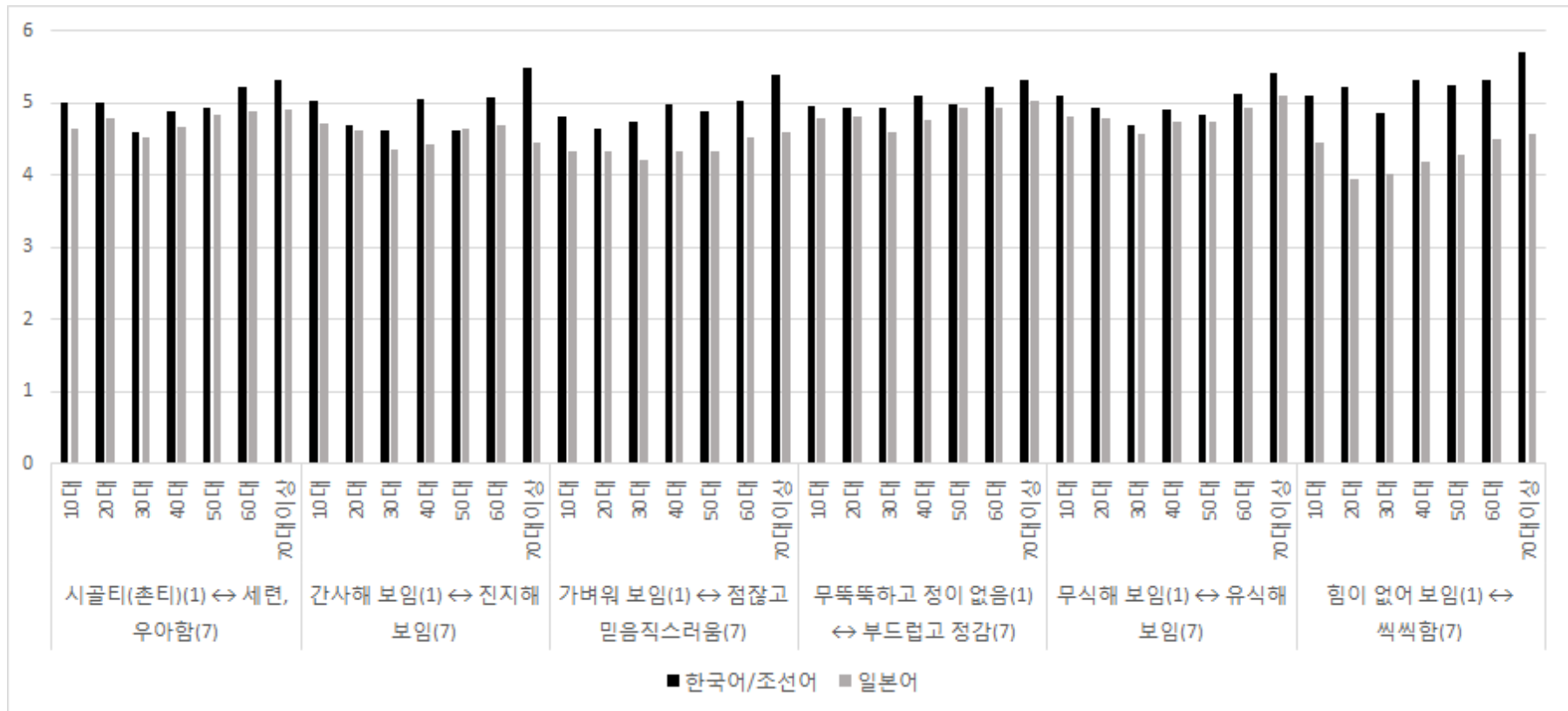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 연령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본어보다는 한국어/조선어에 대한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한국어/조선어에 대한 긍정적 느낌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조선어에 대해서는 60대와 70대 이상의 연령층이 더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어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평균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42> 연령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질 문	연령	한국어/조선어			일본어		
		N	평균 (7점척도)	표준 편차	N	평균 (7점척도)	표준 편차
시골티(촌티)(1) ↔ 세련, 우아함(7)	10대	77	5.00	1.214	77	4.64	1.213
	20대	107	5.00	1.387	107	4.79	1.337
	30대	92	4.60	1.399	92	4.53	1.313
	40대	105	4.88	1.349	105	4.67	1.166
	50대	82	4.94	1.382	81	4.84	1.134
	60대	97	5.22	1.293	91	4.89	1.187
	70대이상	35	5.31	1.659	36	4.92	1.381
간사해 보임(1) ↔ 진지해 보임(7)	10대	77	5.03	1.135	76	4.72	1.382
	20대	108	4.69	1.307	107	4.62	1.350
	30대	92	4.61	1.445	92	4.35	1.433
	40대	104	5.05	1.295	104	4.43	1.268
	50대	82	4.63	1.470	81	4.65	1.352
	60대	95	5.07	1.339	91	4.70	1.394
	70대이상	35	5.49	1.502	36	4.44	1.904
가벼워 보임(1) ↔ 점잖고 믿음직스러움(7))	10대	77	4.82	1.155	77	4.34	1.304
	20대	106	4.65	1.518	109	4.32	1.209
	30대	92	4.74	1.398	92	4.21	1.280
	40대	105	4.97	1.220	105	4.32	1.173
	50대	81	4.88	1.418	82	4.34	1.239
	60대	94	5.04	1.383	91	4.53	1.177
	70대이상	36	5.39	1.626	35	4.60	1.631
무뚝뚝하고 정이 없음(1) ↔ 부드럽고 정감(7)	10대	75	4.95	1.442	77	4.78	1.177
	20대	109	4.93	1.626	107	4.82	1.420
	30대	90	4.94	1.531	93	4.59	1.476
	40대	105	5.09	1.435	104	4.77	1.388
	50대	83	4.98	1.689	82	4.93	1.395
	60대	98	5.22	1.496	94	4.94	1.343
	70대이상	36	5.31	1.653	36	5.03	1.715
무식해 보임(1) ↔ 유식해 보임(7)	10대	76	5.11	1.312	76	4.82	1.080
	20대	107	4.93	1.439	107	4.80	1.262
	30대	93	4.69	1.414	92	4.57	1.303
	40대	105	4.91	1.272	105	4.73	1.227
	50대	81	4.84	1.418	80	4.73	1.292
	60대	94	5.12	1.382	92	4.93	1.087
	70대이상	34	5.41	1.598	35	5.09	1.560
힘이 없어 보임(1) ↔ 썩썩함(7)	10대	77	5.09	1.138	77	4.44	1.164
	20대	107	5.21	1.406	107	3.95	1.349
	30대	92	4.86	1.449	92	4.03	1.386
	40대	105	5.32	1.244	105	4.18	1.045
	50대	83	5.25	1.584	80	4.29	1.314
	60대	96	5.33	1.327	92	4.50	1.144
	70대이상	34	5.71	1.426	35	4.57	1.770



<그림 36> 연령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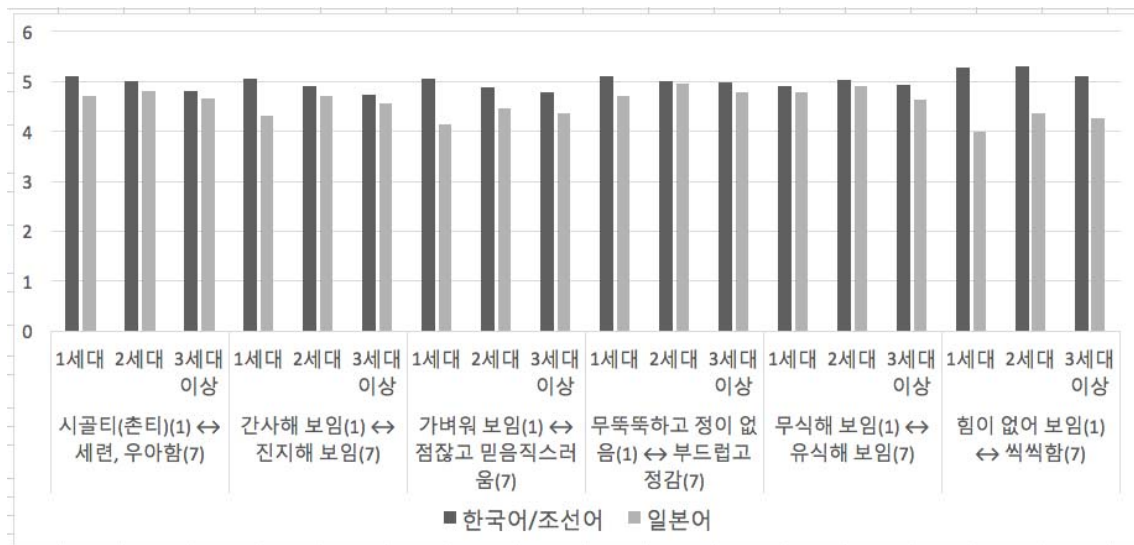
(단위: 평균값 7점척도)

○ 세대별

이주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별 차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어 보다는 한국어/조선어에 대한 평균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조선어에 대한 긍정적 느낌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한국어/조선어에 대해서는 대체로 1세대 동포들이 긍정적 느낌을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일본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2세대 동포들이 일본어를 더 긍정적인 느낌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43> 세대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질 문	세대	한국어/조선어			일본어		
		N	평균 (7점척도)	표준 편차	N	평균 (7점척도)	표준 편차
시골티(촌티)(1) ↔ 세련, 우아함(7)	1세대	153	5.12	1.469	152	4.72	1.329
	2세대	156	5.01	1.463	151	4.80	1.222
	3세대 이상	261	4.81	1.271	262	4.67	1.210
간사해 보임(1) ↔ 진지해 보임(7)	1세대	153	5.07	1.487	151	4.32	1.539
	2세대	154	4.92	1.346	152	4.70	1.424
	3세대 이상	261	4.73	1.312	260	4.57	1.306
가벼워 보임(1) ↔ 점잖고 믿음직스러움(7)	1세대	152	5.05	1.484	154	4.14	1.382
	2세대	154	4.89	1.458	151	4.47	1.130
	3세대 이상	261	4.79	1.283	262	4.36	1.220
무뚝뚝하고 정이 없음(1) ↔ 부드럽고 정감(7)	1세대	156	5.10	1.714	151	4.71	1.340
	2세대	158	5.02	1.558	152	4.95	1.329
	3세대 이상	258	4.98	1.457	262	4.78	1.275
무식해 보임(1) ↔ 유식해 보임(7)	1세대	153	4.90	1.522	151	4.79	1.340
	2세대	153	5.03	1.480	150	4.92	1.156
	3세대 이상	260	4.93	1.290	261	4.64	1.225
힘이 없어 보임(1) ↔ 썩썩함(7)	1세대	153	5.27	1.595	154	3.99	1.458
	2세대	155	5.30	1.310	150	4.36	1.217
	3세대 이상	261	5.10	1.304	262	4.26	1.216



(단위: 평균값 7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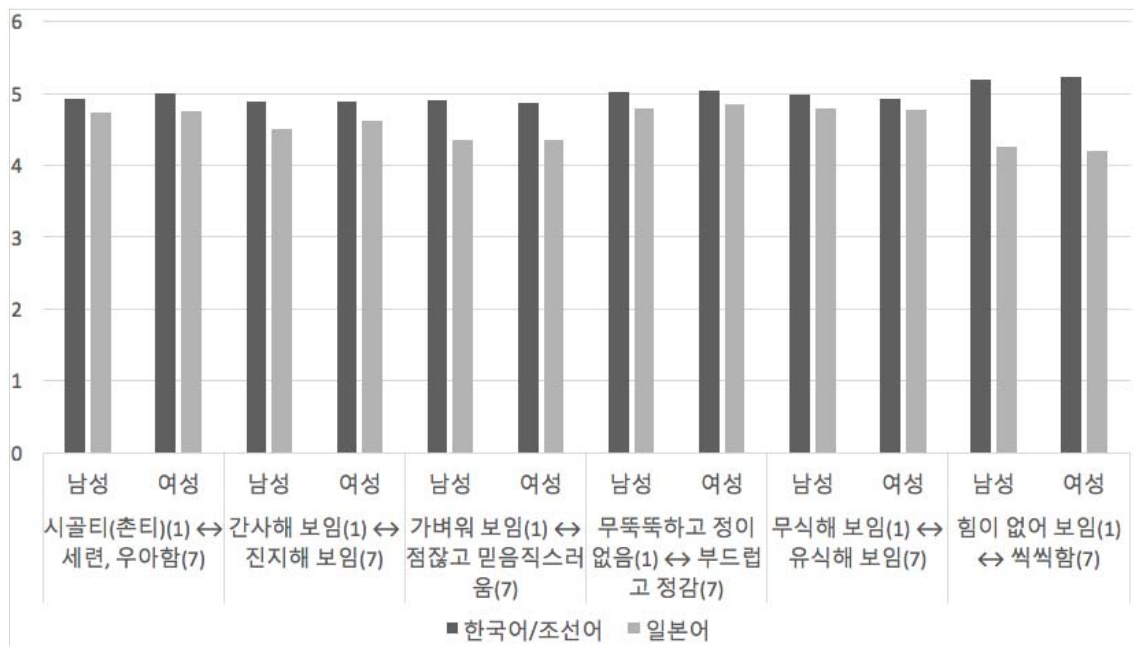
<그림 37> 세대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평균값

○ 성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을 성별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평균값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과 여성 모두 일본어 보다는 한국어/조선어를 더 긍정적인 언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 성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질 문	성별	한국어/조선어			일본어		
		N	평균 (7점척도)	표준 편차	N	평균 (7점척도)	표준 편차
시골티(촌티)(1) ↔ 세련, 우아함(7)	남성	295	4.92	1.431	294	4.73	1.290
	여성	297	5.01	1.313	292	4.75	1.197
간사해 보임(1) ↔ 진지해 보임(7)	남성	296	4.89	1.418	294	4.50	1.438
	여성	294	4.89	1.313	290	4.63	1.366
가벼워 보임(1) ↔ 점잖고 믿음직스러움(7)	남성	293	4.91	1.441	296	4.35	1.296
	여성	295	4.86	1.329	292	4.36	1.215
무뚝뚝하고 정이 없음(1) ↔ 부드럽고 정감(7)	남성	293	5.03	1.607	294	4.79	1.389
	여성	300	5.05	1.489	296	4.85	1.411
무식해 보임(1) ↔ 유식해 보임(7)	남성	294	4.99	1.488	295	4.80	1.237
	여성	293	4.93	1.296	289	4.78	1.248
힘이 없어 보임(1) ↔ 씩씩함(7)	남성	295	5.20	1.451	295	4.26	1.308
	여성	296	5.24	1.304	290	4.21	1.274



(단위: 평균값 7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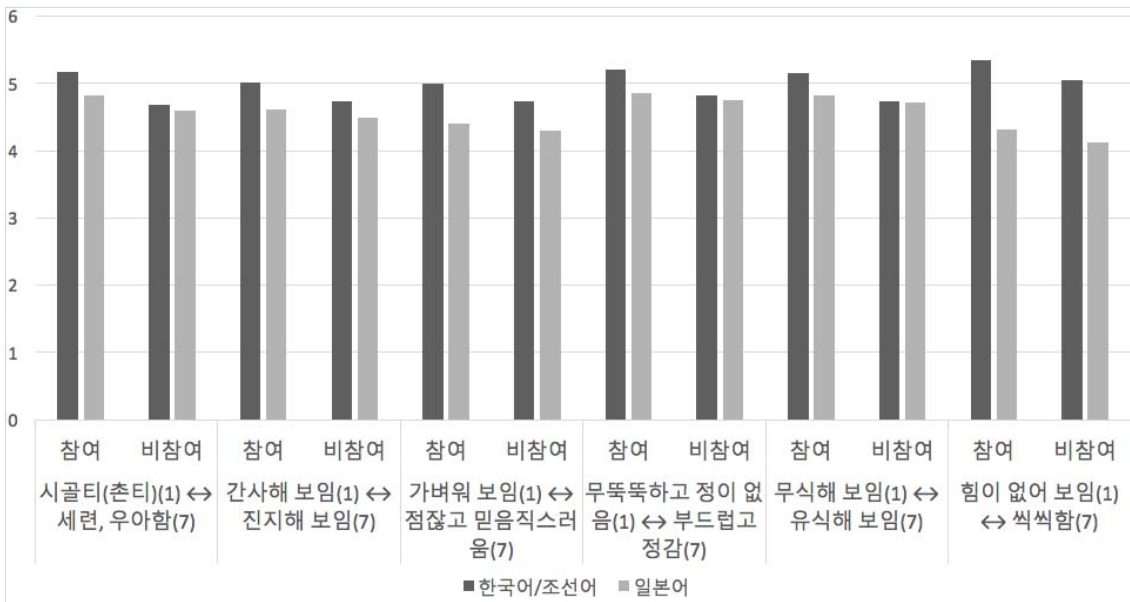
<그림 38> 성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평균값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도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 모두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본어의 경우 4점대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어/조선어에 대한 평균값은 5점대 전후로 나타나는 결과로 보아, 두 집단 모두 대체로 일본어보다는 한국어/조선어에 대한 긍정적 느낌이 더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5>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질 문	동포사회 단체 참여여부	한국어/조선어			일본어		
		N	평균 (7점척도)	표준 편차	N	평균 (7점척도)	표준 편차
시골티(촌티)(1) ↔ 세련, 우아함(7)	참여	325	5.17	1.306	320	4.83	1.218
	비참여	263	4.69	1.398	263	4.60	1.252
간사해 보임(1) ↔ 진지해 보임(7)	참여	323	5.01	1.323	320	4.62	1.402
	비참여	263	4.73	1.398	261	4.49	1.391
가벼워 보임(1) ↔ 점잖고 믿음직스러움(7)	참여	323	4.99	1.368	320	4.40	1.207
	비참여	261	4.74	1.387	265	4.30	1.293
무뚝뚝하고 정이 없음(1) ↔ 부드럽고 정감(7)	참여	324	5.21	1.482	323	4.86	1.366
	비참여	265	4.83	1.583	263	4.75	1.432
무식해 보임(1) ↔ 유식해 보임(7)	참여	321	5.15	1.316	321	4.83	1.222
	비참여	262	4.73	1.433	261	4.72	1.260
힘이 없어 보임(1) ↔ 썩썩함(7)	참여	323	5.34	1.301	322	4.32	1.223
	비참여	263	5.05	1.427	261	4.12	1.356



(단위: 평균값 7점척도)

<그림 39>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 평균값

6)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1) 기본 분석

한국어/조선어에 대한 이해도는 3개의 하위 문항으로 나누어서 조사했으며, ‘(1)그렇다’에서 ‘(5)그렇지 않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한국어/조선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 문항에서 평균값이 모두 3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만 듣고도 재일동포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응답의 평균은 3.92로, 재일동포들이 한국어/조선어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람의 말이나 한국 방송에 대한 이해력도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46>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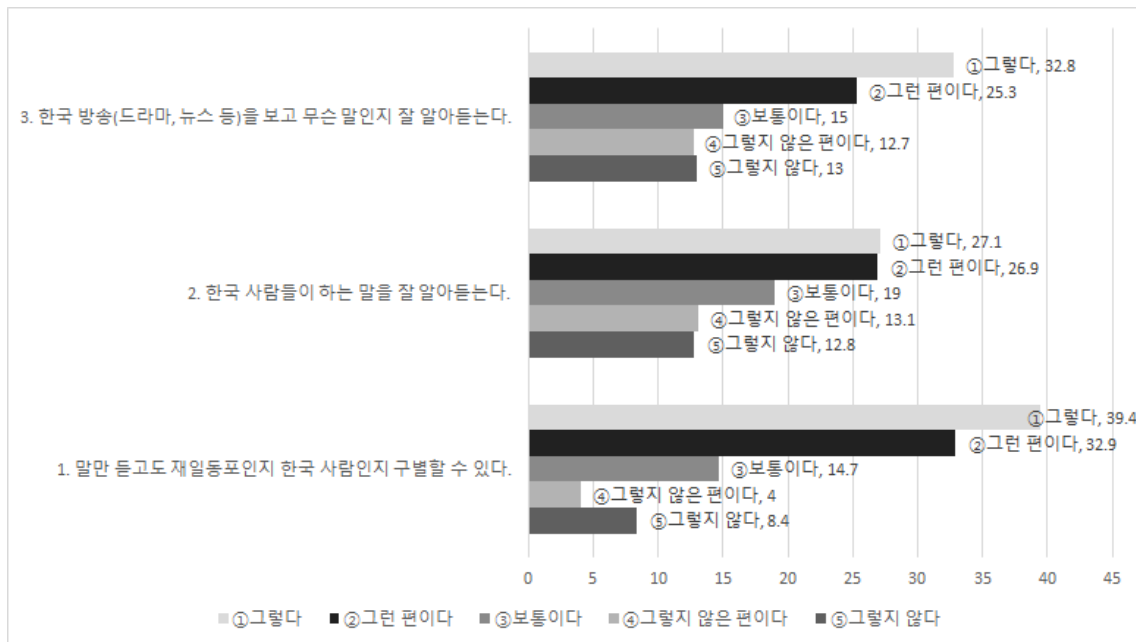
(단위: %(명))

질 문	그렇다 ¹⁷⁾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¹⁸⁾	무응답	차이 ¹⁹⁾	평균 (5점척도)
1. 말만 듣고도 재일동포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	72.3 (457)	14.7 (93)	12.4 (78)	0.6 (4)	59.9	3.92
2.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 아듣는다.	54.0 (341)	19.0 (120)	25.9 (164)	1.1 (7)	28.1	3.43
3. 한국 방송(드라마, 뉴스 등)을 보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는다.	58.1 (367)	15.0 (95)	25.7 (162)	1.3 (8)	32.4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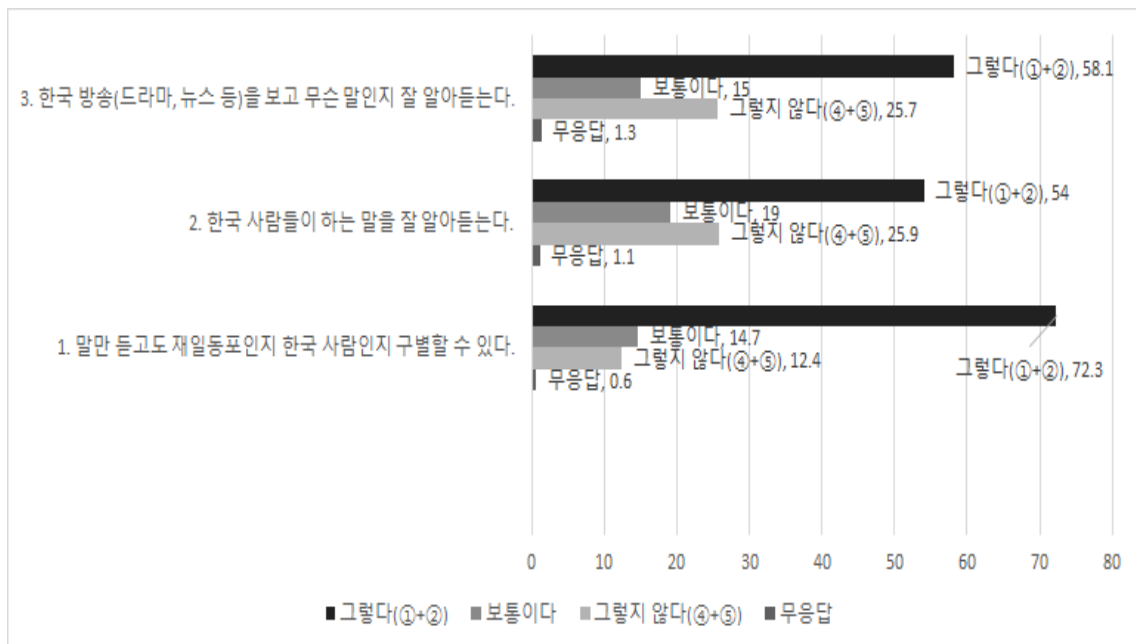
17) ‘그렇다’는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응답 비율의 합

18)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응답 비율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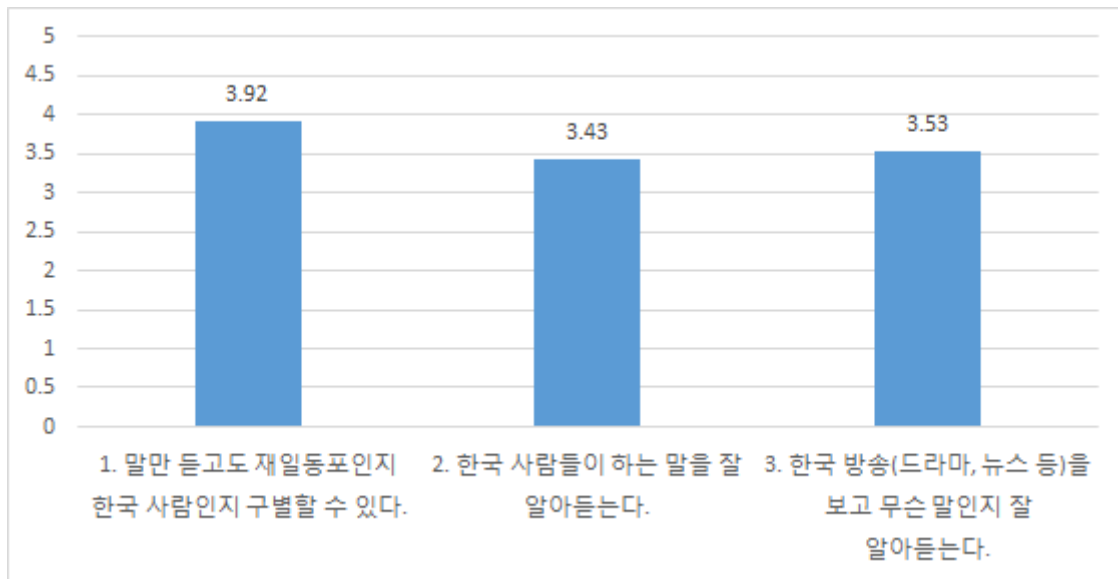
19) 차이는 ‘그렇다’의 비율에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을 뺀 값



<그림 40>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1) (단위: %)



<그림 41>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2) (단위: %)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42>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평균값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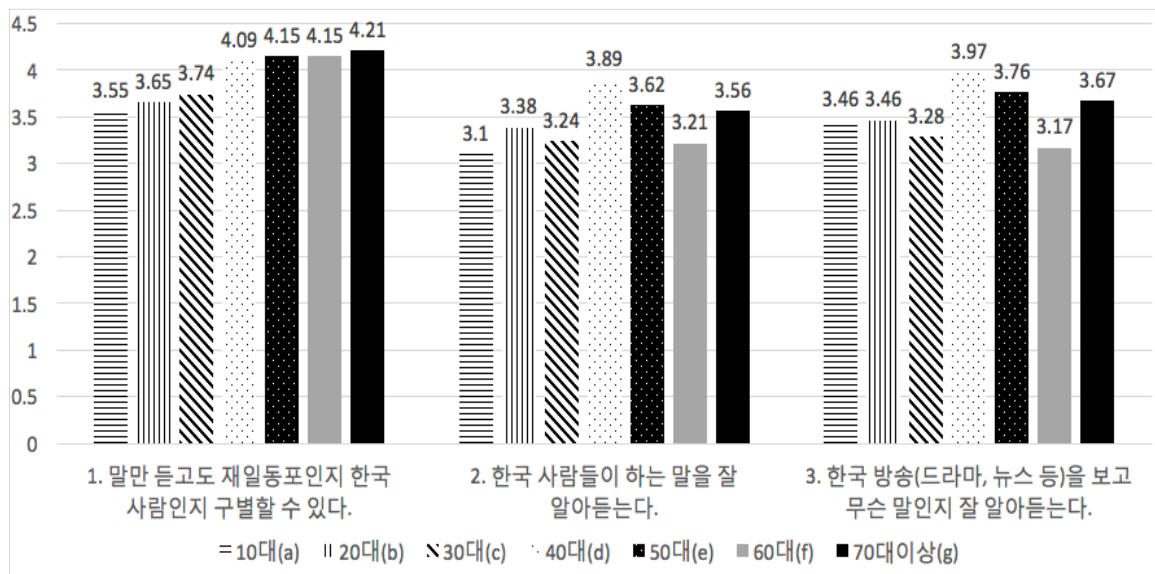
○ 연령별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연령에 따라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확률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1)말만 듣고도 재일동포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 문항에서는 50대, 60대, 70대 이상의 장년층이 10대, 20대보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821$, $p < .001$). 다음으로, ‘(2)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다’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집단은 10대와 40대로 나타났는데, 40대가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잘 알아듣는 것으로 나타났다($F=4.137$, $p < .001$). 마지막으로 ‘(3)한국 방송(드라마, 뉴스 등)을 보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는다’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은 40대와 60대로, 40대가 60대보다 한국방송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4.100$, $p < .001$).

<표 47> 연령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질 문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 정
1. 말만 듣고도 재 일동포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	10대(a)	78	3.55	1.316	4.821 (.000***)	e=f=g >a=b
	20대(b)	110	3.65	1.218		
	30대(c)	94	3.74	1.226		
	40대(d)	110	4.09	1.097		
	50대(e)	86	4.15	1.242		
	60대(f)	107	4.15	1.114		
	70대이상(g)	43	4.21	1.036		
2.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 듣는다.	10대(a)	78	3.10	1.392	4.137 (.000***)	d>a
	20대(b)	109	3.38	1.246		
	30대(c)	93	3.24	1.363		
	40대(d)	109	3.89	1.336		
	50대(e)	86	3.62	1.356		
	60대(f)	107	3.21	1.365		
	70대이상(g)	43	3.56	1.278		
3. 한국 방송(드라 마, 뉴스 등)을 보 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는다.	10대(a)	78	3.46	1.430	4.100 (.000***)	d>f
	20대(b)	110	3.46	1.352		
	30대(c)	93	3.28	1.470		
	40대(d)	108	3.97	1.286		
	50대(e)	86	3.76	1.328		
	60대(f)	106	3.17	1.390		
	70대이상(g)	43	3.67	1.459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43> 연령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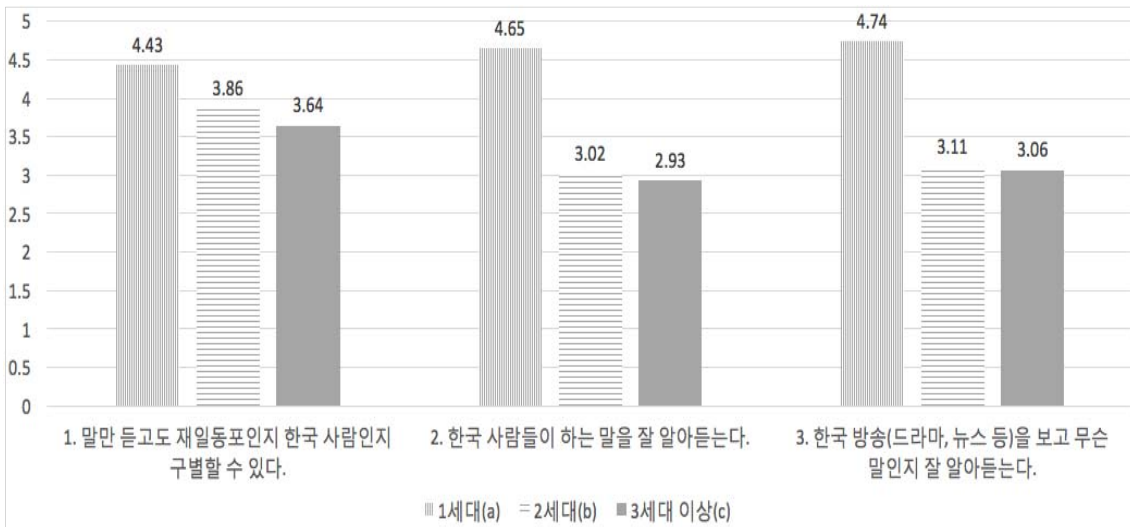
○ 세대별

세대별 차이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항목에서 1세대가 2세대와 3세대 이상의 집단보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세대 동포가 다른 세대보다 말만 듣고 재일동포인지 한국 사람인지 더 잘 구별할 수 있고($F=24.437$, $p<.001$),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F=134.261$, $p<.001$)과 한국방송의 내용($F=118.801$, $p<.001$)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세대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질 문	세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 정
1. 말만 듣고도 재일동포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	1세대(a)	165	4.43	0.759	24.437 (.000***)	a>b=c
	2세대(b)	167	3.86	1.184		
	3세대 이상(c)	266	3.64	1.308		
2.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다.	1세대(a)	164	4.65	0.698	134.261 (.000***)	a>b=c
	2세대(b)	166	3.02	1.272		
	3세대 이상(c)	265	2.93	1.227		
3. 한국 방송(드라마, 뉴스 등)을 보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는다.	1세대(a)	164	4.74	0.633	118.801 (.000***)	a>b=c
	2세대(b)	166	3.11	1.303		
	3세대 이상(c)	264	3.06	1.346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44> 세대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평균값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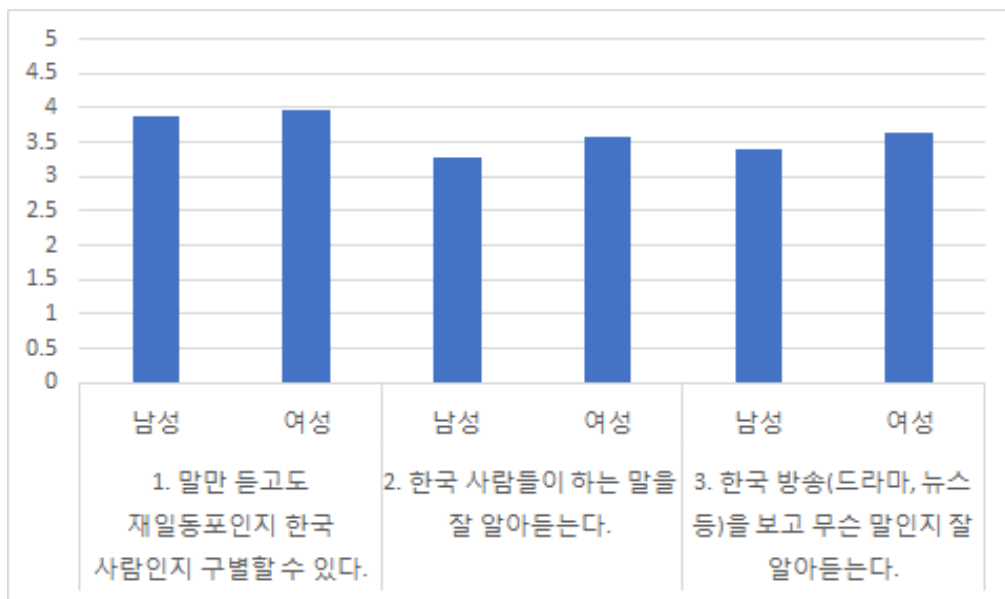
조사 응답자의 성별과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2)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다’ 와 ‘(3)한국 방송을 보고 무슨 말인지

지 잘 알아듣는다’로 나타났다. 두 항목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9> 성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질 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말만 듣고도 재일동포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	남성	306	3.88	1.230	-.862	.389
	여성	319	3.96	1.190		
2.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다.	남성	304	3.28	1.417	-2.724	.007**
	여성	318	3.57	1.285		
3. 한국 방송(드라마, 뉴스 등)을 보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는다.	남성	304	3.41	1.448	-2.093	.037*
	여성	317	3.65	1.351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45> 성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평균값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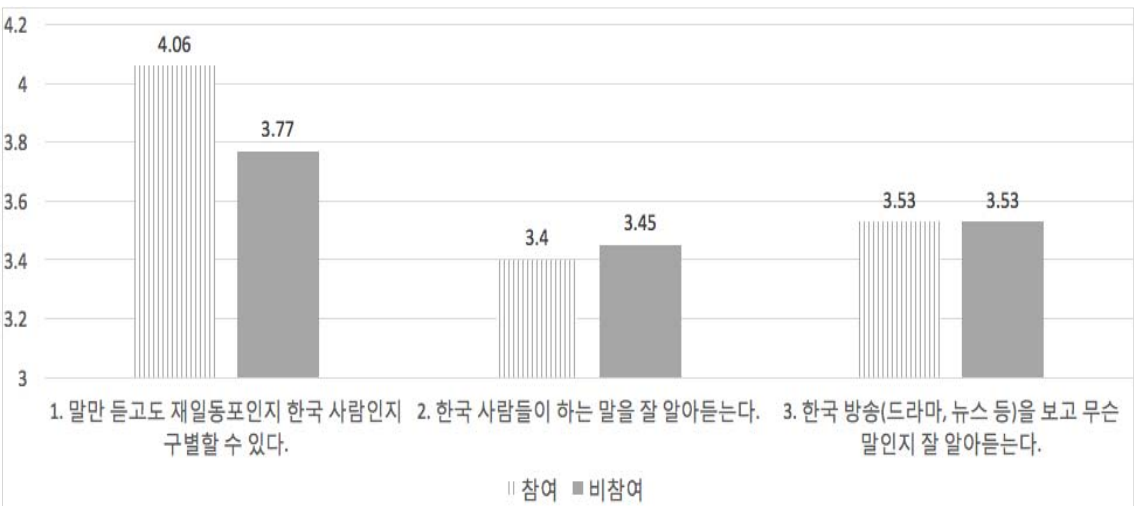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에 따른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오직 ‘(1)말만 듣고도 재일동포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 문항에서만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이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재일동포와 한국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t=2.948$, $p<.01$). 이러한 차이는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면서 다른 재일동포들과의 접촉 경험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0>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질 문	참여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말만 듣고도 재일동포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	참여	342	4.06	1.056	2.948	.003**
	비참여	277	3.77	1.335		
2.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다.	참여	340	3.40	1.260	-.382	.703
	비참여	276	3.45	1.470		
3. 한국 방송(드라마, 뉴스 등)을 보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는다.	참여	339	3.53	1.308	-.065	.948
	비참여	276	3.53	1.507		

* $p<.05$, ** $p<.01$, ***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46>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평균값

2.3.1.3. 언어 능력

1) 전반적인 언어 능력

(1) 기본 분석

각 영역별 전반적인 언어능력은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도록 설계되

었으며, ‘(1)아주 못 한다’에서 ‘(5)아주 잘 한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각 영역별로 모두 평균이 3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평균값이 높은 영역별로 나열하면, 읽기 능력(3.69), 듣기 능력(3.53), 쓰기 능력(3.39), 말하기 능력(3.31)의 순이다.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주체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영역이며, 평소 일본 사회에서 한국어/조선어로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은 일상적으로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접함으로써 높은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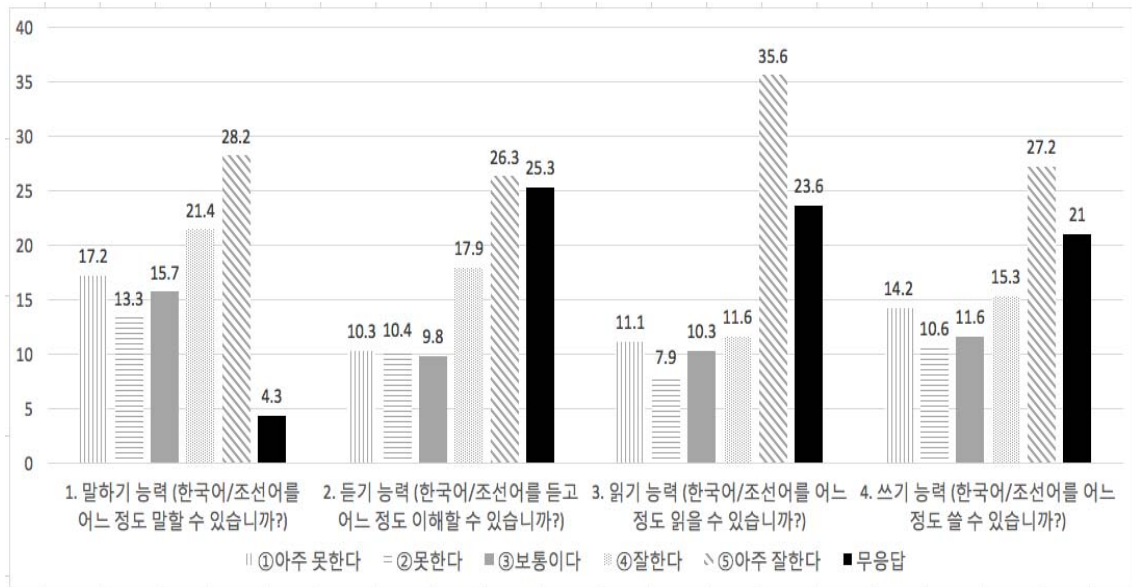
<표 51>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 (단위: %(명))

질 문	못한다 20)	보통 이다	잘한다 21)	무응답	차이 ²²⁾	평균 (5점척도)
1. 말하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30.5 (193)	15.7 (99)	49.6 (313)	4.3 (27)	19.1	3.31
2. 듣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20.7 (131)	9.8 (62)	44.2 (279)	25.3 (160)	23.5	3.53
3. 읽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19.0 (120)	10.3 (65)	47.2 (298)	23.6 (149)	28.2	3.69
4. 쓰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24.8 (157)	11.6 (73)	42.5 (269)	21.0 (133)	17.7	3.39

20) ‘못 한다’는 ‘아주 못 한다’와 ‘못 한다’의 응답 비율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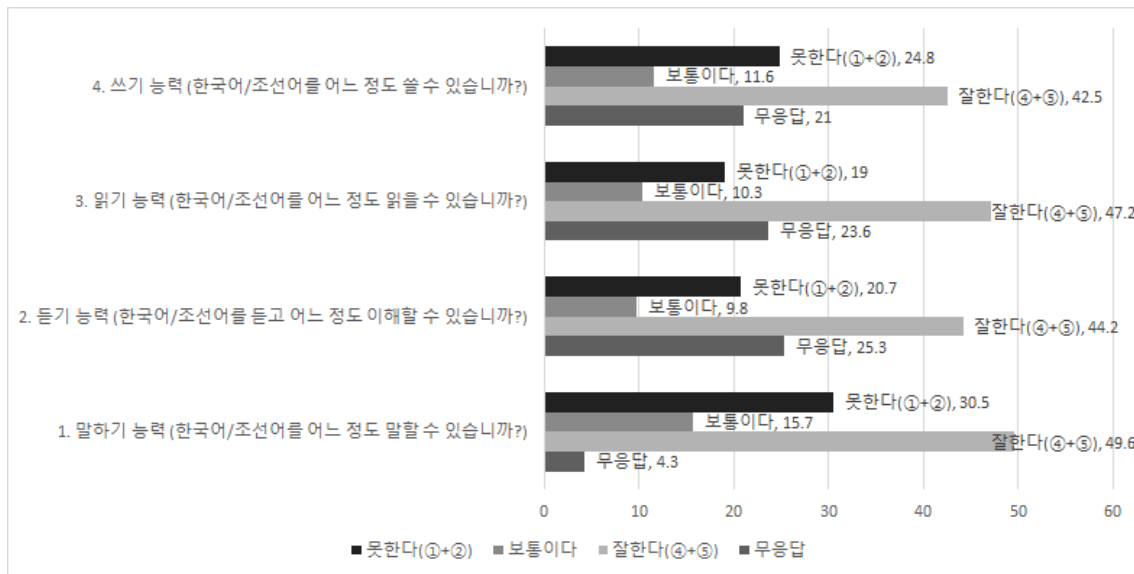
21) ‘잘 한다’는 ‘아주 잘 한다’와 ‘잘 한다’의 응답 비율의 합

22) 차이는 ‘잘 한다’의 비율에서 ‘못 한다’의 비율을 뺀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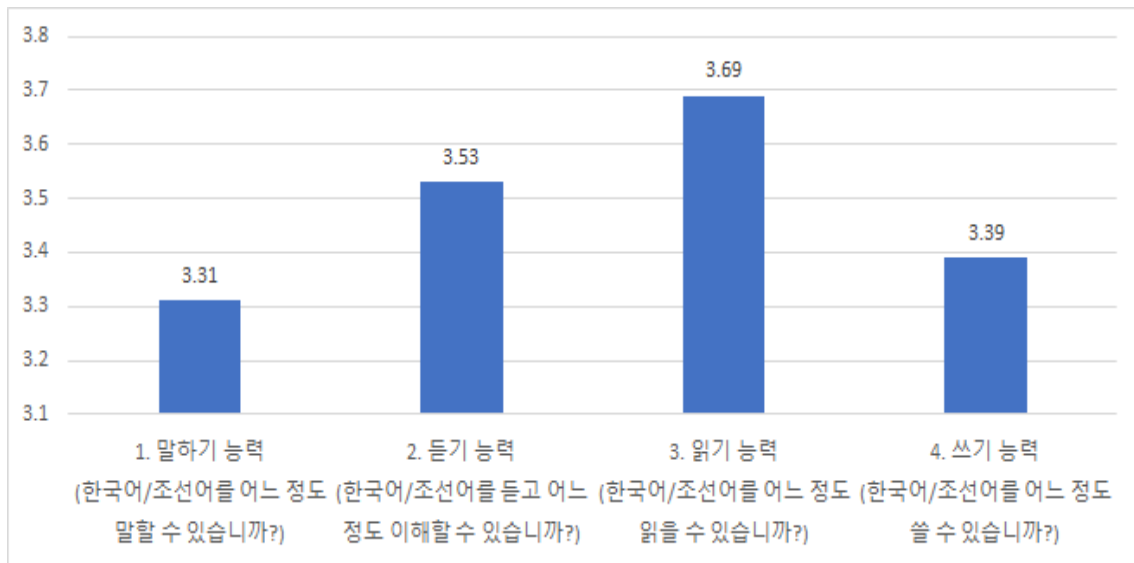
<그림 47>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 (1)

(단위: %)



<그림 48>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 (2)

(단위: %)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49>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 평균값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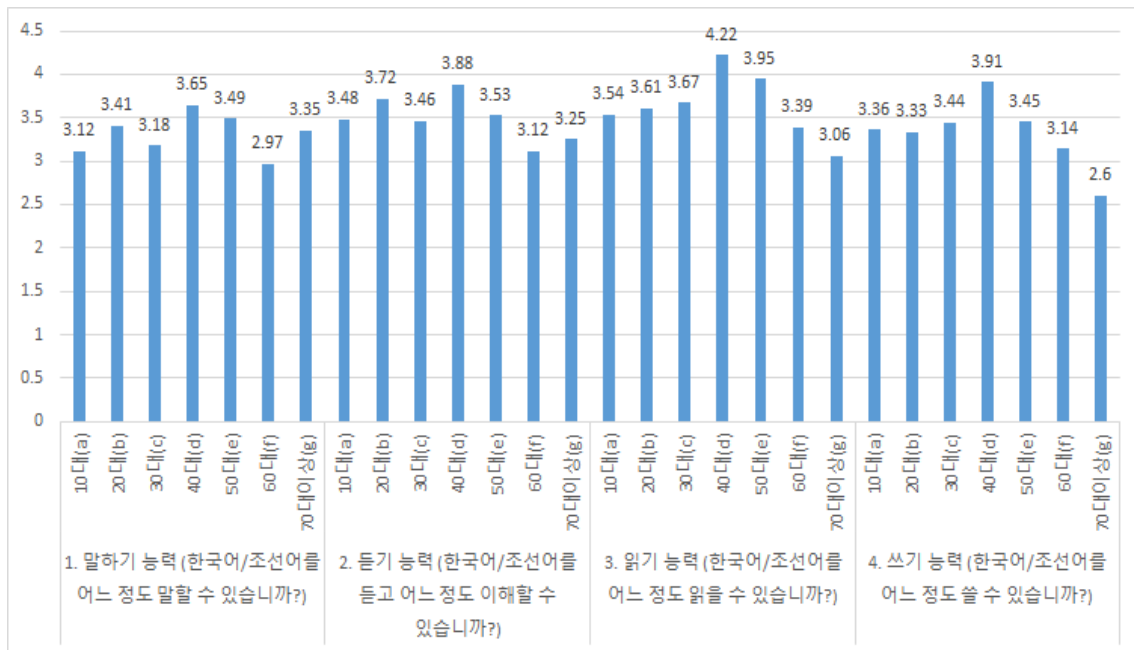
○ 연령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말하기 능력과 듣기 능력에서는 유의확률 $p < .05$ 수준에서 각각 40대가 60대보다 한국어 능력이 더 뛰어났으며, 읽기 능력에서는 40대, 30대, 70대 이상의 순으로 높았다($F=3.847$, $p < .01$). 쓰기 능력에서도 40대의 언어 능력이 가장 뛰어났으며, 그 다음이 20대와 60대였으며, 70대 이상의 쓰기 능력이 가장 낮았다($F=3.876$, $p < .01$).

<표 52> 연령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질 문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 검정
1. 말하기 능력 (한국어/ 조선어를 어느 정도 말 할 수 있습니까?)	10대(a)	74	3.12	1.374	2.539 (.020*)	d>f
	20대(b)	108	3.41	1.473		
	30대(c)	91	3.18	1.495		
	40대(d)	104	3.65	1.506		
	50대(e)	83	3.49	1.435		
	60대(f)	105	2.97	1.464		
	70대이상(g)	40	3.35	1.424		
2. 듣기 능력 (한국어/ 조선어를 듣고 어느 정 도 이해할 수 있습니 까?)	10대(a)	63	3.48	1.435	2.405 (.027*)	d>f
	20대(b)	83	3.72	1.355		
	30대(c)	70	3.46	1.441		
	40대(d)	86	3.88	1.401		
	50대(e)	64	3.53	1.425		
	60대(f)	74	3.12	1.480		
	70대이상(g)	32	3.25	1.459		
3. 읽기 능력 (한국어/ 조선어를 어느 정도 읽 을 수 있습니까?)	10대(a)	65	3.54	1.592	3.874 (.001**)	d>c>g
	20대(b)	92	3.61	1.540		
	30대(c)	76	3.67	1.455		
	40대(d)	85	4.22	1.257		
	50대(e)	60	3.95	1.395		
	60대(f)	72	3.39	1.449		
	70대이상(g)	33	3.06	1.676		
4. 쓰기 능력 (한국어/ 조선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10대(a)	64	3.36	1.547	3.876 (.001**)	d>b=f> g
	20대(b)	92	3.33	1.549		
	30대(c)	78	3.44	1.456		
	40대(d)	89	3.91	1.337		
	50대(e)	65	3.45	1.415		
	60대(f)	76	3.14	1.555		
	70대이상(g)	35	2.60	1.594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50> 연령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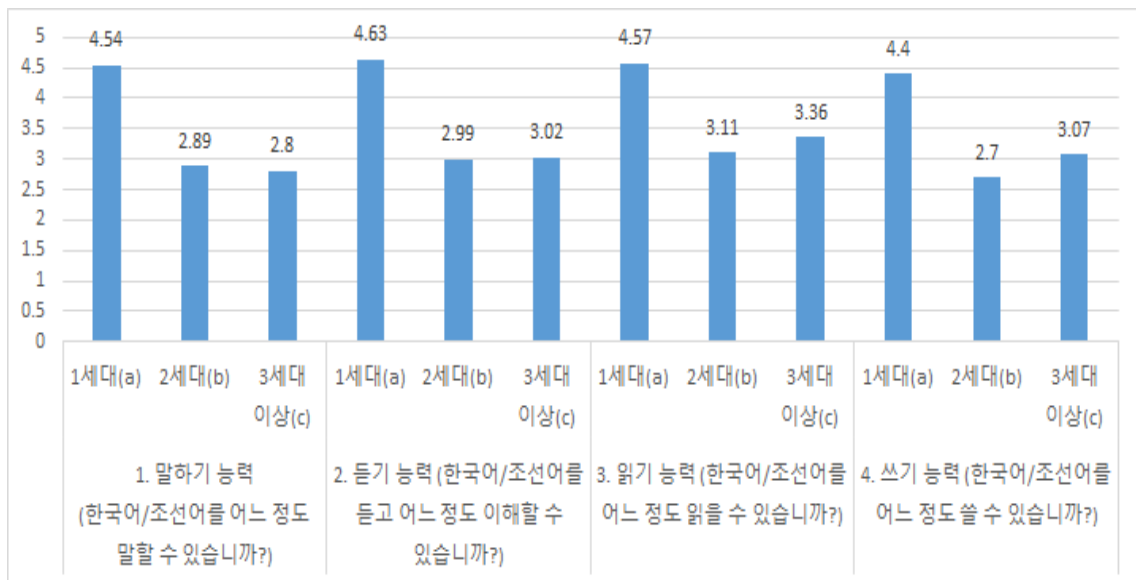
○ 세대별

재일 동포들의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을 이주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말하기($F=108.292$, $p<.001$), 듣기($F=91.116$, $p<.001$), 읽기 영역($F=49.507$, $p<.001$)에서는 1세대가 2세대와 3세대 이상 집단 보다 언어 능력이 더 뛰어났으며, 쓰기 영역에서는 1세대, 3세대 이상, 2세대의 순으로 능력 차이가 나타났다($F=65.896$, $p<.001$).

<표 53> 세대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질 문	세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 정
1. 말하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1세대(a)	164	4.54	0.817	108.292 (.000***)	a>b=c
	2세대(b)	162	2.89	1.383		
	3세대 이상(c)	251	2.80	1.399		
2. 듣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1세대(a)	150	4.63	0.689	91.116 (.000***)	a>b=c
	2세대(b)	111	2.99	1.338		
	3세대 이상(c)	187	3.02	1.424		
3. 읽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1세대(a)	155	4.57	0.882	49.507 (.000***)	a>b=c
	2세대(b)	114	3.11	1.466		
	3세대 이상(c)	193	3.36	1.578		
4. 쓰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1세대(a)	153	4.40	0.982	65.896 (.000***)	a>c>b
	2세대(b)	123	2.70	1.454		
	3세대 이상(c)	199	3.07	1.488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51> 세대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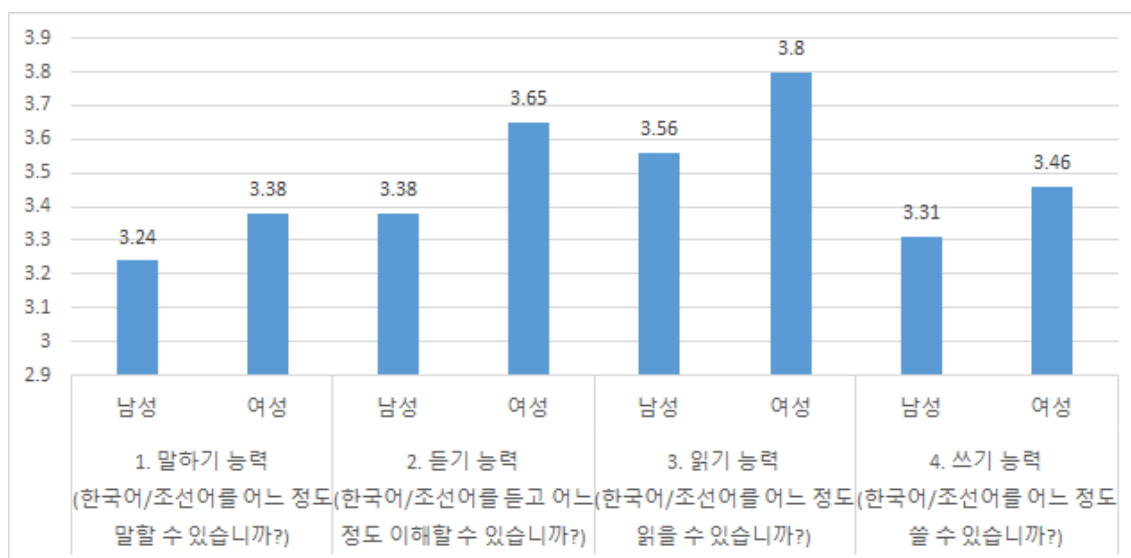
○ 성별

성별에 따른 차이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유의미한 영역은 듣기 능력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듣기 능력이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t=-2.025$, $p<.05$).

<표 54> 성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질 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말하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남성	295	3.24	1.520	-1.224	.222
	여성	307	3.38	1.429		
2. 듣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남성	221	3.38	1.490	-2.025	.043*
	여성	251	3.65	1.378		
3. 읽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남성	229	3.56	1.525	-1.763	.079
	여성	254	3.80	1.456		
4. 쓰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남성	238	3.31	1.541	-1.111	.267
	여성	260	3.46	1.484		

* $p<.05$, ** $p<.01$, ***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52> 성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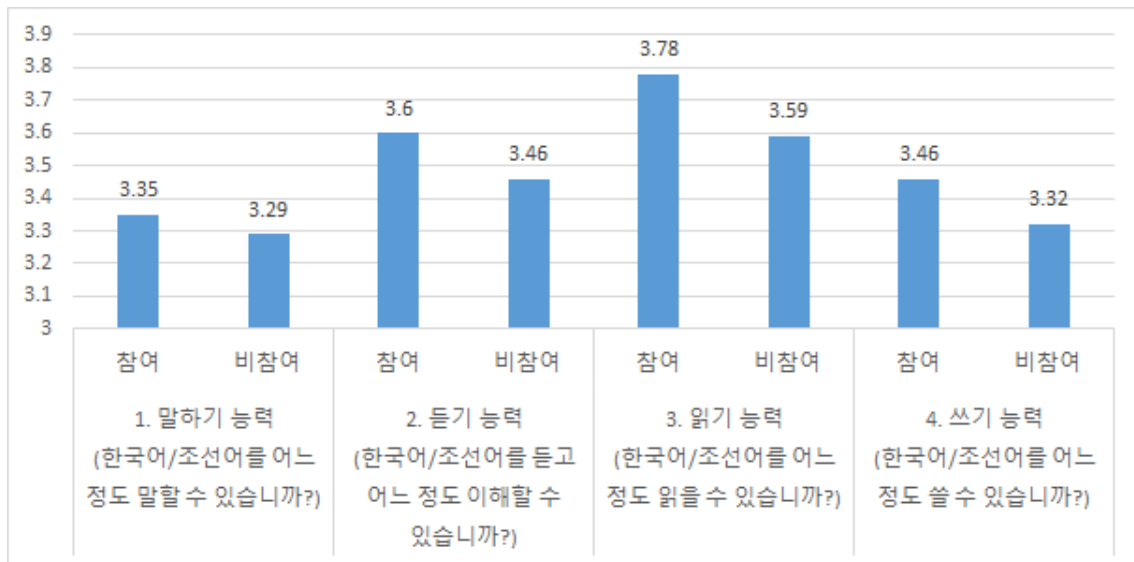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조사 응답자가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전반적인 언어 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평균값을 살펴보면, 모든 언어 영역에서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의 평균값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55>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질 문	참여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말하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참여	330	3.35	1.422	.508	.612
	비참여	266	3.29	1.530		
2. 듣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참여	245	3.60	1.386	1.045	.296
	비참여	221	3.46	1.481		
3. 읽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참여	251	3.78	1.406	1.390	.165
	비참여	224	3.59	1.571		
4. 쓰기 능력 (한국어/조선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참여	254	3.46	1.471	1.088	.277
	비참여	237	3.32	1.545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53>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평균값

2) 한국어 말하기 능력

(1) 기본 분석

재일동포들의 한국어/조선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표에 제시된 네 개의 하위 단계를 통해 조사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평균값이 높을수록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문(1)은 가장 낮은 단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며, 질문(4)는 가장 높은 단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말하기 능력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높은 단계로 나아갈수록 ‘못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능력 평균값이 3.85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능력의 평균값은 2.69로 1점 이상의 편차를 보인다.

<표 56>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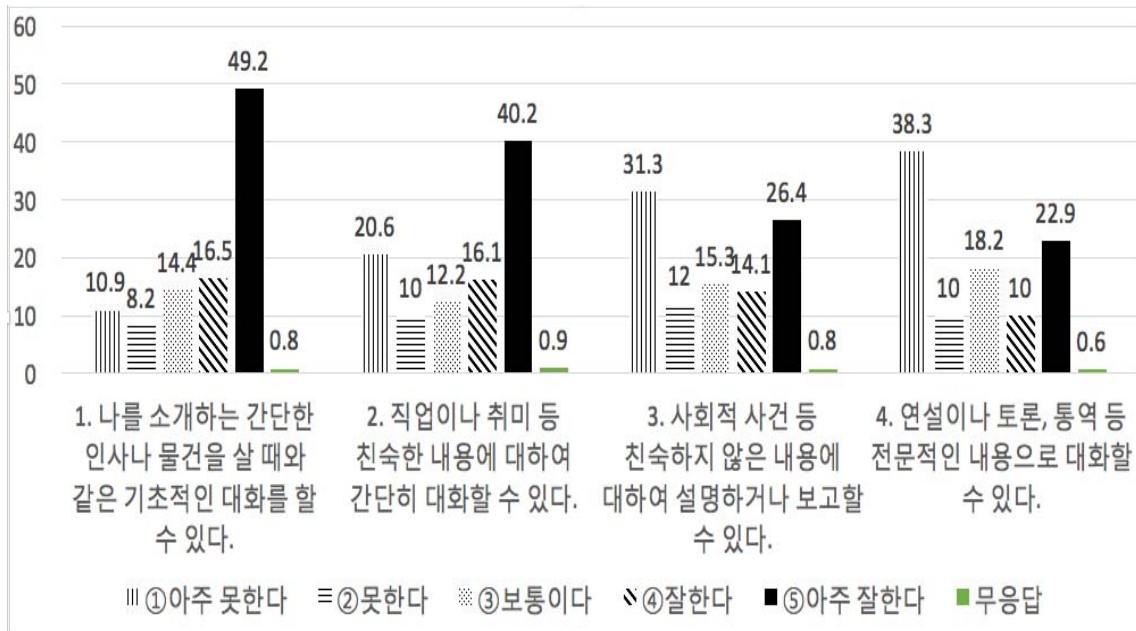
(단위: %(명))

질 문	못한다 23)	보통 이다	잘한다 24)	무응답	차이 25)	평균 (5점척도)
1.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19.1 (121)	14.4 (91)	65.7 (415)	0.8 (5)	46.6	3.85
2.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대화할 수 있다.	30.5 (193)	12.2 (77)	56.3 (356)	0.9 (6)	25.8	3.46
3.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43.4 (274)	15.3 (97)	40.5 (256)	0.8 (5)	-2.9	2.92
4.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48.3 (305)	18.2 (115)	32.9 (208)	0.6 (4)	-15.4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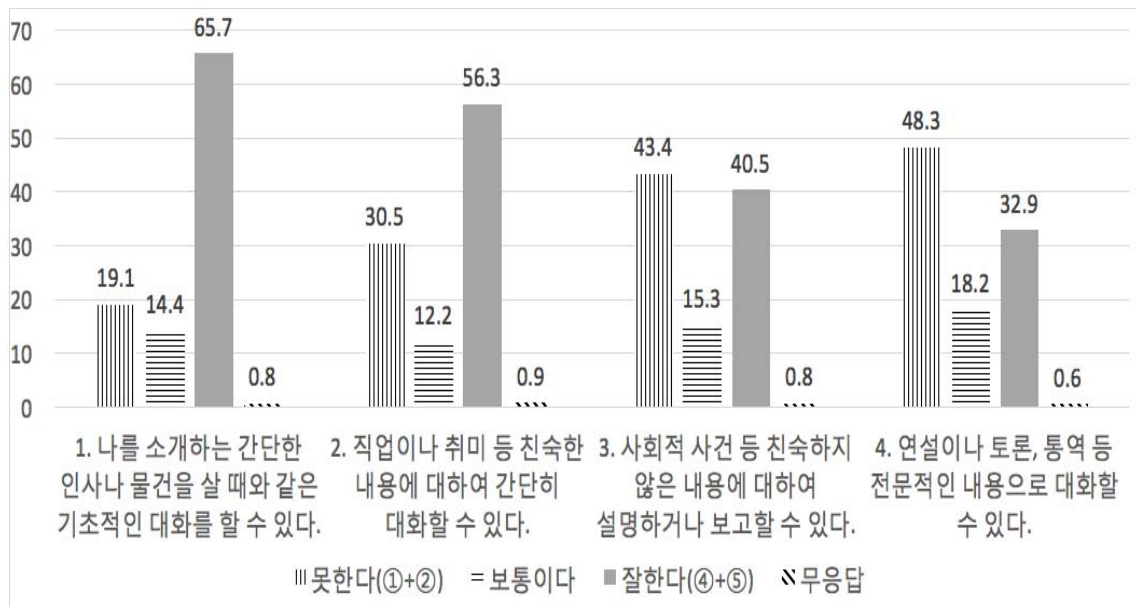
23) ‘못한다’는 ‘매우 못한다’와 ‘못한다’의 응답 비율의 합

24) ‘잘한다’는 ‘매우 잘한다’와 ‘잘한다’의 응답 비율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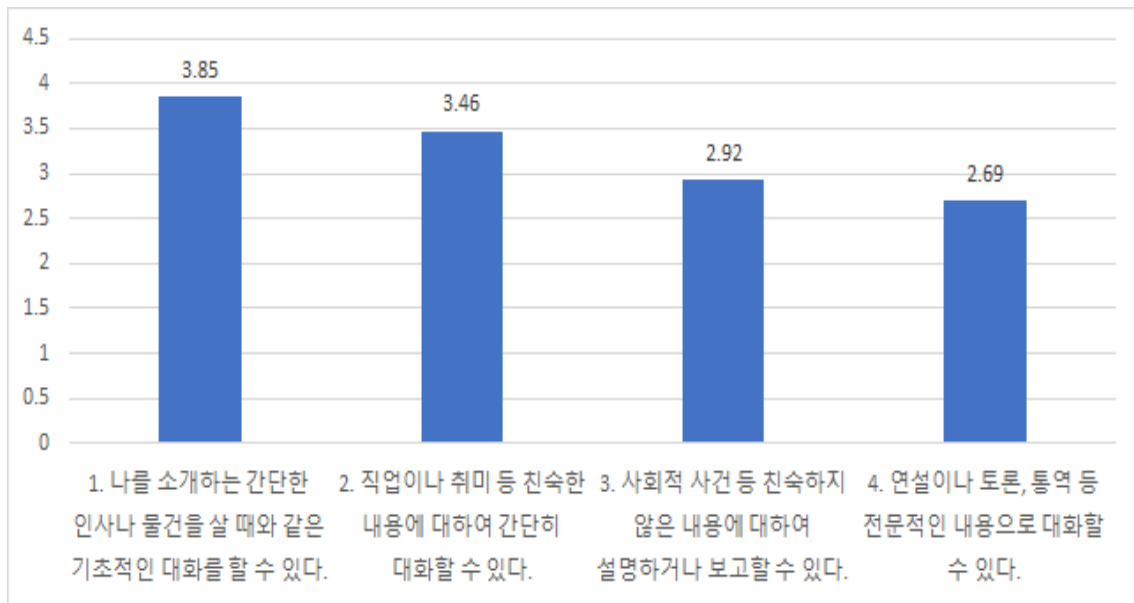
25) 차이는 ‘잘한다’의 비율에서 ‘못한다’의 비율을 뺀 값



<그림 54>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1) (단위: %)



<그림 55>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2) (단위: %)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56>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균값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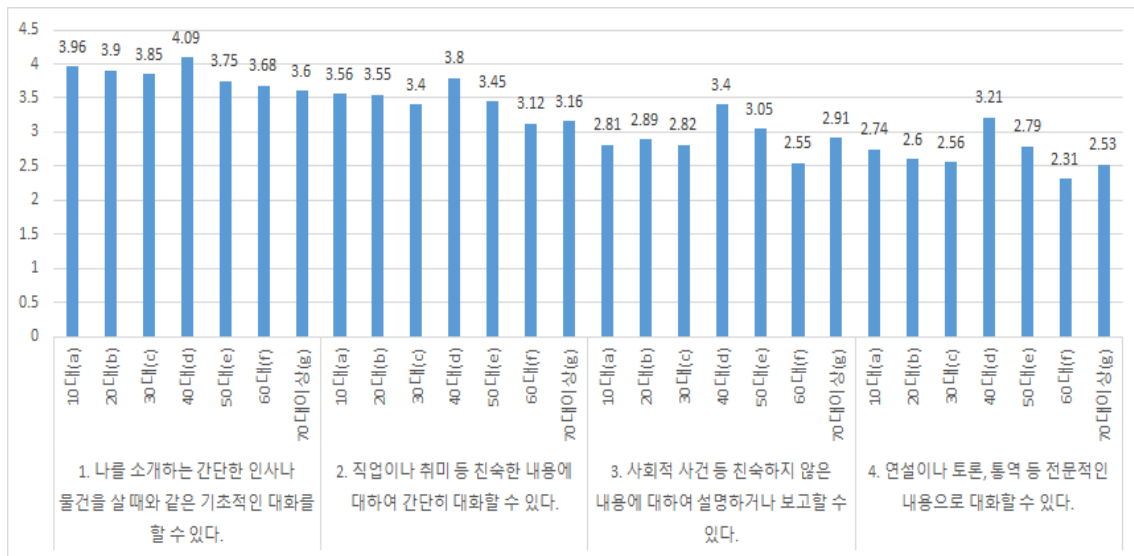
○ 연령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높은 수준의 단계에 해당하는 3단계와 4단계의 질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3)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질문에서는 40대가 10대, 30대, 60대보다 말하기 능력이 더 우수한 경향을 보인다($F=2.803$, $p<.05$). 한편, 가장 높은 단계인 ‘(4)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의 경우에서도 40대가 다른 연령층인 20대, 30대, 60대, 70대 이상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3.276$, $p<.01$).

<표 57> 연령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질 문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10대(a)	78	3.96	1.599	1.219 (.294)	—
	20대(b)	110	3.90	1.407		
	30대(c)	94	3.85	1.336		
	40대(d)	109	4.09	1.244		
	50대(e)	87	3.75	1.416		
	60대(f)	106	3.68	1.370		
	70대이상(g)	43	3.60	1.450		
2.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대화할 수 있다.	10대(a)	78	3.56	1.616	2.022 (.061)	—
	20대(b)	109	3.55	1.590		
	30대(c)	95	3.40	1.620		
	40대(d)	108	3.80	1.484		
	50대(e)	87	3.45	1.553		
	60대(f)	106	3.12	1.590		
	70대이상(g)	43	3.16	1.617		
3.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10대(a)	78	2.81	1.512	2.803 (.011*)	d>a=c=f
	20대(b)	110	2.89	1.576		
	30대(c)	95	2.82	1.624		
	40대(d)	108	3.40	1.600		
	50대(e)	87	3.05	1.620		
	60대(f)	106	2.55	1.574		
	70대이상(g)	43	2.91	1.716		
4.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10대(a)	78	2.74	1.591	3.276 (.004**)	d>b=c=f=g
	20대(b)	110	2.60	1.516		
	30대(c)	95	2.56	1.642		
	40대(d)	109	3.21	1.656		
	50대(e)	87	2.79	1.615		
	60대(f)	106	2.31	1.527		
	70대이상(g)	43	2.53	1.548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57> 연령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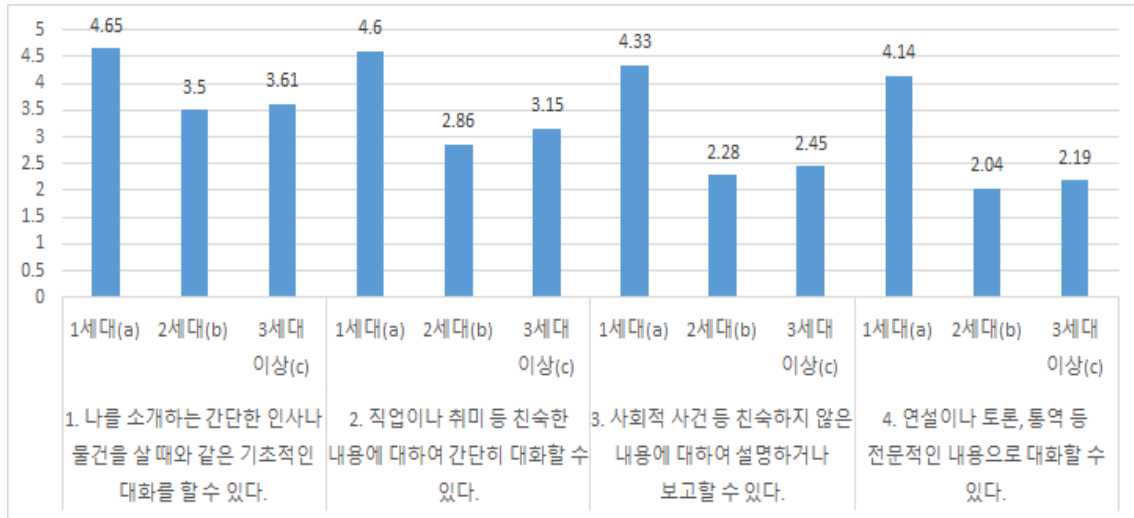
○ 세대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이주 세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유의확률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집단 간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해 보니 말하기 능력의 모든 단계에서 1세대가 2세대와 3세대 이상의 집단 보다 말하기 능력이 뛰어났다.

<표 58> 세대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질문	세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1세대(a)	165	4.65	0.631	42.303 (.000***)	a>b=c
	2세대(b)	167	3.50	1.435		
	3세대 이상(c)	266	3.61	1.491		
2.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대화할 수 있다.	1세대(a)	164	4.60	0.715	74.542 (.000***)	a>b=c
	2세대(b)	167	2.86	1.567		
	3세대 이상(c)	265	3.15	1.620		
3.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1세대(a)	165	4.33	1.014	124.736 (.000***)	a>b=c
	2세대(b)	167	2.28	1.475		
	3세대 이상(c)	265	2.45	1.453		
4.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1세대(a)	165	4.14	1.163	137.417 (.000***)	a>b=c
	2세대(b)	167	2.04	1.370		
	3세대 이상(c)	266	2.19	1.396		

* $p<.05$, ** $p<.01$, ***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58> 세대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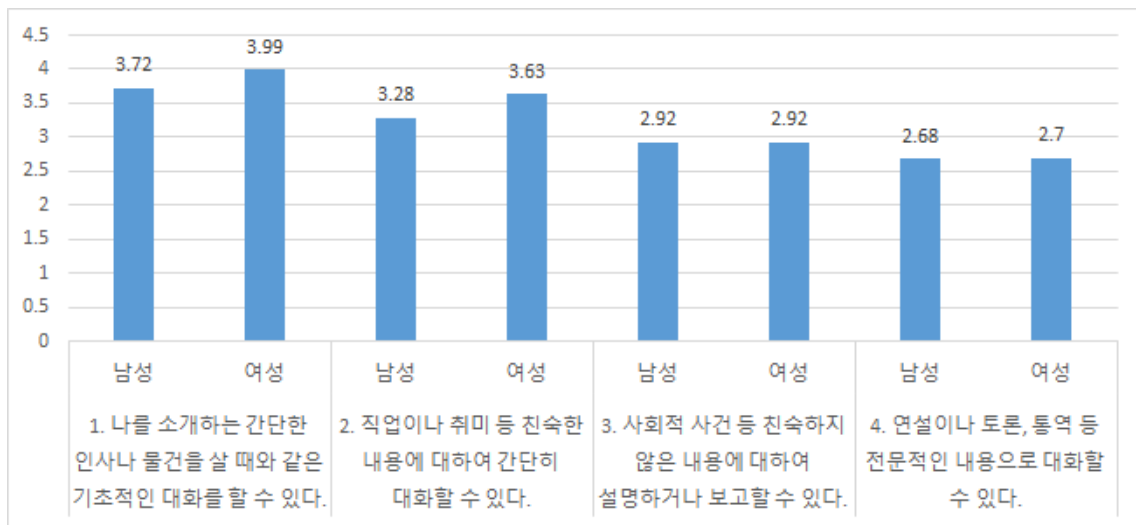
○ 성별

성별 차이에서는 가장 낮은 두 단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간단한 인사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t=-2.405$, $p<.05$)나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2.711 , $p<.01$)에 관하여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표 59> 성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질 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남성	306	3.72	1.442	-2.405	.016*
	여성	318	3.99	1.343		
2.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대화할 수 있다.	남성	307	3.28	1.627	-2.711	.007**
	여성	316	3.63	1.533		
3.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남성	307	2.92	1.598	-.020	.984
	여성	317	2.92	1.629		
4.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남성	307	2.68	1.614	-.160	.873
	여성	318	2.70	1.603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59> 성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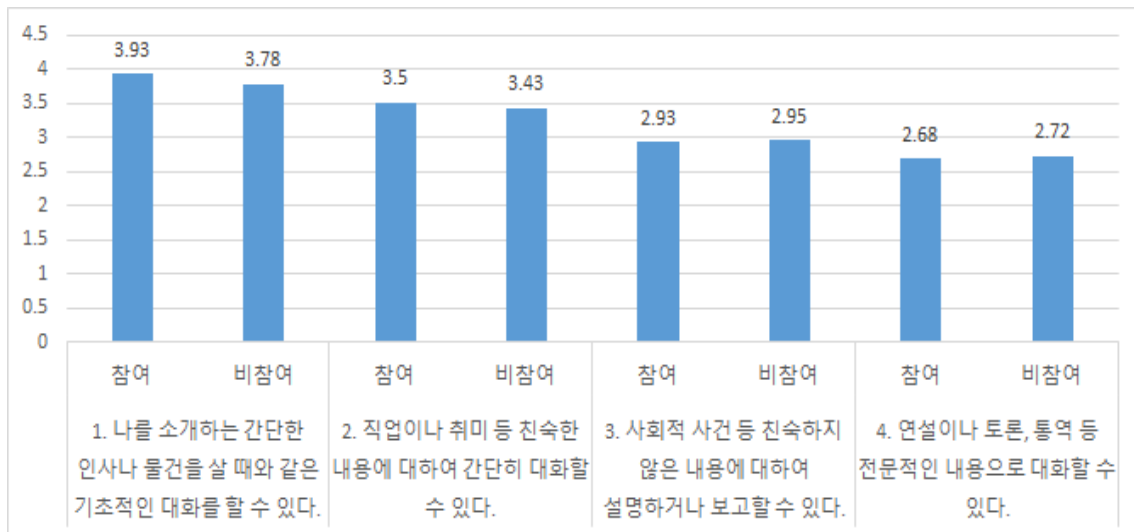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조사 응답자가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가와 한국어 말하기 능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질 문	참여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참여	342	3.93	1.330	1.383	.167
	비참여	276	3.78	1.465		
2.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대화할 수 있다.	참여	343	3.50	1.580	.507	.613
	비참여	274	3.43	1.587		
3.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참여	343	2.93	1.576	-.140	.888
	비참여	275	2.95	1.661		
4.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참여	343	2.68	1.568	-.298	.766
	비참여	276	2.72	1.662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60>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균값

3) 한국어 듣기 능력

(1) 기본 분석

재일동포들의 한국어/조선어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 역시 4단계의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1)아주 못 한다’에서 ‘(5)아주 잘 한다’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듣기 능력도 높은 단계로 나아갈수록 평균값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인사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평균값이 3.8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은 2.8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듣기 능력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1>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듣기 능력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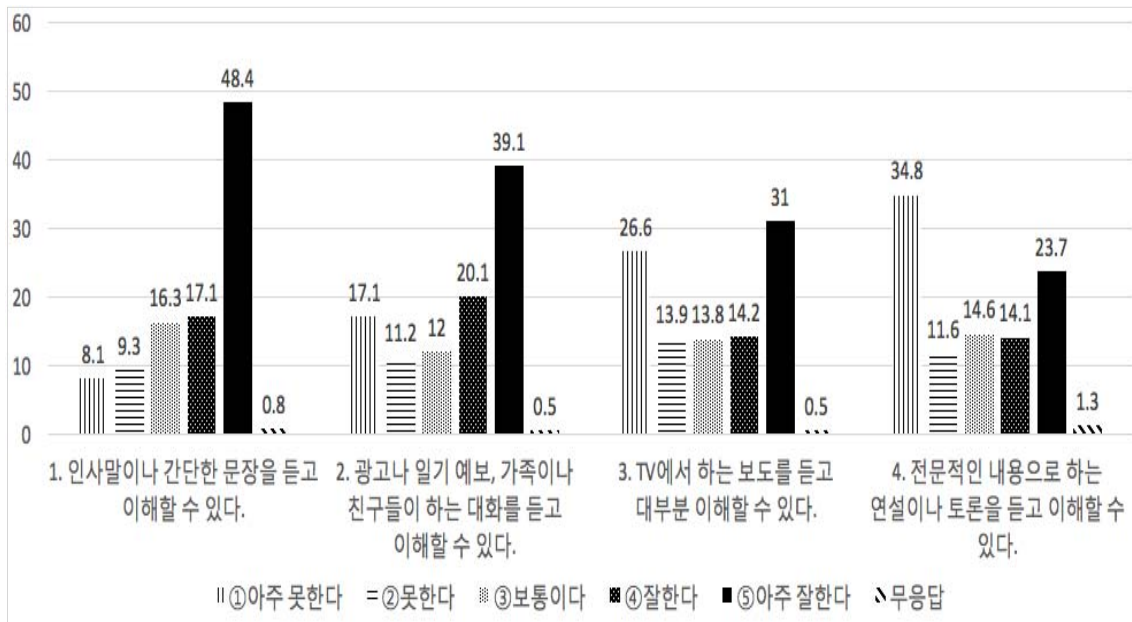
질 문	못한다 ²⁶⁾	보통이다	잘한다 ²⁷⁾	무응답	차이 ²⁸⁾	평균 ²⁹⁾ (5점척도)
1. 인사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17.4 (110)	16.3 (103)	65.5 (414)	0.8 (5)	48.1	3.89
2. 광고나 일기 예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28.3 (179)	12.0 (76)	59.2 (374)	0.5 (3)	30.9	3.53
3. TV에서 하는 보도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40.5 (256)	13.8 (87)	45.2 (286)	0.5 (3)	4.7	3.09
4.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46.4 (293)	14.6 (92)	37.8 (239)	1.3 (8)	-8.6	2.80

26) ‘못한다’는 ‘매우 못한다’와 ‘못한다’의 응답 비율의 합

27) ‘잘한다’는 ‘매우 잘한다’와 ‘잘한다’의 응답 비율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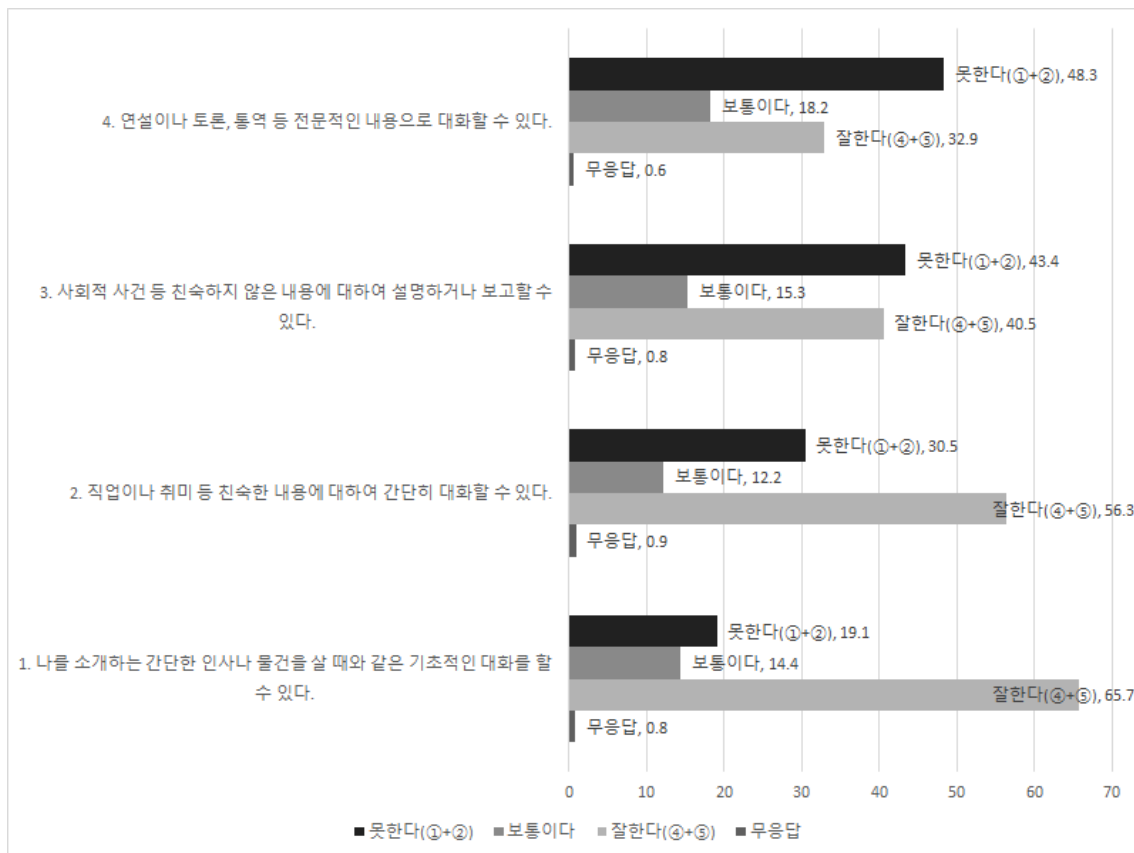
28) 차이는 ‘잘한다’의 비율에서 ‘못한다’의 비율을 뺀 값

29) 값이 클수록 언어 능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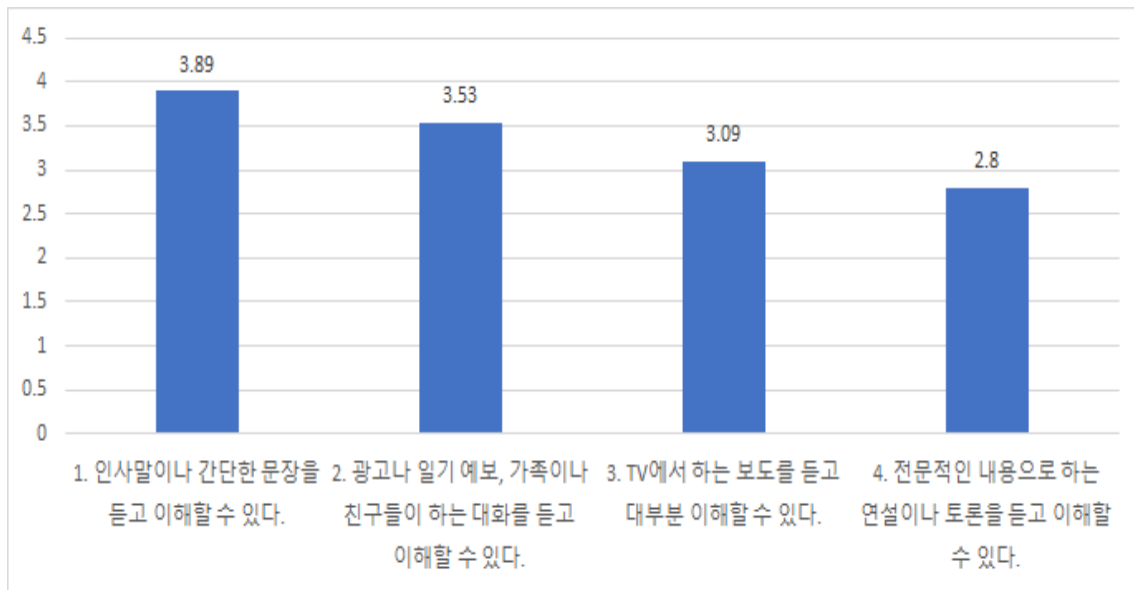
(단위: %)

<그림 61>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듣기 능력 (1)



(단위: %)

<그림 62>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듣기 능력 (2)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63>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듣기 능력 평균값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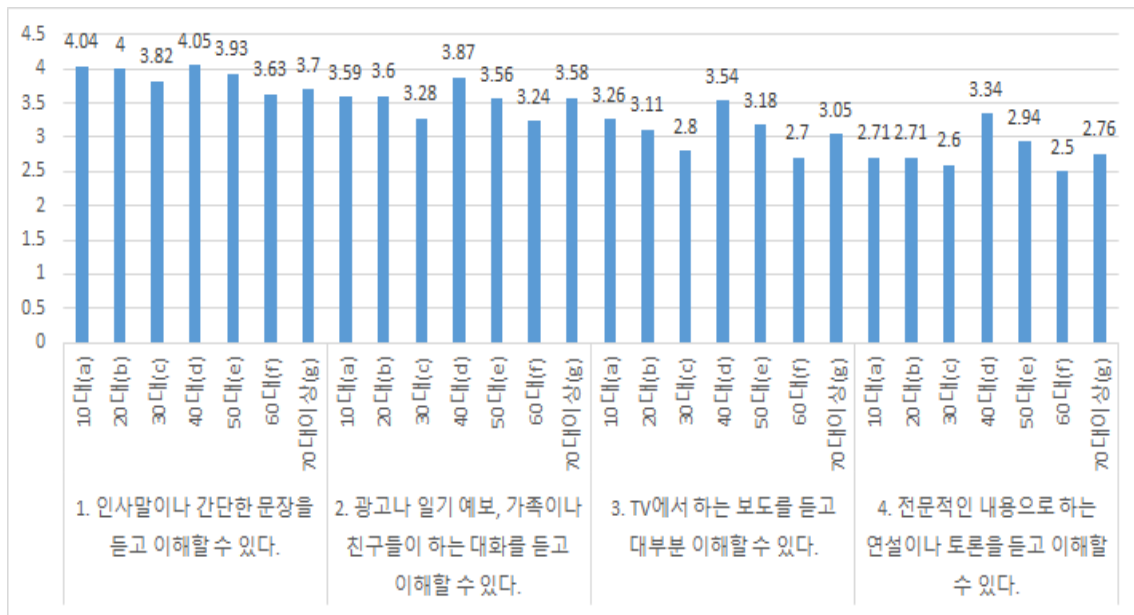
○ 연령별

한국어 듣기 능력과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말하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두 단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3)TV에서 하는 보도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단계에서는 40대가 30대, 60대 보다 듣기 능력이 더 우수했고($F=3.245$, $p<.01$), ‘(4)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의 질문에서도 40대가 10대, 20대, 30대, 60대, 70대 이상의 집단보다 듣기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F=3.195$, $p<.01$).

<표 62> 연령별 한국어 듣기 능력

질 문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인사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10대(a)	78	4.04	1.481	1.466 (.187)	—
	20대(b)	109	4.00	1.340		
	30대(c)	94	3.82	1.352		
	40대(d)	109	4.05	1.257		
	50대(e)	87	3.93	1.199		
	60대(f)	107	3.63	1.285		
	70대이상(g)	43	3.70	1.372		
2. 광고나 일기 예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10대(a)	78	3.59	1.655	2.077 (.054)	—
	20대(b)	110	3.60	1.563		
	30대(c)	95	3.28	1.534		
	40대(d)	109	3.87	1.402		
	50대(e)	87	3.56	1.476		
	60대(f)	107	3.24	1.453		
	70대이상(g)	43	3.58	1.468		
3. TV에서 하는 보도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10대(a)	78	3.26	1.599	3.245 (.004**)	d>c=f
	20대(b)	110	3.11	1.546		
	30대(c)	95	2.80	1.661		
	40대(d)	109	3.54	1.549		
	50대(e)	87	3.18	1.618		
	60대(f)	107	2.70	1.579		
	70대이상(g)	43	3.05	1.647		
4.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10대(a)	78	2.71	1.530	3.195 (.004**)	d>a=b =c=f=g
	20대(b)	109	2.71	1.541		
	30대(c)	93	2.60	1.649		
	40대(d)	109	3.34	1.623		
	50대(e)	86	2.94	1.604		
	60대(f)	107	2.50	1.592		
	70대이상(g)	42	2.76	1.635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64> 연령별 한국어 듣기 능력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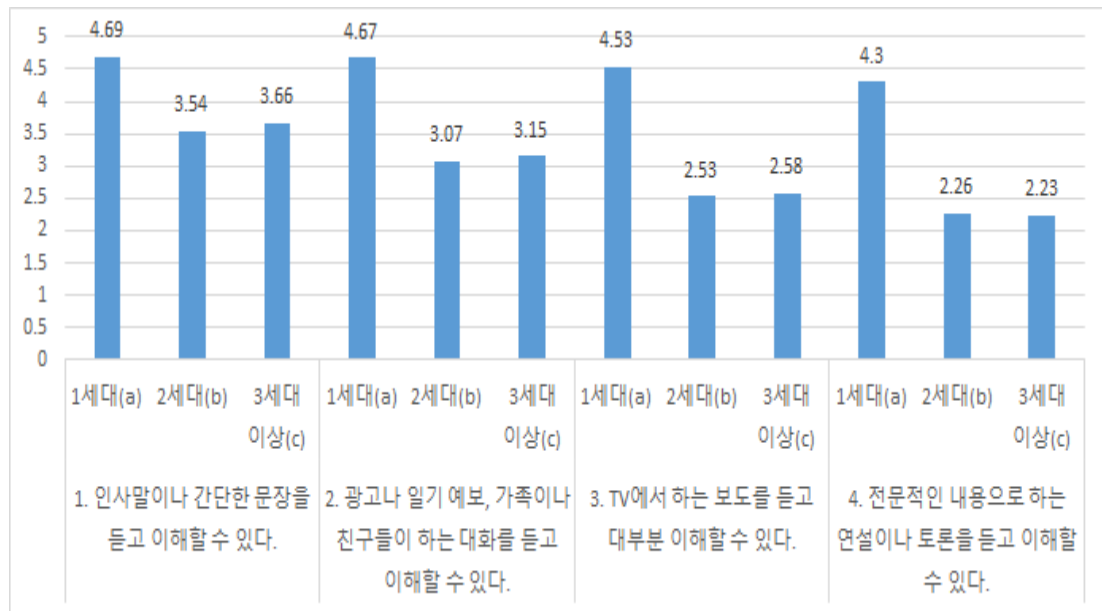
○ 세대별

이주 세대별 한국어 듣기 능력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유의확률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1세대가 2세대와 3세대 이상의 집단보다 듣기 능력이 더 뛰어났다. 특히,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와 4단계 질문에서 2세대와 3세대 이상의 평균값이 2점대인 반면, 1세대는 4점대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표 63> 세대별 한국어 듣기 능력

질 문	세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인사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1세대(a)	165	4.69	0.611	46.868 (.000***)	a>b=c
	2세대(b)	168	3.54	1.303		
	3세대 이상(c)	264	3.66	1.440		
2. 광고나 일기 예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1세대(a)	165	4.67	0.655	80.542 (.000***)	a>b=c
	2세대(b)	168	3.07	1.452		
	3세대 이상(c)	266	3.15	1.566		
3. TV에서 하는 보도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1세대(a)	165	4.53	0.887	127.381 (.000***)	a>b=c
	2세대(b)	168	2.53	1.504		
	3세대 이상(c)	266	2.58	1.483		
4.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1세대(a)	164	4.30	1.069	143.537 (.000***)	a>b=c
	2세대(b)	167	2.26	1.489		
	3세대 이상(c)	263	2.23	1.357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65> 세대별 한국어 듣기 능력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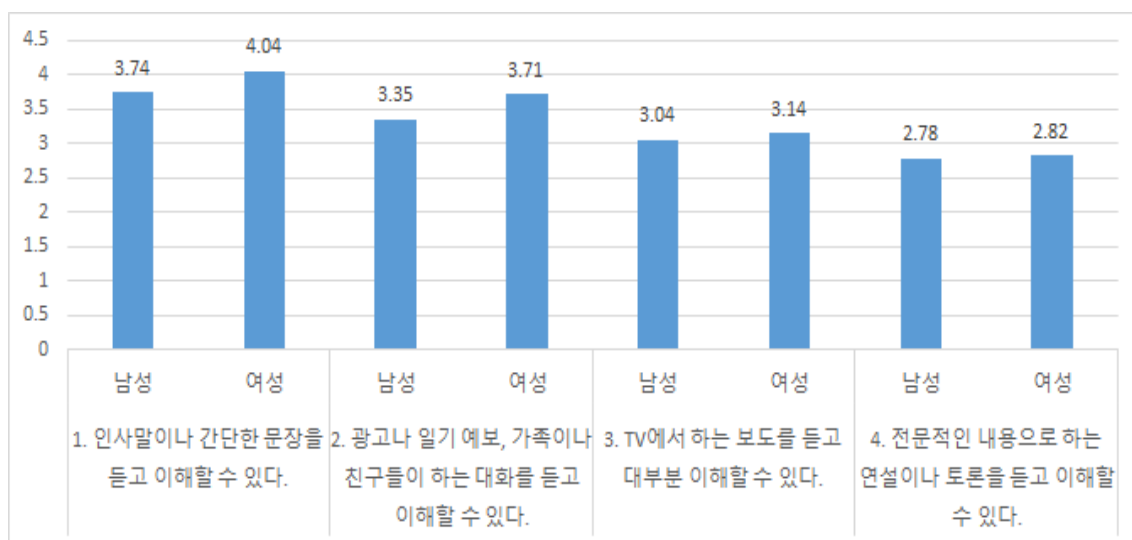
○ 성별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한국어 듣기 능력은 낮은 두 단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 ($t=-2.831$, $p<.01$)과 광고나 일기 예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t=-3.033$, $p<.01$)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 성별 한국어 듣기 능력

질 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인사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남성	305	3.74	1.401	-2.831	.005**
	여성	319	4.04	1.234		
2. 광고나 일기 예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남성	307	3.35	1.575	-3.033	.003**
	여성	319	3.71	1.440		
3. TV에서 하는 보도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남성	307	3.04	1.631	-.815	.416
	여성	319	3.14	1.597		
4.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남성	307	2.78	1.635	-.283	.777
	여성	314	2.82	1.595		

* $p<.05$, ** $p<.01$, ***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66> 성별 한국어 듣기 능력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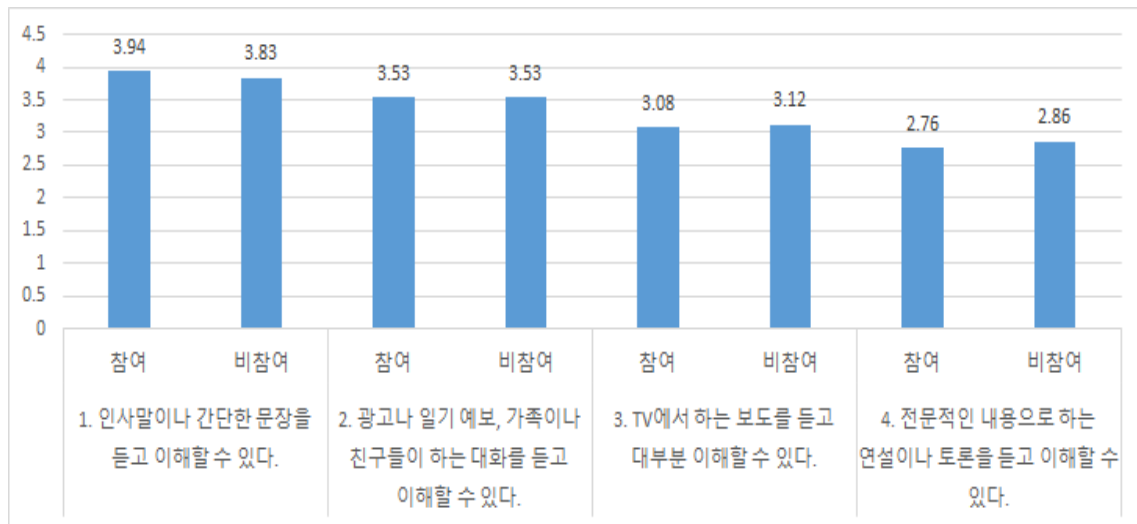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동포사회단체 참여 여부와 조사 대상자의 듣기 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5>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듣기 능력

질 문	참여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인사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참여	343	3.94	1.260	1.007	.315
	비참여	275	3.83	1.396		
2. 광고나 일기 예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참여	344	3.53	1.477	-.053	.958
	비참여	276	3.53	1.562		
3. TV에서 하는 보도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참여	344	3.08	1.609	-.338	.736
	비참여	276	3.12	1.613		
4.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참여	339	2.76	1.580	-.797	.426
	비참여	276	2.86	1.652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67>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듣기 능력 평균값

4) 한국어 읽기 능력

(1) 기본 분석

재일동포들의 한국어/조선어 읽기 능력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고, 평균값이 높을수록 읽기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66> 읽기 능력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단계의 질문까지 ‘잘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못 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으며, 평균값도 모두 3점 이상이었다.

<표 66>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읽기 능력

(단위: %(명))

질 문	못한다 ³⁰⁾	보통이다	잘한다 ³¹⁾	무응답	차이 ³²⁾	평균 (5점척도)
1.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19.6 (124)	14.7 (93)	65.2 (412)	0.5 (3)	45.6	3.85
2. 편지나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28.2 (178)	12.7 (80)	58.5 (370)	0.6 (4)	30.3	3.55
3. 잡지나 신문 기사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35.4 (224)	13.6 (86)	50.4 (319)	0.5 (3)	15	3.28
4. 전문 분야의 서적이거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4.1 (279)	13.6 (86)	41.7 (264)	0.5 (3)	-2.4	2.93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 연령별

조사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읽기 능력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 보니 모든 단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70대 이상의 응답자보다 간단한 내용의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424$, $p<.05$), 2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은 40대와 70대 이상이며, 40대가 70대 이상보다

30) ‘못한다’는 ‘매우 못한다’와 ‘못한다’의 응답 비율의 합

31) ‘잘한다’는 ‘매우 잘한다’와 ‘잘한다’의 응답 비율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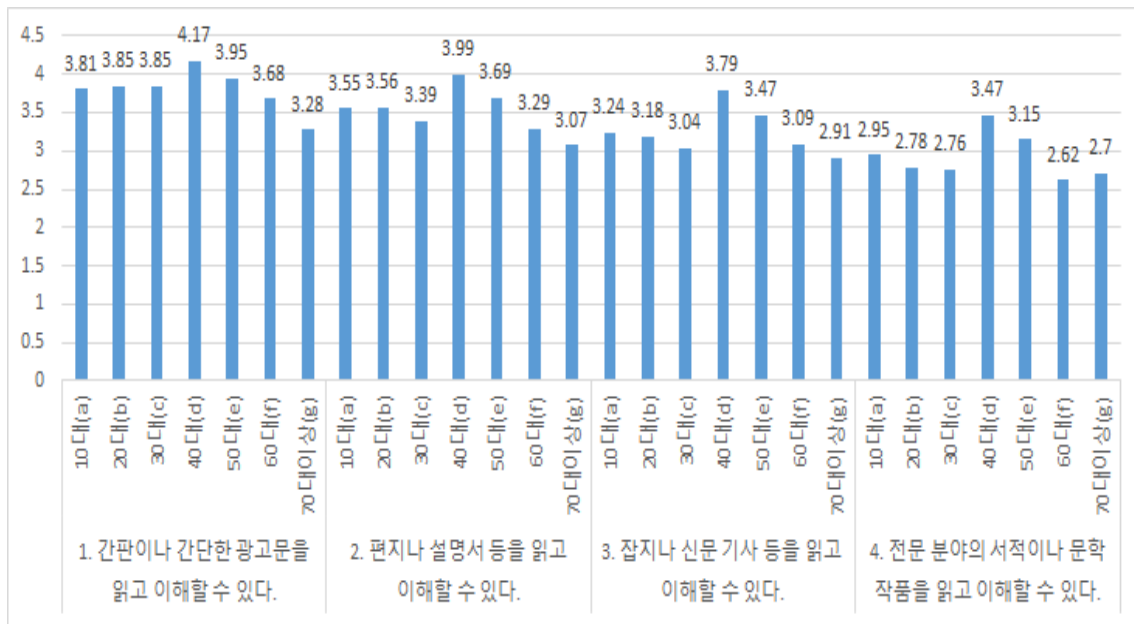
32) 차이는 ‘잘한다’의 비율에서 ‘못한다’의 비율을 뺀 값

편지나 설명서 등을 더 잘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889$, $p<.01$). 3단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40대가 70대 이상보다 신문 기사와 같은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052$, $p<.01$). 읽기 능력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40대가 20대, 30대, 60대, 70대 이상보다 전문적인 내용의 글을 더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F=3.403$, $p<.01$).

<표 67> 연령별 한국어 읽기 능력

질 문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 정
1.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10대(a)	77	3.81	1.655	2.424 (.025*)	a=b=c =d=e> g
	20대(b)	110	3.85	1.489		
	30대(c)	95	3.85	1.376		
	40대(d)	110	4.17	1.195		
	50대(e)	87	3.95	1.329		
	60대(f)	107	3.68	1.405		
	70대이상(g)	43	3.28	1.695		
2. 편지나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10대(a)	78	3.55	1.695	2.889 (.009**)	d>g
	20대(b)	110	3.56	1.617		
	30대(c)	95	3.39	1.586		
	40대(d)	108	3.99	1.377		
	50대(e)	87	3.69	1.473		
	60대(f)	107	3.29	1.548		
	70대이상(g)	43	3.07	1.751		
3. 잡지나 신문 기사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10대(a)	78	3.24	1.752	3.052 (.006**)	d>g
	20대(b)	110	3.18	1.627		
	30대(c)	95	3.04	1.663		
	40대(d)	109	3.79	1.472		
	50대(e)	87	3.47	1.531		
	60대(f)	107	3.09	1.611		
	70대이상(g)	43	2.91	1.716		
4. 전문 분야의 서적이거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10대(a)	78	2.95	1.674	3.403 (.003**)	d>b=c =f=g
	20대(b)	110	2.78	1.628		
	30대(c)	95	2.76	1.642		
	40대(d)	109	3.47	1.596		
	50대(e)	87	3.15	1.544		
	60대(f)	107	2.62	1.629		
	70대이상(g)	43	2.70	1.684		

* $p<.05$, ** $p<.01$, ***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68> 연령별 한국어 읽기 능력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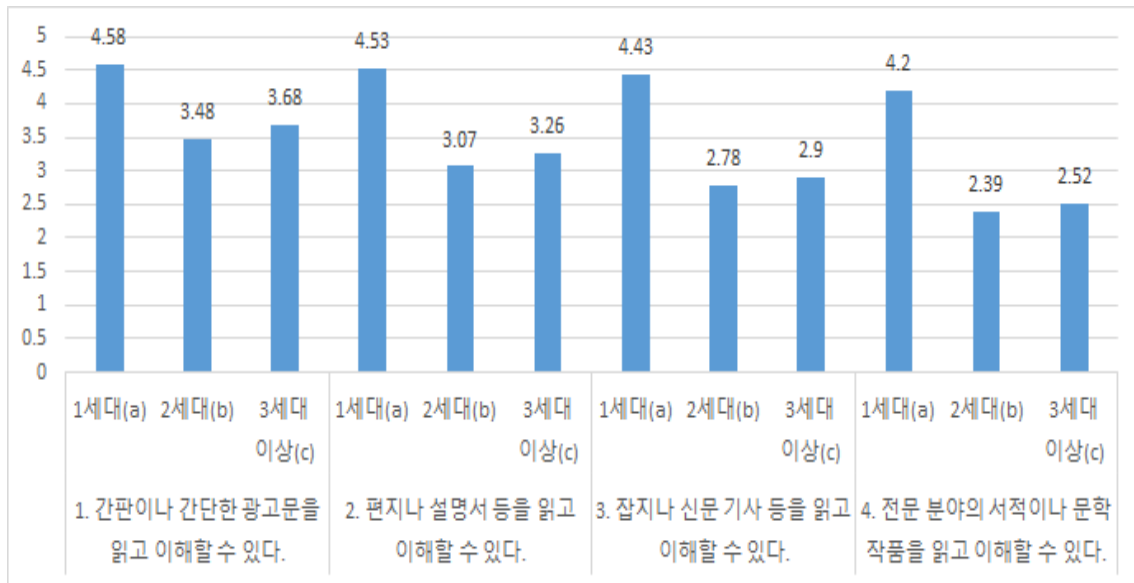
○ 세대별

조사 응답자의 이주 세대별로 한국어 읽기 능력을 비교해 보면, 모든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간단한 내용부터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까지 1세대가 2세대, 3세대 이상의 집단보다 한국어를 더 잘 읽고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8> 세대별 한국어 읽기 능력

질 문	세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1세대(a)	166	4.58	0.811	32.560 (.000***)	a>b=c
	2세대(b)	168	3.48	1.528		
	3세대 이상(c)	265	3.68	1.500		
2. 편지나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1세대(a)	165	4.53	0.921	51.835 (.000***)	a>b=c
	2세대(b)	168	3.07	1.564		
	3세대 이상(c)	265	3.26	1.637		
3. 잡지나 신문 기사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1세대(a)	165	4.43	1.007	68.971 (.000***)	a>b=c
	2세대(b)	168	2.78	1.580		
	3세대 이상(c)	266	2.90	1.632		
4. 전문 분야의 서적이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1세대(a)	165	4.20	1.170	84.945 (.000***)	a>b=c
	2세대(b)	168	2.39	1.563		
	3세대 이상(c)	266	2.52	1.540		

*p<.05, **p<.01, ***p<.001



<그림 69> 세대별 한국어 읽기 능력 평균값 (단위: 평균값 5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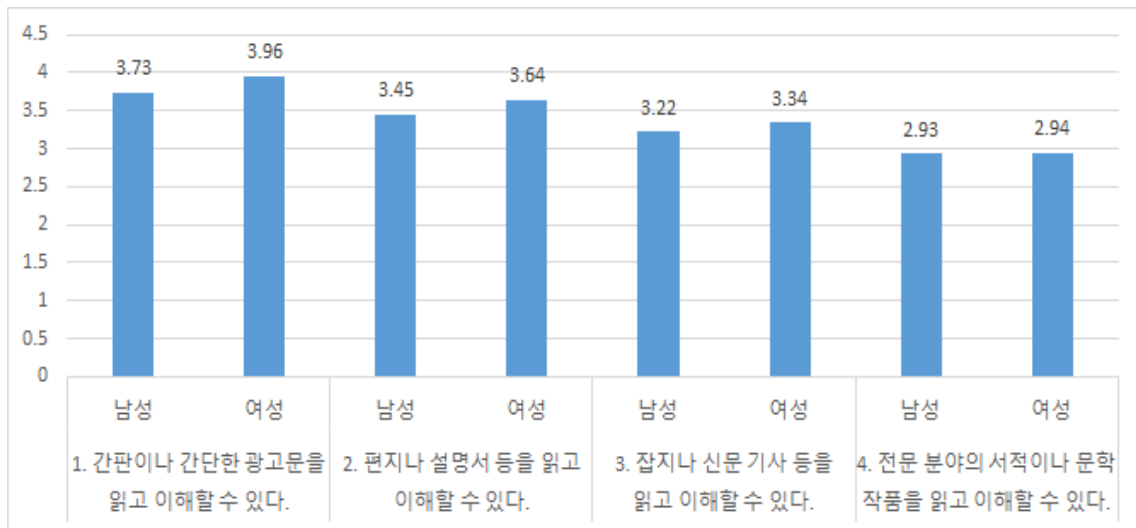
○ 성별

성별 차이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간단한 광고문을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990$, $p<.05$).

<표 69> 성별 한국어 읽기 능력

질 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남성	308	3.73	1.471	-1.990	.047*
	여성	318	3.96	1.400		
2. 편지나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남성	307	3.45	1.593	-1.445	.149
	여성	318	3.64	1.564		
3. 잡지나 신문 기사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남성	307	3.22	1.654	-.897	.370
	여성	319	3.34	1.611		
4. 전문 분야의 서적이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남성	307	2.93	1.672	-.141	.888
	여성	319	2.94	1.620		

* $p<.05$, ** $p<.01$, ***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70> 성별 한국어 읽기 능력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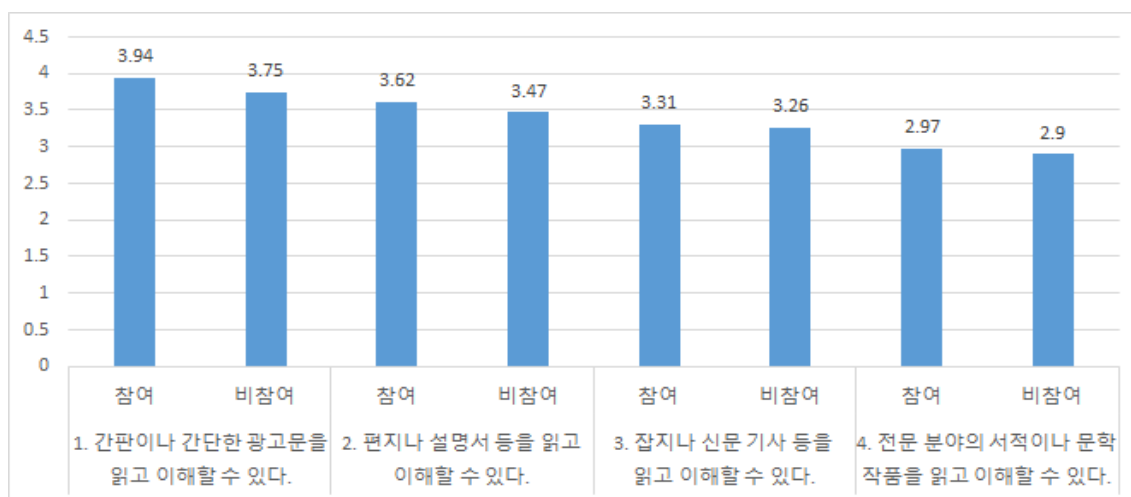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다른 언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읽기 영역에서도 동포사회단체의 참여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0>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읽기 능력

질 문	참여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참여	344	3.94	1.349	1.694	.091
	비참여	276	3.75	1.526		
2. 편지나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참여	344	3.62	1.518	1.196	.232
	비참여	275	3.47	1.631		
3. 잡지나 신문 기사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참여	344	3.31	1.587	.359	.720
	비참여	276	3.26	1.679		
4. 전문 분야의 서적이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참여	344	2.97	1.616	.518	.605
	비참여	276	2.90	1.674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71>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읽기 능력 평균값

5) 한국어 쓰기 능력

(1) 기본 분석

한국어/조선어 쓰기 능력도 네 가지 단계의 문항들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나 단계별로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평균값이 다른 영역의 언어 능력보다는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단계부터는 ‘못 한다’의 응답비율이 ‘잘 한다’의 응답비율보다 많았으며, 평균값도 2점대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아, 높은 수준의 한국어 쓰기 능력은 재일동포들에게 다소 부담을 느끼게 하는 학습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표 71>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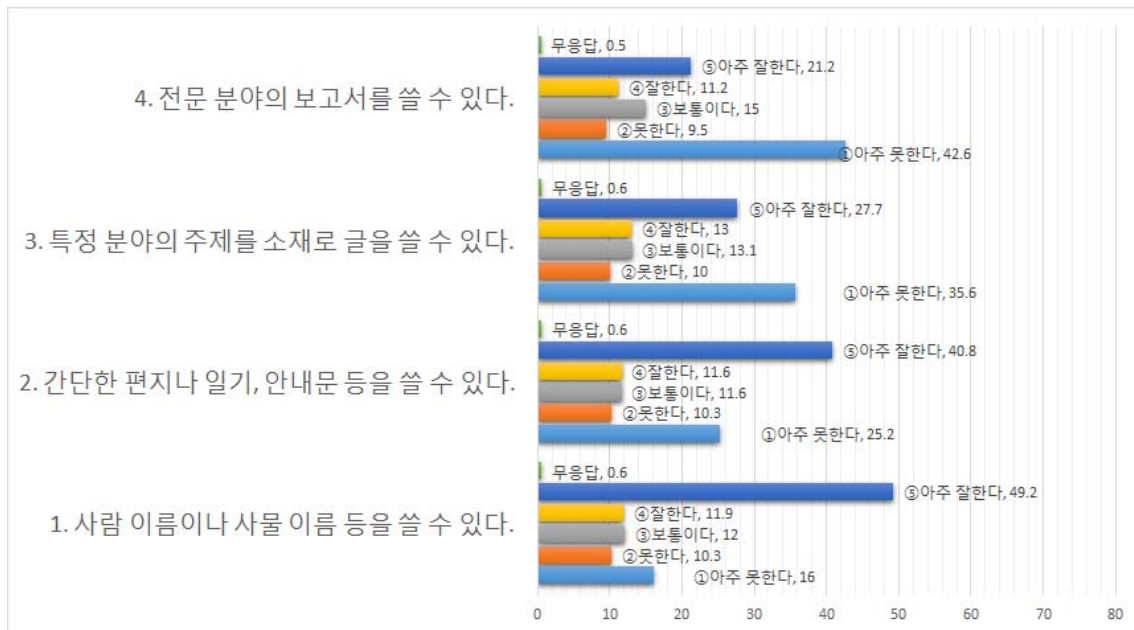
(단위: %(명))

질 문	못한다 ³³⁾	보통이다	잘한다 ³⁴⁾	무응답	차이 ³⁵⁾	평균 (5점척도)
1.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26.3 (166)	12.0 (76)	61.1 (386)	0.6 (4)	34.8	3.68
2. 간단한 편지나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35.4 (224)	11.6 (73)	52.4 (331)	0.6 (4)	17	3.33
3.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45.6 (288)	13.1 (83)	40.7 (257)	0.6 (4)	-4.9	2.87
4.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52.1 (329)	15.0 (95)	32.4 (205)	0.5 (3)	-19.7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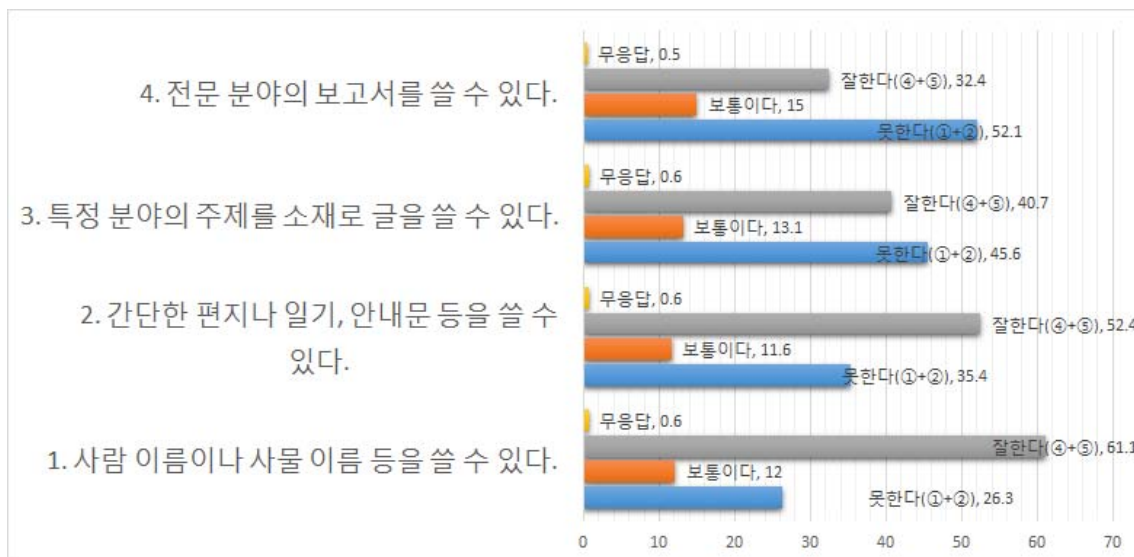
33) ‘못한다’는 ‘매우 못한다’와 ‘못한다’의 응답 비율의 합

34) ‘잘한다’는 ‘매우 잘한다’와 ‘잘한다’의 응답 비율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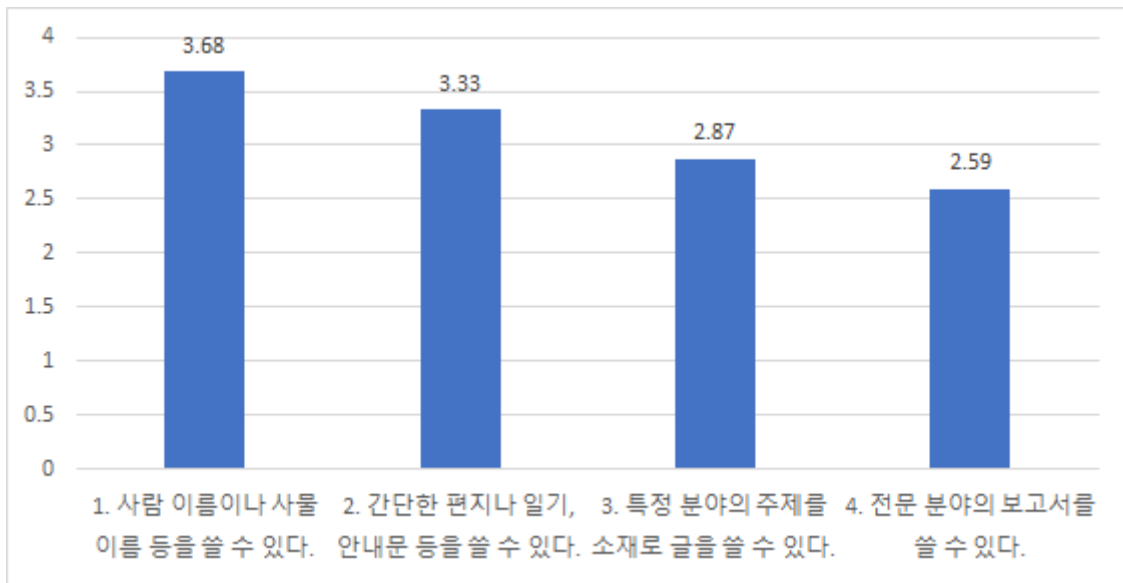
35) 차이는 ‘잘한다’의 비율에서 ‘못한다’의 비율을 뺀 값



(단위: %)
<그림 72>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 (1)



(단위: %)
<그림 73>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 (2)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74> 조사 대상자의 한국어 쓰기 능력 평균값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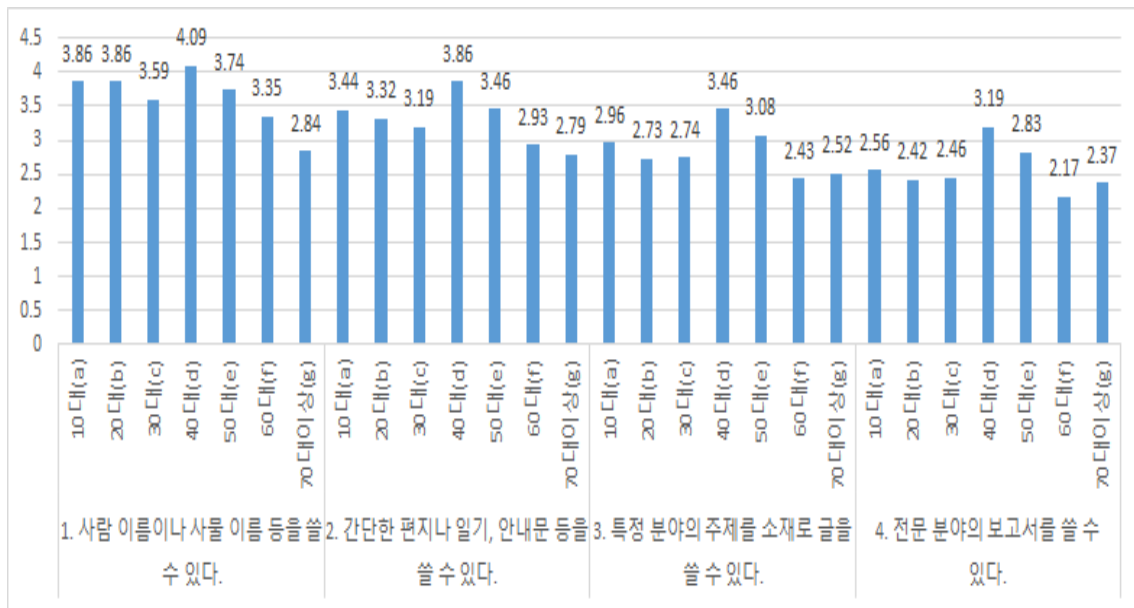
○ 연령별

쓰기 능력을 연령별로 비교해 보니 모든 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사물이나 사람 이름과 같이 간단한 내용의 경우 40대의 쓰기 능력이 가장 뛰어났으며, 그 다음이 60대와 70대 이상의 순이었다 ($F=4.929$, $p<.001$). 그리고 편지나 일기 등과 같은 내용의 쓰기 능력에서도 40대가 가장 우수했고, 그 다음이 70대 이상이였다($F=3.969$, $p<.01$).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는가를 묻는 항목과 네 번째 단계인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이 40대와 60대였으며, 모두 40대의 쓰기 능력이 더 우수했다.

<표 72> 연령별 한국어 쓰기 능력

질 문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10대(a)	78	3.86	1.585	4.929 (.000***)	d>f>g
	20대(b)	111	3.86	1.542		
	30대(c)	93	3.59	1.484		
	40대(d)	109	4.09	1.302		
	50대(e)	87	3.74	1.536		
	60대(f)	107	3.35	1.567		
	70대이상(g)	43	2.84	1.703		
2. 간단한 편지나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10대(a)	78	3.44	1.762	3.969 (.001**)	d>g
	20대(b)	111	3.32	1.663		
	30대(c)	93	3.19	1.676		
	40대(d)	109	3.86	1.475		
	50대(e)	87	3.46	1.620		
	60대(f)	107	2.93	1.627		
	70대이상(g)	43	2.79	1.767		
3. 특정 분야의 주 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10대(a)	78	2.96	1.701	4.463 (.000***)	d>f
	20대(b)	111	2.73	1.646		
	30대(c)	94	2.74	1.672		
	40대(d)	109	3.46	1.584		
	50대(e)	87	3.08	1.623		
	60대(f)	107	2.43	1.591		
	70대이상(g)	42	2.52	1.685		
4. 전문 분야의 보 고서를 쓸 수 있다.	10대(a)	78	2.56	1.473	4.658 (.000***)	d>f
	20대(b)	111	2.42	1.564		
	30대(c)	94	2.46	1.591		
	40대(d)	109	3.19	1.680		
	50대(e)	87	2.83	1.615		
	60대(f)	107	2.17	1.563		
	70대이상(g)	43	2.37	1.589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75> 연령별 한국어 쓰기 능력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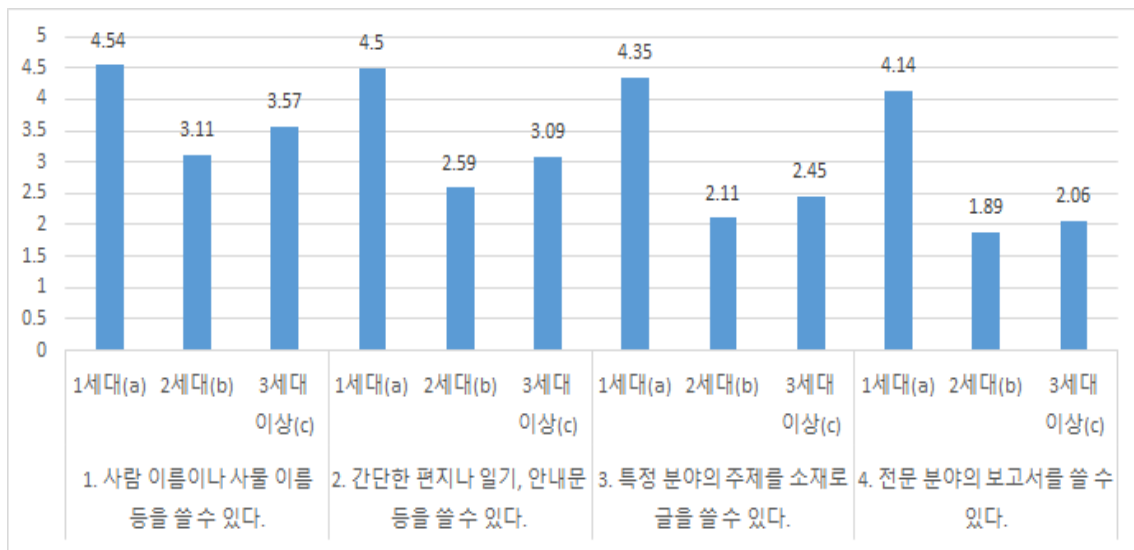
○ 세대별

쓰기 능력을 이주 세대별로 살펴본 결과, 네 가지 수준에서 모두 유의확률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을 통해 집단별 크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단계와 2단계, 3단계에서는 1세대의 쓰기 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3세 이상이었으며, 2세대의 쓰기 능력이 가장 낮았다. 가장 어려운 단계인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서도 1세대 집단의 평균값이 2세대와 3세대 이상의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F=161.438$, $p < .001$).

<표 73> 세대별 한국어 쓰기 능력

질 문	세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1세대(a)	165	4.54	0.901	43.358 (.000***)	a>c>b
	2세대(b)	167	3.11	1.622		
	3세대 이상(c)	266	3.57	1.570		
2. 간단한 편지나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1세대(a)	165	4.50	0.960	75.947 (.000***)	a>c>b
	2세대(b)	168	2.59	1.598		
	3세대 이상(c)	265	3.09	1.665		
3.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1세대(a)	165	4.35	1.080	129.267 (.000***)	a>c>b
	2세대(b)	167	2.11	1.473		
	3세대 이상(c)	266	2.45	1.510		
4.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1세대(a)	165	4.14	1.194	161.438 (.000***)	a>b=c
	2세대(b)	168	1.89	1.393		
	3세대 이상(c)	266	2.06	1.317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 척도)

<그림 76> 세대별 한국어 쓰기 능력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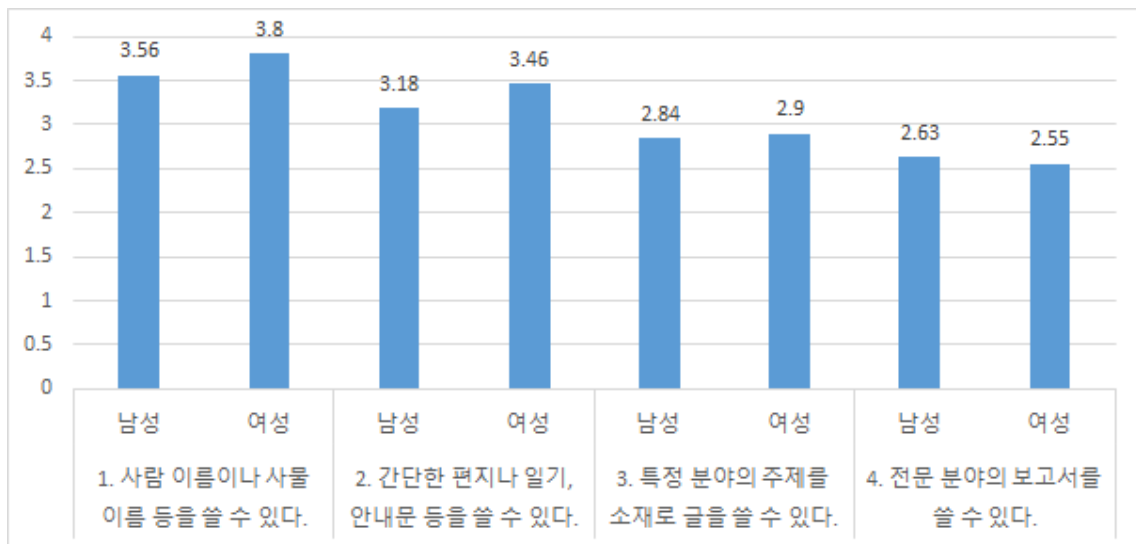
○ 성별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두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남정보다 사물이나 사람 이름($t=-2.000$, $p<.05$), 간단한 편지나 일기 안내문 등($t=-2.088$, $p<.05$)을 더 잘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성별 한국어 쓰기 능력

질 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남성	306	3.56	1.578	-2.000	.046*
	여성	319	3.80	1.505		
2. 간단한 편지나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남성	306	3.18	1.677	-2.088	.037*
	여성	319	3.46	1.650		
3.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남성	306	2.84	1.681	-.496	.620
	여성	319	2.90	1.654		
4.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남성	307	2.63	1.649	.643	.520
	여성	319	2.55	1.587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77> 성별 한국어 쓰기 능력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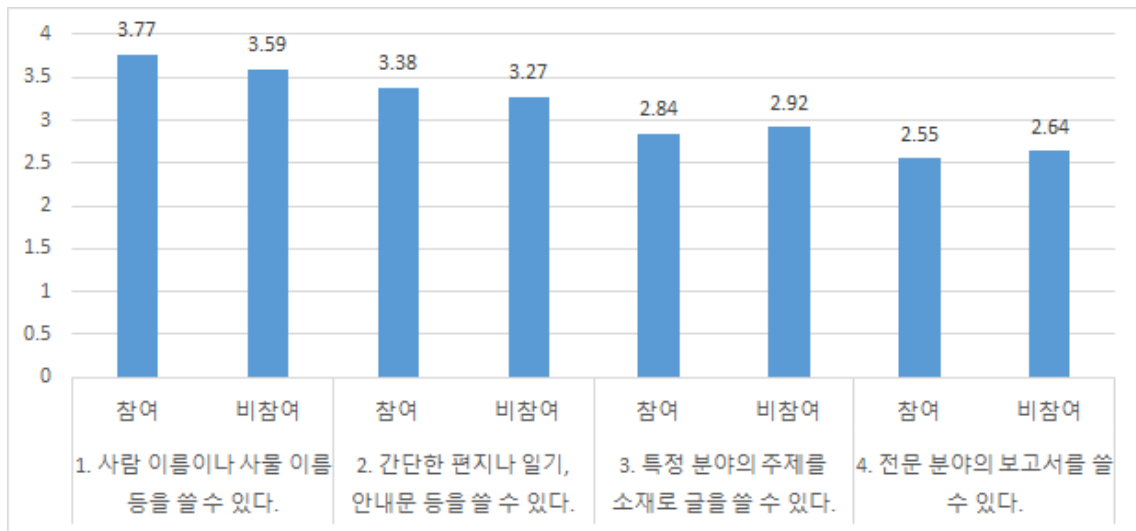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쓰기 능력과 동포사회단체 참여 여부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75>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쓰기 능력

질 문	참여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참여	343	3.77	1.500	1.384	.167
	비참여	276	3.59	1.592		
2. 간단한 편지나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참여	343	3.38	1.647	.869	.385
	비참여	276	3.27	1.680		
3.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참여	343	2.84	1.650	-.551	.582
	비참여	276	2.92	1.681		
4.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참여	344	2.55	1.579	-.731	.465
	비참여	276	2.64	1.664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78>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어 쓰기 능력 평균값

2.3.1.4. 언어 사용

1) 언어 사용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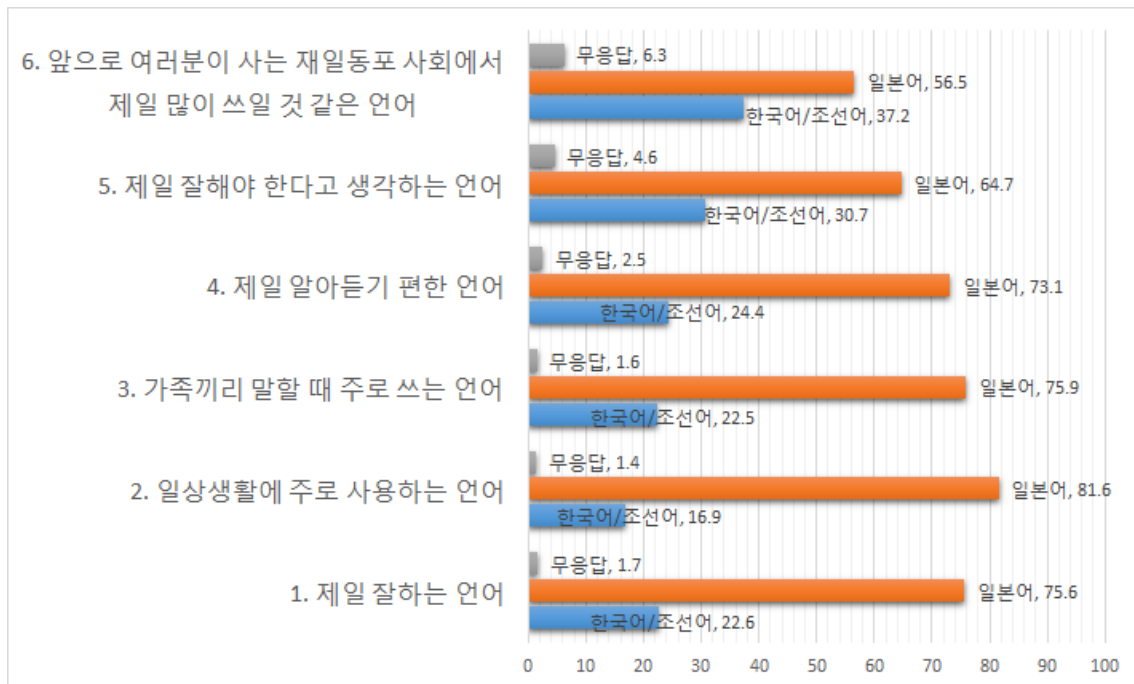
제일 동포들은 상황에 따라 일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아래의 <표 76>은 각 상황에 따라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가를 살펴본 결과다. 먼저, ‘제일 잘하는 언어’가 일본어로 응답한 비율이 75.6%, 한국어/조선어로 응답한 비율이 22.6%로, 거주국 언어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역시도 일본어가 81.6%, ‘가족끼리 말할 때 쓰는 언어’도 일본어가 75.9%로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맥락에서, ‘제일 알아듣기 편한 언어’ 역시 일본어(73.1%)가 한국어/조선어(24.4%) 보다 훨씬 높았다. 한편,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와 ‘앞으로 제일동포 사회에서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은 언어’에서는 모두 일본어가 한국어/조선어보다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두 언어 간의 비율의 차이는 실제 일상에서 사용하는 비율의 차이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76> 언어 사용 순위

(단위: 명, %)

질 문	한국어/조선어		일본어		무응답		차이 ³⁶⁾
	N	%	N	%	N	%	
1. 제일 잘하는 언어	143	22.6	478	75.6	11	1.7	-53
2. 일상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	107	16.9	516	81.6	9	1.4	-64.7
3. 가족끼리 말할 때 주로 쓰는 언어	142	22.5	480	75.9	10	1.6	-53.4
4. 제일 알아듣기 편한 언어	154	24.4	462	73.1	16	2.5	-48.7
5.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194	30.7	409	64.7	29	4.6	-34
6.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제일동포 사회에서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은 언어	235	37.2	357	56.5	40	6.3	-19.3

36) 차이는 ‘한국어/조선어’의 비율에서 ‘일본어’의 비율을 뺀 값



(단위: %)

<그림 79> 언어 사용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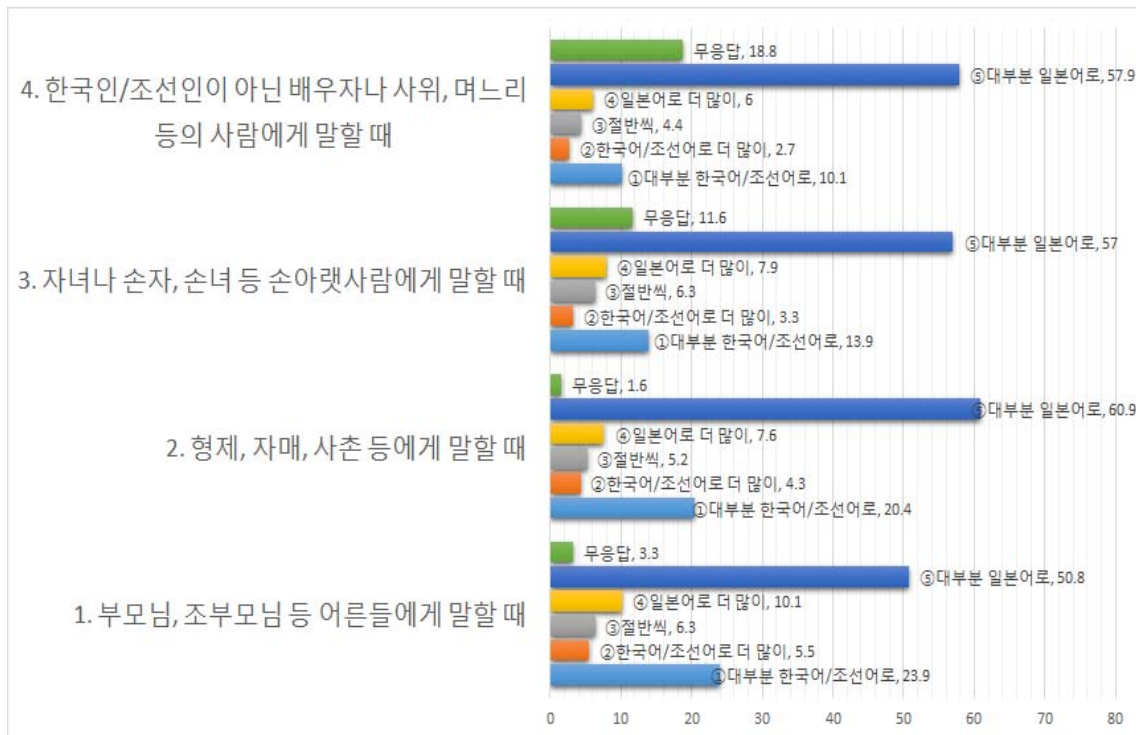
2) 내가 가족에게 말할 때

(1) 기본 분석

가족 간의 언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 자신이 가족에게 말할 때와 가족이 응답자에게 말할 때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들은 ‘(1)대부분 한국어/조선어로’부터 ‘(5)대부분 일본어로’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한국어/조선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자신이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대화 상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일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손위 사람에게 말할 때는 한국어/조선어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29.4%)이 다른 대화 상대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 세대보다 한국어에 더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이민 1세대의 경우 거주국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자녀와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표 77> 내가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단위: %(명))

질 문	한국어/ 조선어로 37)	절반씩	일본어로 ³⁸⁾	무응답	차이 ³⁹⁾	평균 5점 척도
1.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에게 말할 때	29.4 (186)	6.3 (40)	60.9 (385)	3.3 (21)	-31.5	2.40
2. 형제, 자매, 사촌 등에게 말할 때	24.7 (156)	5.2 (33)	68.5 (433)	1.6 (10)	-43.8	2.14
3.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17.2 (109)	6.3 (40)	64.9 (410)	11.6 (73)	-47.7	1.98
4. 한국인/조선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의 사람에게 말할 때	12.8 (81)	4.4 (28)	63.9 (404)	18.8 (119)	-51.1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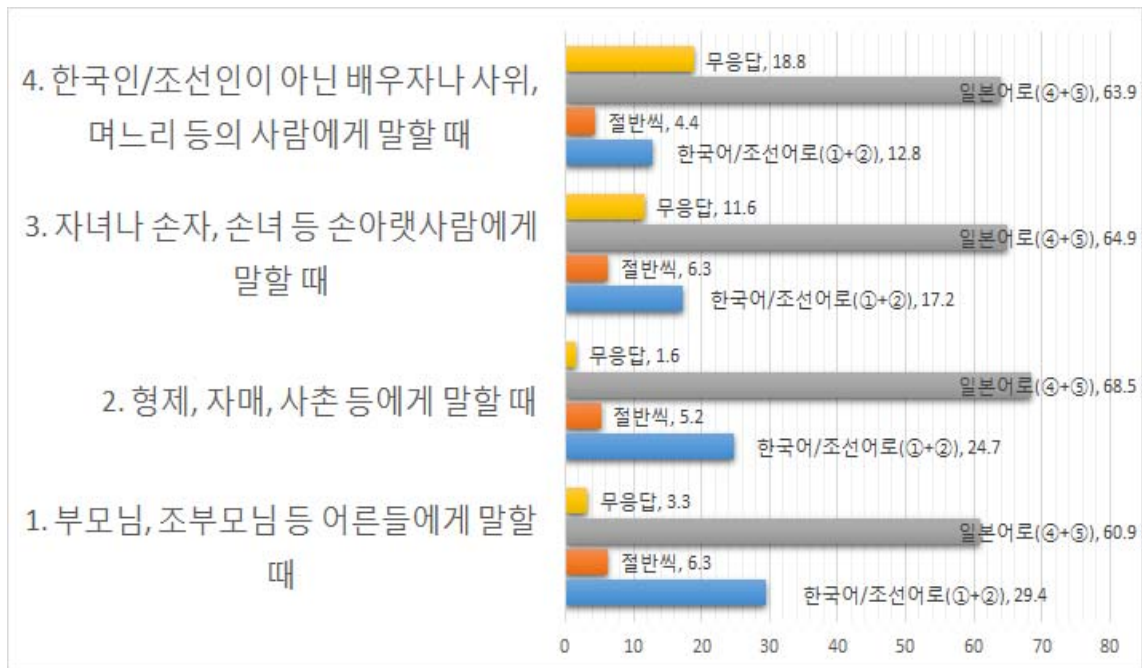
(단위: %)

<그림 80> 내가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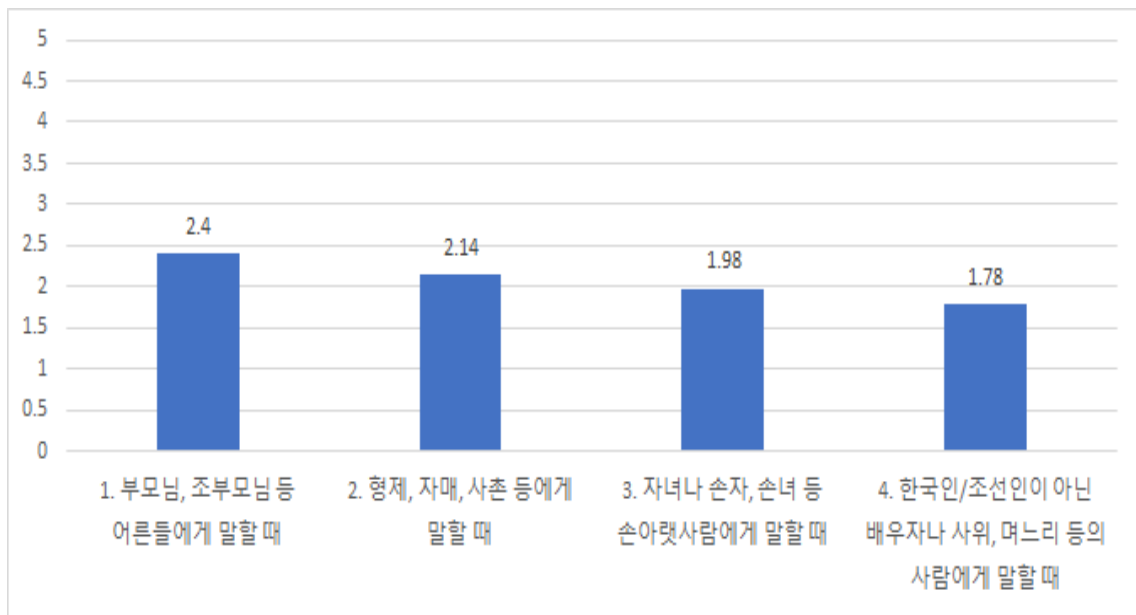
37) '한국어/조선어로'는 '대부분 한국어/조선어로'와 '한국어/조선어로 더 많이'의 응답 비율의 합

38) '일본어로'는 '대부분 일본어로'와 '일본어로 더 많이'의 응답 비율의 합

39) 차이는 '한국어/조선어로'의 비율에서 '일본어로'의 비율을 뺀 값



(단위: %)
<그림 81> 내가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2)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82> 내가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평균값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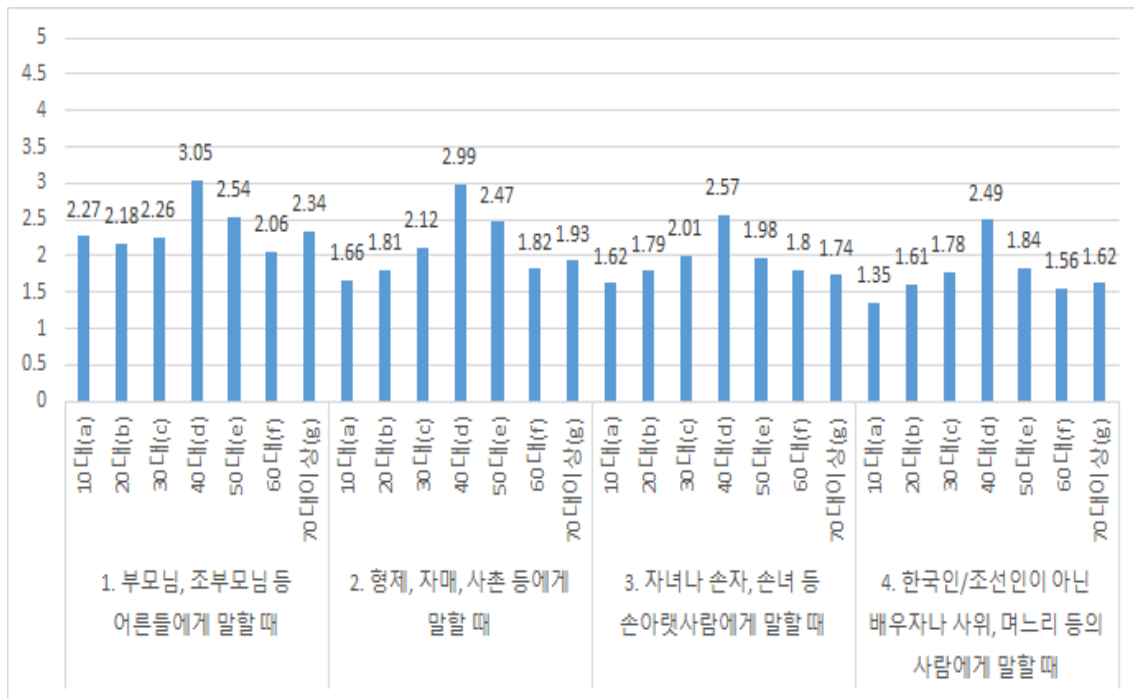
○ 연령별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에 차이가 나타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손위 사람에게 말할 때는 모든 연령층에서 주로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자매, 사촌 등 같은 항렬의 사람이나 자녀나 손자 등 손아래 사람에게 말할 때도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민족이 아닌 가족에게 쓰는 언어도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일본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4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층보다 한국어/조선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78>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질 문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부모님, 조부모 님 등 어른들에게 말할 때	10대(a)	77	2.27	1.448	3.921 (.001**)	a=b=c= f=g>d
	20대(b)	110	2.18	1.575		
	30대(c)	94	2.26	1.691		
	40대(d)	107	3.05	1.875		
	50대(e)	84	2.54	1.780		
	60대(f)	98	2.06	1.604		
	70대이상(g)	41	2.34	1.712		
2. 형제, 자매, 사 촌 등에게 말할 때	10대(a)	77	1.66	1.083	8.601 (.000***)	a=b=f= g>e>d
	20대(b)	109	1.81	1.391		
	30대(c)	93	2.12	1.706		
	40대(d)	108	2.99	1.887		
	50대(e)	86	2.47	1.787		
	60대(f)	106	1.82	1.472		
	70대이상(g)	43	1.93	1.534		
3. 자녀나 손자, 손 녀 등 손아랫사람 에게 말할 때	10대(a)	53	1.62	1.023	3.858 (.001**)	a=b=c= e=f=g> d
	20대(b)	89	1.79	1.394		
	30대(c)	85	2.01	1.629		
	40대(d)	102	2.57	1.726		
	50대(e)	83	1.98	1.562		
	60대(f)	104	1.80	1.417		
	70대이상(g)	43	1.74	1.274		
4. 한국인/조선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 위, 며느리 등의 사 람에게 말할 때	10대(a)	55	1.35	0.966	5.619 (.000***)	a=b=c= e=f=g> d
	20대(b)	84	1.61	1.252		
	30대(c)	77	1.78	1.429		
	40대(d)	87	2.49	1.771		
	50대(e)	76	1.84	1.376		
	60대(f)	95	1.56	1.261		
	70대이상(g)	39	1.62	1.184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83>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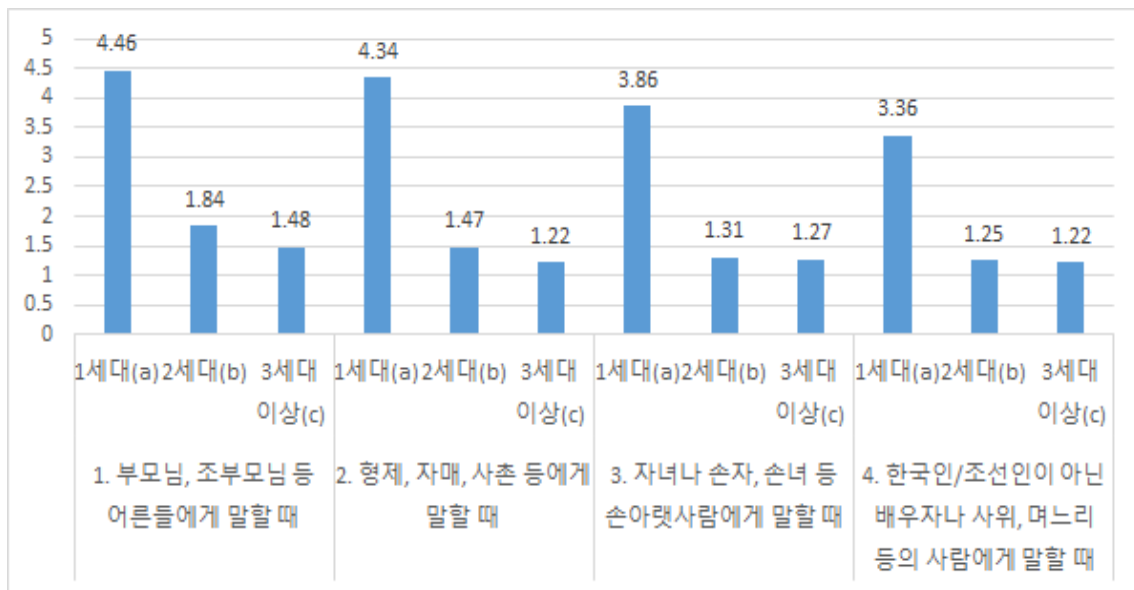
○ 세대별

이주 세대별로 보면 대화 상대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차이를 알 수 있다. 먼저, 어른들이나 같은 향렬에게 말할 때는 일본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집단이 3세대 이상, 2세대, 1세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손아랫사람이나 한민족이 아닌 가족에게 말할 때는 2세대와 3세대 이상의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1세대의 경우 한국어/조선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2세대와 3세대는 가족에게 일본어로 대화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1세대의 경우는 한국어/조선어로 대화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9>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세대별 분석

질 문	세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에게 말할 때	1세대(a)	158	4.46	1.132	373.382 (.000***)	c>b>a
	2세대(b)	160	1.84	1.385		
	3세대 이상(c)	262	1.48	0.925		
2. 형제, 자매, 사촌 등에게 말할 때	1세대(a)	161	4.34	1.224	626.422 (.000***)	c>b>a
	2세대(b)	165	1.47	1.009		
	3세대 이상(c)	265	1.22	0.612		
3.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1세대(a)	142	3.86	1.481	347.246 (.000***)	b=c>a
	2세대(b)	149	1.31	0.761		
	3세대 이상(c)	238	1.27	0.731		
4. 한국인/조선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의 사람에게 말할 때	1세대(a)	124	3.36	1.712	185.925 (.000***)	b=c>a
	2세대(b)	142	1.25	0.668		
	3세대 이상(c)	219	1.22	0.736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84>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세대별 분석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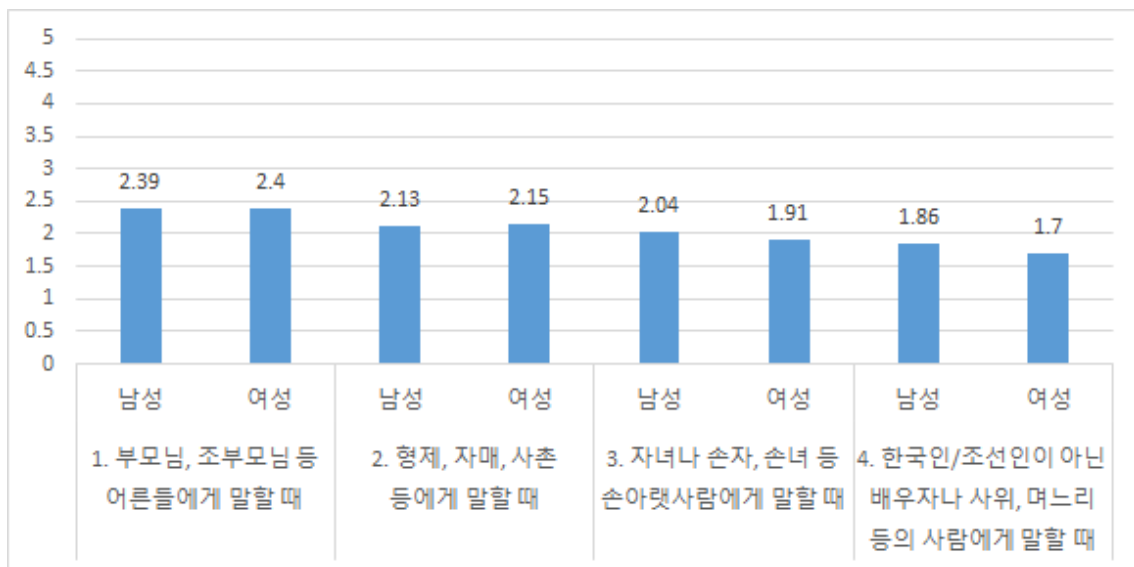
○ 성별

조사 대상자가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와 성별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0>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성별 분석

질 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에게 말할 때	남성	301	2.39	1.743	.062	.950
	여성	307	2.40	1.668		
2. 형제, 자매, 사촌 등에게 말할 때	남성	306	2.13	1.657	.146	.884
	여성	313	2.15	1.636		
3.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남성	276	2.04	1.570	-1.033	.302
	여성	280	1.91	1.460		
4. 한국인/조선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의 사람에게 말할 때	남성	253	1.86	1.472	-1.260	.208
	여성	257	1.70	1.346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85>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성별 분석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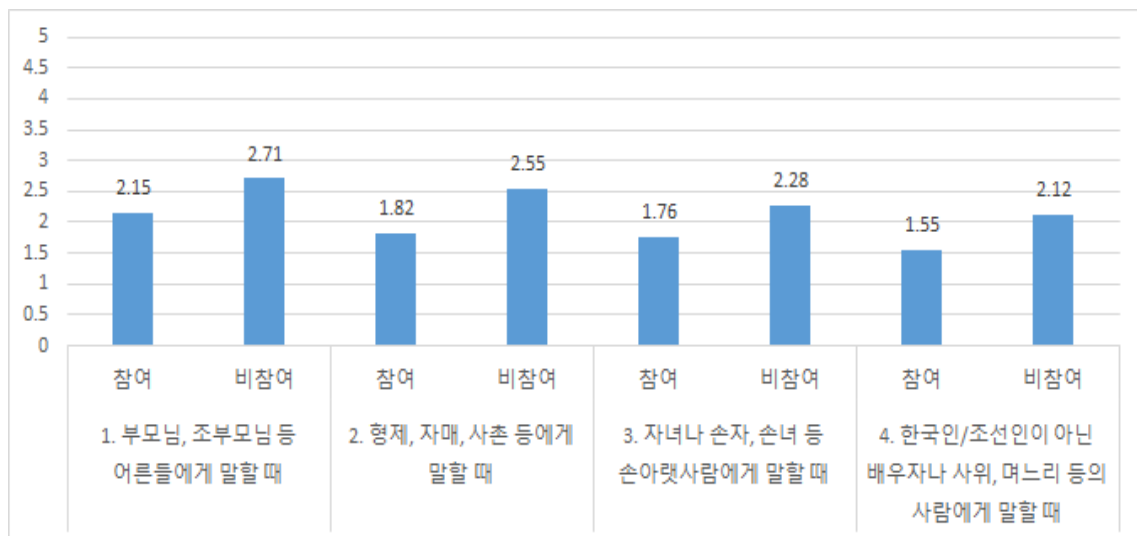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와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확률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화 상대에 관계없이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가족에게 말할 때 일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질 문	참여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에게 말할 때	참여	331	2.15	1.542	4.055	.000***
	비참여	271	2.71	1.831		
2. 형제, 자매, 사촌 등에게 말할 때	참여	339	1.82	1.416	5.497	.000***
	비참여	274	2.55	1.809		
3.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참여	311	1.76	1.323	3.892	.000***
	비참여	240	2.28	1.694		
4. 한국인/조선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의 사람에게 말할 때	참여	289	1.55	1.154	4.319	.000***
	비참여	217	2.12	1.647		

* $p < .05$, ** $p < .01$, *** $p < .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86> 가족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평균값

3)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1) 기본 분석

가족들이 자신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한국어/조선어보다는 일본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부모님, 조부모님 등 손위 사람들은 다른 대화 주체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29.6%로 다소 높았으며,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람이 말을 할 때는 14.9%만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가족 간의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는 대부분 일본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대화 상대나 주체, 특히 세대별로 그 차이가 조금씩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표 82>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단위: %(명))

질 문	한국어/ 조선어로 40)	절반씩	일본어로 41)	무응답	차이 ⁴²⁾	평균 5점척도
1.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이 나에게 말할 때	29.6 (187)	6.6 (42)	60.1 (380)	3.6 (23)	-30.5	2.43
2. 형제, 자매, 사촌 등이 나에게 말할 때	23.4 (148)	5.7 (36)	68.5 (433)	2.4 (15)	-45.1	2.14
3.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 람이 나에게 말할 때	14.9 (94)	6.8 (43)	65.8 (416)	12.5 (79)	-50.9	1.92
4. 한국인/조선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가 나에게 말할 때	12.3 (78)	4.9 (31)	63.6 (402)	19.1 (121)	-51.3	1.81

40) '한국어/조선어로'는 '대부분 한국어/조선어로'와 '한국어/조선어로 더 많이'의 응답 비율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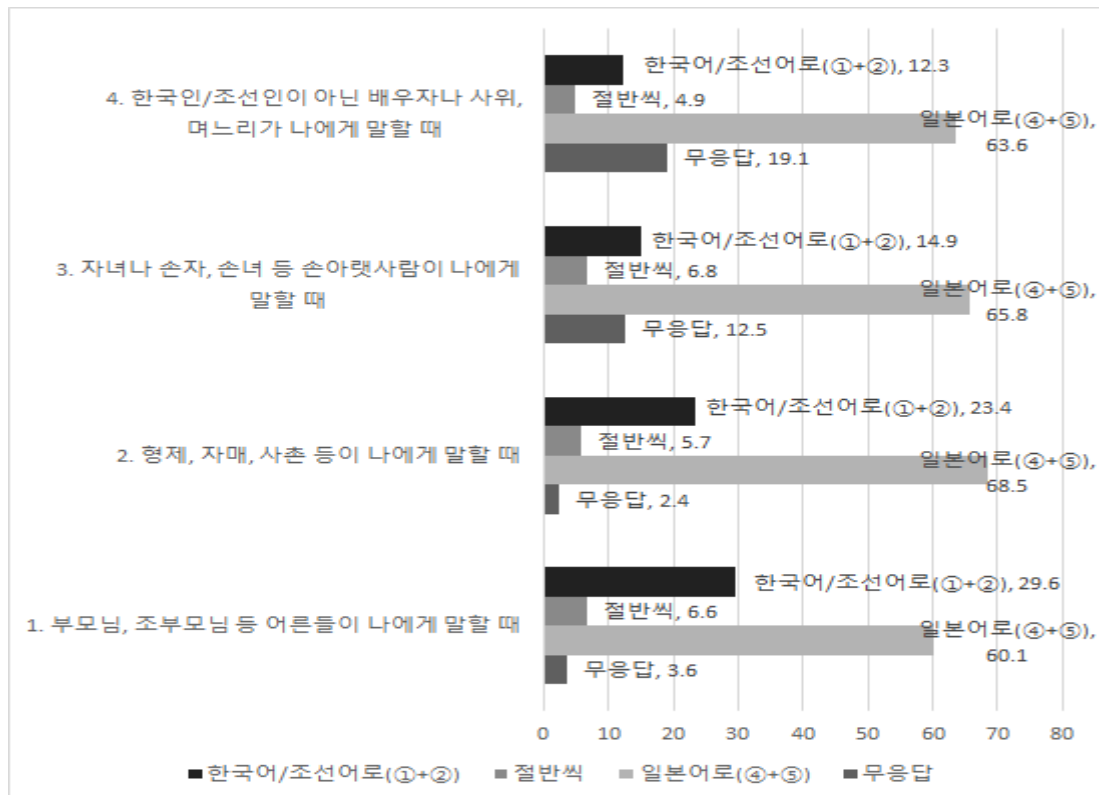
41) '일본어로'는 '대부분 일본어로'와 '일본어로 더 많이'의 응답 비율의 합

42) 차이는 '한국어/조선어로'의 비율에서 '일본어로'의 비율을 뺀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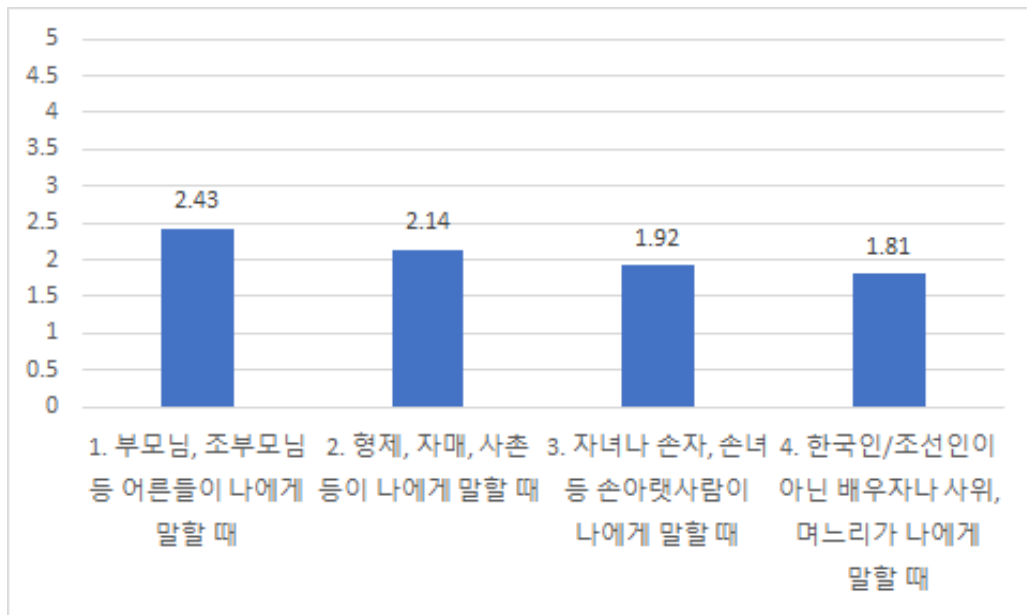
(단위: %)

<그림 87>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1)



(단위: %)

<그림 88>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2)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89>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평균값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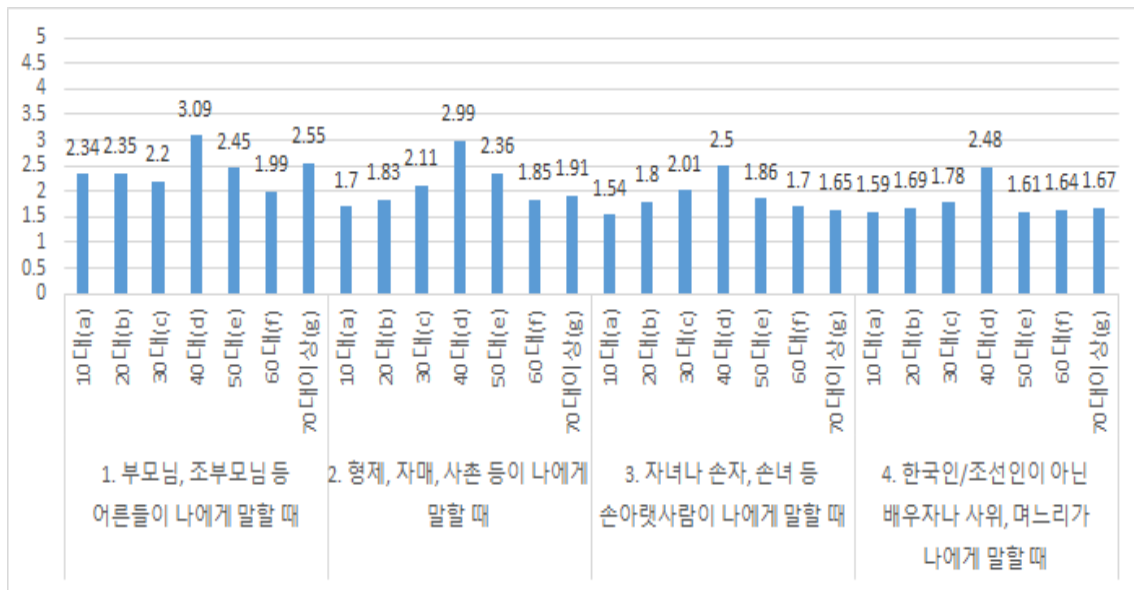
○ 연령별

가족들이 조사 대상자에게 쓰는 언어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어른들이나 손아랫사람, 한민족이 아닌 가족들이 말할 때는 전체적으로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이상의 그룹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40대의 경우 평균값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 한편, 형제, 자매, 사촌 등 같은 항렬의 가족이 말할 때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은 10대와 40대, 50대로 나타났으며, 10대 응답자에게 말할 때 일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그 다음이 50대, 3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3>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질 문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 정
1.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이 나에게 말할 때	10대(a)	76	2.34	1.510	4.304 (.000***)	a=b=c =e=f= g>d
	20대(b)	110	2.35	1.673		
	30대(c)	94	2.20	1.650		
	40대(d)	108	3.09	1.877		
	50대(e)	83	2.45	1.748		
	60대(f)	98	1.99	1.530		
	70대이상(g)	40	2.55	1.753		
2. 형제, 자매, 사촌 등 이 나에게 말할 때	10대(a)	76	1.70	1.120	8.010 (.000***)	a>e>d
	20대(b)	109	1.83	1.446		
	30대(c)	93	2.11	1.684		
	40대(d)	108	2.99	1.867		
	50대(e)	85	2.36	1.745		
	60대(f)	103	1.85	1.431		
	70대이상(g)	43	1.91	1.477		
3.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람이 나에게 말 할 때	10대(a)	52	1.54	0.851	4.277 (.000***)	a=b=c =e=f= g>d
	20대(b)	89	1.80	1.367		
	30대(c)	84	2.01	1.617		
	40대(d)	102	2.50	1.699		
	50대(e)	81	1.86	1.481		
	60대(f)	102	1.70	1.318		
	70대이상(g)	43	1.65	1.131		
4. 한국인/조선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가 나에게 말할 때	10대(a)	54	1.59	1.073	4.309 (.000***)	a=b=c =e=f= g>d
	20대(b)	87	1.69	1.375		
	30대(c)	78	1.78	1.474		
	40대(d)	87	2.48	1.745		
	50대(e)	72	1.61	1.181		
	60대(f)	94	1.64	1.294		
	70대이상(g)	39	1.67	1.264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90>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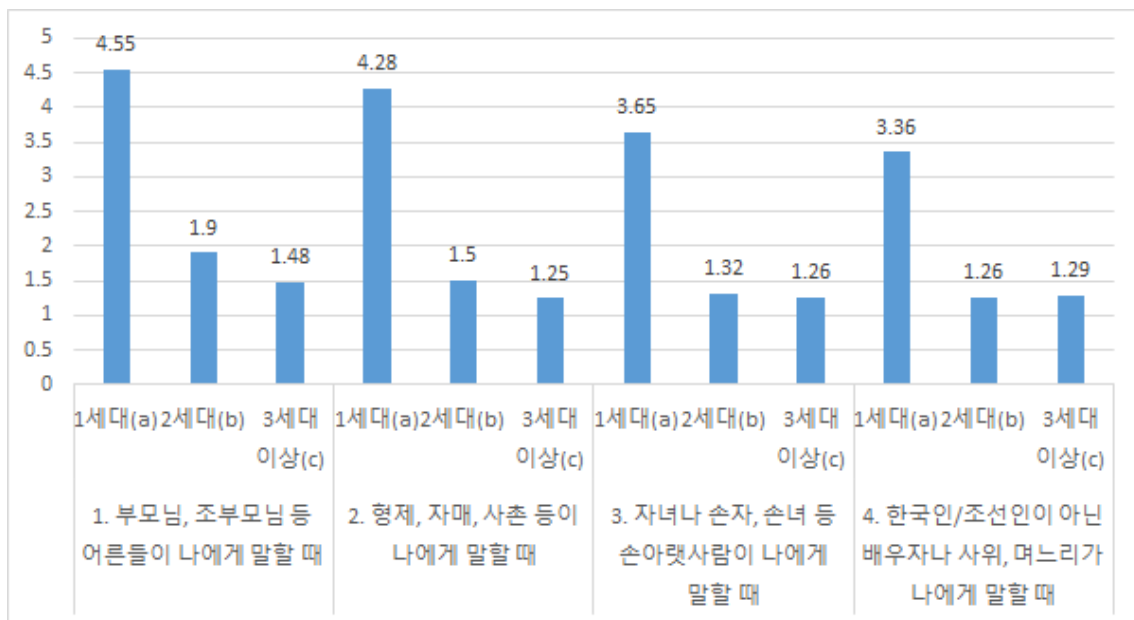
○ 세대별

이주 세대별 분석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다른 세대 집단 보다 1세대 응답자에게 말할 때는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집단별 차이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p<.001$).

<표 84>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세대별 분석

질 문	세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 정
1.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이 나에게 말할 때	1세대(a)	157	4.55	1.015	406.949 (.000***)	c>b>a
	2세대(b)	161	1.90	1.406		
	3세대 이상(c)	261	1.48	0.926		
2. 형제, 자매, 사촌 등이 나에게 말할 때	1세대(a)	159	4.28	1.312	528.435 (.000***)	c>b>a
	2세대(b)	164	1.50	1.000		
	3세대 이상(c)	264	1.25	0.670		
3.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1세대(a)	140	3.65	1.605	280.396 (.000***)	b=c>a
	2세대(b)	150	1.32	0.717		
	3세대 이상(c)	236	1.26	0.658		
4. 한국인/조선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가 나에게 말할 때	1세대(a)	124	3.36	1.736	169.013 (.000***)	b=c>a
	2세대(b)	141	1.26	0.659		
	3세대 이상(c)	219	1.29	0.799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91>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세대별 분석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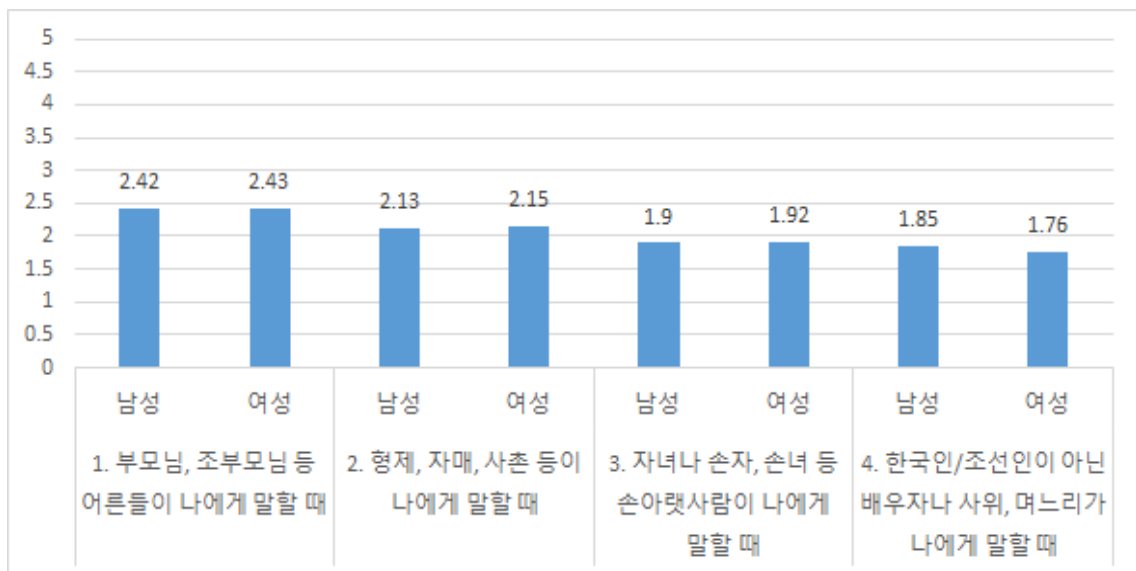
○ 성별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에 특별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화 주체별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손윗사람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는 대부분 일본어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5>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성별 분석

질 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이 나에게 말할 때	남성	299	2.42	1.739	.037	.970
	여성	307	2.43	1.691		
2. 형제, 자매, 사촌 등이 나에게 말할 때	남성	304	2.13	1.647	.177	.859
	여성	310	2.15	1.615		
3.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남성	275	1.90	1.475	.175	.861
	여성	275	1.92	1.442		
4. 한국인/조선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가 나에게 말할 때	남성	250	1.85	1.467	-.735	.463
	여성	258	1.76	1.365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92>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성별 분석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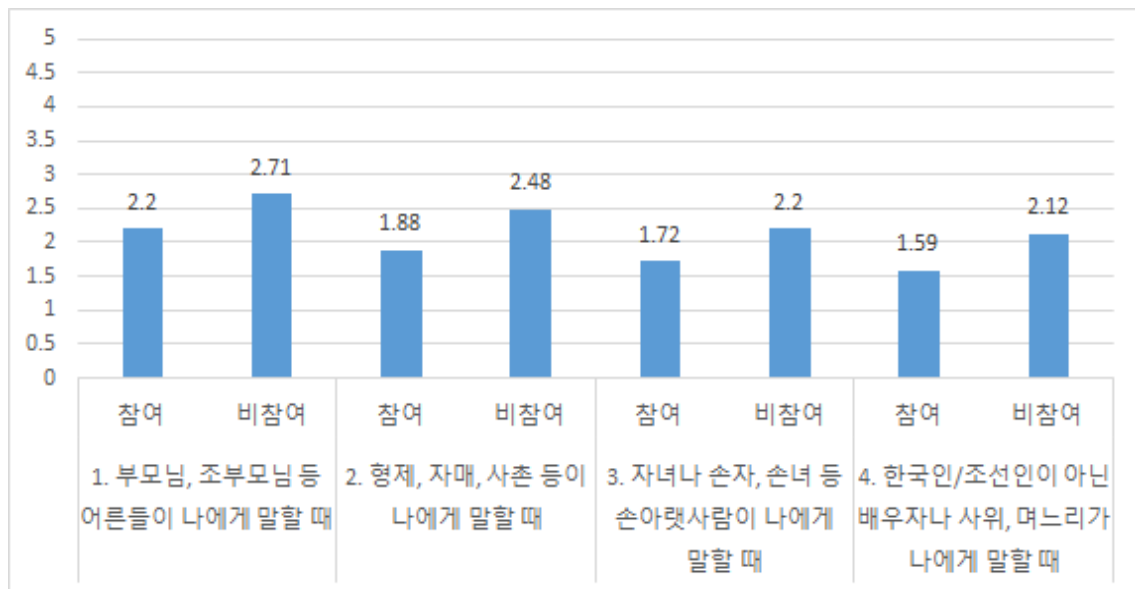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모든 항목에서 가족들이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표 86>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질 문	참여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이 나에게 말할 때	참여	332	2.20	1.583	3.574	.000***
	비참여	268	2.71	1.815		
2. 형제, 자매, 사촌 등이 나에게 말할 때	참여	338	1.88	1.431	4.493	.000***
	비참여	270	2.48	1.796		
3.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참여	310	1.72	1.276	3.717	.000***
	비참여	235	2.20	1.637		
4. 한국인/조선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가 나에게 말할 때	참여	290	1.59	1.200	3.977	.000***
	비참여	214	2.12	1.627		

* $p<.05$, ** $p<.01$, ***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93>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언어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평균값

4)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1) 기본 분석

재일동포들이 동포사회에서 대화할 때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모임의 성격과 대화 상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재일동포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26.6%)이 비공식적 모임에서(17.2%)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대화 참여자 중에 일본인이 있는 경우는 주로 일본어로 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종교활동에 관련된 문항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66.3%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본 연구진의 실수로 인해 일부 조사 대상자들에게 이 문항이 포함되지 않은 설문지가 잘못 배부된 경우도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표 87>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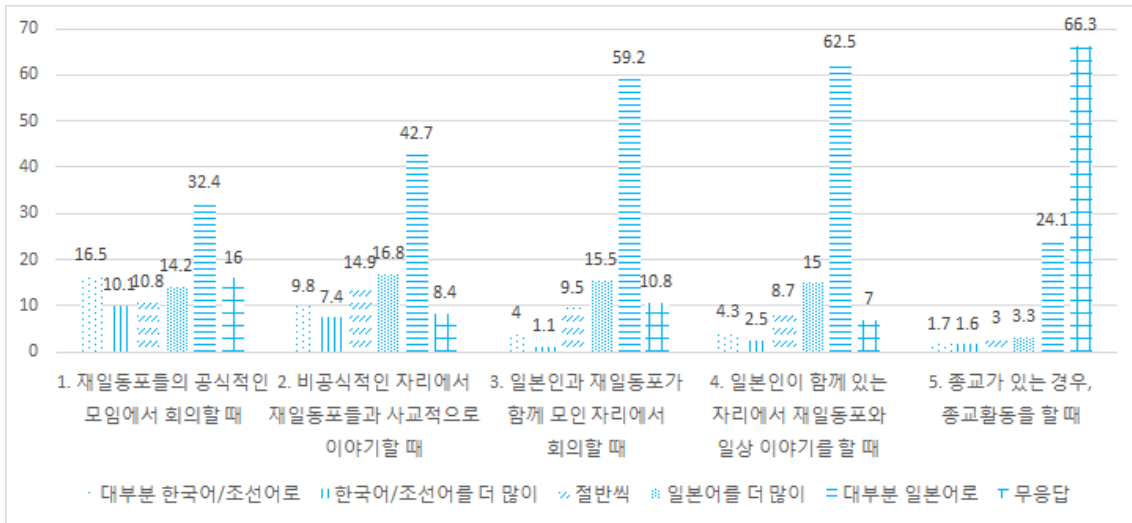
(단위: %(명))

질 문	한국어/ 조선어로 ⁴³⁾	절반씩	일본어로 ⁴⁴⁾	무응답	차이 ⁴⁵⁾	평균 5점척도
1. 재일동포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할 때	26.6 (168)	10.8 (68)	46.6 (295)	16.0 (101)	-20	2.57
2.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재일동포들과 사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17.2 (109)	14.9 (94)	59.5 (376)	8.4 (53)	-42.3	2.18
3. 일본인과 재일동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할 때	5.1 (32)	9.5 (60)	74.7 (472)	10.8 (68)	-69.6	1.60
4. 일본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재일동포와 일상 이야기를 할 때	6.8 (43)	8.7 (55)	77.5 (490)	7.0 (44)	-70.7	1.61
5. 종교가 있는 경우, 종교활동을 할 때	3.3 (21)	3.0 (19)	27.4 (173)	66.3 (419)	-63	1.62

43) '한국어/조선어로'는 '대부분 한국어/조선어로'와 '한국어/조선어로 더 많이'의 응답 비율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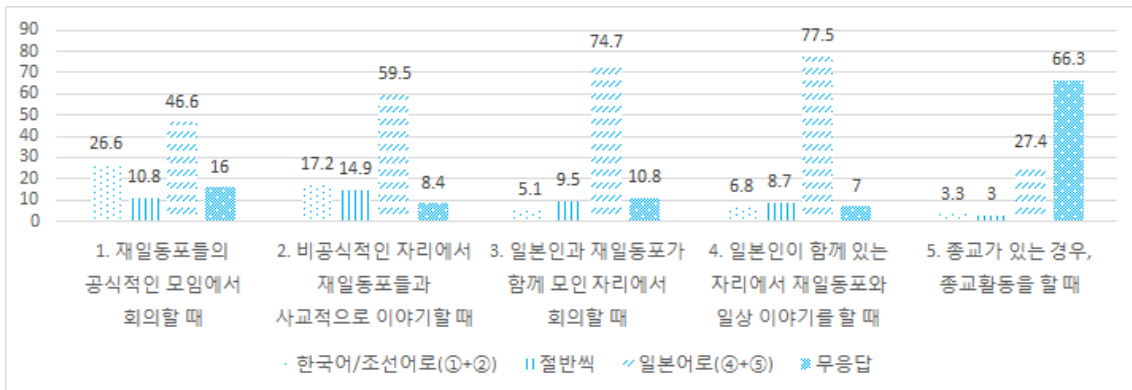
44) '일본어로'는 '대부분 일본어로'와 '일본어로 더 많이'의 응답 비율의 합

45) 차이는 '한국어/조선어로'의 비율에서 '일본어로'의 비율을 뺀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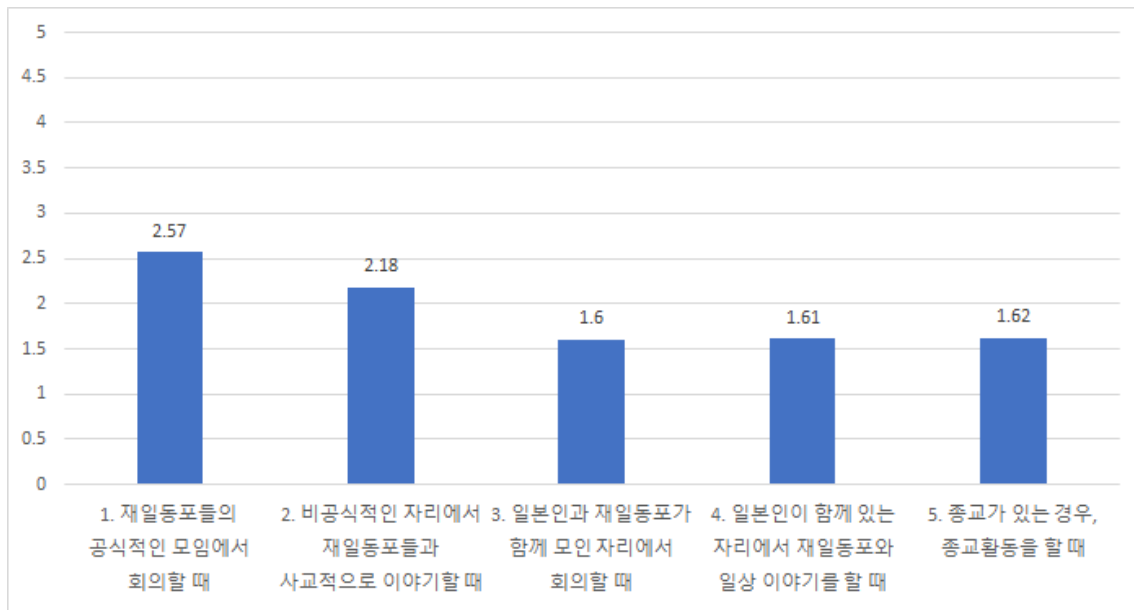
(단위: %)

<그림 94>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1)



(단위: %)

<그림 95>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2)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96>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평균값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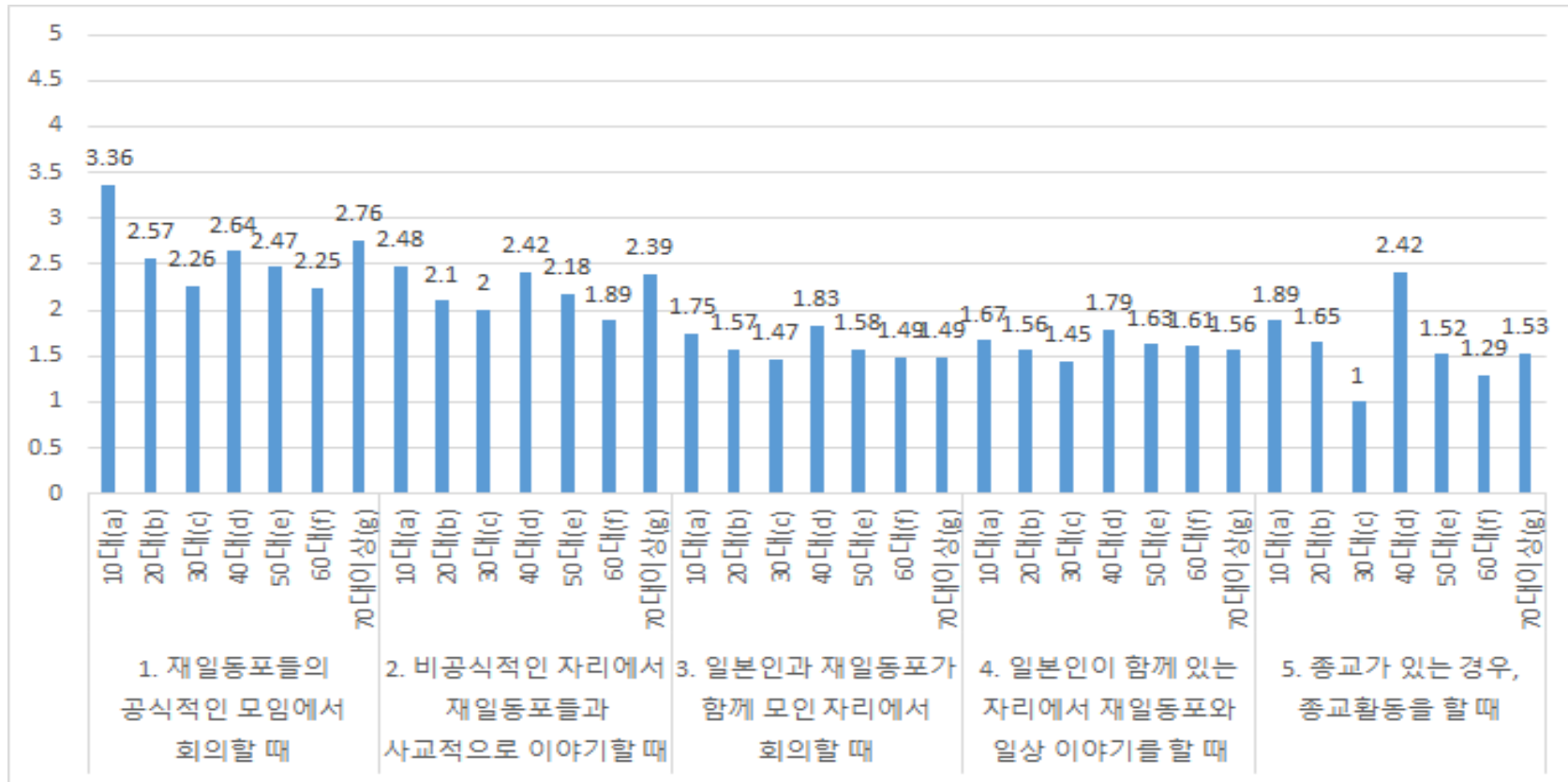
○ 연령별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 재일동포들의 공식 모임에서는 1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한국어/조선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했다($F=4.111$, $p<.001$). 한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60대가 10대, 40대, 70대 이상의 응답자보다 조금 더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F=2.309$, $p<.05$). 일본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종교 활동 시에는 30대가 40대보다 일본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F=4.505$, $p<.001$).

<표 88>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연령별 분석

질 문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재일동포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할 때	10대(a)	61	3.36	1.664	4.111 (.000***)	b=c=d =e=f= g>a
	20대(b)	89	2.57	1.595		
	30대(c)	85	2.26	1.521		
	40대(d)	95	2.64	1.501		
	50대(e)	75	2.47	1.417		
	60대(f)	88	2.25	1.456		
	70대이상(g)	38	2.76	1.684		
2.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재일동포들과 사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10대(a)	65	2.48	1.348	2.309 (.033*)	f>a=d= g
	20대(b)	101	2.10	1.323		
	30대(c)	91	2.00	1.308		
	40대(d)	106	2.42	1.460		
	50대(e)	80	2.18	1.357		
	60대(f)	98	1.89	1.275		
	70대이상(g)	38	2.39	1.586		
3. 일본인과 재일동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할 때	10대(a)	64	1.75	0.959	1.579 (.151)	-
	20대(b)	96	1.57	0.960		
	30대(c)	90	1.47	0.974		
	40대(d)	99	1.83	1.246		
	50대(e)	80	1.58	0.965		
	60대(f)	96	1.49	1.036		
	70대이상(g)	39	1.49	0.885		
4. 일본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재일동포와 일상 이야기를 할 때	10대(a)	70	1.67	0.896	.921 (.480)	-
	20대(b)	103	1.56	0.997		
	30대(c)	92	1.45	0.930		
	40대(d)	103	1.79	1.250		
	50대(e)	82	1.63	1.128		
	60대(f)	99	1.61	1.132		
	70대이상(g)	39	1.56	1.021		
5. 종교가 있는 경우, 종교활동을 할 때	10대(a)	37	1.89	1.173	4.505 (.000***)	c>d
	20대(b)	40	1.65	1.189		
	30대(c)	21	1.00	0.000		
	40대(d)	26	2.42	1.677		
	50대(e)	33	1.52	1.034		
	60대(f)	41	1.29	0.873		
	70대이상(g)	15	1.53	0.743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97>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연령별 분석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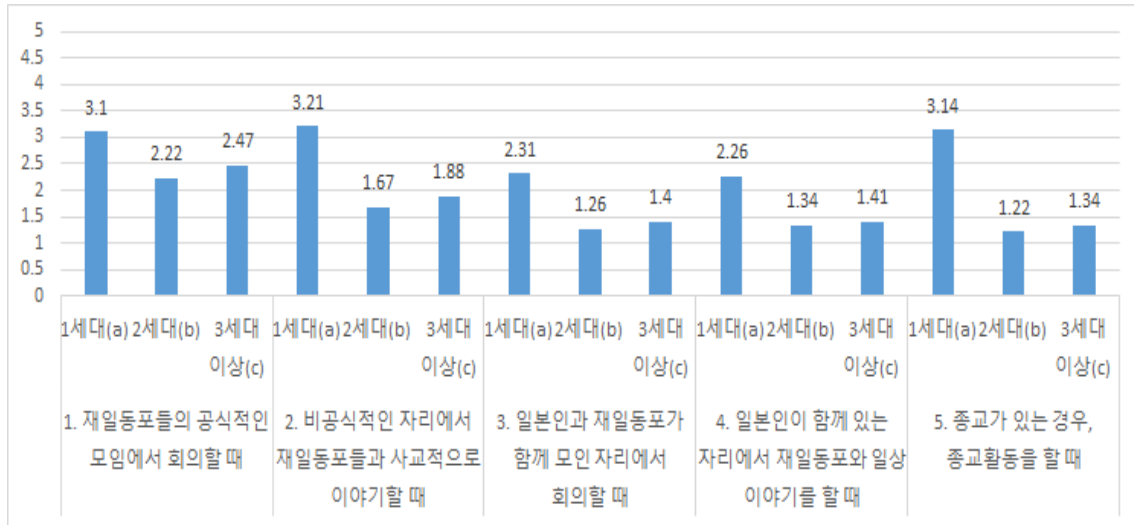
○ 세대별

세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확률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재일동포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이나 일본인과 재일동포가 함께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 그리고 종교 활동에서 1세대가 2세대, 3세대 이상의 응답자보다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조금 더 낮았다.

<표 89>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세대별 분석

질 문	세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재일동포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할 때	1세대(a)	136	3.10	1.534	12.266 (.000***)	b=c,>a
	2세대(b)	143	2.22	1.426		
	3세대 이상(c)	227	2.47	1.580		
2.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재일동포들과 사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1세대(a)	149	3.21	1.444	73.979 (.000***)	b=c>a
	2세대(b)	153	1.67	1.020		
	3세대 이상(c)	251	1.88	1.187		
3. 일본인과 재일동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할 때	1세대(a)	144	2.31	1.375	56.793 (.000***)	b=c>a
	2세대(b)	150	1.26	0.596		
	3세대 이상(c)	245	1.40	0.760		
4. 일본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재일동포와 일상 이야기를 할 때	1세대(a)	150	2.26	1.421	44.189 (.000***)	b=c>a
	2세대(b)	158	1.34	0.745		
	3세대 이상(c)	254	1.41	0.783		
5. 종교가 있는 경우, 종교 활동을 할 때	1세대(a)	35	3.14	1.458	62.722 (.000***)	b=c>a
	2세대(b)	76	1.22	0.580		
	3세대 이상(c)	89	1.34	0.825		

* $p < .05$, ** $p < .01$, *** $p < .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98>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세대별 분석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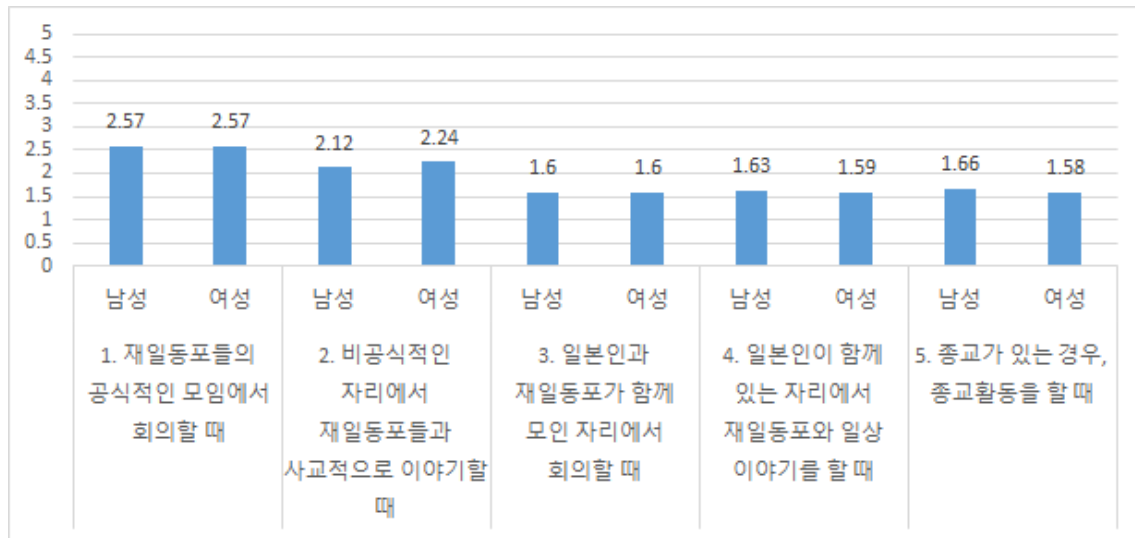
○ 성별

성별에 따른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인이 함께 한 자리에서는 재일동포들끼리 모였을 때 보다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표 90>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성별 분석

질 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재일동포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할 때	남성	265	2.57	1.594	-.024	.981
	여성	263	2.57	1.539		
2.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재일동포들과 사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남성	283	2.12	1.362	1.066	.287
	여성	293	2.24	1.391		
3. 일본인과 재일동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할 때	남성	281	1.60	1.068	-.016	.987
	여성	280	1.60	0.994		
4. 일본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재일동포와 일상 이야기를 할 때	남성	288	1.63	1.119	-.406	.685
	여성	297	1.59	1.020		
5. 종교가 있는 경우, 종교활동을 할 때	남성	120	1.66	1.220	-.488	.626
	여성	93	1.58	1.056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99>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성별 분석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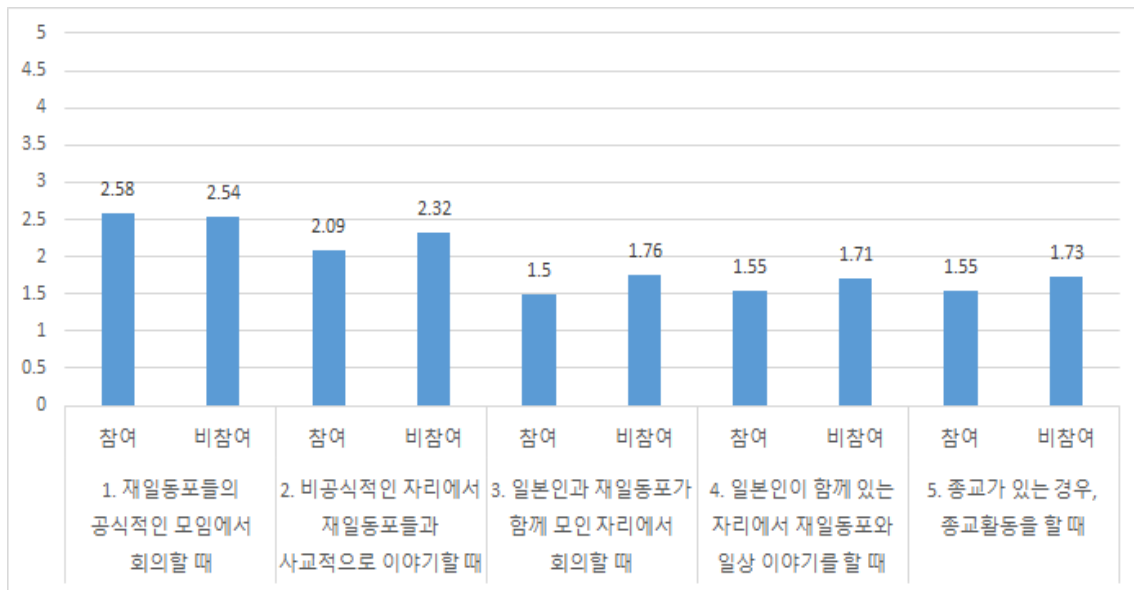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항목은 ‘일본인과 재일동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할 때’만 해당되는데,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848$, $p<.01$).

<표 91>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질 문	참여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재일동포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할 때	참여	321	2.58	1.553	-.307	.759
	비참여	202	2.54	1.568		
2.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재일동포들과 사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참여	335	2.09	1.281	1.939	.053
	비참여	236	2.32	1.483		
3. 일본인과 재일동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할 때	참여	332	1.50	0.881	2.848	.005**
	비참여	225	1.76	1.207		
4. 일본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재일동포와 일상 이야기를 할 때	참여	336	1.55	0.985	1.677	.094
	비참여	244	1.71	1.180		
5. 종교가 있는 경우, 종교활동을 할 때	참여	128	1.55	1.041	1.092	.277
	비참여	82	1.73	1.287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00> 대화 대상과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평균값

5)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1) 기본 분석

다음의 <표 92>에서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재일동포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기도하거나 소원을 빌 때’,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등과 같이 평소 혼자서 말하거나 생각할 때는 거의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재일동포와 말싸움 할 때’와 같이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66.3%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어/조선어로는 18.7%, 절반씩 사용하는 경우는 1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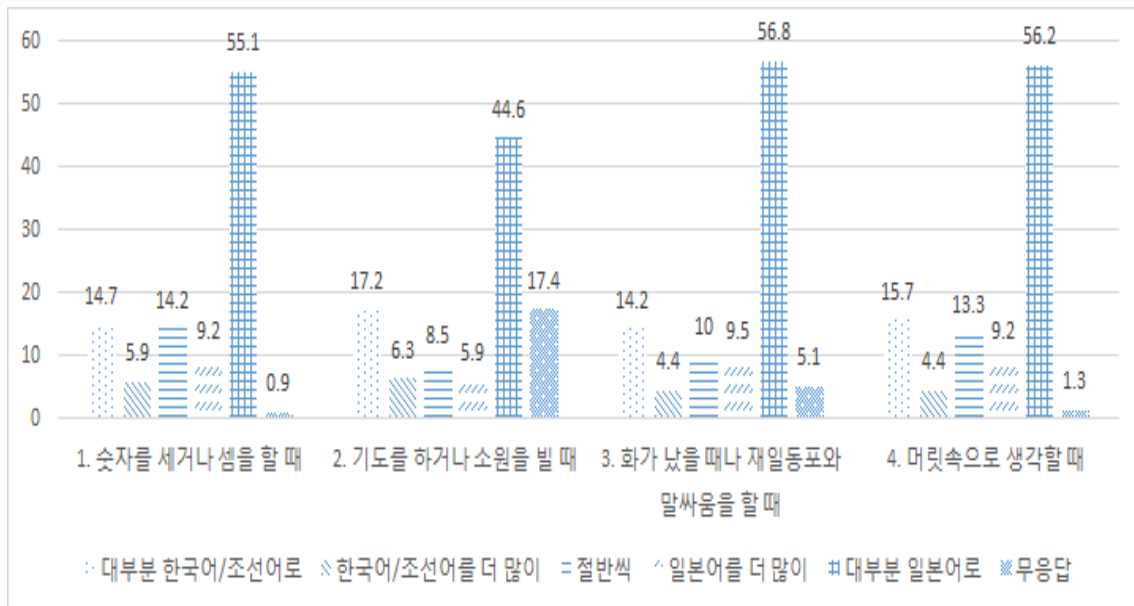
(단위: %(명))

질 문	한국어/ 조선어로 ⁴⁶⁾	절반씩	일본어로 ⁴⁷⁾	무응답	차이 ⁴⁸⁾	평균 5점척도
1.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20.6 (130)	14.2 (90)	64.3 (406)	0.9 (6)	-43.7	2.15
2.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23.6 (149)	8.5 (54)	50.5 (319)	17.4 (110)	-26.9	2.34
3. 화가 났을 때나 재일동포와 말싸움을 할 때	18.7 (118)	10.0 (63)	66.3 (419)	5.1 (32)	-47.6	2.05
4.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20.1 (127)	13.3 (84)	65.4 (413)	1.3 (8)	-45.3	2.13

46) ‘한국어/조선어로’는 ‘대부분 한국어/조선어로’와 ‘한국어/조선어로 더 많이’의 응답 비율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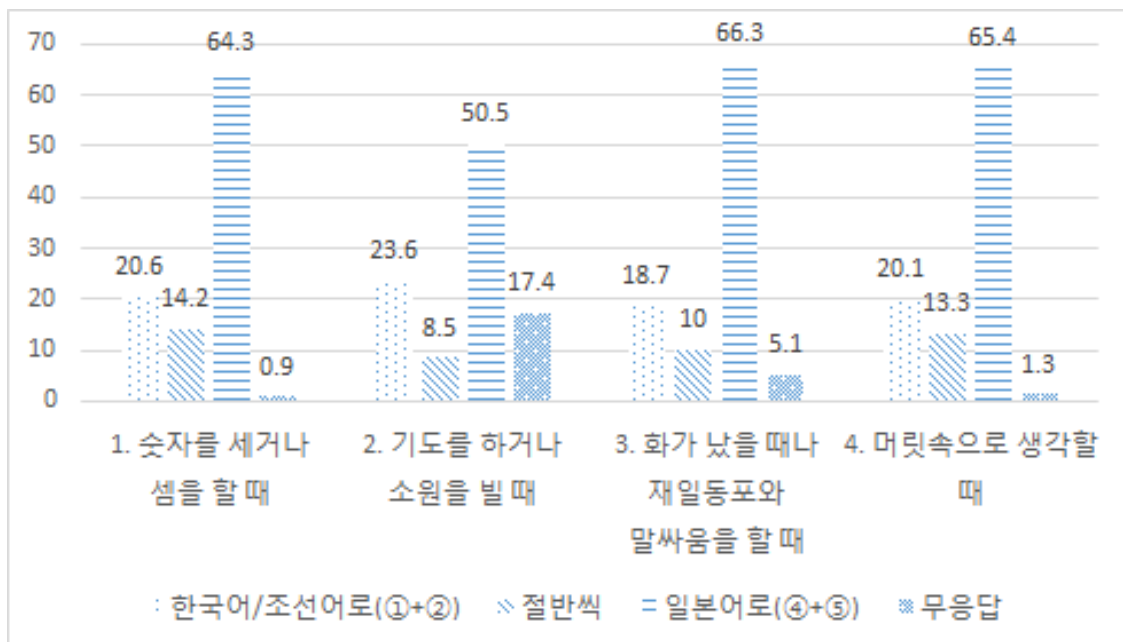
47) ‘일본어로’는 ‘대부분 일본어로’와 ‘일본어로 더 많이’의 응답 비율의 합

48) 차이는 ‘한국어/조선어로’의 비율에서 ‘일본어로’의 비율을 뺀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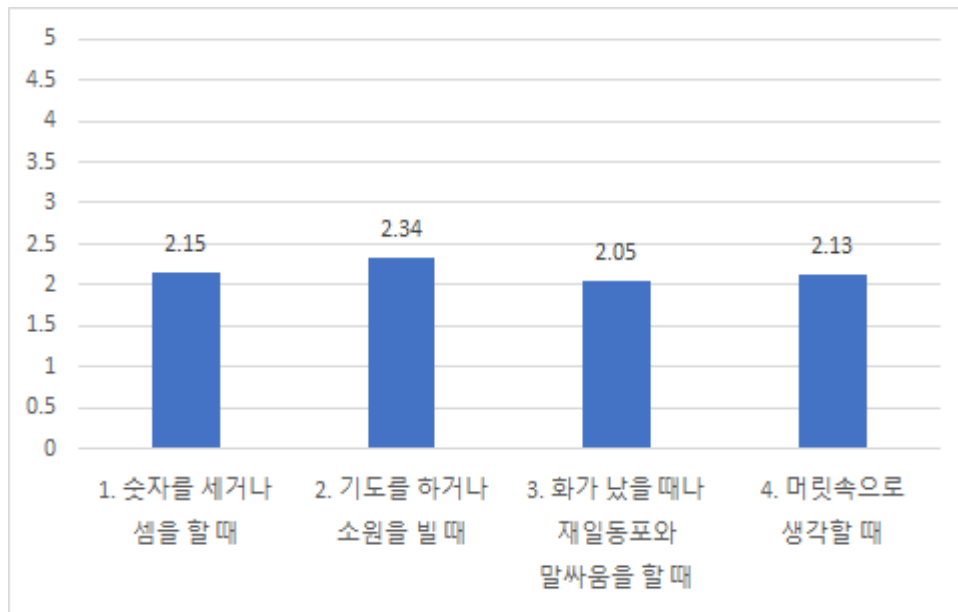
(단위: %)

<그림 101>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1)



(단위: %)

<그림 102>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2)



(단위: %)

<그림 103>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평균값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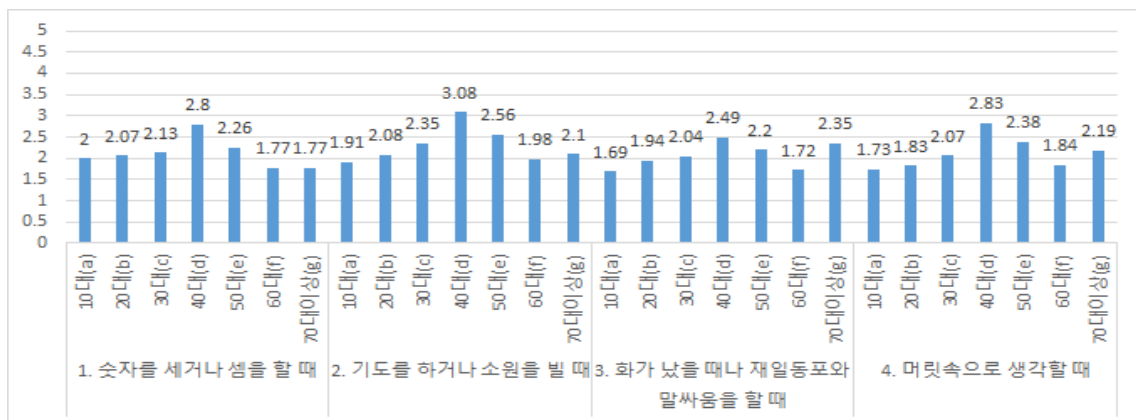
○ 연령별

모든 상황에서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40대가 다른 연령층 보다 상대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조금 더 낮았다. 하지만 대체로 모든 연령층의 응답자들이 일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하는 비율보다 더 높았다.

<표 93>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질 문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10대(a)	77	2.00	1.267	5.508 (.000***)	a=b=c =e=f= g>d
	20대(b)	109	2.07	1.392		
	30대(c)	94	2.13	1.446		
	40대(d)	109	2.80	1.720		
	50대(e)	87	2.26	1.603		
	60대(f)	107	1.77	1.391		
	70대이상(g)	43	1.77	1.250		
2.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10대(a)	67	1.91	1.276	5.726 (.000***)	a>d
	20대(b)	91	2.08	1.500		
	30대(c)	75	2.35	1.689		
	40대(d)	97	3.08	1.754		
	50대(e)	82	2.56	1.743		
	60대(f)	81	1.98	1.541		
	70대이상(g)	29	2.10	1.633		
3. 화가 났을 때나 재일동포와 말싸움을 할 때	10대(a)	71	1.69	1.077	3.631 (.002**)	a=f>d
	20대(b)	103	1.94	1.334		
	30대(c)	93	2.04	1.574		
	40대(d)	105	2.49	1.688		
	50대(e)	83	2.20	1.552		
	60대(f)	102	1.72	1.374		
	70대이상(g)	43	2.35	1.689		
4.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10대(a)	78	1.73	1.113	6.979 (.000***)	a=b=f> e>d
	20대(b)	109	1.83	1.221		
	30대(c)	92	2.07	1.451		
	40대(d)	109	2.83	1.740		
	50대(e)	87	2.38	1.608		
	60대(f)	107	1.84	1.518		
	70대이상(g)	42	2.19	1.550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04>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연령별 분석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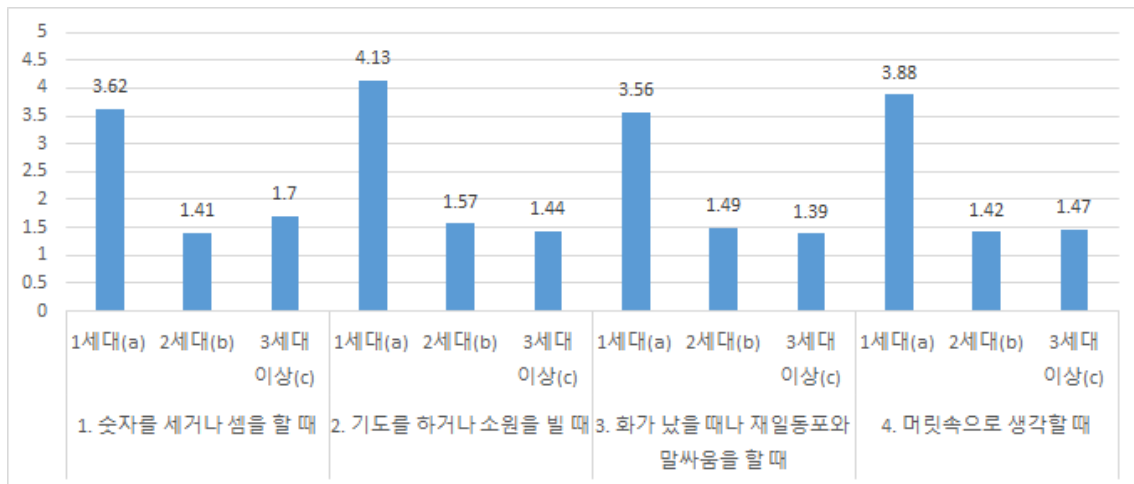
○ 세대별

이주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상황에서 유의확률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1세대 응답자가 다른 세대 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어/조선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1세대가 사용하는 언어의 평균값이 1.87인 반면, 2세대와 3세대 이상의 평균값은 4점대로 나타나서 세대 간 차이가 다른 상황에서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F=321.750$, $p < .001$).

<표 94>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세대별 분석

질 문	세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1세대(a)	165	3.62	1.471	178.614 (.000***)	$b > c > a$
	2세대(b)	167	1.41	0.893		
	3세대 이상(c)	263	1.70	1.145		
2.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1세대(a)	157	4.13	1.220	321.750 (.000***)	$b = c > a$
	2세대(b)	136	1.57	1.133		
	3세대 이상(c)	202	1.44	0.914		
3. 화가 났을 때나 재일동포와 말싸움을 할 때	1세대(a)	158	3.56	1.516	203.818 (.000***)	$b = c > a$
	2세대(b)	162	1.49	1.035		
	3세대 이상(c)	251	1.39	0.862		
4.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1세대(a)	165	3.88	1.350	320.965 (.000***)	$b = c > a$
	2세대(b)	167	1.42	0.921		
	3세대 이상(c)	262	1.47	0.900		

* $p < .05$, ** $p < .01$, *** $p < .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05>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세대별 분석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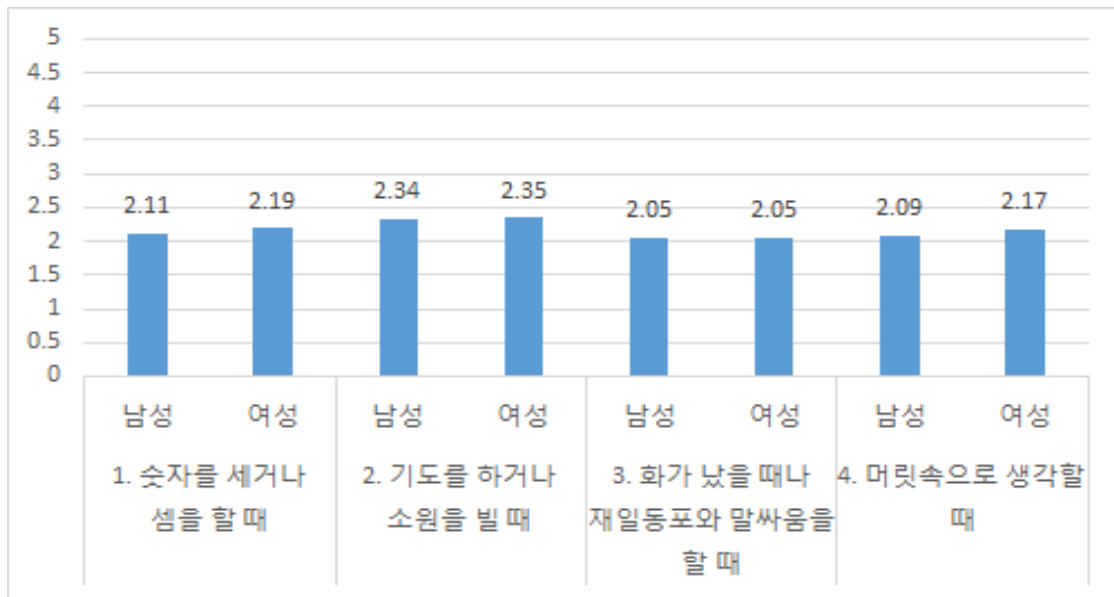
○ 성별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95>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성별 분석

질 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남성	307	2.11	1.523	.683	.495
	여성	316	2.19	1.486		
2.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남성	265	2.34	1.665	.074	.941
	여성	254	2.35	1.642		
3. 화가 났을 때나 재일동포와 말싸움을 할 때	남성	295	2.05	1.521	.017	.986
	여성	302	2.05	1.482		
4.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남성	307	2.09	1.534	.632	.528
	여성	315	2.17	1.502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06>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성별 분석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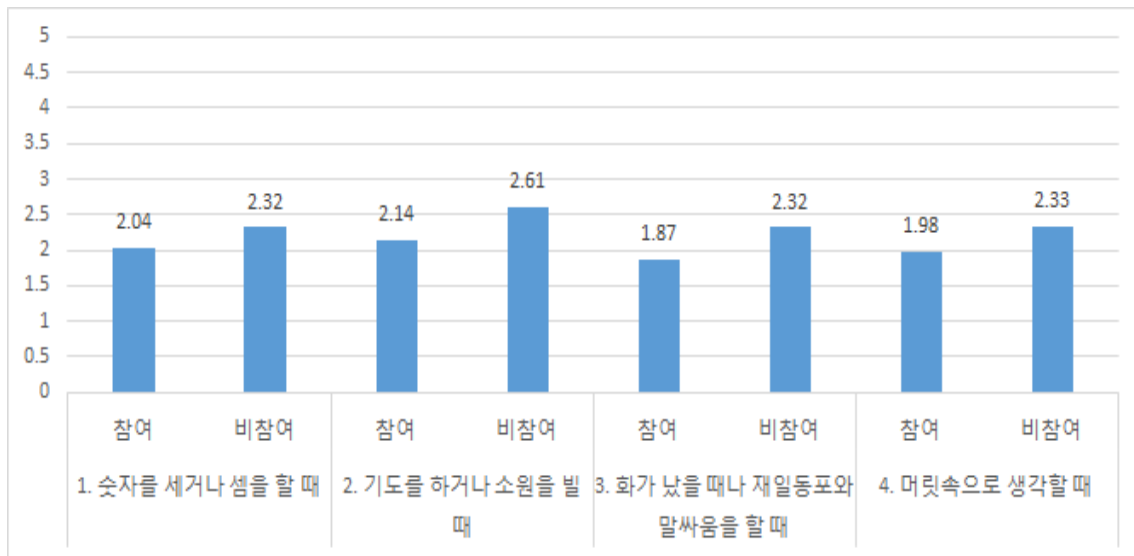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는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참여하지 않는 집단보다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표 96>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질 문	참여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숫자를 세거나 샘플 할 때	참여	342	2.04	1.411	2.286	.023*
	비참여	275	2.32	1.607		
2.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참여	283	2.14	1.577	3.222	.001**
	비참여	232	2.61	1.702		
3. 화가 났을 때나 재일동포와 말싸움을 할 때	참여	335	1.87	1.344	3.548	.000***
	비참여	257	2.32	1.655		
4.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참여	339	1.98	1.427	2.797	.005**
	비참여	276	2.33	1.612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07>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 평균값

2.3.1.5. 언어 습득과 한국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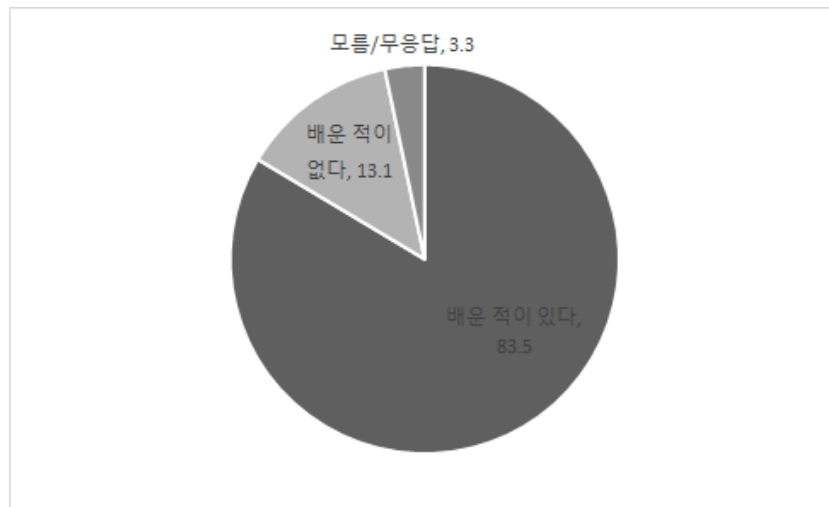
1) 한국어 학습 경험

대부분의 재일동포들은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83.5%가 배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배운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3.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쿄 지역에서는 학습 경험자가 84.5%, 나고야 지역에서는 88.6%, 오사카 지역에서는 79.9%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97> 한국어 학습 경험

(단위: 명, %)

구 분	전체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	
	N	%	N	%	N	%	N	%
배운 적이 있다	528	83.5	197	84.5	124	88.6	207	79.9
배운 적이 없다	83	13.1	28	12.0	13	9.3	42	16.2
모름/무응답	21	3.3	8	3.4	3	2.1	10	3.9



(단위: %)

<그림 108> 한국어 학습 경험

2) 한국어 학습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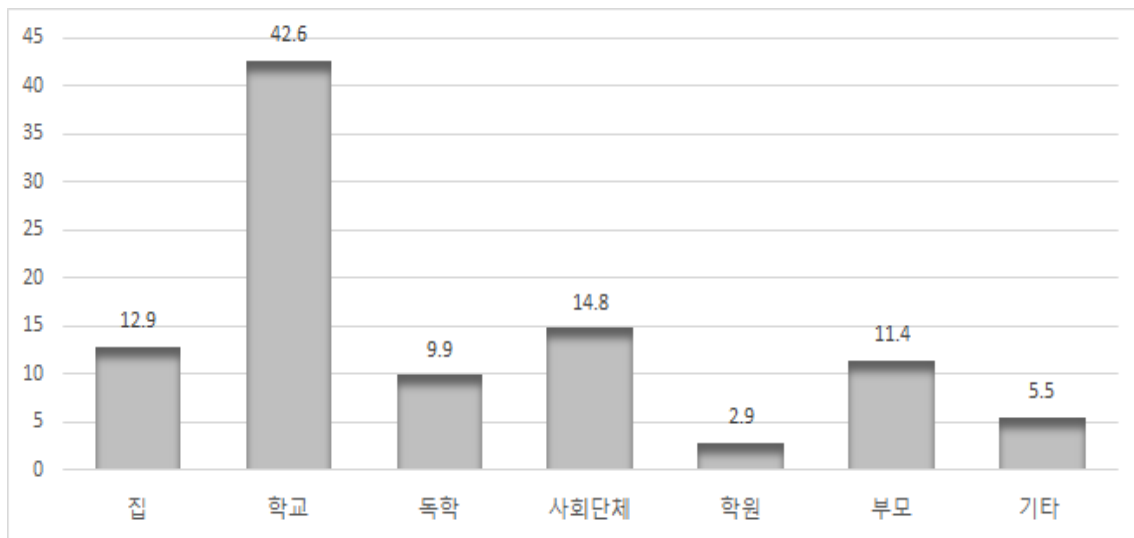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웠는가에 대한 문항은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다. 따라서 유효 퍼센트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42.6%가 학교에서 배웠다고 답했으며, 그 다음이 사회단체(14.8%)와 집(12.9%), 부모(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일동포들의 경우 조선학교나 한국학교와 같은 민족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기타’(5.5%) 내용을 살펴보면, 라디오 등과 같은 미디어, 조부모, 교회, 한국 어학연수 등을 통해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쿄, 나고야, 오사카 지역의 응답자 모두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도쿄 지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사회단체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4.0%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98> 한국어 학습 장소 (중복응답허용)

(단위: 유효 %)

구 분	집	학교	독학	사회단체	학원	부모	기타
전체	12.9	42.6	9.9	14.8	2.9	11.4	5.5
도쿄 지역	18.2	47.4	9.2	4.0	2.3	13.6	5.2
나고야 지역	10.4	43.4	8.2	20.3	3.8	11.0	2.7
오사카 지역	8.9	37.5	11.5	22.6	2.9	9.5	7.2



(단위: 유효 %)

<그림 109> 한국어 학습 장소 (중복응답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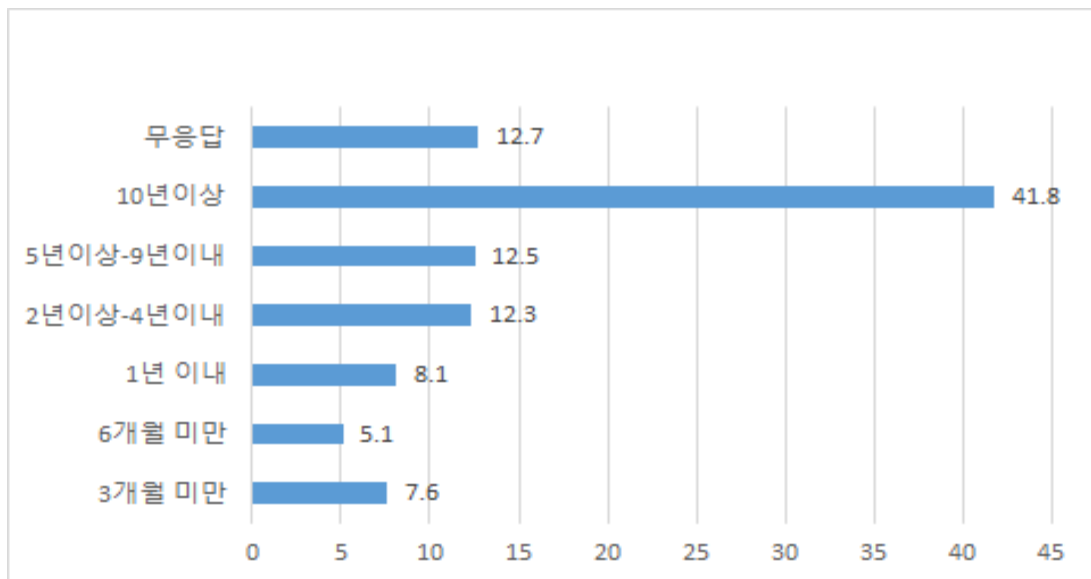
3) 한국어 학습 기간

다음으로 한국어를 배운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했는데,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5년 이상’(12.5%), ‘2년 이상’(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교육이나 가정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표 99> 한국어 학습 기간

(단위: 명, %)

구분	전체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	
	N	%	N	%	N	%	N	%
3개월 미만	48	7.6	17	7.3	13	9.3	18	6.9
6개월 미만	32	5.1	6	2.6	13	9.3	13	5.0
1년 이내	51	8.1	14	6.0	23	16.4	14	5.4
2년이상-4년내	78	12.3	18	7.7	26	18.6	34	13.1
5년이상-9년내	79	12.5	29	12.4	11	7.9	39	15.1
10년이상	264	41.8	119	51.1	41	29.3	104	40.2
무응답	80	12.7	30	12.9	13	9.3	37	14.3
합계	632	100	233	100	140	100	259	100



<그림 110> 한국어 학습 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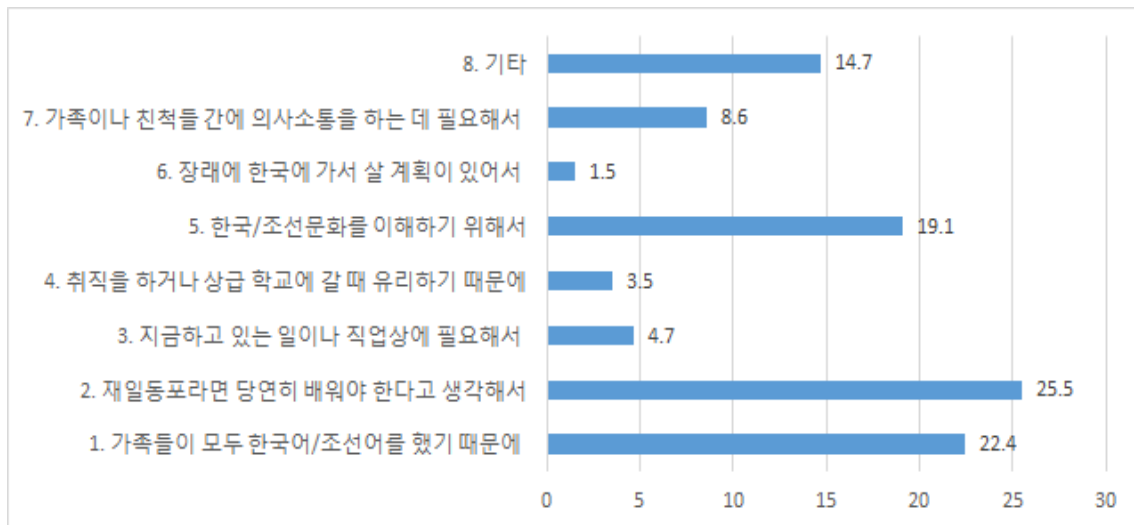
4) 한국어 학습 이유

한국어를 배운 이유를 질문한 문항은 중복 응답을 하도록 설계했으며, 결과를 살펴보면 ‘재일동포라면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25.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가족들이 모두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해서’(22.4%), ‘한국/조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19.1%)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재일동포들은 강한 민족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민족으로서의 당위성과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상에 필요해서’(4.7%)나 ‘취직을 하거나 상급 학교에 갈 때 유리하기 때문에’(3.5%)등과 같이 일본사회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어의 학습이 재일동포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기타’ 문항을 선택한 비율도 14.7%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의 권유나 교육방침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혹은 ‘조선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배웠다’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정체성 확립’이나 ‘주변 친구의 영향’, ‘한류 붐’ 등이 있었다.

<표 100> 한국어 학습 이유 (중복응답허용)

(단위: 유효 %)

구 분	전 체	도쿄지역	나고야지역	오사카 지역
1. 가족들이 모두 한국어/조선어를 했기 때문에	22.4	30.8	10.0	20.8
2. 재일동포라면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25.5	21.2	32.8	25.8
3. 지금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상에 필요해서	4.7	4.3	7.8	3.5
4. 취직을 하거나 상급 학교에 갈 때 유리하기 때문에	3.5	6.2	1.7	1.9
5. 한국/조선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19.1	11.4	27.2	22.3
6. 장래에 한국에 가서 살 계획이 있어서	1.5	2.2	0.6	1.3
7. 가족이나 친척들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해서	8.6	10.2	7.2	7.9
8. 기타	14.7	13.8	12.8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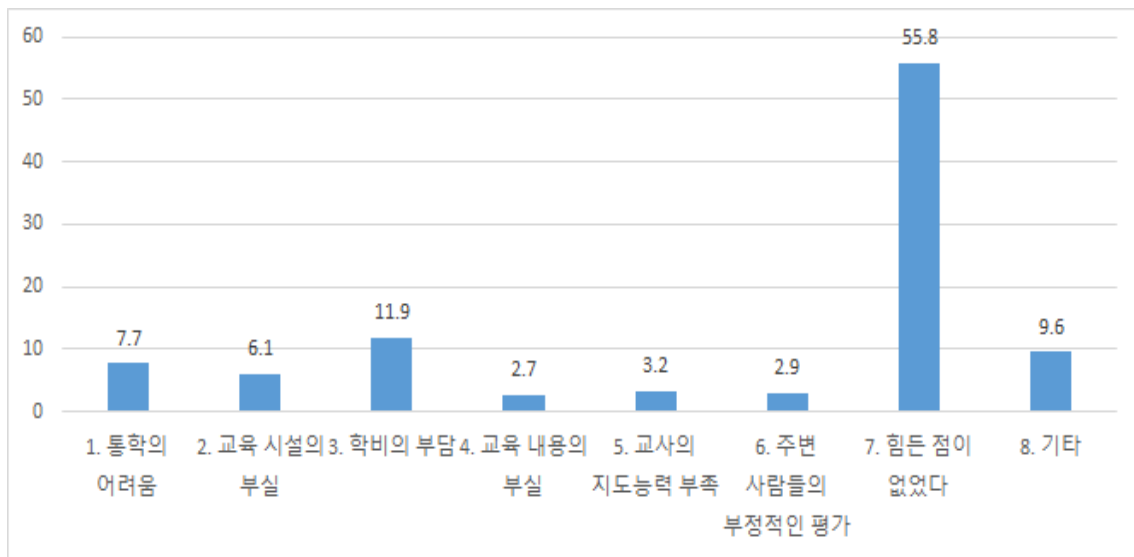
<그림 111> 한국어 학습 이유 (중복응답허용) (단위: 유효 %)

5) 한국어를 배울 때 힘들었던 점

한국어를 배울 때 힘들었던 점에 대한 문항 역시 중복 응답으로 처리하였다. 학습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힘든 점이 없었다’(55.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비의 부담’(11.9%)이었다. 많은 재일 동포들이 민족 학교에서 한국어/조선어를 배우는데, 조선 학교의 경우 학비가 일본의 사립학교 등록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민족 학교에 조차 보내기 힘든 상황이다. 일반 일본 학교와는 달리, 조선 학교는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일 동포들의 후원금이나 학생들의 학비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싼 학비가 한국어 학습에 부담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기타’의 비율도 9.6%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기타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발음문제, 남북언어의 차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본인의 의지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표 101> 한국어를 배울 때 힘들었던 점 (중복응답허용)
(단위: 유효 %)

구 분	전 체	도쿄지역	나고야지역	오사카 지역
1. 통학의 어려움	7.7	6.3	11.9	6.6
2. 교육 시설의 부실	6.1	5.9	4.4	7.4
3. 학비의 부담	11.9	11.7	9.6	13.5
4. 교육 내용의 부실	2.7	4.1	1.5	2.2
5. 교사의 지도능력 부족	3.2	3.6	3.7	2.6
6.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	2.9	4.1	3.7	1.3
7. 힘든 점이 없었다	55.8	55.0	57.0	55.9
8. 기타	9.6	9.5	8.1	10.5



(단위: 유효 %)

<그림 112> 한국어를 배울 때 힘들었던 점 (중복응답허용)

2.3.1.6. 한민족 정체성과 일본인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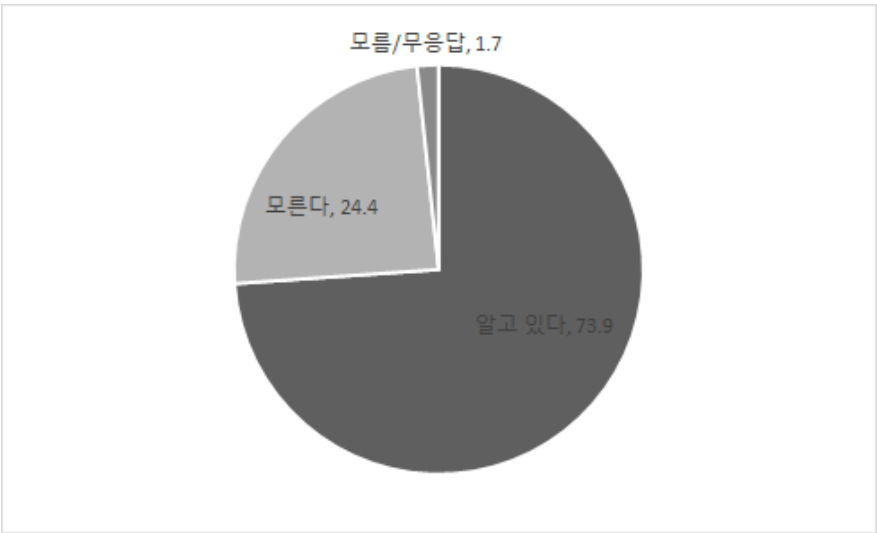
1) 재일동포 이주의 역사에 대한 인식

“재일동포 이주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9%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재일동포는 재일동포 이주

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 재일동포 이주의 역사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	
	N	%	N	%	N	%	N	%
알고 있다	467	73.9	167	71.7	106	75.7	194	74.9
모른다	154	24.4	63	27.0	32	22.9	59	22.8
무응답	11	1.7	3	1.3	2	1.4	6	2.3
합계	632	100	233	100	140	100	259	100



(단위: %)

<그림 113> 재일동포 이주의 역사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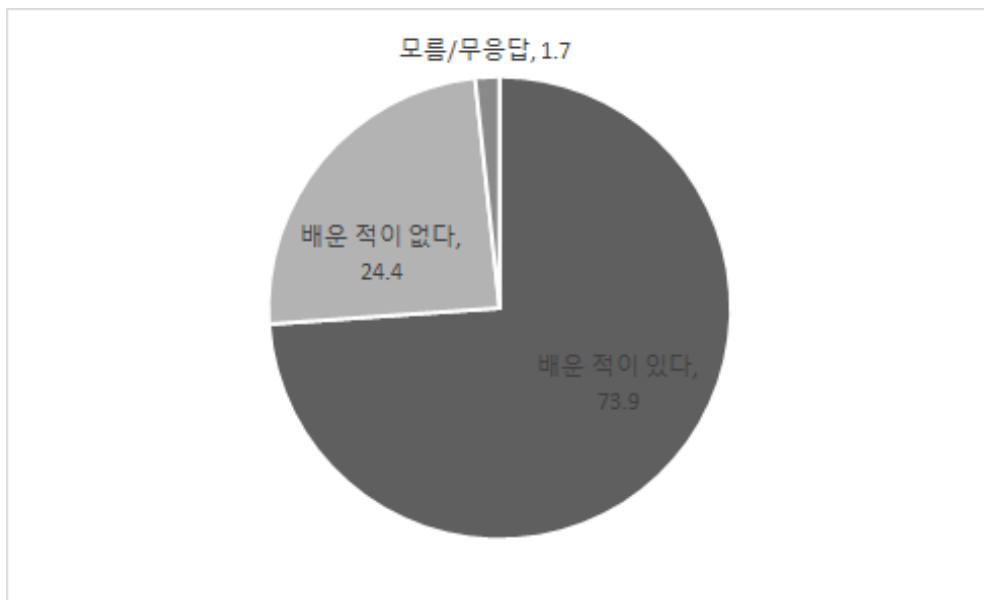
2) 한민족 역사에 대한 학습 경험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9%로, 대체로 재일동포는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3> 한민족의 역사 학습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	
	N	%	N	%	N	%	N	%
배운 적이 있다	467	73.9	178	76.4	104	74.3	185	71.4
배운 적이 없다	154	24.4	51	21.9	34	24.3	69	26.6
무응답	11	1.7	4	1.7	2	1.4	5	1.9
합계	632	100	233	100	140	100	259	100



(단위: %)

<그림 114> 한민족의 역사 학습 경험 여부

3) 상황별 교류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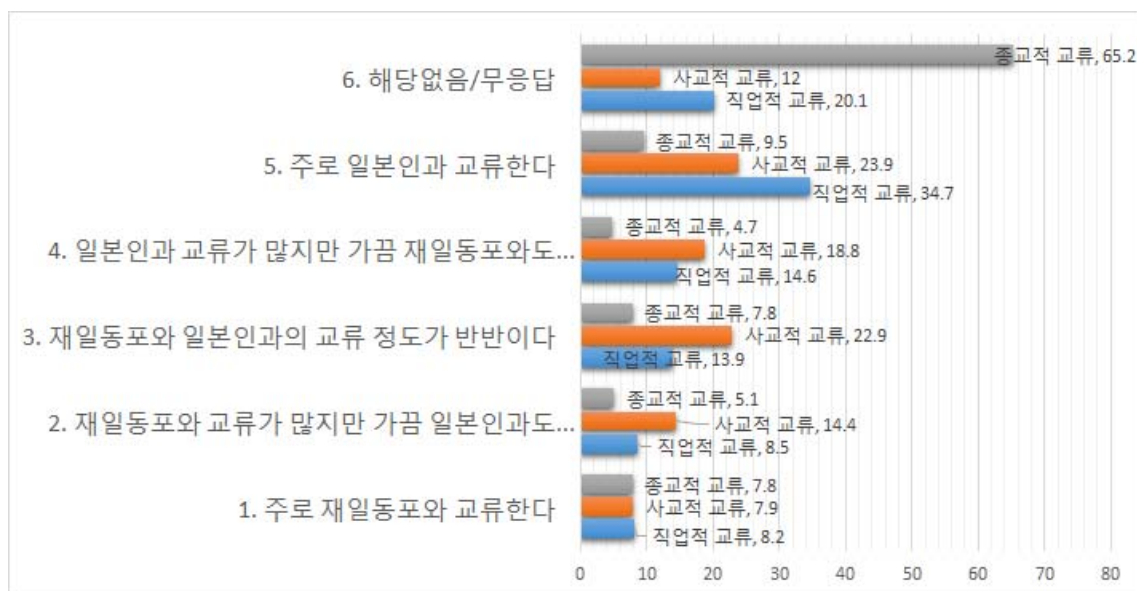
재일 동포들이 어떠한 사람들과 주로 교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직업적·사교적·종교적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상황별로 교류 상대의 비중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일본인과의 교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적 교류나 사교적 교류에서는 교류 상대가 일본인인 비중이 반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3.2%, 65.6%로 해당없음/무응답의 비율을 제하면 일본인과 교류하는 비율이 상당

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종교적인 교류의 상황에서는 주로 일본인과 교류한다는 응답 비율과 주로 재일동포와 교류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비슷하다.

<표 104> 상황별 교류 상대

(단위: 명, %)

구 분	직업적 교류		사교적 교류		종교적 교류	
	N	%	N	%	N	%
1. 주로 재일동포와 교류한다	52	8.2	50	7.9	49	7.8
2. 재일동포와 교류가 많지만 가끔 일본인과의 교류도	54	8.5	91	14.4	32	5.1
3. 재일동포와 일본인과의 교류 정도가 반반이다	88	13.9	145	22.9	49	7.8
4. 일본인과 교류가 많지만 가끔 재일동포와도 교류한다	92	14.6	119	18.8	30	4.7
5. 주로 일본인과 교류한다	219	34.7	151	23.9	60	9.5
6. 해당없음/무응답	127	20.1	76	12.0	412	65.2
합계	632	100	632	100	632	100



(단위: %)

<그림 115> 상황별 교류 상대

4) 집안에 남아있는 한민족/조선민족의 문화

‘집안에 남아 있거나 귀하가 알고 있는 한민족/조선민족의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에 대한 개방형 문항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632명 중에 462명(약 73.1%)이 응답을 하였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사’, ‘음식(김치, 떡국 등)’, ‘명절(설날, 추석)’에 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 전통문화’나 ‘관습(예의범절, 노인공경, 치마저고리, 한복, 돌잔치, 윷놀이, 결혼식, 장례식)’ 등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5) 한민족 정체성

(1) 기본 분석

재일동포의 한민족 정체성에 관련된 문항들은 ‘(1)매우 그렇다’에서 ‘(5) 전혀 그렇지 않다’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평균값이 높을수록 한민족 정체성이 강하다고 해석하도록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각 문항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인/조선인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평균값은 4.16이며, ‘재일동포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평균값은 4.17로, 한민족으로서 재일동포공동체를 유지하고,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5> 조사 대상자의 한민족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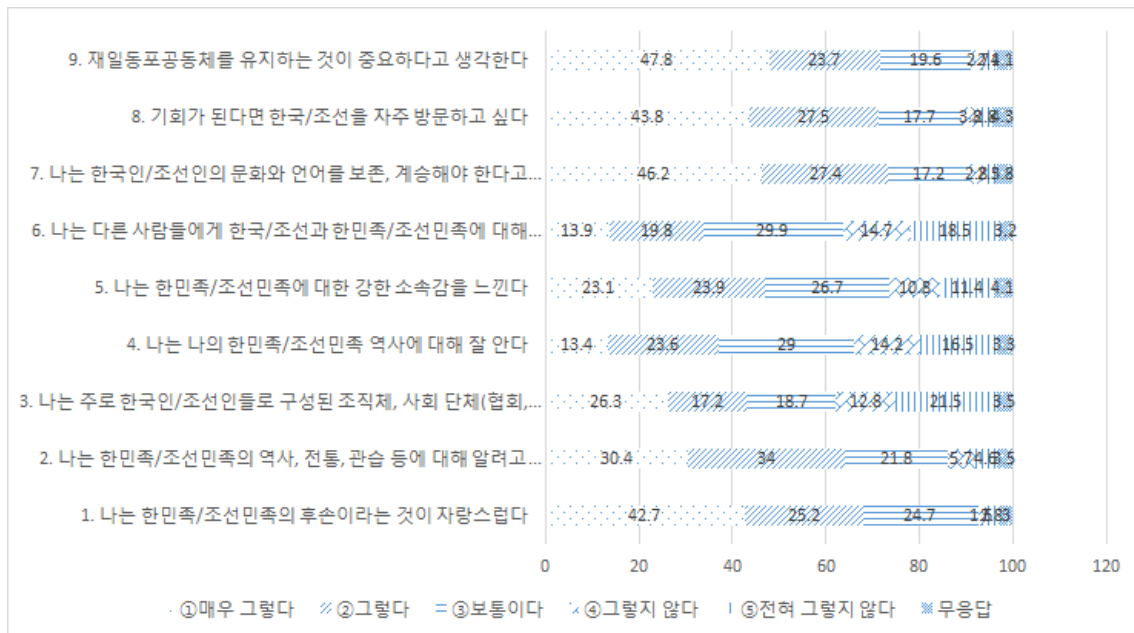
(단위: %(명))

질 문	그렇다 49)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50)	무응답	차이51)	평균 (5점척도)
1.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후손이라 는 것이 자랑스롭다	67.9 (429)	24.7 (156)	4.4 (28)	3.0 (19)	63.5	4.01
2.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역사, 전 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64.4 (407)	21.8 (138)	10.3 (65)	3.5 (22)	54.1	3.83
3. 나는 주로 한국인/조선인들로 구 성된 조직체, 사회 단체(협회, 동호 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히 참여 한다.	43.5 (275)	18.7 (118)	34.3 (217)	3.5 (22)	9.2	3.14
4. 나는 나의 한민족/조선민족 역사 에 대해 잘 안다	37.0 (234)	29.0 (183)	30.7 (194)	3.3 (21)	6.3	3.03
5.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한 강 한 소속감을 느낀다	47.0 (297)	26.7 (169)	22.2 (140)	4.1 (26)	24.8	3.38
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조선 과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해 자주 이 야기한다	33.7 (213)	29.9 (189)	33.2 (210)	3.2 (20)	0.5	2.96
7. 나는 한국인/조선인의 문화와 언 어를 보존,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73.6 (465)	17.2 (109)	5.3 (34)	3.8 (24)	68.3	4.16
8. 기회가 된다면 한국/조선을 자주 방문하고 싶다	71.4 (451)	17.7 (112)	6.6 (42)	4.3 (27)	64.8	4.10
9. 재일동포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1.5 (452)	19.6 (124)	4.8 (30)	4.1 (26)	66.7	4.17

49) '그렇다'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의 합

50)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의 합

51) 차이는 '그렇다'의 비율에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을 뺀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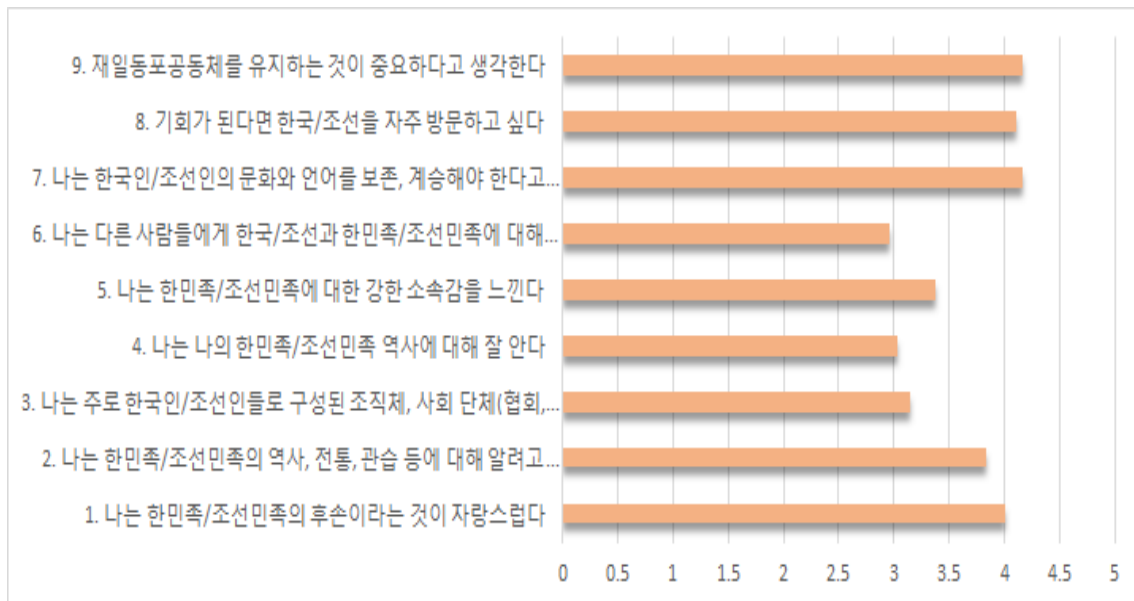
(단위: %)

<그림 116> 조사 대상자의 한민족 정체성 (1)



(단위: %)

<그림 117> 조사 대상자의 한민족 정체성 (2)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18> 조사 대상자의 한민족 정체성 평균값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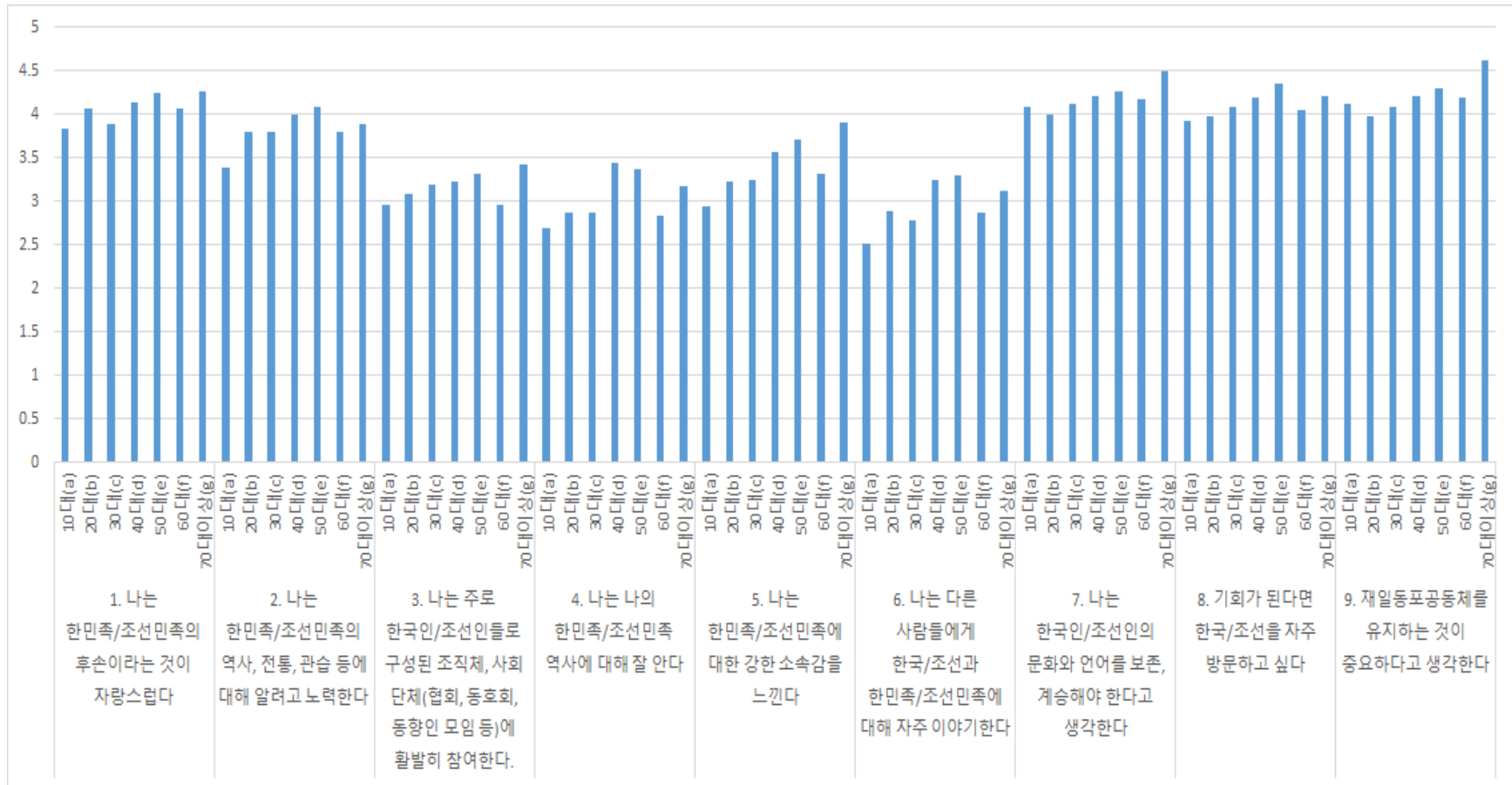
한민족 정체성에 관련된 문항들 중에 일부 문항에서만 연령별 차이가 의미하게 나타났다. 먼저, ‘(2)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문항에서는 10대의 한민족 정체성이 다른 연령층보다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F=3.430$, $p<.01$). ‘(4)나는 나의 한민족/조선민족 역사에 대해 잘 안다’ 와 ‘(6)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조선과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의 경우, 40대, 50대가 10대 보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소속감에 관해서는 70대 이상의 응답자가 10대 보다 더 강한 한민족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F=4.313$, $p<.001$). 마지막으로 ‘(9)재일동포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항에서는 70대 이상이 다른 연령층보다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나 한민족 정체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F=2.506$, $p<.05$).

<표 106> 연령별 한민족 정체성

질 문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10대(a)	72	3.83	1.048	1.930 (.074)	—
	20대(b)	108	4.07	1.056		
	30대(c)	93	3.89	1.058		
	40대(d)	109	4.14	0.967		
	50대(e)	85	4.25	0.885		
	60대(f)	105	4.07	0.973		
	70대이상(g)	41	4.27	1.096		
2.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10대(a)	71	3.38	1.188	3.430 (.002**)	b=c=d =e=f= g>a
	20대(b)	107	3.79	1.099		
	30대(c)	93	3.80	1.006		
	40대(d)	109	3.99	0.995		
	50대(e)	85	4.09	0.921		
	60대(f)	103	3.80	1.106		
	70대이상(g)	42	3.88	1.310		
3. 나는 주로 한국인/조선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사회 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히 참여한다.	10대(a)	70	2.96	1.419	.959 (.452)	—
	20대(b)	107	3.09	1.545		
	30대(c)	93	3.19	1.505		
	40대(d)	110	3.22	1.461		
	50대(e)	84	3.31	1.448		
	60대(f)	104	2.95	1.579		
	70대이상(g)	42	3.43	1.625		
4. 나는 나의 한민족/조선민족 역사에 대해 잘 안다	10대(a)	71	2.69	1.316	4.849 (.000***)	d=e>a
	20대(b)	106	2.87	1.164		
	30대(c)	93	2.87	1.287		
	40대(d)	110	3.44	1.162		
	50대(e)	85	3.36	1.223		
	60대(f)	105	2.84	1.302		
	70대이상(g)	41	3.17	1.447		
5.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10대(a)	71	2.94	1.229	4.313 (.000***)	g>a
	20대(b)	105	3.22	1.344		
	30대(c)	93	3.25	1.380		
	40대(d)	108	3.56	1.187		
	50대(e)	84	3.70	1.180		
	60대(f)	104	3.32	1.241		
	70대이상(g)	41	3.90	1.300		
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조선과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10대(a)	71	2.51	1.340	4.015 (.001**)	d=e>a
	20대(b)	106	2.88	1.343		
	30대(c)	93	2.77	1.252		
	40대(d)	110	3.25	1.295		
	50대(e)	85	3.29	1.056		
	60대(f)	105	2.86	1.362		
	70대이상(g)	42	3.12	1.292		

7. 나는 한국인/조선인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 계승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대(a)	71	4.08	1.011	1.480 (.183)	—
	20대(b)	107	4.00	1.141		
	30대(c)	93	4.12	1.020		
	40대(d)	110	4.20	1.056		
	50대(e)	85	4.26	0.875		
	60대(f)	101	4.18	0.805		
	70대이상(g)	41	4.49	0.952		
8. 기회가 된다면 한국/조 선을 자주 방문하고 싶다	10대(a)	70	3.93	1.146	1.701 (.118)	—
	20대(b)	106	3.98	1.121		
	30대(c)	92	4.08	1.040		
	40대(d)	108	4.19	0.978		
	50대(e)	85	4.35	0.909		
	60대(f)	102	4.04	0.943		
	70대이상(g)	42	4.21	1.071		
9. 재일동포공동체를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10대(a)	71	4.11	0.949	2.506 (.021*)	g>a=b =c=d= e=f
	20대(b)	106	3.97	1.091		
	30대(c)	93	4.09	1.070		
	40대(d)	108	4.21	0.938		
	50대(e)	85	4.29	0.897		
	60대(f)	102	4.19	0.962		
	70대이상(g)	41	4.61	0.863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19> 연령별 한민족 정체성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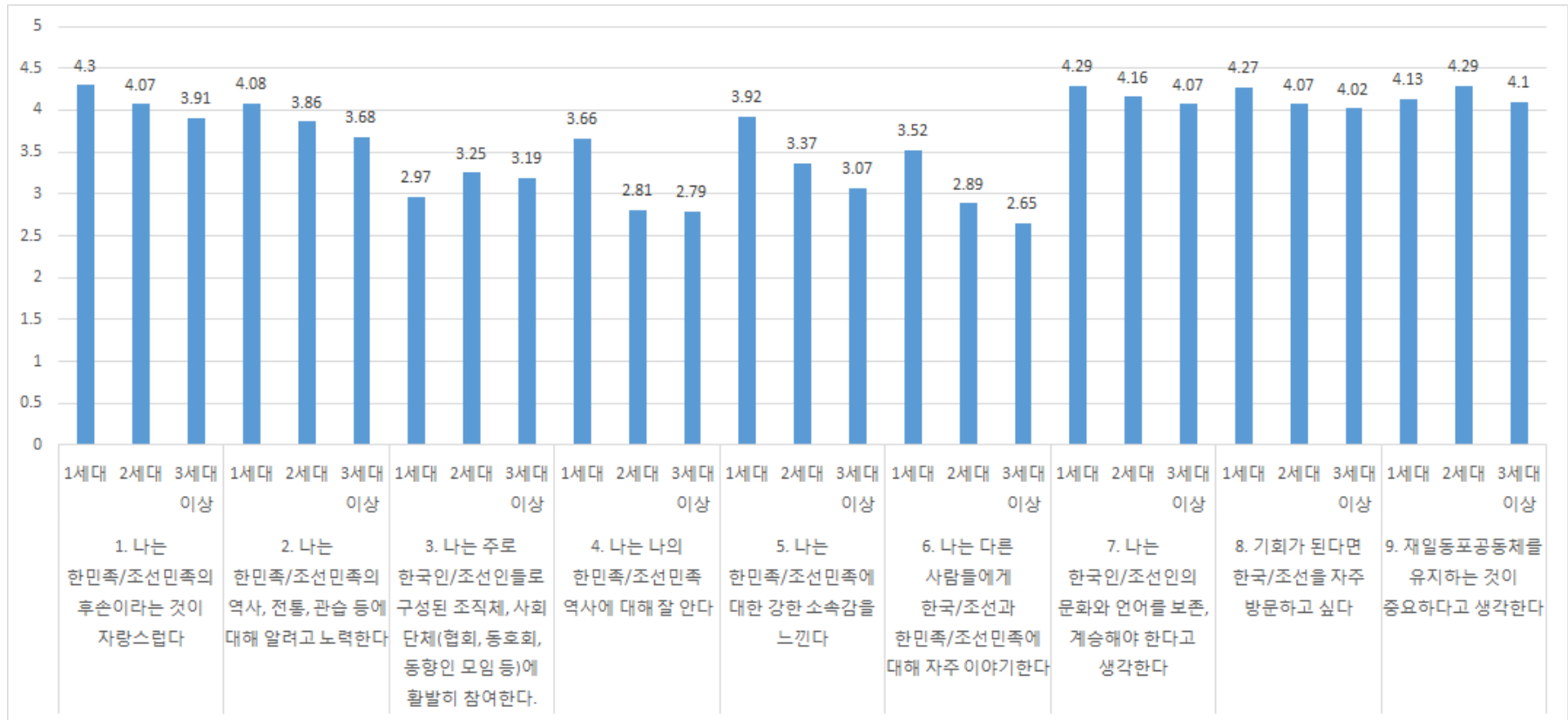
○ 세대별

세대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세대 집단이 다른 세대보다 전반적인 한민족 정체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세대가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으며($F=7.596$, $p<.01$),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더 잘 알고($F=29.490$, $p<.001$), 또 알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7.200$, $p<.01$). 또한 다른 세대보다 한민족 소속감도 더 강하고($F=23.685$, $p<.001$),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조선과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4.197$, $p<.001$).

<표 107> 세대별 한민족 정체성

질 문	세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1세대(a)	162	4.30	0.870	7.596 (.001**)	a>b=c
	2세대(b)	166	4.07	0.963		
	3세대 이상(c)	259	3.91	1.089		
2.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1세대(a)	163	4.08	1.006	7.200 (.001**)	a>b=c
	2세대(b)	164	3.86	1.056		
	3세대 이상(c)	257	3.68	1.101		
3. 나는 주로 한국인/조선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사회 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히 참여한다.	1세대(a)	161	2.97	1.429	1.658 (.191)	—
	2세대(b)	165	3.25	1.549		
	3세대 이상(c)	258	3.19	1.517		
4. 나는 나의 한민족/조선민족 역사에 대해 잘 안다	1세대(a)	164	3.66	1.132	29.490 (.000***)	a>b=c
	2세대(b)	165	2.81	1.320		
	3세대 이상(c)	256	2.79	1.209		
5.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1세대(a)	162	3.92	1.063	23.685 (.000***)	a>b>c
	2세대(b)	164	3.37	1.301		
	3세대 이상(c)	254	3.07	1.288		
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조선과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1세대(a)	164	3.52	1.105	24.197 (.000***)	a>b=c
	2세대(b)	166	2.89	1.330		
	3세대 이상(c)	256	2.65	1.293		
7. 나는 한국인/조선인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세대(a)	163	4.29	0.921	2.319 (.099)	—
	2세대(b)	163	4.16	0.981		
	3세대 이상(c)	258	4.07	1.050		
8. 기회가 된다면 한국/조선을 자주 방문하고 싶다	1세대(a)	160	4.27	0.943	2.931 (.054)	—
	2세대(b)	164	4.07	1.006		
	3세대 이상(c)	257	4.02	1.086		
9. 재일동포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세대(a)	160	4.13	0.970	2.066 (.128)	—
	2세대(b)	164	4.29	0.913		
	3세대 이상(c)	258	4.10	1.063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20> 세대별 한민족 정체성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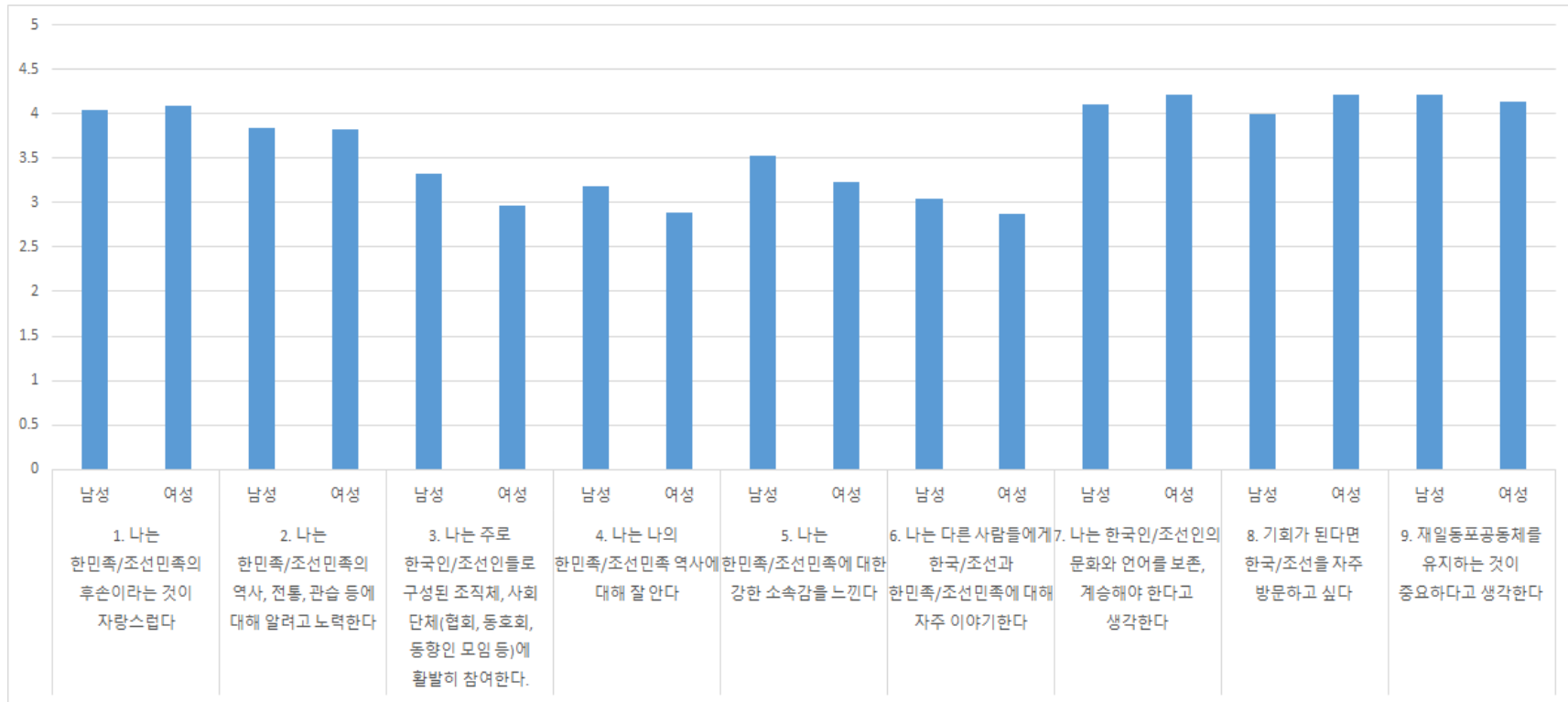
○ 성별

성별에 따른 한민족 정체성의 경우, 문항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인/조선인들로 구성된 사회단체에 활발히 참여하고($t=2.895$, $p<.01$), 한민족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t=2.808$, $p<.01$), 한민족 소속감도 강하게 느낀다고 응답했다($t=2.788$, $p<.01$). 반면, ‘(8)기회가 된다면 한국/조선을 자주 방문하고 싶다’ 문항에서는 여성의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t=-2.528$, $p<.05$).

<표 108> 성별 한민족 정체성

질 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남성	304	4.04	1.072	-.635	.526
	여성	306	4.09	0.948		
2.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남성	302	3.84	1.104	.131	.896
	여성	305	3.83	1.070		
3. 나는 주로 한국인/조선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사회 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히 참여한다.	남성	303	3.32	1.498	2.895	.004**
	여성	304	2.97	1.507		
4. 나는 나의 한민족/조선민족 역사에 대해 잘 안다	남성	302	3.18	1.345	2.808	.005**
	여성	306	2.89	1.196		
5.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남성	303	3.53	1.294	2.788	.005**
	여성	300	3.24	1.273		
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조선과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남성	303	3.04	1.385	1.518	.130
	여성	306	2.88	1.218		
7. 나는 한국인/조선인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성	301	4.11	1.054	-1.411	.159
	여성	304	4.22	0.931		
8. 기회가 된다면 한국/조선을 자주 방문하고 싶다	남성	299	4.00	1.122	-2.528	.012*
	여성	303	4.21	0.919		
9. 재일동포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성	302	4.21	0.996	.856	.392
	여성	301	4.14	0.985		

* $p<.05$, ** $p<.01$, ***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21> 성별 한민족 정체성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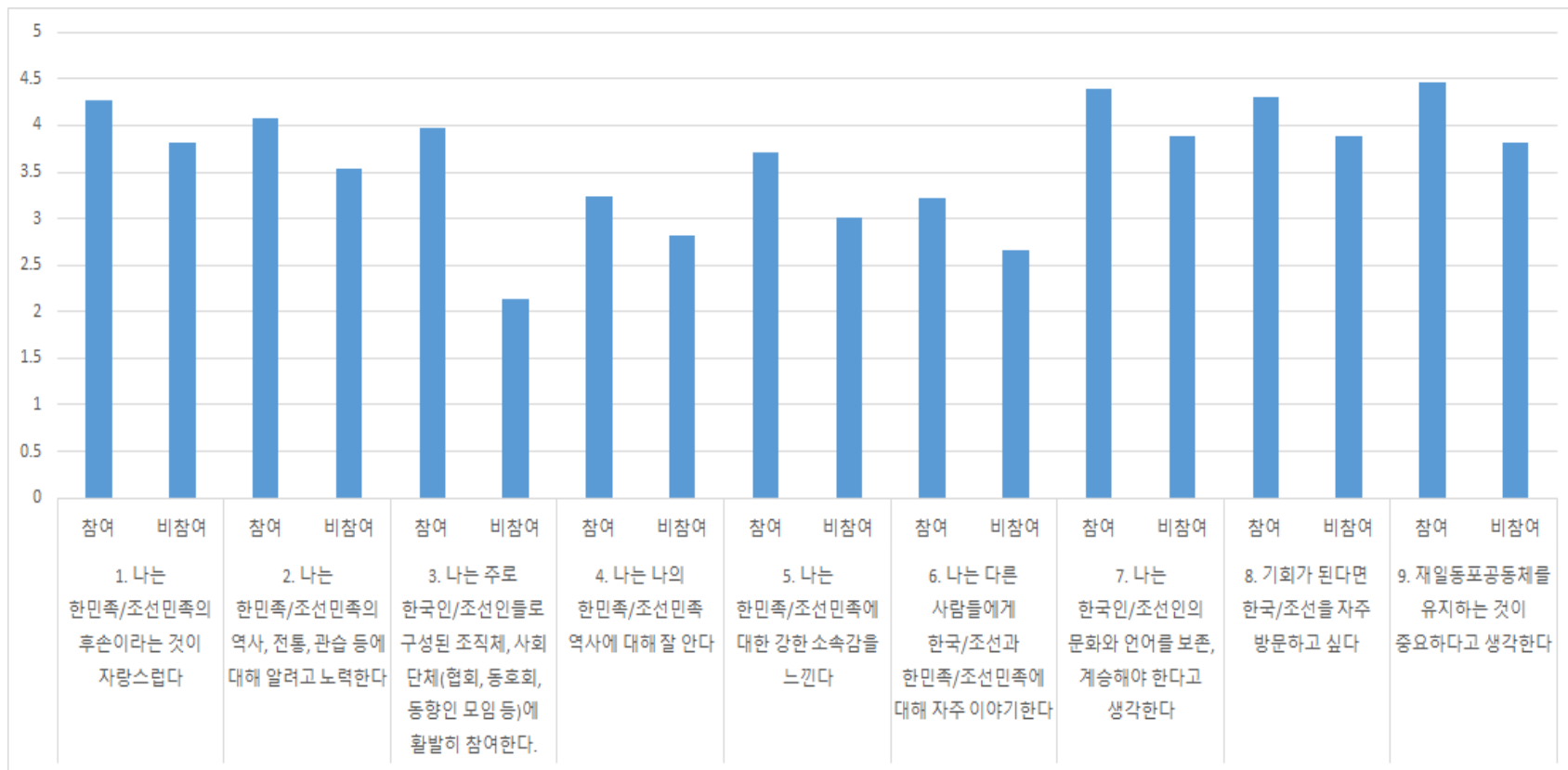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와 한민족 정체성은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확률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09>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집단보다 한민족 정체성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09>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민족 정체성

질 문	참여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참여	333	4.27	0.968	5.502	.000***
	비참여	271	3.82	1.010		
2.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참여	331	4.07	0.932	5.885	.000***
	비참여	270	3.54	1.190		
3. 나는 주로 한국인/조선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사회 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히 참여한다.	참여	331	3.98	1.117	18.462	.000***
	비참여	270	2.13	1.297		
4. 나는 나의 한민족/조선민족 역사에 대해 잘 안다	참여	329	3.23	1.193	4.059	.000***
	비참여	273	2.82	1.327		
5.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참여	326	3.71	1.194	6.900	.000***
	비참여	271	3.01	1.285		
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조선과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참여	330	3.22	1.241	5.332	.000***
	비참여	273	2.66	1.310		
7. 나는 한국인/조선인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	330	4.39	0.859	6.170	.000***
	비참여	269	3.89	1.075		
8. 기회가 된다면 한국/조선을 자주 방문하고 싶다	참여	329	4.30	0.932	5.033	.000***
	비참여	267	3.88	1.094		
9. 재일동포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	329	4.47	0.819	8.386	.000***
	비참여	268	3.81	1.059		

* $p<.05$, ** $p<.01$, ***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22>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민족 정체성 평균값

6) 일본인 정체성

(1) 기본 분석

일본인 정체성에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응답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해당자만 작성하도록 구성되었다. 마찬가지로, ‘(1) 매우 그렇다’에서 ‘(5)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역코딩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일본인 정체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는 응답의 평균값이 3.13인 반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일본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거나 일본 국민이라고 느껴진다고 응답한 평균값은 각 2.55, 2.19인 것으로 보아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민족/조선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평균값이 4.01인 것과 비교해 보아도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110> 조사 대상자의 일본인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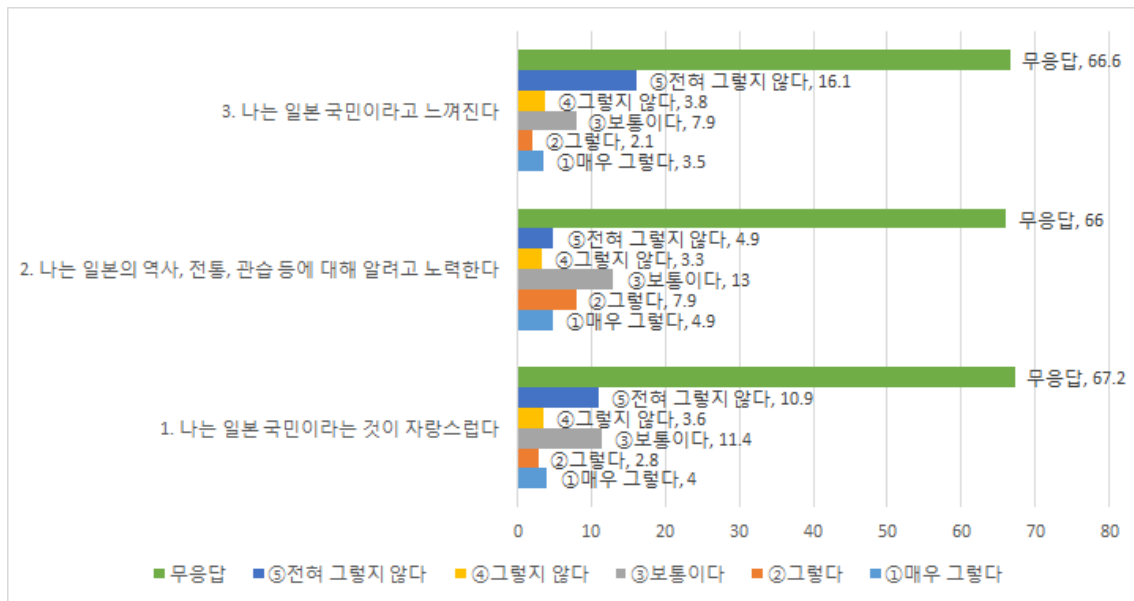
(단위: %(명))

질 문	그렇다 ⁵²⁾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⁵³⁾	무응답	차이 ⁵⁴⁾	평균 (5점척도)
1. 나는 일본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6.8 (43)	11.4 (72)	14.5 (102)	67.2 (425)	-7.7	2.55
2. 나는 일본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12.8 (81)	13.0 (82)	8.2 (52)	66.0 (417)	4.6	3.13
3. 나는 일본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5.5 (35)	7.9 (50)	19.9 (126)	66.6 (421)	-14.4	2.19

52) ‘그렇다’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 비율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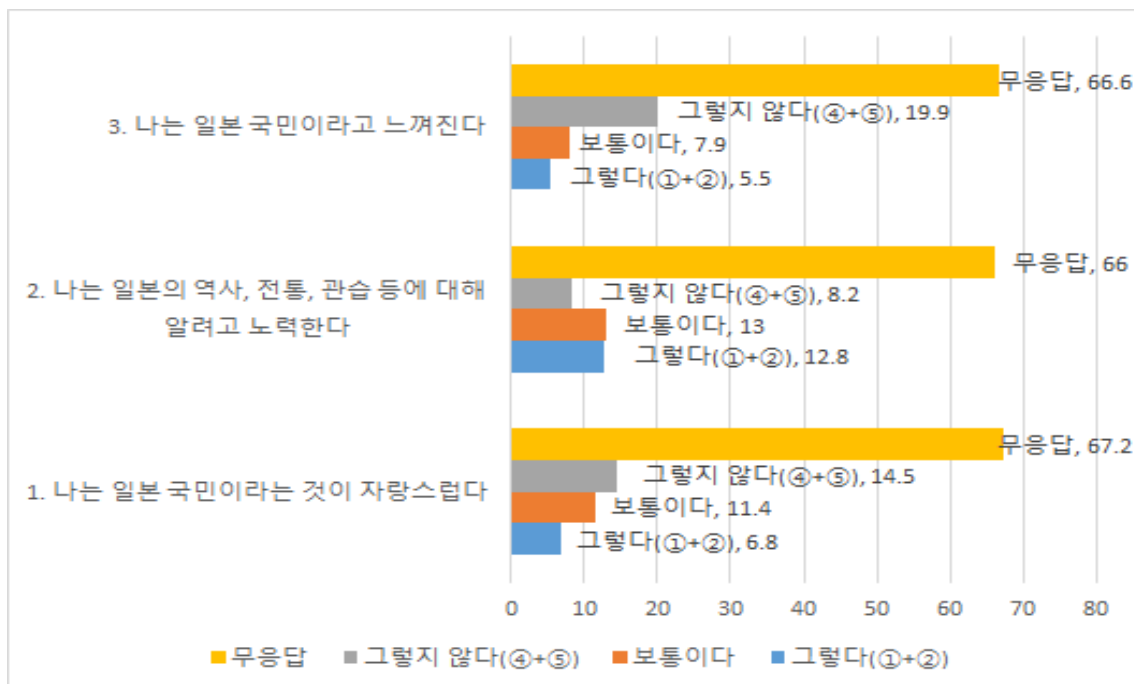
53)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의 합

54) 차이는 ‘그렇다’의 비율에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을 뺀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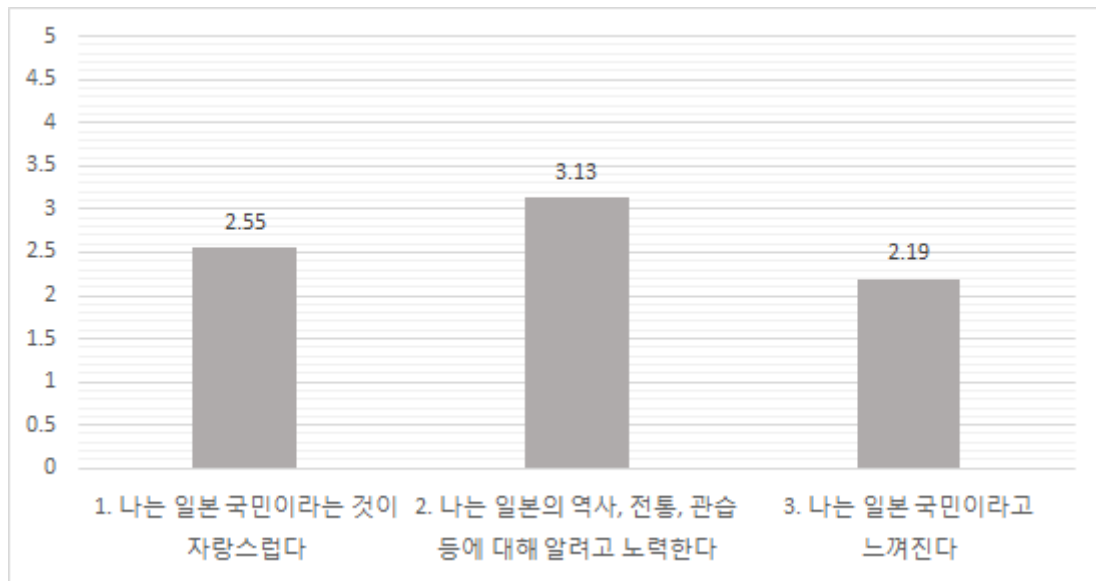
(단위: %)

<그림 123> 조사 대상자의 일본인 정체성 (1)



(단위: %)

<그림 124> 조사 대상자의 일본인 정체성 (2)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25> 조사 대상자의 일본인 정체성 평균값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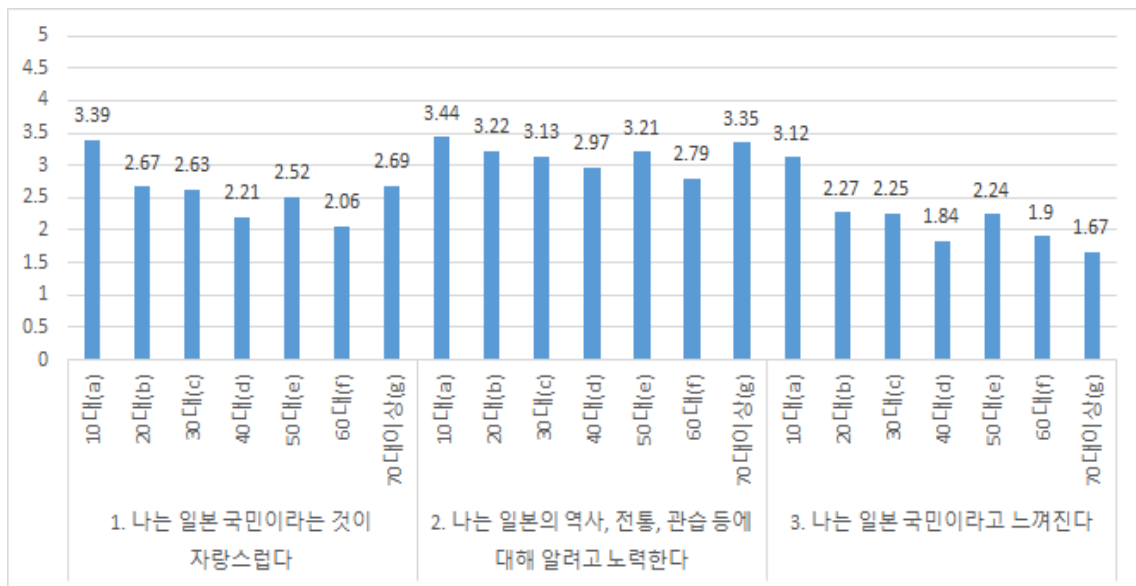
○ 연령별

일본인 정체성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대체로 10대의 일본인 정체성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층보다 일본 국민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강하고, 또 일본 국민이라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본의 역사나 전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11> 연령별 일본인 정체성

질 문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나는 일본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10대(a)	23	3.39	1.373	2.801 (.012*)	a>d=e =f
	20대(b)	48	2.67	1.404		
	30대(c)	24	2.63	1.245		
	40대(d)	38	2.21	1.189		
	50대(e)	27	2.52	1.221		
	60대(f)	31	2.06	1.263		
	70대이상(g)	16	2.69	1.580		
2. 나는 일본의 역사, 전 통, 관습 등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다	10대(a)	25	3.44	1.446	.978 (.441)	-
	20대(b)	49	3.22	1.246		
	30대(c)	24	3.13	1.076		
	40대(d)	38	2.97	1.150		
	50대(e)	29	3.21	0.940		
	60대(f)	33	2.79	1.293		
	70대이상(g)	17	3.35	1.320		
3. 나는 일본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10대(a)	25	3.12	1.563	3.137 (.006**)	a>b=c =d=e= f=g
	20대(b)	49	2.27	1.440		
	30대(c)	24	2.25	1.294		
	40대(d)	38	1.84	1.151		
	50대(e)	29	2.24	1.244		
	60대(f)	31	1.90	1.193		
	70대이상(g)	15	1.67	1.447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26> 연령별 일본인 정체성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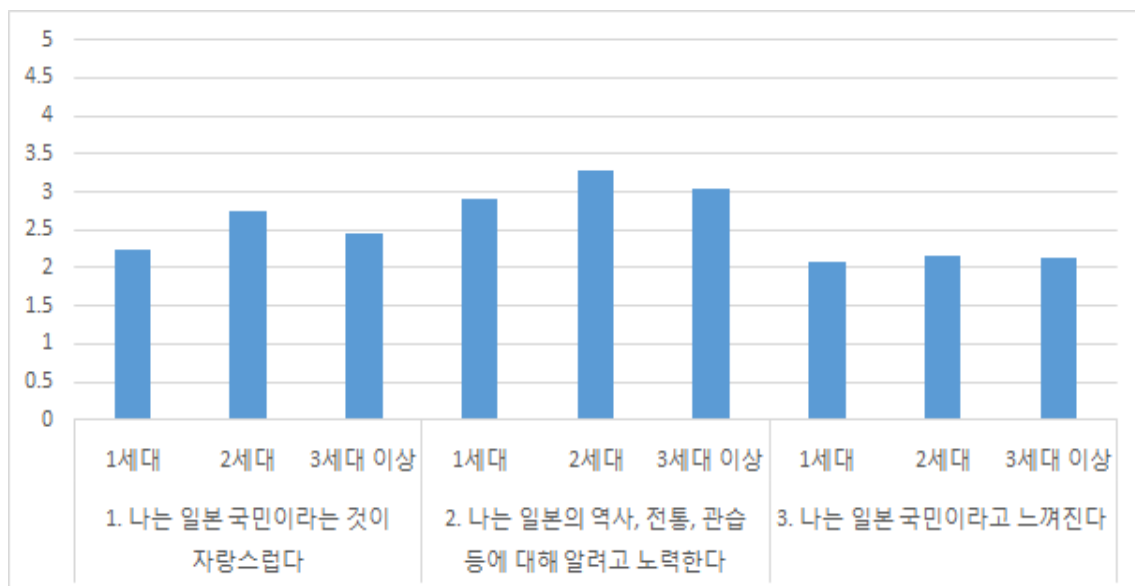
○ 세대별

세대별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평균값을 살펴보면 ‘일본 국민이라고 느낀다’거나 혹은 ‘일본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는 경향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12> 세대별 일본인 정체성

질 문	세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1. 나는 일본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1세대(a)	33	2.24	1.200	1.753 (.176)	—
	2세대(b)	69	2.74	1.521		
	3세대 이상(c)	95	2.46	1.210		
2. 나는 일본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1세대(a)	35	2.91	1.314	1.318 (.270)	—
	2세대(b)	72	3.28	1.247		
	3세대 이상(c)	98	3.04	1.130		
3. 나는 일본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1세대(a)	34	2.09	1.401	.033 (.968)	—
	2세대(b)	69	2.16	1.389		
	3세대 이상(c)	98	2.14	1.276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27> 세대별 일본인 정체성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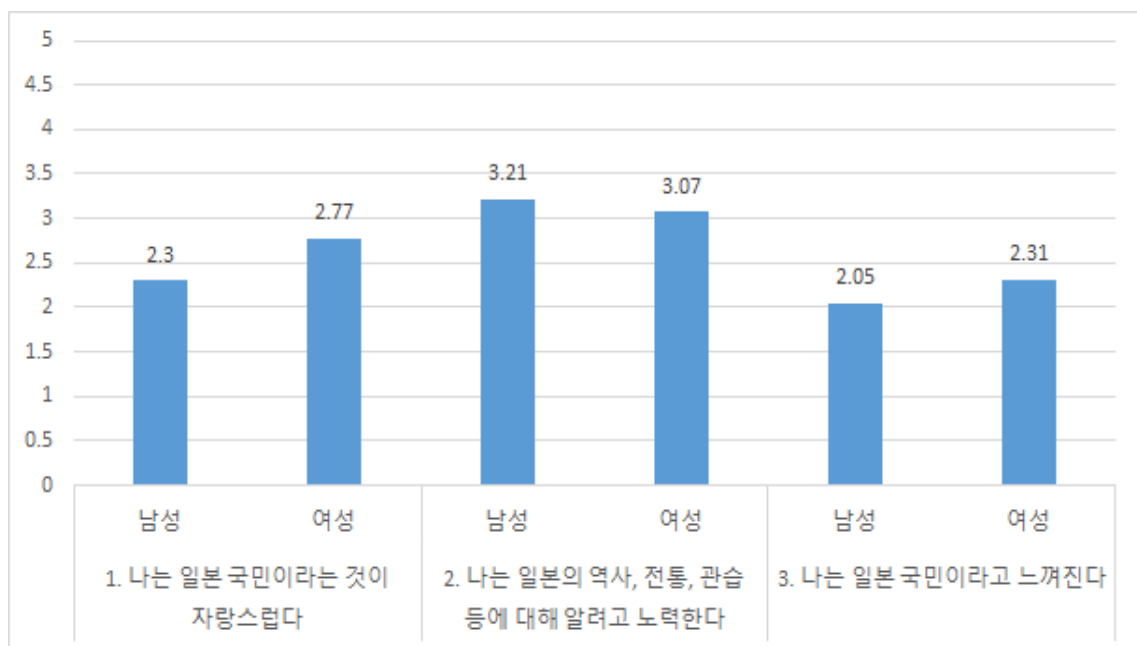
○ 성별

성별에 따른 일본인 정체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일본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경향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2.473$, $p<.05$).

<표 113> 성별 일본인 정체성

질 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나는 일본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남성	96	2.30	1.423	-2.473	.014*
	여성	111	2.77	1.250		
2. 나는 일본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남성	99	3.21	1.296	.853	.395
	여성	116	3.07	1.140		
3. 나는 일본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남성	98	2.05	1.431	-1.370	.172
	여성	113	2.31	1.310		

* $p<.05$, ** $p<.01$, ***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28> 성별 일본인 정체성 평균값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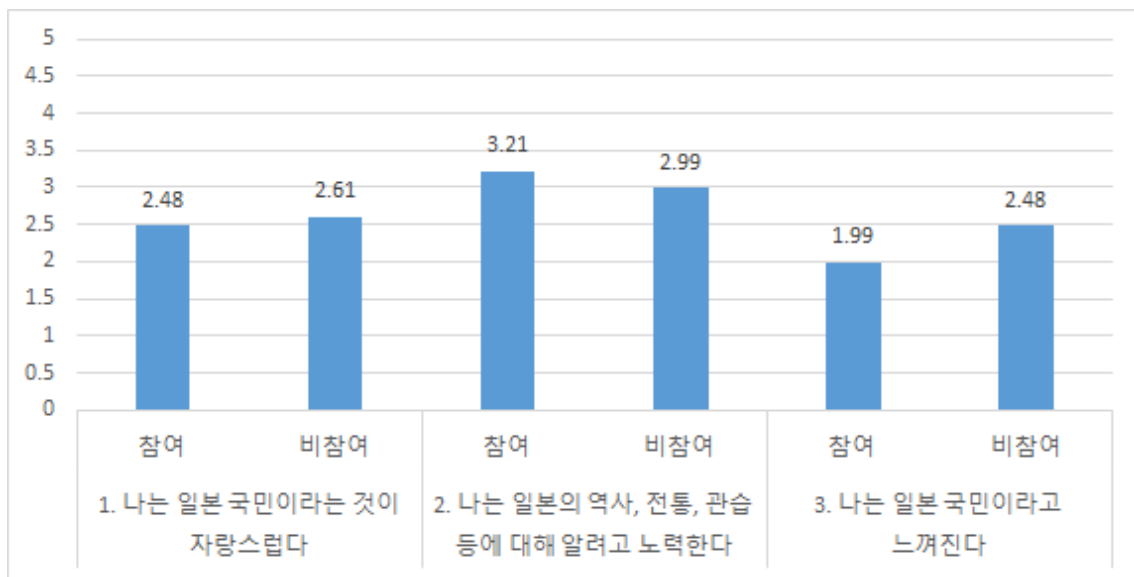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분석에서는 일본인 정체성의 차이가 그다지 뚜

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이 참여하는 집단보다 일본 국민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조금 더 높았다($t=-2.563$, $p<.05$).

<표 114>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일본인 정체성

질 문	참여 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 나는 일본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참여	118	2.48	1.363	-.673	.502
	비참여	85	2.61	1.319		
2. 나는 일본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참여	122	3.21	1.180	1.327	.186
	비참여	89	2.99	1.257		
3. 나는 일본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참여	122	1.99	1.302	-2.563	.011*
	비참여	85	2.48	1.428		

* $p<.05$, ** $p<.01$, ***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29>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일본인 정체성 평균값

2.3.1.7.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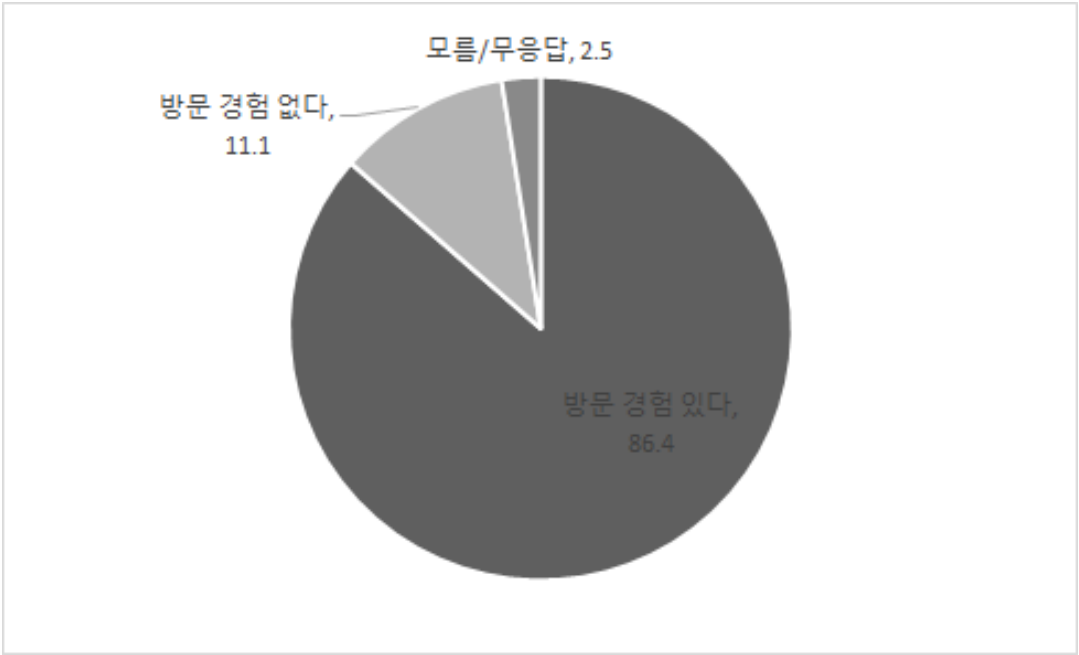
1) 한국 방문 경험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6.4%가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방문한 적이 없다’는 비율은 11.1%에 불과했다. 특

히 나고야 지역 응답자의 한국 방문 비율(95.0%)이 타 지역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 한국에 방문한 경험 (단위: 명, %)

구 분	전 체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	
	N	%	N	%	N	%	N	%
방문 경험 있다	546	86.4	203	87.1	133	95.0	210	81.1
방문 경험 없다	70	11.1	24	10.3	4	2.9	42	16.2
모름/무응답	16	2.5	6	2.6	3	2.1	7	2.7
합 계	632	100	233	100	140	100	25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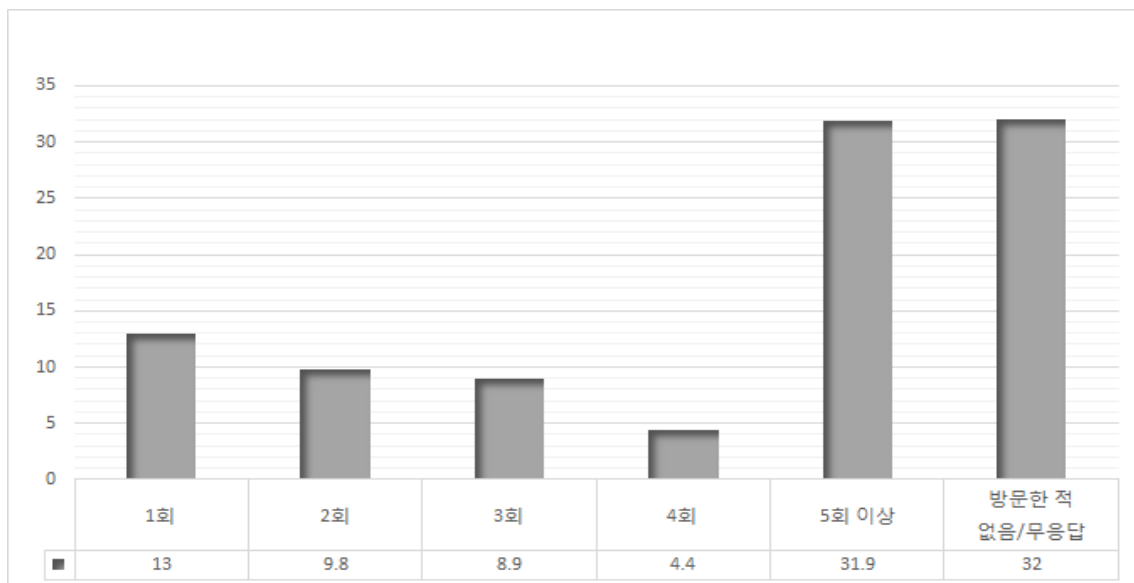
<그림 130> 한국에 방문한 경험 (단위: %)

2) 최근 5년간 한국에 방문한 총 횟수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 방문한 적이 없거나 무응답 비율이 32.0%로, 방문 경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횟수를 살펴보면, '5회 이상'이 31.9%로 가장 많았는데,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은 매년 한국에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6> 최근 5년간 한국에 방문한 총 횟수 (단위: 명, %)

구 분	전체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	
	N	%	N	%	N	%	N	%
1회	82	13.0	28	12.0	26	18.6	28	10.8
2회	62	9.8	17	7.3	16	11.4	29	11.2
3회	56	8.9	26	11.2	16	11.4	14	5.4
4회	28	4.4	6	2.6	8	5.7	14	5.4
5회 이상	202	31.9	86	37.0	31	22.2	85	32.8
방문한 적 없음/무응답	202	32.0	70	30.0	43	30.7	89	34.4
합계	632	100	233	100	140	100	25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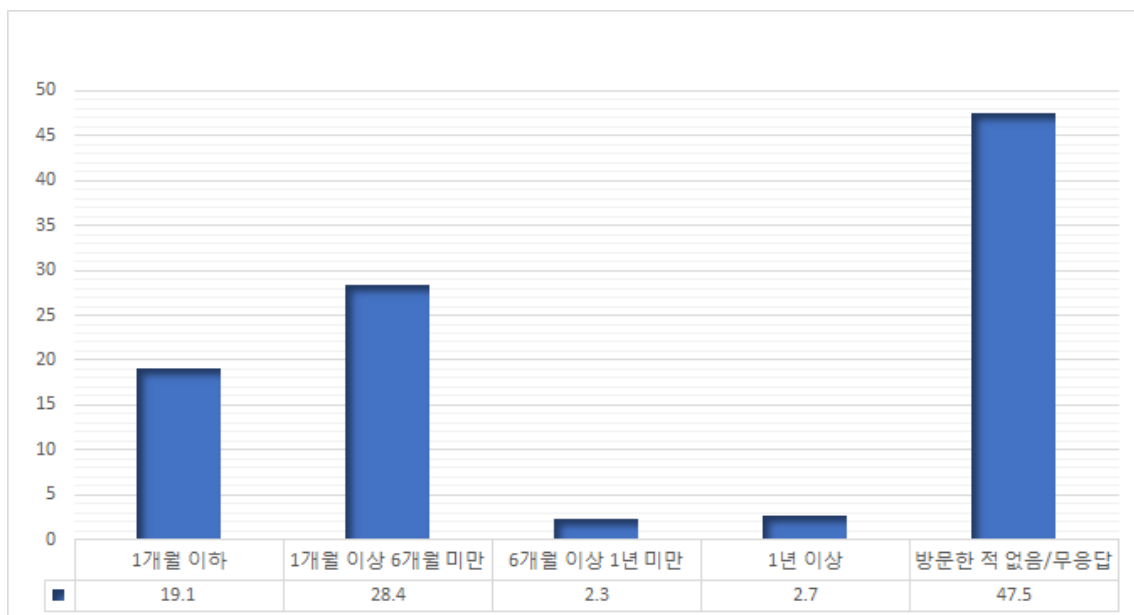
<그림 131> 최근 5년간 한국에 방문한 총 횟수 (단위: %)

3) 최근 5년간 한국에 체류한 기간

재일동포가 최근 5년간 한국에 체류한 기간을 살펴보면, 방문한 적이 없거나 무응답의 비율이 47.5%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는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한 사람이 28.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1년 이상 장기간 체류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표 117> 최근 5년간 한국에 체류한 기간 (단위: 명, %)

구 분	전체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	
	N	%	N	%	N	%	N	%
1개월 이하	121	19.1	36	15.5	34	24.3	51	19.7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70	28.4	74	33.4	27	20.7	69	27.8
6개월 이상 1년 미만	13	2.3	6	4.7	3	1.4	4	0.8
1년 이상	28	2.7	17	3.5	3	1.5	8	2.7
방문한 적 없음/무응답	300	47.5	100	42.9	73	52.1	127	49.0
합계	632	100	233	100	140	100	259	100



(단위: %)

<그림 132> 최근 5년간 한국에 체류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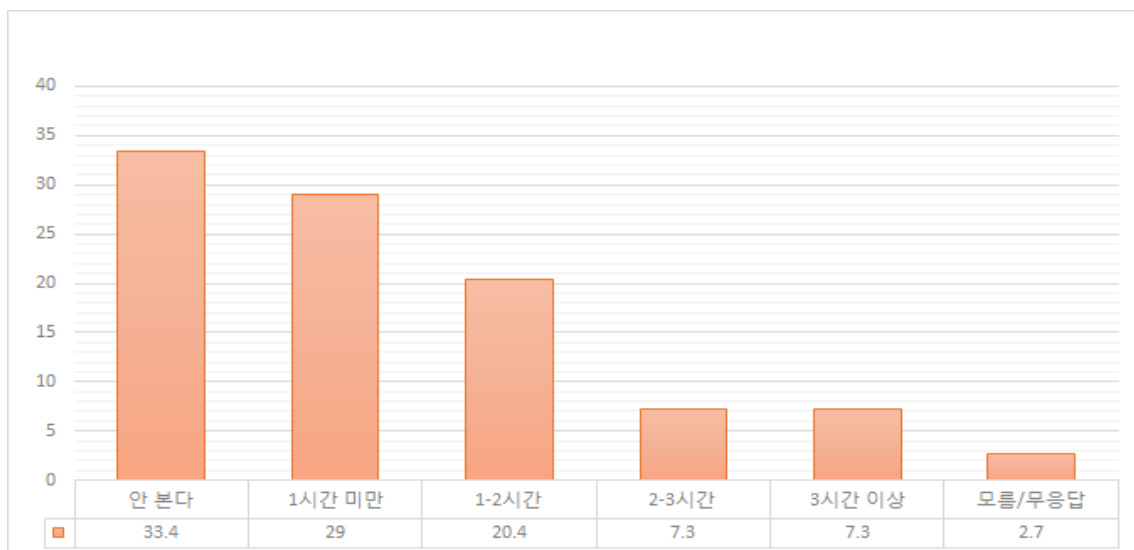
4) 하루 중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1) 기본 분석

‘한국 미디어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3.4%이며, 약 64%가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수의 재일동포들이 한국 미디어를 즐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청 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미만’이 2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2시간’(20.4%)로 나타났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시청하는 비율은 14.6%에 불과했다.

<표 118> 하루 중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단위: 명, %)

구 분	전체		도쿄 지역		나고야 지역		오사카 지역	
	N	%	N	%	N	%	N	%
안 본다	211	33.4	82	35.2	44	31.4	85	32.8
1시간 미만	183	29.0	67	28.8	48	34.3	68	26.3
1-2시간	129	20.4	51	21.9	22	15.7	56	21.6
2-3시간	46	7.3	12	5.2	13	9.3	21	8.1
3시간 이상	46	7.3	15	6.4	10	7.1	21	8.1
모름/무응답	17	2.7	6	2.6	3	2.1	8	3.1
합계	632	100	233	100	140	100	259	100



<그림 133> 하루 중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단위: %)

(2) 주요 변인별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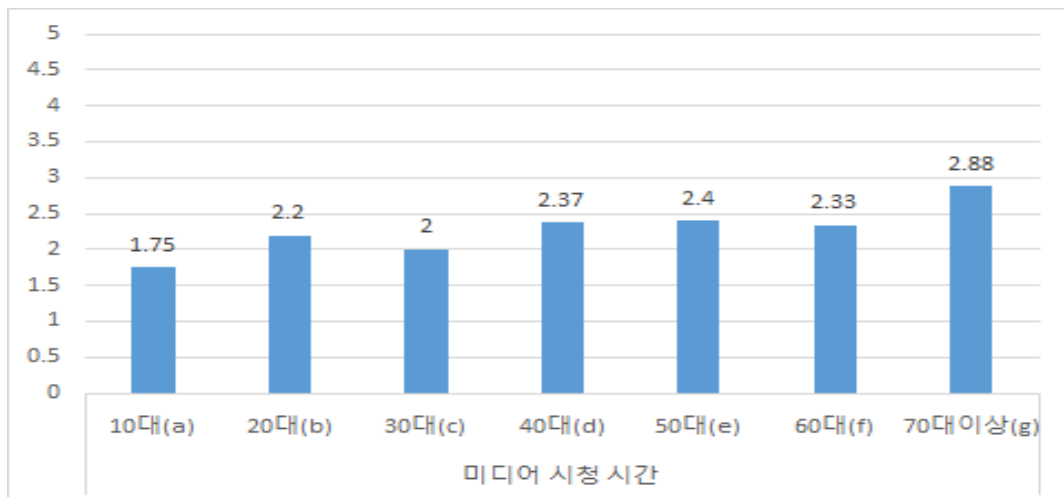
○ 연령별

미디어 시청시간과 주요 변인별 교차분석에서는 ‘(1)안 본다’에서 ‘(5)3시간 이상’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값을 통해 분석을 했다. 연령에 따라 하루 중 한국 미디어를 몇 시간 시청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70대 이상의 집단이 가장 많이 시청했으며, 10대의 시청 시간이 가장 적었다 ($F=5.482$, $p<.001$).

<표 119> 연령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질 문	연령	N	평균 (5점척도)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미디어 시청 시간	10대(a)	77	1.75	1.114	5.482 (.000***)	$g>b=d=e=f>a$
	20대(b)	108	2.20	1.213		
	30대(c)	93	2.00	1.073		
	40대(d)	107	2.37	1.154		
	50대(e)	86	2.40	1.161		
	60대(f)	101	2.33	1.289		
	70대이상(g)	43	2.88	1.349		

* $p<.05$, ** $p<.01$, ***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34> 연령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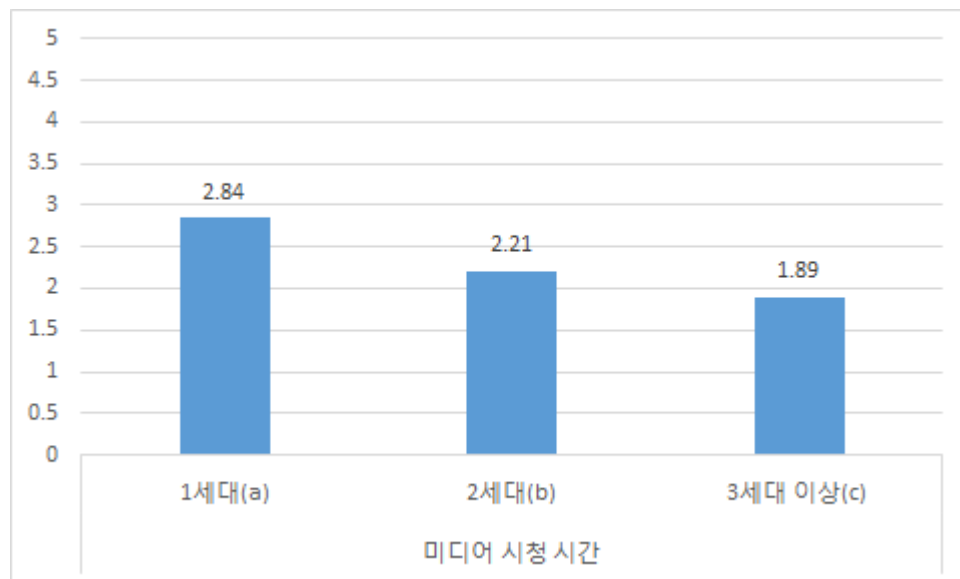
○ 세대별

세대별 차이에서는 1세대 동포의 미디어 시청 시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세대, 3세대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F=33.400$, $p<.001$).

<표 120> 세대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질 문	세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사후검정
미디어 시청 시간	1세대(a)	159	2.84	1.262	33.400 (.000***)	a>b>c
	2세대(b)	163	2.21	1.159		
	3세대 이상(c)	265	1.89	1.071		

* $p<.05$, ** $p<.01$, ***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35> 세대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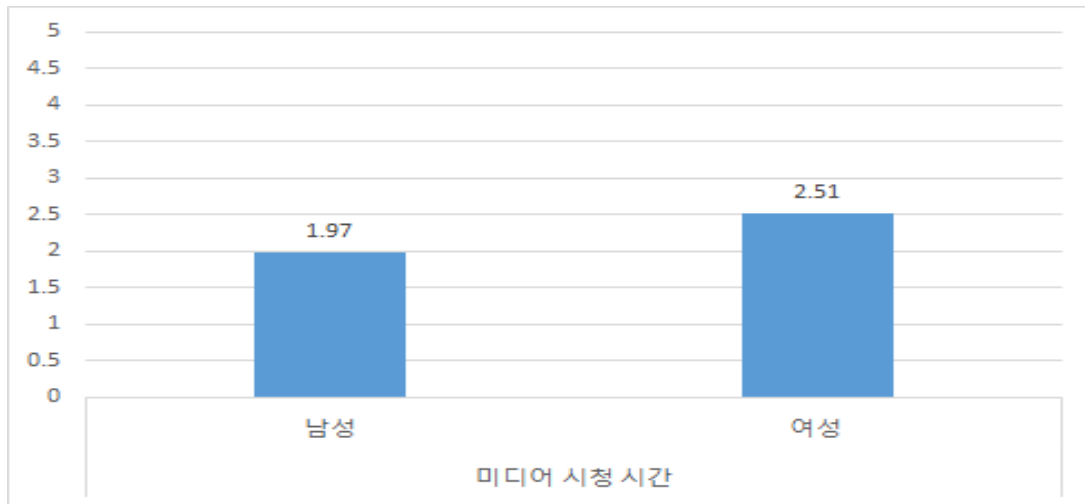
○ 성별

성별 미디어 시청 시간의 차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시청하는 경향이 있었다($t=-5.658$, $p<.001$).

<표 121> 성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질 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미디어 시청 시간	남성	303	1.97	1.087	-5.658	.000***
	여성	309	2.51	1.273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36> 성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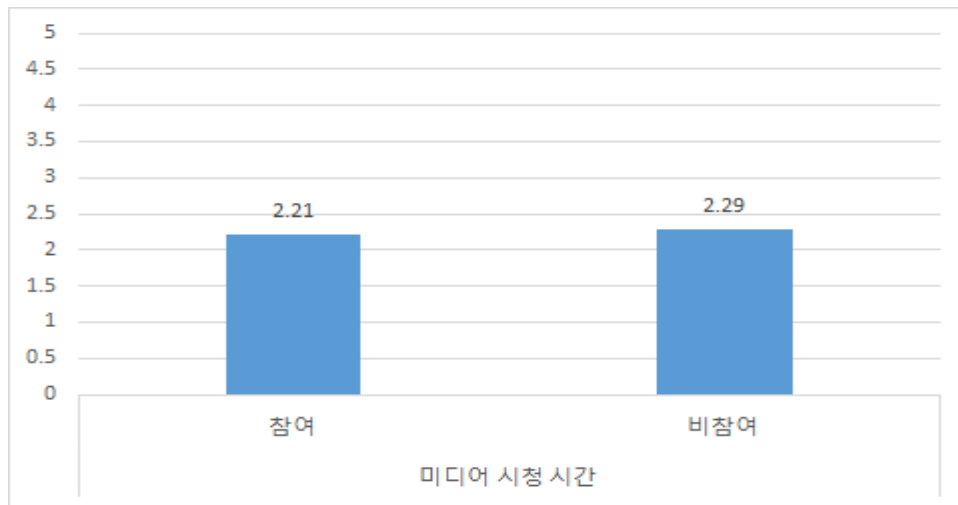
○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2>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질 문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미디어 시청 시간	참여	337	2.21	1.209	-.826	.409
	비참여	269	2.29	1.227		

*p<.05, **p<.01, ***p<.001



(단위: 평균값 5점척도)

<그림 137>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별 한국 미디어 시청 시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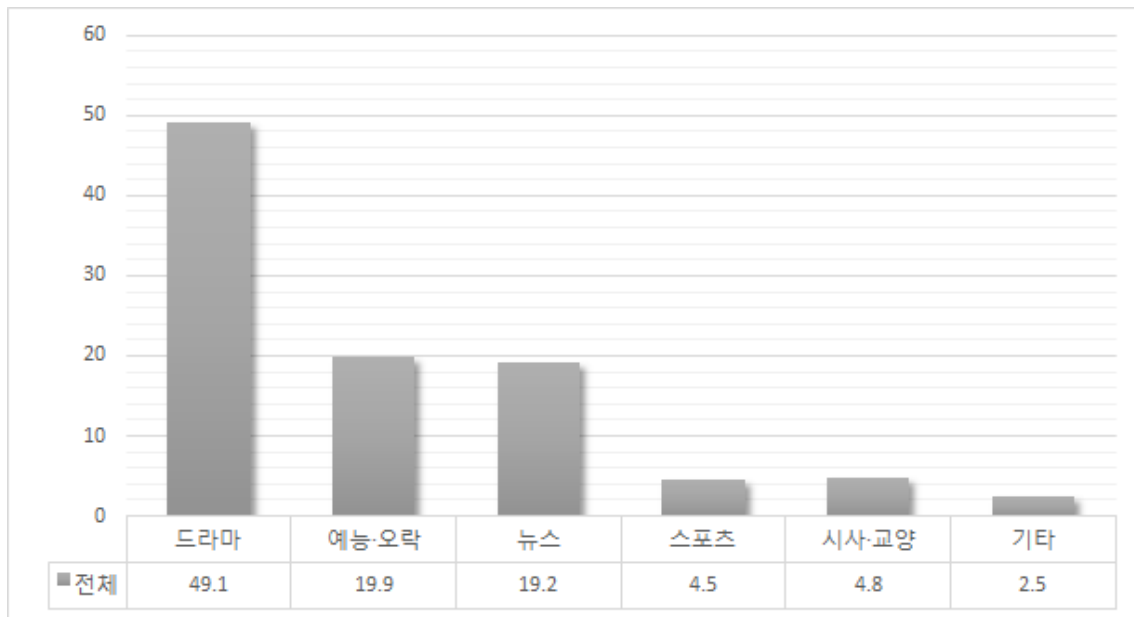
5) 즐겨보는 한국 미디어 프로그램

재일동포가 가장 많이 시청하는 한국 미디어 프로그램은 드라마이며 (49.1%), 그 외에 예능·오락이나 뉴스도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를 응답한 비율은 많지 않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나 라디오, 소설, 음악, 종교 방송 등을 즐겨본다고 응답했다.

<표 123> 즐겨보는 한국 미디어 프로그램 (중복응답허용)

(단위: 유효 %)

구 분	드라마	예능·오락	뉴스	스포츠	시사·교양	기타
전체	49.1	19.9	19.2	4.5	4.8	2.5
도쿄 지역	44.3	17.2	23.3	5.3	6.1	3.8
나고야 지역	57.5	21.6	11.8	2.0	5.9	1.3
오사카 지역	49.1	21.6	19.3	5.2	3.0	1.9



(단위: 유효 %)

<그림 138> 즐겨보는 한국 미디어 프로그램 (중복응답허용)

2.3.1.8. 설문조사 결과 요약

이상의 설문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기본 정보에 관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비슷했고, 연령대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최종학력은 전문대학 이상이 고졸이하보다 더 많아 응답자의 학력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혼인 여부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학생,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세대별로 살펴보면, 1세대와 2세대가 각각 26% 정도를 차지했고, 3세대 이상의 응답자가 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비슷한 맥락에서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70.1%)이 타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28.6%)보다 더 많았다. 출신 학교별 비율의 경우, 일본 학교를 다녔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민족 학교(한국 학교, 조선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비율은 상위 학교로 올라갈수록 적어졌다.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4.6%가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44.0%가 참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동포사회와 관련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

둘째, 언어 의식과 태도 및 이해도를 알아보는 문항들 중에, 응답자가 모여

(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와 잘 알아듣는 언어는 일본어가 한국어/조선어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3.5%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어의 중요성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 한국어/조선어의 장래에 대한 생각을 묻는 항목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점점 안쓰게 되어 없어지고 말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느낌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일본어보다는 한국어/조선어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어/조선어를 ‘씩씩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조선어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말만 듣고도 재일동포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한국 방송의 내용도 잘 이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재일 동포들의 언어 능력을 살펴보면, 읽기와 듣기 능력을 잘 한다고 응답했으며, 말하기와 쓰기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말하기 능력에선 간단한 소개나 기초적인 대화, 친숙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으나, 익숙하지 않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말하는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듣기 능력의 경우는 간단한 문장이나 가족, 친구들이 하는 대화, TV에서 하는 보도의 내용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높았으나, 연설과 같은 전문적인 수준의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 읽기 능력에서도 광고문이나 편지, 설명서, 잡지, 신문 기사 수준의 내용은 잘 읽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전문 분야의 서적이나 문학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은 낮게 평가되었다.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각 항목들을 살펴보면, 평균값이 다른 영역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간단한 편지 등과 같은 내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특정 주제나 전문 분야에 대한 내용을 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넷째, 대화 상대나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나 가족끼리 말할 때 대부분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마찬가지로, 제일 잘하는 언어와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도 ‘일본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았다. 가족과의 대화나 동포사회에서도 상대방이나 모임의 성격에 관계없이 한국어/조선어보다는 일본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숫자를 세거나 기도를 할 때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응답자들 대부

분 여러 상황에서 일본어로 대화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가족이나 같은 한민족끼리 대화할 때도 주로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어/조선어를 모국어로 생각하는 1세대의 경우,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다양한 이주민 집단들의 언어 사용과도 일치하는데, 필리핀, 파라과이,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출신의 사람들은 공식적 자리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만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는 모국어(native language)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udykunst & Schmidt, 1987: 158).

다섯째, 재일동포의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42.6%가 학교에서 배웠다고 했으며, 그 다음이 사회단체(14.8%), 집(12.9%), 부모(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습 기간의 경우,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걸로 보아 재일동포 대부분 학교나 가정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학습 이유로는 ‘재일동포라면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족들이 모두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해서’, ‘한국/조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취직이나 상급학교 진학,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학습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어 학습이 재일동포들이 일본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학습 시 어려웠던 점을 묻는 문항에서 ‘힘든 점이 없었다’가 5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비의 부담’(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민족 정체성을 한민족 정체성과 일본인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응답자의 대부분 강한 한민족 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일동포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의 필요성이나 한국인/조선인의 문화와 언어의 보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응답자의 일본인 정체성은 다소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역사, 전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하지만, 일본 국민이라고 느끼거나 일본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비율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일 동포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와 민족 정체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대부분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5년간 한국에 방문한 총 횟수가

‘5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32.0%를 차지했다. 또한 하루 중 한국 미디어를 시청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0% 이상인 걸로 미루어 보아, 재일동포 대부분 한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교차 분석을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먼저, 이주 세대별로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 1세대의 경우 한국어/조선어를 모어로 생각하는 비율이 90.0%에 달했지만, 2세대 이상의 동포들은 일본어를 모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많았다. 이는 모어라는 인식이 이주 기간보다는 출생한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포사회단체 참여여부에 따른 언어의 태도와 인식, 민족 정체성을 살펴보면,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집단의 경우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한민족 정체성과 소속감도 강하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이 한국어/조선어를 더 잘 알아듣고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한국어/조선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포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세대의 비율이 1세대보다는 2세대와 3세대 이상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세대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2, 3세대 동포보다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지만, 한민족 정체성의 경우 오히려 일본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더 강하다. 이러한 점은 언어 능력과 민족 정체성의 관계가 반드시 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3.2. 언어 변종 조사 결과

올드커머의 경우 특정 지역에 동향 출신 교포들의 집단 거주함을 알 수 있었다. 도쿄의 경우는 전통적인 집단 거주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인근 요코하마에는 경상도 출신 동포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나고야 지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사카의 경우는 제주도 출신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재일동포 1세대들은 일본에서의 생활 기간에 따라 언어 능력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어/조선어를 모어로 하여 제2언어로 일본어를 습득하였다. 이에 반해 재일동포 2세 이후부터는 일본어를 모어로 습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조사의 심층면접 대상자 중 올드커머는 재일동포 2세 이후의 세대로 대부분 일본어를 모어로 한국어/조선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였다. 우선 총련

게 올드커머 동포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조선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 이상의 한국어/조선어 능력을 보여주었다. 반면 민단계 및 비참여 올드커머 동포의 경우 한국어 교육을 자라면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 한국어를 새롭게 학습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한국어/조선어의 학습 배경의 차이로 인해 올드커머 내에서도 총련계 동포와 민단계 및 비참여 동포 간에 한국어/조선어 언어 사용 능력의 차이를 보인다.

해외에서 집단 거주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동포와는 달리 재일 동포들은 일상생활에서 한국어/조선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지 않았다. 生越直樹(1983:33)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한국어가 일상 언어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로 일본 사회 내에서 재일동포에 대한 강한 편견과 차별, 민족학교에 대한 차별, 그리고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부모들의 민족어 유지에 무관심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뉴커머의 경우, 1세는 기본적인 언어 능력은 한국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출신 지역에 따른 방언적 차이나 자주 쓰는 일본어 단어나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2세의 경우, 가정 내에서 한국어의 사용 여부, 일본으로의 입국 시기, 일본 내 한국학교와 일본 학교 중 어느 기관에서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 한국어 능력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뉴커머 2세들은 형제들 간에 주로 일본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일상 회화 범위 이상의 어휘 구사에 어려움을 보였다.

2.3.2.1. 음운

음운에서는 2세 이하 올드커머의 경우, 대부분 일본어를 모어로 사용하고 한국어/조선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였기 때문에 일본어와 한국어 간의 음소목록이나 음절 차이로 인해 한국어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이주 세대와 한국어/조선어의 학습시기와 관련이 있는데 한국어/조선어를 모어로 하는 1세들과의 언어 생활환경을 이루거나 민족 교육 등을 통해 이른 시기부터 한국어/조선어에 노출된 경우에는 음운적인 면에서 차이가 적었지만 노출 시기가 늦어질수록 음운적인 면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어의 음소목록은 자음이 12개 /m, n, p, b, t, d, k, g, s, z, h, r/ 모음이 5개 /a, i, u, e, o/, 활음이 2개 /j, w/, 특수음소 2개 /N, Q/이므로 한국어의 음소목록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재일동포의 음소목록은 올드커머와 뉴

커머 간의 차이를 보인다.

우선, 올드커머의 경우, 한국어/조선어를 모어로 하는 1세는 한국어의 음소목록과 동일하지만 2세 이하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한국어/조선어 학습 환경에 따라 크고 작은 일본어의 음소목록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2세 이하의 재일동포의 한국어/조선어는 한국어의 음소목록과 차이를 보이는 고유한 음소목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일동포의 음소목록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신이 겪은 한국어/조선어 언어 학습 환경에 따라 개인차를 보이기 때문에 공통된 음소목록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음의 경우 다시 초성과 종성에서 각각 차이를 보인다. 초성의 경우 한국어의 자음이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을 보이는 데 반해 재일동포의 한국어/조선어의 자음은 평음, 경음, 격음의 분명한 대립을 보이지 못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어/조선어에 대한 학습이 늦어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종성의 경우 한국어의 자음은 평과열음 ‘p, t, k’, 비음 ‘m, n, ŋ’, 유음 ‘l’ 이상 7개이지만 재일동포의 한국어/조선어의 평과열음은 축음인 ‘っ’로 비음은 ‘ん’로, 유음은 동일하게 ‘l’ 또는 ‘r’로 발음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어/조선어에 대한 학습이 늦어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 공부:곰부, 방법:밤법, 김치:긴치, 상대방:산대방 등

다음으로 모음의 경우 현대 한국어 모음이 8개인데⁵⁵⁾ 반해 일본어는 5개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모음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일대일 대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체로 ‘ㅏ - ア(ㅏ)’, ‘ㅑ - イ(ㅑ)’, ‘ㅓ·ㅡ - ウ(ㅓ)’, ‘ㅕ·ㅗ - エ(ㅕ)’, ‘ㅜ·ㅛ - オ(ㅜ)’의 대응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어/조선어에 대한 학습이 늦어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 어머니:오모니, 역전(逆戰):육존, 미역:미육, 떡:뚝, 생선:생손 등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124>와 같다.

55) ‘ㅜ’와 ‘ㅠ’의 경우 7,80대의 노년층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단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둘을 제외한 8모음 체계로 보았다.

<표 124> 한국어 단모음과 재일 동포 올드커머 2세 이하의 한국어/조선어의 단모음과의 대응

언어	단모음							
한국어	ㅏ	ㅣ	ㅓ	ㅡ	ㅗ	ㅜ	ㅡ	ㅜ
재일동포 한국어/조선 어	ㅏ(ㅏ)	ㅣ(ㅣ)	ㅓ(ㅓ)		ㅗ(ㅗ)		ㅜ(ㅜ)	

음운적인 측면에서 올드커머가 사용하는 한국어/조선어에서 주목할 점은 성인이 된 후에 한국어를 새롭게 학습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족 교육을 받은 총련계 재일동포의 경우에도 음운면에서 선대의 출신 지역 방언의 영향보다는 해당 교육 기관의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 기관이라는 특정한 환경 내에서만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⁵⁶⁾

뉴커머의 경우, 1세의 경우는 출신 지역에 따른 방언적 차이로 인한 음소 목록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한국어의 음소목록과 동일하다. 이에 반해 2세의 경우는 가정 내에서 한국어의 사용 여부, 일본으로의 입국 시기, 일본 내 한국학교와 일본학교 중 어느 학교에서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의 사용 환경에 많이 노출될수록 한국어의 음소목록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2.3.2.2. 어휘

어휘에서는 성인이 된 후에 한국어를 새롭게 학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대의 출신 지역 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정 내에서 고유 명사화된 한국어/조선어 어휘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혼용이 있을 경우, 해당 어휘의 음운이나 형태적인 변화가 있기보다는 일본어 어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혼용은 2세 이하

56) 이는 피조사자의 언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피조사자들 가운데서 가정 내에서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한 1세와 세대를 이룬 2세의 경우에는 선대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일본어를 사용한 2세 그리고 대다수의 3세는 생활에서 사용되는 고유명사화 된 한국어/조선어 어휘들을 제외하고는 선대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단계 및 비참여 올드커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재일동포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어휘들을 어휘 혼용 양상과 어휘의 변이형 목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어휘 혼용 양상

재일동포의 한국어/조선어 자연발화 속에서 일본어 명사, 형용사·동사, 부사와 감동사 그리고 조사와 어미를 그대로 사용하는 예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재일동포가 사용하는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 간의 혼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일본어 명사의 혼용

- 그 사진도 인꼬 그 디에 쇼지(障子: 장자) 타테루 모노(たてるもの: 세우는 것)도 인꼬
(그 사진도 있고 그 뒤에 장자를 세우는 것도 있고)
- 아마다이(甘鯛: 옥돔)라고 지베서 불러요
(옥돔이라고 집에서 불러요)
- 그 815 때는 어 아침 아치메 하고 다른 나른 유가타(夕方: 저녁)
(그 815 때는 아침에 하고 다른 날은 저녁)
- 고등학교 졸업해서 치직했스니까 그 치직했쓸 때도 쓰메(通名: 일본식 이름) 씌써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직했으니까 그 취직했을 때도 일본식 이름을 썼어요)
- 모야시(もやし: 숙주)도 울테루시(売ってるし: 팔고)
(숙주도 팔고)

(2) 일본어 형용사·동사의 혼용

- 시어머니가 코와칸판데스네(恐かったですね: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 감치 활동 해주신 분드리 스쿠나이(少ない: 적어요)
(같이 활동 해주신 분들이 적어요)
- 아노(あの, 저) 고사리도 울테루시(売ってるし: 팔고)
(저 고사리도 팔고)

- 오사카 크나버지는 자주 일파리킵파리(行ったり来たり: 오고 가고)
(오사카 큰아버지는 자주 오고 가고)
- 그 타이밍구 노가시따라(逃したら: 놓친다면) 유학 가는 그 기회도 업따고
(그 타이밍을 놓친다면 유학 가는 기회도 없다고)
- 손자 지금 한구게 에 고가쿠류우가쿠(語学留学: 어학연수)하고 인썸요
(손자는 지금 한국에 어학연수하고 있어요)
- 해장을 그 끈난 후에 에 어차피 어 텐쇼쿠(転職: 전직)해야 하니까
(회장을 그만 둔 후에 어차피 전직해야 하니까)

(3) 일본어 부사와 감동사의 혼용

-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는 모우(もう: 이미) 다 일본말로 하시고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는 다 일본말로 하시고)
- 우리 지베서 제사하고 인썸니(一緒に: 함께) 아노(あの, 저) 식사하고
(우리 집에서 제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4) 일본어 조사와 어미의 혼용

- 옛날에또(と, 과) 지금와(は, 은) 아노 다 응 달라요
(옛날과 지금은 다 달라요)
- 카방또까(とか, 라든가) 목꺼리 반지
(가방이든가 목걸이, 반지)
- 하라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또와 에 형제데스요네。(ですよ네, -네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이네요)
- 할머니노(の, 의) 사투리데스네。(ですね, -네요)
(할머니의 사투리네요)
- 우리말달따또(だったと, -였다고) 오모이마스케도
(우리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 외할머니와(は, 는) 일보너가(が, 가) 데키나이
(외할머니는 일본어를 할 수 없어요)
- 오쇼우가즈와(は, 는) 고모지베가 우리지베모(も, 도) 고모지베 가고
(설날은 고모집이, 우리집도 고모집에 가고)

2) 어휘의 변이형 목록

재일동포의 한국어/조선어 자연발화 속에서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어휘들을 친족 관련, 세시풍속, 음식 및 식재료로 구분하여 제시한다.⁵⁷⁾ 지금까지 재외 동포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어휘의 방언형, 표준어형, 그리고 동일한 뜻을 가진 현지어 어휘까지를 전부 묶어서 변종으로 취급하였으나 여기서는 각각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만을 변종으로 보고자 한다.

(1) 친족 관련

<표 125> 친족 관련 어휘 변이형 목록

	조사 어휘	표준어형	방언형	현지어	변종
1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배, 할방	오지이상	할아보지
2	할머니	할머니	함매, 할망	오바아상	할모니
3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부지	오토우상	아보지
4	어머니	어머니, 엄마	어모니, 어무니	오까아상	오모니, 옴마
5	큰 아버지	큰 아버지	큰 아재,	오지상	쿤 아보지
6	큰 어머니	큰 어머니, 큰 엄마	큰 오매	오바상	쿤 오모니, 큰 옴마
7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삼촌	작은 아재, 삼촌	오지상	작운 아보지
8	작은 어머니	작은 어머니, 작은 엄마	자군매, 작은 아지매	오바상	작운 오모니, 작운 옴마
9	며느리	며느리	매누리, 매느리, 메느리	요메	묘누리
10	시아버지	시아버지, 아버지, 아버님,		오토우상	시아보지, 아보지, 아보님,
11	시아머니	시아머니, 어머니, 어머니님		오까아상	시오모니, 오모니, 오모님
12	고모	고모	고무		
13	고모부	고모부			
14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배, 외할배	오지이상	왜할아보지, 할아보지

57) 그 외의 자연 발화에서 수집된 어휘들은 3.2.2.1. 어휘 영역 언어 변종 종합 분석에서 제시하겠다.

15	외할머니	외할머니, 할머니	함매, 외한매	오바아상	왜할모니, 할모니
16	외삼촌	외삼촌, 삼촌	왜삼촌, 왜숙부, 아재	오지상	
17	외숙모	외숙모, 숙모	왜숙모, 아지매, 아주마이	오바상	
18	이모	이모			
19	친척	친척		신세키	친축, 칭척
20	사촌	사촌		이토꼬	
21	오빠	오빠			
22	언니	언니			온니
22	동생	동생	동상		돈샌, 돈생
23	남동생	남동생			난돈생, 남돈생, 난동생, 남동생,
24	여동생	녀동생, 여동생		이모또	여돈샌, 여돈생
25	누나	누나, 누님, 누이			
26	남편	남편			남폰
27	딸	딸			따르
28	손녀	손녀			손노
29	손자	손자			
30	시누이	시누이	시누부		
31	시부모	시부모			
32	시할머니	시할머니	시함매		시할모니
33	아들	아들			아들
34	언니	언니			온니
35	올케	올케			
36	이모부	이모부			
37	장인	장인			
38	장모	장모			
39	조부모	조부모			
40	조카	조카			
41	장남	장남		쵸우난	잔난, 장난
42	장녀	장녀			장노
43	장손	장손			
44	형	형, 형님			현님, 흥님
45	형수	형수			
46	형제	형제			현제, 혼제

(2) 세시풍속

<표 126> 세시 풍속 어휘 변이형 목록

	조사 어휘	표준어형	방언형	현지어	변종
1	설날	설, 설날, 정월초하루		오쇼가즈	
2	추석	추석, 한가위		오봉	
3	제사	제사	지사	사이시	
4	결혼식	결혼식, 혼례		책콘시키	
5	환갑	환갑	한갑		
6	명절	명절			몬졸, 면절
7	정월대보름	대보름			
8	돌잔치	돌잔치			
9	성묘	성묘			
10	성인식	성인식		세넨카이	
11	세배	세배			

(3) 음식 및 식재료

<표 127> 음식 및 식재료 어휘 변이형 목록

	조사 어휘	표준어형	방언형	현지어	변종
1	나물	나물		나무르	
2	고사리	고사리			
3	콩나물	콩나물		모야시	콩나물
4	부침개	부침개	찌짐	지지미	치짐
5	시금치	시금치		호렌소	시금치
6	고추	고추	고치, 꼬추		
7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치가루, 고치카리, 꼬추가루		
8	고추장	고추장	고치장		고추잔
9	국	국			
10	김치	김치	짐치, 진치	기무치	긴치, 킁치
11	닭고기	닭고기	달고기		
12	당근	당근		닌징	당근
13	두부	두부		토후	
14	떡	떡		모찌	뚝
15	마늘	마늘		닝니쿠	마늘
16	물고기	물고기, 생선		사카나	생손
17	조기	조기	조구		
18	미역	미역		와까메	미육
19	옥돔	도미		아마다이	옥도무

20	부추	부추	전구지	나라	종구지
21	쇠고기	쇠고기, 소고기			
22	시래기	시래기	쓰레기		
23	콩나물	콩나물			콩나무르
24	가지	가지			
25	간장	간장		쇼유	
26	갈치	갈치			가루치
27	감	감		가키	
28	감자	감자			
29	계란	계란			
30	고구마	고구마			
31	고등어	고등어			
32	과일	과일, 과실		쿠다모노	
33	과자	과자			
34	굴	굴			
35	깻잎	깻잎			
36	돼지고기	돼지고기	대지고기		
37	대추	대추			
38	배	배			
39	된장	된장	덴장		된잔
40	곰탕	곰탕		테일스푸	
41	도토리	도토리			둔토리
42	명태	명태			맨태
43	멸치	멸치	머르치		
44	숙주	숙주		모야시	
45	무	무	무우		
46	묵	묵			
47	미나리	미나리			
48	밥	밥			
49	배추	배추			
50	복숭아	복숭아			
51	불고기	불고기		부루고기	
52	비빔밥	비빔밥		비빔빠	
53	사과	사과			
54	소금	소금			
55	수박	수박		스이카	
56	쌀	쌀		고메	
57	잡채	잡채			
58	참기름	참기름			
59	콩	콩			
60	호박	호박		가보차	
61	회	회			

2.3.2.3. 문법

재일동포의 한국어/조선어 자연발화 속에서 부정, 사동, 피동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재일동포의 한국어/조선어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단형과 장형 표현 모두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1) 부정

- 도쿄에 인는 항그 하꼬에 안 보내는 이유 중 하나가
(도쿄에 있는 한국 학교에 안 보내는 이유 중 하나가)
- 승격찌그로 안 조타카니까 마 팍 팍 이래 하니까
(성격적으로 안 좋다고 하니까 팍팍 이렇게 하니까)
- 그니까 빈손으로는 가고십지 안타는게 이썸서요.
(그러니까 빈손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 있었어요)
- 만나서 제사는 지내지 안치만
(만나서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 요리가 완전 일본 요리자나요. 몬 머께서요.
(요리가 완전 일본 요리이잖아요. 못 먹겠어요.)
- 어디 어디가 아픔니까 해도 내가 몬 알아듣는다.
(어디 어디가 아픔니까 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다.)
- 여러가지 조치 몬탄 방버브로네 그런데 해받자 결과저그로는 안대요
(여러가지 좋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안되요)
- 왜 배우지 몬텐는가 생활 몬텐쓰니까 배 파라머걸따 해요
(왜 배우지 못했는가 생활 못했으니까 배 팔아먹었다 해요)

2) 사동

- 이지메를 당할까봐 쭈욱 숨기고 숨기고 살고 완는데
(이지메를 당할까봐 쭈욱 숨기고 숨기고 살고 왔는데)
- 멀리 인는 사람드레게까지 나에 소시글 알리고 할려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의 소식을 알리고 하려고)
- 너무 복잡카게 하기보다도 자연스럽게 하자
(너무 복잡하게 하기보다도 자연스럽게 하자)

- 그거슨 우리마를 쓰게 하지 아느며는 제하고도 생각카는 방버비 달라진다
(그것은 우리 말을 쓰게 하지 않으면 저하고도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 우리마를 먼저 외워주는 학교 다니게 시키는 거시 조은거
(우리 말을 먼저 외워주는 학교 다니게 시키는 것이 좋은거)

3) 피동

- 이기 서울마리 아이고 경상도 하라버지 아버지 말 들리게
(이게 서울말이 아니고 경상도 할아버지 아버지 말 들리게)
- 내가 마으미 바뀌어써요.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 연라기 업써가지고 그대로 인제 끈긴거예요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끊긴거예요)
- 최그네는 에 민단는지 그쯤게도 그 좀 참가하게 대언꼬
(최근에는 민단인지 그쯤에도 그 좀 참가하게 되었고)
- 동생드리 학교 가지 못타게 댄다고 그런게 이야기 드릴끼 때무네
(동생들이 학교 가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 저놔드리며는 자근아버지 아노 식구가 고생하게 대기 때무네
(전화 드리면 작은아버지 식구가 고생하게 되기 때문에)

2.4. 재일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제언

1) 이중 언어 능력 함양을 고려한 교육 목표 설정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은 지금까지 민족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이루어져 왔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일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도 민족 교육, 모어 교육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재일 동포일수록 일본어를 모어로 여기는 비율이 높고, 일본어 능력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대화 상황에서 한국어보다는 일본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비율도 동시에 높았다. 즉, 재일 동포에게 한국어는 모어의 지위라기보다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계승어로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⁸⁾

따라서 재일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전문적인 업무 수행 등이 가능한 최고급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삼되, 현지 사회의 요인을 고려하여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정 내에서 또는 재일 동포 사회에서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일본어 능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한국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이중 언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한국어 교육 기관 설립 및 한국어 방송 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환경 개선

재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브라질의 한국 학교가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공식 학교가 아니라고 언급한 바와 동일하게 재일 동포를 위한 일본 내 민족 학교의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인준한 공식 교육 기관이 아니다. 이로 인해 민족 학교를 졸업하고도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본 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비싼 학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교육 시설의 부실 또한 학비의 부담 다음으로 재일 동포들이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점으로 꼽은 항목이다. 재일 동포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곳으로 학교가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 즉, 앞서 언급한 재일 동포의 이중 언어 능력 함양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통로로서 학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일 동포들은 민족 학교 외에도 한글학교, 사회 단체 등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기타 한국어 교육 기관의 자세한 실태와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일본 지역 한국어 교육 기관의 지원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과 같은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설치를 적극 독려하고, 이미 한국어 교육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국내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거주 지역에 한국어 교육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교육 기관이 있더라도 방문하여 학습할 여건이

58) ‘계승어’란 해당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후손에게 물려주어 계승된 언어이다(강승혜, 2013:83).

되지 않는 동포들에게 한국어 방송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내 한국어 방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재일 동포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재일 동포들이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점으로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부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독립국가연합, 미국, 중남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실태 조사 결과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부실은 공통적으로 꼽히는 항목이었으므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응답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한국어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원 간의 교류를 통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등의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 대학 내 한국어 관련 학과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전공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교원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다양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 개발

한국어 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재일 동포들이 한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족 정체성에 대한 설문 항목의 응답 경향을 통해 재일 동포들은 이미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재일 동포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유로 ‘한국 문화의 이해’가 전체 8개 항목 중 3순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나 한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설문 항목에서 한국인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것에 강한 긍정을 보이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를 통해 동포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연계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교육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교재나 교육 자료 등에 대한 재외 동포의 불만족도 또한 낮은 편이었으나 이 또한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점으로 교육 내용의 부실함을 꼽는 비율은 낮았지만 해당 항목 내 지역별 응답 비율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도쿄 지역이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제공되는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지역별로 제공되는 교육 내용의 질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실정이 고려된 보다 전문적인 교재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각 지역으로 보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승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재외 동포들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가정 학습용 교육 자료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하기에 앞서 한국어와 조선어의 차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재일 동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습 지원 방안 마련

재중 동포나 재미 동포, 재중남미 동포가 일이나 취직 등의 실용적인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재일 동포들은 일본 사회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낮게 나타났다. 즉, 한국어 학습이 재일 동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일 동포의 한국어 능력의 경우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친숙한 상황에서의 한국어 수행은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수준으로 높아질수록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취업이나 업무 수행 등 사회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활용하기에는 재일 동포들의 한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중 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켜야 하고, 나아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일 동포와 더불어 국내 체류 동포 대상 교육적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 체류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 문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장 2011-16년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종합 및 분석

3.1. 설문 조사 내용 종합 및 분석

3.1.1. 설문 조사 방법 종합 및 분석

3.1.1.1. 조사 대상 지역 선정 방법 종합

재외 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 과업으로서 조사 대상 지역 선정은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 지역을 선정 하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 타당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2012-16년의 연구는 국외 동포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에서 제시한 조사 지역 선정 기준을 토대로 조사 지역을 선정하였다.⁵⁹⁾

각 연구의 조사 지역과 그 선정 기준을 종합하면 아래 <표 128>과 같다.

59)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2011:42-43)’에서 제시한 조사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 동포의 이주 역사가 길어서 구이민 세대와 신이민 세대를 조사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이어야 한다.

둘째, 국외 동포 수가 많아서 사회적인 변인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인 국외 동포 사회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조사 해당 국가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일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도록 조사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넷째, 조사 지역에 연구 협력자가 거주하여 조사 대상자의 협력을 얻기 쉬운 지역이어야 하며 조사 지역을 한 지역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근 지역도 포함한다.

<표 128> 조사 지역 및 선정 기준

연구	조사 지역	조사 지역 선정 기준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일본(도쿄, 오사카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제일 한국인 밀집 지역인 오사카 지역과 1980년대 이후 한국으로부터 신이민 세대가 정착한 도쿄 지역을 선정.
2012년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동북 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칭다오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중 동포의 거주 특성을 고려. 전통 집거지인 동북 3성과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 내 조선족들의 이주에 의해 형성된 신흥 집거지인 칭다오 지역을 선정.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실태 조사	러시아(사할린, 연해주),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카자흐스탄(알마티, 크질오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동포 수 고려. 세대별 분포 고려. 이주 역사 고려. 한국어 교육 기관 운영 여부 고려.
2014년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애틀란타, 시카고, 뉴욕, LA, 하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추출을 위하여 중소 도시도 포함. 전반적인 언어 사용 양상 파악을 위해 한인이 많은 동쪽과 남쪽 지역 외에도 북쪽과 남쪽의 도시 선정.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멕시코(멕시코시티), 파라과이(아순시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이 시작된 시기와 이민 유형을 고려하여 거주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도시 선정.
2016년 제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도쿄, 나고야, 오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일 동포 밀집 지역 순위에 따라 선정.

3.1.1.2. 조사 제보자 선정 방법 종합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수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 아울러,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보자의 세대,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및 계층 등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2011-16년 연구 보고서의 조사 제보자 수 및 선정 기준을 종합하면 아래 <표 129>와 같다.

<표 129> 조사 제보자 수 및 선정 기준

연구	조사 제보자 수 (심층 면접 대상자 수)	조사 제보자 선정 기준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112명(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및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 기본적으로 구이민 세대와 신이민 세대로 구분. 구이민 세대는 그 숫자가 많지 않지만 국외 동포의 기초가 되는 1세대와 그 자손들로 구성되며, 신이민 세대는 1980년대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부류임. 구이민을 1세대·1.5세대·2세대·3세대로 분류하고, 신이민을 1세대·2세대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
2012년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조선족 785명(4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대상자는 모두 조선족으로 한정. 각 조사 지역별로 세대를 노년층(60세 이상), 중년층(30세~59세), 청소년층(10세~29세)로 구분하였고, 세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실태 조사	1023명(8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부터 5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한 세대에 포함된 피조사자의 나이차가 커서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출생 코호트 개념을 도입. 출생 코호트는 강제 이주가 이루어진 1937년과 독립이 이루어진 1991년을 기준으로 1구분(1937년 미만)·2구분(1937년~1990년)·3구분(1991년 이상)의 세 시기로 구분.
2014년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1048명(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인구학적 변인 및 사회적 변인을 바탕으로 표본을 선정함. 1세대·1.5세대·2세대로 구분한 세대별 표본을 성별, 직업별, 나이별로 배분이 잘 되도록 고려한 의도적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700명(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최소 700명의 표본 크기를 결정. 세대별 변인을 고려하여 1세대·1.5세대·2세대로 구분. 각 세대별 표본을 성별 및 나이별로 배분이 잘 되도록 의도적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
2016년 제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국적자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영주권자와 단기 체류자).

또한 각 연구별로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상이했는데 각 연구들의 세대 분류 기준을 종합하면 아래 <표 130>과 같다.

<표 130> 연구별 세대 분류 기준

연구	세대 분류 기준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피조사자가 한국 지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외 조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1.5세대: 피조사자가 한국 지역에서 출생하여, 미성년일 때 부모를 따라서 이주하여 국외 조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2세대: 피조사자가 국외 조사 지역 출신으로, 부모님이 1세인 사람으로서 해당 조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3세대: 피조사자 및 부모 중 한 쪽 또는 양쪽 모두 해당 조사 지역 출신이면서 조부모가 1세인 사람 	
2012년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층(60세 이상), 중년층(30세~59세), 청소년층(10세~29세)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세대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1937년 이전 이주, 러시아(사할린)-1945년 이전 이주, 러시아(연해주)-1905년 이전 이주 • 2세대: 1세대의 자녀 • 3세대: 2세대의 자녀 • 4세대: 3세대의 자녀 • 5세대: 4세대의 자녀
	출생 코호트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구분: 1937년(강제 이주) 미만 • 2구분: 1937년~1990년 • 3구분: 1991년(독립) 이상
2014년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인이 되어서 이민한 사람 • 1.5세대: 한국에서 태어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 이전 미성년일 때 미국에 이민을 온 집단 • 2세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7세 이전 이주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한국에서 태어나서 정규 교육을 한국에서 받고 1970년대 및 80년대 이주한 동포 • 1.5세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민을 온 집단. 한국에서의 성장 경험과 현지 거주국에서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한국어와 거주국 언어를 함께 구사하는 이중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 • 2세대: 출생과 동시에 거주국 시민이었고, 어린 시기부터 남미 국가의 사회 문화 속에서 성장한 집단 	
2016년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층(60세 이상), 중년층(30세~59세), 청소년층(10세~29세) 	

3.1.1.3. 설문 조사 방법 종합 분석

조사 대상 지역 선정에 있어서 2011-16년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주 및 거주 역사를 기준으로 재외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3-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3년 연구에서 한국어 교육 기관 운영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다른 연구들과 차별된다. 재외 동포의 언어 실태 조사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국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어 교육 기관이 있는 지역에 재외 동포들이 더 많이 거주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주의 목적과 거주 지역의 선택은 재외 동포의 직업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기관이 있는 지역을 조사 지역의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사 제보자 수 선정에 있어서 2011-16년 연구들은 다소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2013년, 2014년 연구는 1천여 명이 넘지만, 2012, 2015년 연구는 700여명에 그치고, 2011년 연구는 112명으로 가장 적다. 보다 객관적이고 균등한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제보자의 수가 균등해야 할 것이다. 각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세대와 성비율을 고려하여 제보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를 나누는 기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각 국가의 재외 동포 이주 역사가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1.2. 설문 조사 결과 종합 및 분석

각 연구 보고서는 대체로 2011년 연구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범위 및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2016년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는 일제 식민지라는 역사적 관련성과 한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에 ‘언어 능력’, ‘민족 정체성’과 ‘일본인 정체성’ 그리고 ‘한국문화 및 미디어 접촉’ 영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이 영역을 기존의 연구의 조사 범위에 더하여 총 7개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종합하였으며, 각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설문 문항을 각 영역별로 정리하여 종합하였다. 하지만 수집된 데이터의 환경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본 절에서 제시하는 종합분석 결과의 해석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사한 시기와 장소,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국가별로 조사된 공통 문항에 한하여 상대적 비교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두고자 한다.

3.1.2.1. 설문 조사 영역 및 내용 종합

2016년 제일 동포 언어 실태 연구의 조사 범위를 기준으로 기존 연구의 조사 범위 및 조사 내용을 ‘기본정보’, ‘언어 인식과 태도’, ‘언어 능력’, ‘언어 사용’, ‘언어 학습’, ‘민족 정체성’,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표 131>과 같다.

<표 131> 조사 영역 및 조사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내용
기본 정보	나이, 성별, 출생지(본인, 부모), 거주지, 이주 시기, 이주 나이, 이주 세대, 민족(본인, 부모, 조부모), 국적, 직업, 학력과 학교 종류, 사용 가능 언어 등
언어 인식과 태도	모어, 한국어/거주국 언어에 대한 태도(언어 능력의 필요성), 언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어/동포어에 대한 느낌, 거주국 언어에 대한 느낌, 한국어 이해 정도, 한국 말투,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불편한 점 등
언어 능력	한국어 능력, 지역어 능력, 거주국 언어 능력 등
언어 사용	자주 사용하는 언어 순위, 가족 간 언어 사용 양상, 대화 상황 별 언어 사용 양상 등
언어 학습	한국어/동포어 학습 경험, 한국어/동포어 학습 기관, 한국어/동포어 학습 기간, 한국어/동포어 학습 동기, 한국어/동포어 학습의 어려움, 선호하는 한국어 수업 방식, 한국어 수업 교재의 번역 여부, 사용하는 사전의 유형, 한국어 수업의 만족도, 한국어 수업의 보완점, 한국어/동포어 학습 가능성 여부, 한국어/동포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 한국어/동포어를 배우고 싶지 않은 이유, 목표 수준, 한국어/동포어 전승 의식(손자/손녀의 한국어 교육 계획, 손자/손녀를 보내고 싶은 교육 기관, 동포 학교에 보내고 싶은 이유, 거주 지역 학교에 보내고 싶은 이유, 한국어 교육 기관에 보내고 싶은 이유 등)
민족 정체성	이주 역사, 한민족 역사 학습 여부, 집안에 남아있는 한민족 문화,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 거주국의 국민 정체성에 대한 인식, 교류 대상, 한국에 대한 태도, 한국에 대한 느낌(긍정, 부정), 한국 사람에 대한 느낌(긍정, 부정) 등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	한국 방문 경험, 체류 기간, 한국 방송 및 매체 접촉 빈도 및 시간, 한국 방송 및 매체 접촉 경로, 한국 방송 및 매체에 대한 느낌, 가장 선호하는 한국 방송 프로그램 유형 등

3.1.2.2. 설문 조사 결과 종합 분석

본 절에서는 2011-16년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 영역별 설문 항목을 비교하고 종합하였다. 다만 국가별 상황에 따라 설문 문항이 수정 및 추가되었기 때문에 2016년 조사 영역별로 재구성한 설문 항목 비교표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동일 문항과 수정 및 추가된 문항을 확인하였다. 2차적으로 동일 문항을 중심으로 국가별 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되 수정 및 추가된 문항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별로 같은 조사 영역과 조사 내용이더라도 문항 구성이나 척도가 다른 경우가 있어 응답 순위를 기준으로 비교표를 작성하였다.

한편,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는 제일 동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예비 조사 및 기초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문 조사 영역 및 항목이 다른 연구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설문 결과를 분석하거나 기술하는 양식도 다른 경우가 많았다. 또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멕시코의 경우는 이주 특성이 다른 지역과 상이하여 설문 결과를 따로 기술하였기에 본고에서도 중남미 동포를 남미 동포와 멕시코 동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언어 인식과 태도

‘언어 인식과 태도’ 영역에서는 모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언어 능력의 필요성, 한국어 사용 당위성에 대한 태도, 언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 동포어와 거주국 언어에 대한 느낌, 한국어 이해 정도, 한국 말투,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불편한 점 등의 내용을 통해 재외 동포들의 언어 인식과 태도를 종합·분석해 볼 수 있다.

<표 132> 언어 인식과 태도 영역의 문항 종합

조사 내용		국가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외 동포	재중 동포	독립국가 연합 동포	재미 동포	중남미 동포	재일 동포
모어			-	0	0	0	0	0
언어 능력의 필요성	한국어/기타 동포어 능력에 대한 태도		0	0	0	0	0	0
	동포들의 거주국 언어 능력에 대한 태도		-	0	0	0	0	0
한국어 사용 당위성에 대한 태도			-	-	-	0	-	0
언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			-	0	0	0	0	0
동포어에 대한 느낌			-	0	0	0	0	0
거주국 언어에 대한 느낌			-		-	0	-	0
한국어 이해 정도	말만 듣고 한국인 구별 가능 정도		-	0	-	-	-	0
	한국 사람의 말 이해 정도		-	0	-	-	-	0
	한국 방송 이해 정도		-	0	-	-	-	0
한국 말투	한국 말투를 배우고 싶은가		-	0	0	-	-	0
	그 이유		-	0	-	-	-	0

(1) 모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재미 동포와 남미 동포들의 대부분은 한국어를 모어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독립국가연합과 재일 동포는 거주국 언어를 모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독립국가연합의 경우 설문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태어난 3세대 이후 동포이기 때문이며, 재일 동포의 경우도 1세대는 89.7%가 한국어/조선어를 모어로 선택했지만, 2세대와 3세대는 각각 71.5%와 76%로 일본어를 모어라고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세대가 지날수록 한국어를 모어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중 동포의 경우, 조선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모국어를 동포 사회의 언어인 조선말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3> 모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단위: %)

응답 순위	국가별 2011년 국외 동포 ⁶⁰⁾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 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제일 동포
					남미	멕시코	
1순위	—	조선말 (80.0)	러시아어 (74.2)	한국어 (87)	한국어 (85.2)	한국어 (94.0)	일본어 (55.7)
2순위	—	한족말 (10.3)	고려말 (14.2)	영어 (11.6)	스페인어 (5.6)	스페인어 (4.0)	한국어/ 조선어 (42.9)
3순위	—	한국말 (4.8)	기타(81)	기타 (0.5)	이중언어 (1.5)	영어/ 이중언어 (1.0)	기타 (0.2)
4순위	—	북한말 (3.8)	한국어 (18)	—	포르투갈 어 (1.0)	—	모름/ 무응답 (1.3)
5순위	—	기타 (1.2)	조선어 (7)	—	영어 (0.3)	—	—

(2) 언어 능력의 필요성

‘언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일 동포 이외에는 모두 거주국 언어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재중 동포들은 조선말 능력보다 한족말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중 동포의 대부분이 조선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한족말 능력도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⁶¹⁾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은 고려말 능력보다 러시아어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또한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역시 러시아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를 잘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동포어 중에서도 고려말보다 한국어를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의 한국 내 취업 및 한국 회사 취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미 동포들과 중남미 동포들은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보다 해당 거주국 언어 능력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거주국 사회

60)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 ‘모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결과 분석 방식이 다른 보고서와 상이하여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61) 이와 관련하여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에서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의 순위는 ‘조선말>한족말>한국말’의 순서로 나타났다.

로의 자연스러운 동화를 위해 거주국 언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남미 동포의 경우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평균값이 재미 동포에서의 평균값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북미나 남미 모두 거주국 언어 능력의 필요성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멕시코의 경우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는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멕시코에 오랜 기간 거주할 것 같지 않은 특성을 보여주는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표 134> 언어 능력의 필요성

(단위: 5점 척도 평균값)

응답 순위	국가별	2011년 국외 동포 ⁶²⁾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 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남미	멕시코	
1순위	—	—	한족말 (4.70)	러시아어 능력 (4.67)	영어 (4.41)	거주국 언어 (4.55)	한국어 (4.56)	한국어/ 조선어 (4.34)
2순위	—	—	조선말 (4.65)	고려말 (4.43)	한국어 (4.23)	한국어 (4.45)	거주국 언어 (4.39)	일본어 (3.86)

(3) 한국어 사용 당위성에 대한 태도

‘한국어 사용 당위성에 대한 태도’는 2014년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와 2016년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조사된 항목으로, 이를 통해 동포 간의 한국어 사용 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재미 동포와 재일 동포의 인식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135>는 동포 간에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비율을 보여준다.

결과를 살펴보면, 재미 동포의 경우는 동포들 간에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1순위와 2순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통해 동포들 간 한국어 사용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반면에, 재일 동포의 경우는 1순위와 2순위 간의 차이가 10% 정도 되는데 이는 동

62)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에서는 ‘언어 능력의 필요성’ 항목에 대해 세대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세대를 종합한 결과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대를 종합한 결과를 제시한 본고에서는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의 결과를 제외하였다.

포들 간 한국어 사용은 당연한 것이며 재미 동포들보다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일 동포 이주 역사의 특수성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조국에 대한 강한 애국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35> 한국어 사용 당위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의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	-	-	보통이다 (31.7)	-	그렇다 (41.0)
2순위	-	-	-	그렇다 (31.1)	-	보통이다 (33.4)
3순위	-	-	-	그런 편이다 (25.9)	-	그렇지 않다 (25.2)
4순위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10. 1)	-	무응답 (0.3)
5순위	-	-	-	그렇지 않다 (1.2)	-	

(4) 언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언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 먼저 재중 동포의 경우, 재중 동포 사회에서 조선말의 장래에 대한 응답은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의 조선족 사회에서 쓰이게 될 말을 묻는 문항의 응답에서는 한족말이 제1언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국가연합 동포의 경우, 독립국가연합 동포 사회에서 고려말의 장래에 대해 점점 한국말로 바뀔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미래에 사용하게 될 언어로는 러시아어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재미 동포들은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했지만, 미래 사회에서 사용하게 될 언어로는 영어를 더 높은 비율로 꼽았다. 중남미 지역

에서는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긍정적인 응답 역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다른 동포들과 달리 재일 동포의 경우는 1순위가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다는 사실과는 다소 모순되는 결과로 2순위로는 ‘없어진다’라는 응답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재일 동포들이 다른 동포들에 비해서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민족성이 강하다는 점을 드러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세대가 지날수록 3세대 동포들은 모국어를 일본어로 생각한다는 점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외 동포들은 미래에 동포어보다 거주국 언어를 더욱 사용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한국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나 정책적인 지원 없이는 재외 동포들의 한국어 사용이 점차 감소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36> 동포어의 장래

(단위: %)

응답 순위	국가별	2011년 국외 동포 ⁶³⁾	2012년 재중 동포 (조선말)	2013년 독립국가연 합 동포 (고려말)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남미	멕시코	
1순위	—	—	없어진다 (35.7)	한국말로 바뀔 것이다 (54.2)	변화가 없을 것이다 (32.6)	더 적게 사용된다 (43.0)	더 적게 사용된다 (29.0)	변화가 없을 것이다 (50.0)
2순위	—	—	한국말로 바뀔 것이다 (22.3)	발전할 것이다 (19.1)	더 많이 사용된다 (20.6)	더 많이 사용된다 (19.2)	한국어와 달라진다 (24.0)	없어진다 (24.4)
3순위	—	—	잘 모르겠다 (15.2)	없어진다 (13.9)	한국어와 달라진다 (16.9)	한국어와 달라진다 (11.9)	변화가 없을 것이다 (23.0)	잘 모르겠다 (13.8)
4순위	—	—	발전할 것이다 (14.2)	변화가 없을 것이다 (12.7)	없어진다 (16.3)	변화가 없을 것이다 (10.8)	더 많이 사용된다 (19.0)	발전할 것이다 (7.4)
5순위	—	—	변화가 없을 것이다 (12.6)	잘 모르겠다 (0.2)	—	없어진다 (7.1)	없어진다/ 모르겠다 (2.0)	무응답 (2.4)

63)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에서는 ‘언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항목을 조사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표 137> 동포 사회에서 사용하게 될 말의 순위

(단위: %)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⁶⁴⁾	2012년 재중 동포 ⁶⁵⁾	2013년 독립국가연 합 동포 ⁶⁶⁾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	한족말	러시아어	영어 (56.4)	—	—
2순위	—	조선말	한국어	한국어 (37.6)	—	—
3순위	—	한국말	기타 동포어	—	—	—

(5) 동포어와 거주국 언어에 대한 느낌

‘동포어와 거주국 언어에 대한 느낌’을 조사한 결과, 동포들은 동포어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중 동포의 경우 개별 항목에 대한 비율만 제시되어 있어 전체 비율을 제시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높았으며, 부정적인 의견의 경우, 문항을 보고 일부러 부정적인 느낌을 찾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재미 동포는 전체 비율로 나타낼 수 없지만 항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세련됨을 묻는 항목과 유식함을 묻는 항목만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한국어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중남미 동포는 한국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재일 동포는 전체 비율로 나타낼 수 없지만 모든 항목에서 한국어/조선어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64)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에서는 ‘언어의 미래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항목을 조사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65) 2012년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에서는 언어 사용 순위를 순위 기입식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5점 척도 평균값이나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순위만 제시하였다.

66)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에서는 언어 사용 순위를 순위 기입식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5점 척도 평균값이나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순위만 제시하였다.

<표 138> 동포어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단위: %)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⁶⁷⁾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 합 동포 ⁶⁸⁾	2014년 재미 동포 ⁶⁹⁾	2015년 중남미 동포 ⁷⁰⁾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	긍정적	애교 있다 (57.2)	한국어	긍정적 (87.5)	한국어/조선 어
2순위	—	부정적	부드럽다 (51.0)	영어	부정적 (13)	일본어

(6) 한국어 이해 정도

‘한국어 이해 정도’는 2012년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와 2016년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만 조사된 항목으로 이를 통해 동포들이 한국어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재중 동포와 재일 동포 모두 1순위로 말만 듣고 한국인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고, 2순위로 TV나 영화 속에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3순위로 한국인의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동포들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말과 실제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를 구별하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7)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에서는 ‘동포어와 거주국 언어에 대한 느낌’ 항목을 조사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68) ‘애교 있다’, ‘부드럽다’ 외에 ‘세련됐다(43.6)’, ‘점잖다(34.0)’, ‘기타(1.4)’, ‘없음(1.3)’의 의견이 나타났다.

69) 통계적으로 세련됨을 묻는 항목과 유식함을 묻는 항목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다른 항목에서는 모두 한국어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70)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멕시코의 경우, ‘동포어와 거주국 언어에 대한 느낌’ 항목을 따로 기술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표 139> 한국어 이해 정도

(단위: 5점 척도 평균)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의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	말을 통한 한국인 구별 (4.39)	-	-	-	말을 통한 한국인 구별 (3.92)
2순위	-	TV, 영화 속 한국어 이해 (4.12)	-	-	-	TV, 영화 속 한국어 이해 (3.53)
3순위	-	한국인의 한국말 이해 (4.01)	-	-	-	한국인의 한국말 이해 (3.43)

한편 2012년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는 ‘한국어를 알아듣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외래어 및 외국어를 많이 쓰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재중 동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선말이 분단 이전의 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중 동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규범이 북한의 언어 규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새로운 문물에 대한 단어나 표현은 중국말이나 중국말 차용어를 쓴다는 점이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7) 한국 말투에 대한 인식

2012년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와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는 한국 말투를 배우고 싶은지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재중 동포의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말 학습 의지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비록 재중 동포들이 조선말과 한국말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양자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 말투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국가연합 동포의 경우 한국 말투를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

로 91.7%에 해당하는 동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다만 사할린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17.2%에 그치고 부정적인 답변이 82.9%를 보였다.

<표 140> 한국 말투 학습 의지

(단위: 5점 척도 평균, %)

2011년 국의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	한국 말투 학습 의지 (5점 척도 평균: 3.49)	그렇다 (56.4%) 그런 편이다 (26.5%) 보통이다 (8.8%) 그렇지 않은 편이다 (5.9%) 그렇지 않다 (2.5%)	-	-	-

2) 언어 능력

각각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거주국 언어의 능력에 대해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재중 동포 사회와 독립국가연합의 경우 지역의 특성상 기타 동포어(조선말, 고려말/사할린 한국어) 능력을 묻는 문항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중남미 국가의 경우 영어 능력을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한편,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난이도에 따른 언어 능력이 아닌 네 가지 언어 능력의 전체적인 평균값만을 한국어와 거주국 언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어 본고의 종합 분석에서 제외하였다.⁷¹⁾

71) 멕시코 동포들의 경우, 자료 전체를 바탕으로 언어 능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언어 능력에서 거주국 언어 능력보다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41> 언어 능력 영역의 문항 종합

조사 내용 \ 국가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기타 동포어 능력	말하 기	-	0	0	-	-	0
	듣기	-	0	0	-	-	0
	읽기	-	0	0	-	-	0
	쓰기	-	0	0	-	-	0
한국어 능력	말하 기	0	-	-	0	0	0
	듣기	0	-	-	0	0	0
	읽기	0	-	-	0	0	0
	쓰기	0	-	-	0	0	0
거주국 언어 능력	말하 기	0	0	0	0	0	-
	듣기	0	0	0	0	0	-
	읽기	0	0	0	0	0	-
	쓰기	0	0	0	0	0	-
미국 외 지역 동포의 영어 능력	말하 기	-	-	-	-	0	-
	듣기	-	-	-	-	0	-
	읽기	-	-	-	-	0	-
	쓰기	-	-	-	-	0	-

(1) 동포어 능력

대체적으로 재외 동포들은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한국어를 포함한 동포어 능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재외 동포들은 기본적인 동포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전문적인 말하기 능력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기능별 동포어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말하기 능력

아래의 표는 기존의 각 국가별 동포 언어 실태 조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일본, 미국, 중국, 중남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네 개의 언어 능력의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각 문항들은 ‘아주 못한다(1), 못한다(2), 보통이다(3), 잘한다(4), 아주 잘한다(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평균값이 높을수록 언어 능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142>를 통해 말하기 능력을 비교해 보면, 미국을 제외한 3개 국가

동포들의 언어 능력은 높은 단계의 수준으로 나아갈수록 평균값이 감소하는 공통적 특징을 보인다.

한편 <표 142>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재일 동포의 말하기 능력이 다른 국가 동포들에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재일 동포의 말하기 능력이 낮은 원인은 2세대와 3세대의 말하기 능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재일 동포의 세대별 전반적인 언어 능력 수준에서 말하기 능력의 평균값을 보면 1세대는 평균 4.54를 보여주지만, 2세대와 3세대는 각각 2.89와 2.80을 보여준다. 즉 2세대, 3세대 재일 동포들의 말하기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른 국가 동포들 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재일 동포 2세대, 3세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배우고 자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표 142> 동포어 말하기 능력

(단위: 5점 척도 평균)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⁷²⁾	2012년 재중 동포 (조선말)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⁷³⁾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기초적인 대화	기초적인 대화 (4.53)	—	기초적인 대화 (4.43)	기초적인 대화 (4.78)	기초적인 대화 (3.85)
2순위	간단한 대화	간단한 대화 (4.38)	—	간단한 대화 (4.33)	간단한 대화 (4.72)	간단한 대화 (3.46)
3순위	설명이나 보고	설명이나 보고 (3.86)	—	설명이나 보고 (3.75)	설명이나 보고 (4.24)	설명이나 보고 (2.92)
4순위	전문적인 대화	전문적인 대화 (3.51)	—	전문적인 대화 (3.38)	전문적인 대화 (3.65)	전문적인 대화 (2.69)

② 듣기 능력

재외 동포들의 한국어 듣기 능력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72)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에서는 재일 동포를 신이민 1세, 구이민 2세, 구이민 3세로 구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세대의 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각 항목의 순위는 같지만 평균값이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평균값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73)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는 동포들의 말하기 능력을 5점 척도 평균값이 아닌 각 단계의 응답률(%)로 제시하여 단계별 언어 능력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재일 동포들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중남미 동포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듣기 능력을 보였다. 특히 다른 지역의 동포들은 가장 낮은 단계의 평균값과 가장 높은 단계의 평균값의 편차가 크지 않은 반면, 재일 동포들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포어의 내용에 따라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기 능력과 비슷하게, 가장 특징적인 것은 듣기 능력에서도 재일 동포의 평균이 낮다는 점이다. 또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와 4단계 질문에서 2세대와 3세대 이상의 평균값이 2점대인 반면, 1세대의 평균값은 4점대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말하기 능력의 세대별 결과와 일관성을 보여준다.

<표 143> 동포어 듣기 능력

(단위: 5점 척도 평균)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의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조선말)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자기소개	간단한 문장 (4.60)	—	간단한 문장 (4.28)	간단한 문장 (4.71)	간단한 문장 (3.89)
2순위	간단한 담화	실용적 담화 (4.58)	—	실용적 담화 (4.42)	뉴스 (4.47)	실용적 담화 (3.53)
3순위	뉴스	뉴스 (4.24)	—	뉴스 (4.10)	사회적 내용 (4.36)	뉴스 (3.09)
4순위	전문적인 내용	전문적인 내용 (3.84)	—	전문적인 내용 (3.76)	전문적인 내용(4.06)	전문적인 내용 (2.80)

③ 읽기 능력

동포어 읽기 능력에서도 중남미 동포들의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재중 동포, 재미 동포, 재일 동포들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 집단 모두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갈수록 평균값이 점차 낮아지는 공통된 추세를 보인다.

<표 144> 동포어 읽기 능력

(단위: 5점 척도 평균)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조선말)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간단한 광고나 안내문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 (4.44)	—	간단한 광고문 (4.44)	간단한 광고문 (4.71)	간단한 광고문 (3.85)
2순위	편지나 설명서	편지나 설명서 (4.37)	—	편지나 설명서 (4.18)	편지나 설명서 (4.55)	편지나 설명서 (3.55)
3순위	평이한 기사	평이한 기사 (4.18)	—	평이한 기사 (3.95)	평이한 기사 (4.36)	평이한 기사 (3.28)
4순위	전문 서적이거나 문학 작품	전문 서적이거나 문학작품 (3.71)	—	전문 분야 (3.60)	전문 분야 (4.05)	전문 분야 (2.93)

④ 쓰기 능력

마지막으로 동포어 쓰기 능력에서도 중남미 동포들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재일동포들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다른 영역의 언어 능력과는 달리, 쓰기 능력의 경우 네 집단 모두 가장 낮은 단계와 가장 높은 단계의 평균값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문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글쓰기 능력이 낮은 이유는 쓰기 활동과 연습 기회가 다른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145> 동포어 쓰기 능력

(단위: 5점 척도 평균)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조선말)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간단한 사물 이름, 위치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 (4.54)	-	이름 쓰기 (4.47)	이름 쓰기 (4.74)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 (3.68)
2순위	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4.28)	-	간단한 내용 쓰기 (4.17)	간단한 내용 쓰기 (4.46)	간단한 내용 쓰기 (3.33)
3순위	특정 분야의 주제	특정 분야의 주제 (3.62)	-	특정 분야 주제 쓰기 (3.63)	특정 분야 주제 쓰기 (3.93)	특정 분야 주제 쓰기 (2.87)
4순위	전문 보고서	전문 보고서 (3.22)	-	전문 보고서 (3.27)	전문 보고서 (3.50)	전문 보고서 (2.59)

(2) 거주국 언어 능력

거주국 언어 능력은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와 2016년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를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⁷⁴⁾ 한국어 능력과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수준에서 전문적인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언어 능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은 러시아어 능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동포어 능력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재미 동포와 중남미 동포의 경우, 언어의 네 기능 모두 전반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영어 능력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1세대는 한국어를 더 잘하는 반면 2세대는 한국어보다 거주국 언어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중 동포들의 경우, 잘한다고 응답한 언어가 ‘조선말>한족말>한국말’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별, 지역별, 성별, 학력별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재중 동포들이 언어의 뿌리를 조선말에 두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한족어를 사용하

74)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에서는 거주국 언어 능력, 즉 재일 동포의 일본어 능력을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연구 보고서에 그 결과를 기술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에서는 거주국 언어 능력을 묻는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말하기 능력

중국, 미국, 중남미 동포 모두 가장 쉬운 수준의 언어 능력 순위가 가장 높았다. 가장 어려운 수준의 경우, 동포어 능력보다 거주국 언어 능력의 평균값이 더 낮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전문적인 상황에서 거주국 언어보다 동포어 능력이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46> 거주국 언어 말하기 능력

(단위: 5점 척도 평균)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	기초적인 대화 (4.37)	—	기초적인 대화 (4.25)	기초적인 대화 (4.37)	—
2순위	—	간단한 대화 (4.17)	—	간단한 대화 (4.18)	간단한 대화 (4.12)	—
3순위	—	설명이나 보고 (3.64)	—	설명이나 보고 (3.78)	설명이나 보고 (3.65)	—
4순위	—	전문적인 대화 (3.29)	—	전문적인 대화 (3.51)	전문적인 대화 (3.02)	—

② 듣기 능력

듣기 능력의 경우, 재중 동포와 재미 동포는 말하기 능력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중남미 동포는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듣기 능력이 사회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듣기 능력보다 평균값이 더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듣기 능력 역시 대체적으로 거주국 언어 듣기 능력이 동포어 듣기 능력보다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표 147> 거주국 언어 듣기 능력

(단위: 5점 척도 평균)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	간단한 문장 (4.43)	—	간단한 문장 (4.21)	간단한 문장/뉴스 (4.11)	—
2순위	—	실용적 담화 (4.34)	—	실용적 담화 (4.15)	전문적인 내용(3.75)	—
3순위	—	뉴스 (4.14)	—	뉴스 (3.92)	사회적 내용 (3.52)	—
4순위	—	전문적인 내용 (3.65)	—	전문적인 내용 (3.60)	—	—

③ 읽기 능력

읽기 능력에서는 응답자 모두 수준이 높아질수록 언어 능력이 낮아진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또한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균값이 동포어 능력 보다 대체적으로 낮았다.

<표 148> 거주국 언어 읽기 능력

(단위: 5점 척도 평균)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조선말)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 (4.27)	—	간단한 광고문 (4.24)	간단한 광고문 (4.11)	—
2순위	—	편지나 설명서 (4.07)	—	편지나 설명서 (4.11)	편지나 설명서 (3.79)	—
3순위	—	평이한 기사 (3.87)	—	평이한 기사 (3.95)	평이한 기사 (3.52)	—
4순위	—	전문 서적이거나 문학작품 (3.45)	—	전문 분야 (3.61)	전문 분야 (3.03)	—

④ 쓰기 능력

쓰기 능력에서도 응답자들은 수준이 높아질수록 언어 능력이 낮아진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고, 동포어 능력보다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특히 전문적인 내용을 쓰는 데에 있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여 응답자들이 다른 언어 기능보다 거주국 언어를 사용한 쓰기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9> 거주국 언어 쓰기 능력

(단위: 5점 척도 평균)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의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조선말)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 (4.17)	—	이름 쓰기 (4.26)	이름 쓰기 (4.23)	—
2순위	—	간단한 편지, 일기, 안내문 (3.84)	—	간단한 내용 쓰기 (4.06)	간단한 내용 쓰기 (3.76)	—
3순위	—	특정 분야의 주제 (3.26)	—	특정 분야 주제 쓰기 (3.66)	특정 분야 주제 쓰기 (3.18)	—
4순위	—	전문 보고서 (2.97)	—	전문 보고서 (3.41)	전문 보고서 (2.82)	—

(3) 미국 외 지역 동포(중남미 동포)의 영어 능력

중남미 동포들의 경우에 영어 학교에 다닌 동포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영어 능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영어 능력이 우수한 동포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중남미 동포들의 한국어 능력이나 거주국 언어 능력에 비해 상당히 낮게 인식된 점수임을 알 수 있다.

<표 150> 미국 외 지역 동포(중남미 동포)의 영어 능력

(단위: 5점 척도 평균)

영어 능력	N	평균	표준편차
영어 말하기	571	2.42	1.187
영어 듣기	570	2.43	1.253
영어 읽기	572	2.52	1.307
영어 쓰기	572	2.48	1.304
유효수 (목록별)	569		

3) 언어 사용

‘언어 사용’에서는 동포들이 사용하는 언어 순위, 가족 간 언어 사용, 상황별 언어 사용 등의 내용을 통해 재외 동포의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표 151> 언어 사용 영역의 문항 종합

조사 내용		국가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 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언어 사용 순위			—	0	0	0	0	0
가족 간 언어 사용	본인→가족		0	0	0	0	0	0
	가족→본인		0	0	0	0	0	0
상황별 언어 사용 (공식적/ 비공식적)	동포들과의 공식적인 모임		0	0	0	0	0	0
	동포들과의 비공식적인 모임		0	0	0	0	0	0
	동포와 비동포가 섞인 공식적인 모임		0	0	0	0	0	0
	동포와 비동포가 섞인 비공식적인 모임		0	0	0	0	0	0
	종교 활동		—	—	—	0	0	0
상황별 언어 사용 (특수 상황)	숫자, 셈		0	0	0	0	0	0
	기도, 소원		0	0	0	0	0	0
	화가 났을 때, 비동포와 싸울 때		0	0	0	0	0	0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	—	—	0	—	0
	꿈꿀 때		0	—	—	—	—	—
재외 동포 사회에서만 사용되는 한국어 표현 (서술형 문항) ⁷⁵⁾			—	—	—	0	0	—

(1) 동포어 사용 순위

① 제일 잘하는 언어

재중 동포들은 조선말, 한족말, 한국말 순으로 잘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언어의 뿌리는 조선말에 두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한족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미하게 한국말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미 동포의 경우 제일 잘하는 언어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있어 전체적으로 64.6% 정도가 한국어를 선택했다. 연령에 따라 10대, 20대인 경우와 2세대의 경우에는 영어를 더 잘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이었으나, 그 외에는 모두 한국어를 더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한국어를 더 잘하는 언어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남미와 재일 동포들은 거주국 언어를 제일 잘하는 언어로 뽑고 있다. 특히, 중남미의 경우 2순위와 3순위가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재일 동포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비율 차이가 50% 이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152> 제일 잘하는 언어

(단위: 5점 척도 평균, %)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⁷⁶⁾	2012년 재중 동포 ⁷⁷⁾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⁷⁸⁾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⁷⁹⁾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	조선말	-	한국어 (64.6%)	영어 (2.96)	일본어 (75.6%)
2순위	-	한족말	-	영어 (35.4%)	포르투갈 어 (2.75)	동포어 (22.6%)
3순위	-	한국말	-	-	스페인어 (2.16)	-
4순위	-	-	-	-	한국어 (1.35)	-

75) 이 문항은 언어 변종 조사를 위한 서술형 문항이기 때문에 본고의 설문 문항 종합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76) 2011년 <국외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에서는 ‘언어 사용 순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본고의 종합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77) 2012년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에서는 언어 사용 순위를 순위 기입식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5점 척도 평균값이나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순위만 제시하였다.

78) 2013년 <독립국가연합 언어 실태 조사 연구>에서는 ‘제일 잘하는 언어’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였으나 분석 방식이 다른 보고서와 상이하여 본고의 종합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재일 동포의 경우는 아래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일상생활, 가족 간, 제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언어 등의 질문에서도 한국어/조선어보다 일본어를 선택한 경우가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②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아래 <표 153>에서 알 수 있듯이, 재중 동포와 재미 동포는 동포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동포들은 거주국 언어를 1순위로 선택했다. 독립국가연합의 경우 2순위가 고려말/사할린 한국어인 반면에, 중남미는 한국어가 4순위고 재일 동포는 한국어가 16.9%에 그치고 있어서 일상생활에서조차도 거의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3>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단위: 5점 척도 평균, %)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⁸⁰⁾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⁸¹⁾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	조선말	러시아어	한국어 (52.5%)	영어 (3.05)	일본어 (81.6%)
2순위	—	한족말	고려말/사 할린 한국어	영어 (47.4%)	포르투갈 어 (2.57)	동포어 (16.9%)
3순위	—	한국말	한국어	—	스페인어 (2.05)	—
4순위	—	—	지역어	—	한국어 (1.41)	—

79)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멕시코의 경우, ‘제일 잘하는 언어’ 항목을 따로 기술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80)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에서는 언어 사용 순위를 순위 기입식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5점 척도 평균값이나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순위만 제시하였다.

81)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멕시코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항목을 따로 기술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③ 가족끼리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아래 <표 154>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중 동포들은 가족끼리 말할 때, 조선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재미 동포들은 평소에 52.5% 정도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가족 간에는 80.3%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앞서 기술했듯이, 중남미와 재일 동포의 경우는 거주국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4> 가족끼리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단위: 5점 척도 평균, %)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의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⁸²⁾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	조선말	러시아어	한국어 (80.3%)	영어 (3.03)	일본어 (75.9%)
2순위	—	한족말	고려말/사 할린 한국어	영어 (20%)	포르투갈 어 (2.70)	동포어 (22.5%)
3순위	—	한국말	한국어	—	스페인어 (2.24)	—
4순위	—	—	지역어	—	한국어 (1.16)	—

82)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멕시코의 경우, ‘가족끼리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항목을 따로 기술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④ 제일 알아듣기 편한 언어

‘제일 알아듣기 편한 언어’는 재미 동포와 중남미 동포, 제일 동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중남미와 제일 동포의 경우 한국어가 압도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5> 제일 알아듣기 편한 언어

(단위: 5점 척도 평균, %)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⁸³⁾	2016년 제일 동포
1순위	—	—	—	한국어 (63%)	영어 (3.01)	일본어 (73.1%)
2순위	—	—	—	영어 (36.9%)	포르투갈 어 (2.74)	동포어 (24.4%)
3순위	—	—	—	—	스페인어 (2.13)	—
4순위	—	—	—	—	한국어 (1.34)	—

83)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멕시코의 경우, ‘제일 알아듣기 편한 언어’ 항목을 따로 기술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2) 가족 간 언어 사용⁸⁴⁾

① 내가 가족에게 사용하는 언어

‘내가 가족에게 말할 때 쓰는 말’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의 경우 어른들에게 말할 때가 가장 높았으며, 형제가 나에게 말할 때, 손아랫사람이 말할 때,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며느리가 나에게 말할 때 순으로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반대로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사위·며느리에게 말할 때 거주국 언어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다.⁸⁵⁾

<표 156> 내가 가족에게 사용하는 언어(동포어 사용 순위)

(단위: 5점 척도 평균)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의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멕시코 포함) ⁸⁶⁾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에게 말할 때 (1.45)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에게 말할 때 (3.41)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에게 말할 때 (1.49)	어른들에 게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에게 말할 때 (3.60)
2순위	—	형제, 자매, 사촌 등에게 말할 때 (1.92)	형제, 자매, 사촌 등에게 말할 때 (4.26)	형제, 자매, 사촌 등에게 말할 때 (2.38)	형제에게	형제, 자매, 사촌 등에게 말할 때 (3.86)
3순위	—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 람에게 말할 때 (2.26)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 람에게 말할 때 (4.74)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 람에게 말할 때 (3.04)	손아랫사 람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 람에게 말할 때 (4.03)
4순위	—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의 사람에게 말할 때 (3.56)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의 사람에게 말할 때 (4.85)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의 사람에게 말할 때 (3.57)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 사위, 며느리에 게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의 사람에게 말할 때 (4.22)

84) 2011년 <국의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에서는 가족 간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수치를 기술하는 방식이 다른 연구와 상이하여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85) ‘대부분 한국어로, 한국어를 더 많이, 절반씩, 거주국 언어를 더 많이, 대부분 거주국 언어로’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값이 클수록 한국어보다 거주국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가족이 나에게 사용하는 언어

가족들이 나에게 쓰는 말 역시 내가 가족에게 말할 때 쓰는 말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재일 동포의 경우 동포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재중 동포나 재미 동포에 비해 낮았고, 독립국가연합의 동포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를 쓰는 가운데 윗세대와 이야기할 때 동포어로 말하는 비율이 높았다.⁸⁷⁾

<표 157> 내가 가족에게 사용하는 언어(동포어 사용 순위)

(단위: 5점 척도 평균)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멕시코 포함)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이 나에게 말할 때 (1.37)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이 나에게 말할 때 (3.26)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이 나에게 말할 때 (1.34)	어른들이 나에게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이 나에게 말할 때 (3.57)
2순위	—	형제, 자매, 사촌 등이 나에게 말할 때 (1.89)	형제, 자매, 사촌 등이 나에게 말할 때 (4.30)	형제, 자매, 사촌 등이 나에게 말할 때 (2.36)	형제가 나에게	형제, 자매, 사촌 등이 나에게 말할 때 (3.86)
3순위	—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 람이 나에게 말할 때 (2.52)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 람이 나에게 말할 때 (4.86)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 람이 나에게 말할 때 (3.27)	손아랫사 람이 나에게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 람이 나에게 말할 때 (4.08)
4순위	—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가 나에게 말할 때 (3.87)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가 나에게 말할 때 (4.91)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가 나에게 말할 때 (3.55)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 사위, 며느리가 나에게	한국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가 나에게 말할 때 (4.19)

86) 2015년 <중남미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의 보고서에는 평균값이 아닌 순위 기입식 문항에 따른 비율만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5점 척도 평균값이나 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순위만 제시하였다.

87) ‘대부분 한국어로, 한국어를 더 많이, 절반씩, 거주국 언어를 더 많이, 대부분 거주국 언어로’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값이 클수록 한국어보다 거주국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상황별 언어 사용

①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재외 동포들은 현지인이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주로 거주국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중 동포들은 조선족끼리 이야기할 때 조선어를 쓰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한족이 있는 자리에서는 한족어를 쓰는 경향이 강하다. 공식과 비공식 모임의 구분 없이 참여자의 민족에 따라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재미 동포들의 공식적·비공식적 언어 사용 양상도 재중 동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한편 중남미 동포들의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을 살펴보면, 한인끼리의 모임에서는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현지인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는 대부분 거주국 언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종교 행사나 의식 참여시에 사용하는 언어의 경우에도 한인 모임과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종교 행사 및 의식이 주로 한인 공동체 내부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일 동포의 경우도 동포들과의 대화에서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고, 현지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본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⁸⁾

88) ‘대부분 한국어로, 한국어를 더 많이, 절반씩, 거주국 언어를 더 많이, 대부분 거주국 언어로’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값이 클수록 한국어보다 거주국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58>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동포어 사용 순위)

(단위: 5점 척도 평균)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 합 동포 ⁸⁹⁾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남미	멕시코	
1순위	—	동포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할 때 (1.62)	—	동포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할 때 (2.19)	한인 공식모임	한인 비공식 모임	동포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할 때 (3.43)
2순위	—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동포들과 사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1.64)	—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동포들과 사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2.30)	종교행사, 의식 참여	한인 공식 모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동포들과 사교적으로 이야기할 때 (3.82)
3순위	—	현지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동포와 일상 이야기를 할 때 (3.30)	—	현지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동포와 일상 이야기를 할 때 (3.58)	한인 비공식 모임	종교행사, 의식 참여	현지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동포와 일상 이야기를 할 때 (4.39)
4순위	—	현지인과 동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할 때 (3.59)	—	현지인과 동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할 때 (3.79)	현지인과 한인이 함께 한 비공식 모임	현지인과 한인이 함께 한 비공식모 임	현지인과 동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할 때 (4.40)
5순위	—	—	—	—	현지인과 한인이 함께한 공식 모임	현지인과 한인이 함께 한 공식 모임	—

② 특수한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재외 동포들 중 재중 동포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

89)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의 설문지에서는 해당 문항이 있으나, 최종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중 동포들은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일 동포들은 다른 국가의 동포들에 비해 특수한 상황에서 거주국 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를 통해 재일 동포들이 한국어보다 거주국 언어를 더욱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⁰⁾

<표 159> 공식적/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동포어 사용 순위)
(단위: 5점 척도 평균)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 합 동포 ⁹¹⁾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남미	멕시코	
1순위	—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1.97)	—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화가 났을 때나 동포와 말싸움을 할 때 (2.40)	생각, 기도하기	화나거나 말싸움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3.66)
2순위	—	화가 났을 때나 동포와 말싸움을 할 때 (2.20)	—	머릿속으 로 생각할 때 (2.54)	화나거나 말싸움	생각, 기도하기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3.85)
3순위	—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2.64)	—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2.90)	셈이나 숫자세기	셈이나 숫자세기	머릿속으 로 생각할 때 (3.87)
4순위	—	—	—	—	—	—	화가 났을 때나 동포와 말싸움을 할 때 (3.95)

90) ‘대부분 한국어로, 한국어를 더 많이, 절반씩, 거주국 언어를 더 많이, 대부분 거주국 언어로’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값이 클수록 한국어보다 거주국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언어 학습

‘언어 학습’ 영역에서는 동포어 학습 양상, 한국어 수업, 동포어 학습 계획, 전승 의식, 한국어 교육 정책 등의 내용을 종합·분석해 볼 수 있다.

<표 160> 언어 학습 영역의 문항 종합

국가별 조사 내용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 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기타 동포어 학습	학습 경험 유무	-	-	-	-	-	0
	학습 기관	-	0	0	-	-	0
	학습 기간	-	0	0	-	-	0
	학습 동기/이유	-	0	0	-	-	0
	학습의 어려움	-	0	0	-	-	0
한국어 학습	학습 경험 유무	0	-	0	0	0	0
	학습 기관	0	-	-	0	0	0
	학습 기간	0	-	0	-	-	0
	학습 후 사용 기간	-	-	-	0	0	0
	학습 동기/이유	0	-	0	0	0	0
동포어 학습 계획	학습의 어려움	0	-	-	0	0	0
	학습 가능성 여부	-	0	-	0	0	-
	배우고 싶은 이유	-	0	0	0	0	-
	배우고 싶지 않은 이유/배우지 않은 이유	-	0	-	0	0	-
	성취 목표 수준	-	0	-	0	0	-
동포어 전승 의식 (자녀, 손자, 손녀의 교육)	동포어 교육 계획 유무	-	-	-	0	0	0
	보내고 싶은 교육 기관	-	0	0	-	-	-
	동포 학교에 보내고 싶은 이유	-	0	0	-	-	-
	거주 지역 학교에 보내고 싶은	-	0	0	-	-	-

91)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의 설문지에서는 해당 문항이 있으나, 최종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이유						
	한국어 교육 기관에 보내고 싶은 이유	-	-	0	0	0	-
	보내고 싶지 않은 이유	-	-	-	0	0	-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	-	-	-	0	-
	선호하는 한국어 수업 방식	-	-	0	-	-	-
	선호하는 한국어 교사	-	-	-	-	0	-
	선호하는 교재 및 교육 자료 유형	-	-	-	-	0	-
	교재의 번역 여부	-	-	0	-	-	-
	사용한 사전의 유형	-	-	0	-	-	-
	수업의 만족도	-	-	-	0	0	-
	수업의 보완점	-	-	-	0	-	-
	한국어 교육에 가장 필요한 지원	-	-	-	-	0	-

(1) 동포어 학습 양상

① 한국어 학습 양상

‘한국어 학습 양상’은 학습 경험 및 학습 기간, 학습 기관, 학습 동기 및 이유, 학습 시 어려운 점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한국어 학습 경험 및 학습 기간

재일 동포와 재미 동포는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독립국가연합 동포와 중남미 동포는 학습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독립국가연합이나 중남미에서는 주로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웠음을 알 수 있다. 학습 기간도 독립국가연합과 중남미의 경우 10년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 역시 가정에서 한국어를 접한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161> 한국어 학습 경험 및 학습 기간

(단위: %)

응답 순위	국가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 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남미	멕시코	
학습 경험	1순위	구이민 3세대 있음 (89.7)	—	없다 (57.2)	있다 (71.1)	없다 (65.7)	없다 (81.0)	있다 (83.5)
	2순위	구이민 2세대 있음 (87.5)	—	있다 (42.8)	없다 (28.9)	있다 (27.0)	있다 (19.0)	없다 (13.1)
학습 기간	1순위	5년 이상 (50.0)	—	2~4년 이내 (25.9)	—	10년 이상 (81.0)	—	10년 이상 (41.8)
	2순위	1년 정도 (20.0)	—	1년 이내 (23.5)	—	10년 미만 (19.0)	—	5년 이상~9 년 이내 (12.5)
	3순위	2~3년 정도 (10.0)	—	3개월 미만 (23.1)	—	—	—	2년 이상~4 년 이내 (12.3)
	4순위	3~6개 월/기타 (7.5)	—	5년 이상 (17.0)	—	—	—	1년 이내 (8.1)
	5순위	3개월 미만 (5.0)	—	6개월 미만 (10.6)	—	—	—	3개월 미만 (7.6)
	6순위	—	—	—	—	—	—	6개월 미만 (5.1)

○ 한국어 학습 기관

재외 동포들의 한국어 학습 장소를 살펴보면 정규 및 비정규 학교, 한국어 교육원, 학원 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이 특징적인 점은 가정에서의 한국어 학습과 독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적인 선호일 수도 있으나 한국어 교육 시설의 부재나 통학의 어려움 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 따라서 동포들의 한국어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지만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가정용 및 독학용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62> 한국어 학습 기관

(단위: %)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의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 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⁹²⁾	2016년 재일 동포
학습 기관	1순위	민족 학교 등 정규 학교 (40.9)	—	학원 (30.9)	가정 (33.5)	한글학교 (35.0)	학교 (42.6)
	2순위	학원이나 과외 (25.0)	—	한국어 교육원 (29.3)	한글학교 (32.7)	가정 (25.0)	사회단체 (14.8)
	3순위	기타 (20.5)	—	중고등교 육기관 (25.3)	미국 내 대학교 한국어 강좌 (14.3)	유치원 (12.1)	집 (12.9)
	4순위	한글학교 나 토요학교 등 비정규학 교 (9.1)	—	대학 (19.4)	한국 내 한국어 교육 기관 (8.6)	신문·방송 ·인터넷 매체 (8.6)	부모 (11.4)
	5순위	독학 (4.5)	—	기타 (16.7)	기타 (5.3)	중남미 국가 내 한국어 교육기관 (6.3)	독학 (9.9)
	6순위	—	—	—	미국 내 한국어 교육 기관 (3.5)	한국 내 한국어 교육기관 (6.0)	기타 ⁹³⁾ (5.5)
	7순위	—	—	—	미국 내 중고등학 교 (1.2)	기타 (4.9)	학원 (2.9)
	8순위	—	—	—	미국 내 초등학교 (1.0)	중남미 국가 내 초등학교 (1.7)	—
	9순위	—	—	—	—	중남미 국가 내 중고등학 교 (0.3)	—
	10순 위	—	—	—	—	중남미 국가 내 대학교 한국어 강좌 (0.0)	—

92)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멕시코의 경우, ‘한국어 학습 기관’ 항목을 따로 기술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93) 기타의 내용을 살펴보면 라디오 등과 같은 미디어, 조부모, 교회, 한국 어학연수 등을 통해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한국어 학습 동기 및 이유

한국어의 학습 동기나 이유는 가족의 한국어 사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가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한민족이라면 당연히 배워야 한다는 응답의 비율도 높았다. 이러한 학습 동기는 앞으로의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격적인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요구 조사가 필요하다.

<표 163> 한국어 학습 동기 및 이유

(단위: %)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 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⁹⁴⁾	2016년 재일 동포
학습 동기 및 이유	1순위	한국인으로 서 당연한 일/가족 간의 의사소통 (20.6)	—	조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52.9)	가족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 (32.0)	가족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 (37.9)	재일 동포로서 당연한 일 (25.5)
	2순위	한국 문화에 관심 (14.3)	—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36.7)	가족들과 의사소통 (18.7)	한국 사람이라 면 당연히 배워야 함 (25.5)	가족들이 모두 한국어/ 조선어를 사용 (22.4)
	3순위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공에 필요 (12.7)	—	한국을 방문했을 때 즐거운 여행을 하기 위해 (27.0)	한국인이 라서 (16.7)	가족들과 의사소통 (14.3)	한국 문화 이해 (19.1)
	4순위	외국어 습득 (4.8)	—	한국 문화 이해 (22.5)	한국 문화 이해 (12.7)	한국 문화 이해 (7.3)	기타 ⁹⁵⁾ (14.7)
	5순위	장래에 한국에서 살 계획 (3.2)	—	—	외국어 학습 (6.5)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공에 필요 (5.4)	가족들과 의사소통 (8.6)
	6순위	취직이나 진학에 유리/한국 의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1.6)	—	—	취직에 유리 (4.9)	취직을 하거나 상급 학교에 갈 때 유리/기타 (3.2)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에 필요 (4.7)
	7순위	—	—	—	기타 (3.9)	장래에 한국에서 살 계획 (1.9)	취직이나 상급 학교 진학에 유리 (3.5)
	8순위	—	—	—	전공에 필요 (2.4)	외국어 습득 (1.3)	장래에 한국에서 살 계획 (1.5)
	9순위	—	—	—	장래에 한국에서 살 계획 (2.1)	—	—

94)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멕시코의 경우, ‘한국어 학습 동기 및 이유’ 항목을 따로 기술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95) 기타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의 권유나 교육 방침, 조선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정체성 확립, 주변 친구의 영향, 한류 붐 등이 있었다.

○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점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힘든 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교육 내용의 부실과 교육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꼽은 경우가 많았다. 한편 재일 동포의 경우는 학비의 부담을 어려운 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11.9%로 나타났는데, 재일 동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비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164>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점

(단위: %)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의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 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⁹⁶⁾	2016년 재일 동포
어려운 점	1순위	교육 내용의 부실 (14.3)	-	-	힘든 점 없음 (37.4)	힘든 점 없음 (35)	힘든 점 없음 (55.8)
	2순위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의 차이 나 이질감 (11.9)	-	-	교육 내용의 부실 (13.6)	교육 시설 부족 (20.5)	학비 부담 (11.9)
	3순위	수업료의 부담 (7.1)	-	-	기타 ⁹⁷⁾ (12.8)	교육 내용 부실 (13.7)	기타 ⁹⁸⁾ (9.6)
	4순위	교사의 지도 능력 부족 (4.8)	-	-	통학의 어려움 (11.0)	교사의 지도 능력 부족 (11.1)	통학의 어려움 (7.7)
	5순위	주변 사람들의 부 정 적 인 평 가 (2.4)	-	-	교사의 지도 능력 부족 (9.7)	기타 (6.8)	교육 시설의 부실 (6.1)
	6순위	-	-	-	교육 시설의 부족 (9.2)	학비 부담 (5.8)	교사의 지도 능력 부족 (3.2)
	7순위	-	-	-	주변 사람들의 부 정 적 인 평 가 (3.3)	통학의 어려움 (5.3)	주변 사람들의 부 정 적 인 평 가 (2.9)
	8순위	-	-	-	학비 부담 (2.8)	주변 사람들의 부 정 적 인 평 가 (1.6)	교육 내용의 부실 (2.7)

96)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멕시코의 경우,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점' 항목을 따로 기술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② 기타 동포어 학습 양상⁹⁹⁾

독립국가연합 동포의 경우, 고려말, 사할린 한국어 같은 동포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외한 동포어 학습 양상에 대한 조사가 따로 이루어졌다.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이 한국어를 배운 경험은 42.8% 정도였으며 학습 기간은 다양했지만 단기간 동안 학습한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학습 기관도 다양했는데¹⁰⁰⁾ 주로 학원과 한국어 교육원을 통해 한국어를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5> 독립국가연합 동포의 고려말/사할린 한국어 학습 양상

(단위: %)

	학습 경험		학습 기관		학습 기간		학습 동기 및 이유		어려운 점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응답 순위										
2013년 독립국 가연합 동포	없다 (51.4)	있다 (48.6)	학원 (30.9)	한국 어교 육원 (29.3)	10년 이상 (35.2)	2~4년 이내 (22.9)	가족 들이 다 고려 어를 했기 때문 에 (67.0)	고려 사람 이라 면 당연 한 일 (33.8)	힘든 점 없음 (70.1)	통학 의 어려 움 (11.0)

(2) 동포어 학습 계획

동포어 학습 계획에 대한 응답을 보면, 학습 가능성 여부에서 재미 동포의 경우는 ‘있다’와 ‘없다’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남미 동포의 경우는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2.7%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우고 싶은 이유에 있어서 독립국가연합은 조상의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순위로 민족의식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재미

97) 기타의 내용으로는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이 없다는 의견과 한국어 학습 동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학습 시간 부족이나 철자, 발음의 어려움 등 개인적인 문제점과 오래된 콘텐츠, 자신의 숙달도에 맞는 반을 찾기 어렵다는 점, 한국어 수업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98) 기타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발음, 남북언어 차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본인의 의지 부족 등이 있었다.

99) 2012년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에서는 설문지에 조선말 학습 양상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보고서에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 본고의 종합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00) 본고에서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의 한국어 학습 기관으로 학원과 한국어 교육원 외에 중·고등교육기관(25.3%), 대학(19.4%), 기타(16.7%)가 있었다.

동포의 경우는 가족 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순위인데, 이를 통해 가족 간에 대체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남미 동포의 경우는 독립국가연합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는 응답이 1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민족의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배우고 싶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재미 동포와 중남미 동포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한국어를 잘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재미 동포의 경우, 한국어를 배울 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16.5%를 차지하였는데, 재미 동포의 수요에 비해 한국어 전문 교육 기관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포어 학습 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희망 성취 수준에 대한 결과이다. 재미 동포와 중남미 동포들의 희망 성취 수준에 대해 전문 분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에 있어서 고급 단계까지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6> 동포어 학습 계획

(단위: %)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¹⁰¹⁾	2013년 독립국가 연합 동포 (고려말/사 할린 한국어)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¹⁰²⁾	2016년 재일 동포
학습 가능성 여부	1순위	—	—	—	있다 (45.0)	있다 (52.7)	—
	2순위	—	—	—	없다 (43.0)	없다 (31.2%)	—
	3순위				모르겠다 (12.0)	모르겠다 (10.3)	—

101) 2012년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에서는 설문지에 동포어 학습 계획에 대해 묻는 항목이 있었으나 보고서에서 그 결과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 본고에서도 제외하였다.

102)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멕시코의 경우, ‘한국어 학습 계획’ 항목을 따로 기술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배우고 싶은 이유	1순위	-	-	조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52.9)	가족 간 의사소통 (24.5)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배워야 함 (35.5)	-
	2순위	-	-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36.7)	한국 문화에 관심 (19.2)	가족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18.0)	-
	3순위	-	-	한국을 방문했을 때 좀 더 즐거운 여행을 위해 (27.0)	한국인으로서의 당위성 (18.8)	한국 문화에 관심 (12.7)	-
	4순위	-	-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22.5)	외국어로 배우기를 원함 (10.0)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전공에 필요 (9.1)	-
	5순위	-	-		취직 및 진학에 유리 (9.6)	취직이나 진학에 유리 (7.7)	-
배우고 싶지 않은 이유/ 배우지 않은 이유	1순위	-	-	-	의사소통에 문제 없음 (37.4)	이미 한국어를 잘함 (72.9)	-
	2순위	-	-	-	배울 생각 없음 (17.3)	한국어를 못해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 (13.2)	-
	3순위	-	-	-	한국어 배울 시설이 없음 (16.5)	영어를 잘해야 출세하고 성공 (3.9)	-
희망취준	1순위	-	-	-	전문 분야 내용 이해 가능 정도 (56.3)	전문 분야 내용 이해 가능 정도 (61)	-
	2순위	-	-	-	뉴스나 신문 이해 가능 정도 (25.3)	뉴스나 신문 이해 가능 정도 (25)	-
	3순위	-	-	-	일상적인 대화 가능 정도 (14.1)	일상적인 대화 가능 정도 (9)	-
	4순위	-	-	-	기초적인 대화 가능 정도 (1.1)	기초적인 대화 가능 정도 (2)	-

(3) 동포어 전승 의식

동포어 전승 의식은 자손을 동포어 학교에 보내고 싶은지 여부와 그 이유를 묻는 항목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자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이유에 대한 문항의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의식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세대로 갈수록 한국어 능력을 취직이나 진학에 필요한 실용적인 능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보인다.

한편, 독립국가연합은 동포어 학습 계획에서는 조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동포어 전승 의식에서 보내고 싶은 교육기관은 러시아/유치원/학교라는 응답이 1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이 다소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67> 동포어 전승 의식

(단위: %)

응답 순위	국가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 연합 동포 (고려말/ 사할린 한국어)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남미	멕시코	
동포어 교육 계획 유무	1 순위	-	-	-	한국어 학교에 보낸다 (94.3)	한국어 학교에 보낸다 (91.4)	한국어 학교에 보낸다 (96.0)	-
	2 순위	-	-	-	한국어 학교에 안 보낸다 (5.5)	한국어 학교에 안 보낸다 (5.1)	한국어 학교에 안 보낸다 (1.0)	-
보내고 싶은 교육 기관	1 순위	-	조선족 유치원이 나 학교 (65.8)	러시아 유치원/ 학교 (65.7)	-	-	-	-
	2 순위	-	한족 유치원이 나 학교 (25.2)	한국 유치원/ 학교 (28.4)	-	-	-	-
	3 순위	-	한국 유치원이 나 학교 (7.2)	현지 유치원/ 학교 (9.8)	-	-	-	-
기타 동포 학교에	1 순위	-	조선어를 잘해야 하니까	-	-	-	-	-

보내고 싶은 유			(84.0)					
	2 순위	-	취직, 돈벌이 (7.8)	-	-	-	-	-
	3 순위	-	교류나 생활이 유리해서 (3.0)	-	-	-	-	-
	4 순위		조선족 학교가 더 잘 가르쳐서 (1.9)	-	-	-	-	-
	5 순위		한족 학교가 없어서 (0.7)	-	-	-	-	-
거주 지역에 보내고 싶은 유	1 순위	-	한족 학교가 조선족 학교보다 더 잘 가르쳐서 (33.6)	현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60.3)	-	-	-	-
	2 순위	-	사람을 사귀거나 생활하기에 유리해서 (25.3)	다른 학교에 비해 러시아 학교가 더 잘 가르치니까 (29.1)	-	-	-	-
	3 순위	-	주변에 조선족 유치원이 나 조선족 학교가 없어서 (15.0)	취직이나 돈을 잘 벌기에 유리 (13.4)	-	-	-	-
	4 순위	-	조선말은 집에서 배우면 되니까 (13.2)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9.8)	-	-	-	-
	5 순위	-	한족 학교가 조선족 학교보다 더 잘 가르쳐서 (10.3)	-	-	-	-	-
한국어 교육 기관에 보내고 싶은 유	1 순위	-	-	한국인을 한국어를 잘해야 하니까 (63.3)	한국인을 한국어를 잘해야 하니까 (31.1)	한국인을 한국어를 잘해야 하니까 (37.0)	한국인을 한국어를 잘해야 하니까 (35.9)	-
	2 순위	-	-	다른 학교에서 잘	가족 간의 의사소통 (23.2)	가족 간의 의사소통 (21.0)	가족 간의 의사소통 (20.5)	-

				가르치니 까 (36.0)				
3 순위	-	-		취직이나 돈을 잘 벌기에 유리 (15.3)	미국에서 취직이나 성공에 유리 (15.9)	언어는 다양할수록 좋으니까 (19.9)	언어는 다양할수록 좋으니까 (15.8)	-
4 순위	-	-		현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10.2)	사람과의 교류 및 생활에 유리 (14.1)	사귄, 생활에 유리 (7.7)	한국에서 취직이나 성공에 유리 (10.7)	-
5 순위	-	-	-		한국에서 취직이나 성공에 유리 (11.9)	중남미 국가에서 취직이나 성공에 유리 (7.6)	중남미 국가에서 취직이나 성공에 유리 (7.7)	-
6 순위	-	-	-		-	한국에서 취직이나 성공에 유리 (5.1)	사귄, 생활에 유리 (7.3)	-

(4)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동포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는 독립국가연합 동포와 재미 동포, 중남미 동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선호하는 교육 방식, 선호하는 교사 및 교재, 수업의 만족도와 보완점 등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이 구성되었다.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남미 동포는 8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교육 관련 자격증이 있는 전문 교사를 원했으며, 의사소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수업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독립국가연합에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아마도 전문적인 교육 기관 및 교사, 그리고 교재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수업 및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사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대체로 시청각 자료와 한국어 교재, 그리고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68>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단위: %)

응답 순위	국가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 합 동포 (고려말/ 사할린 한국어)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남미	멕시코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1 순위	-	-	-	-	매우 필요하다 (53.0)	매우 필요하다 (56.0)	-
	2 순위	-	-	-	-	필요하다 (36.0)	필요하다 (33.0)	-
	3 순위	-	-	-	-	보통이다 (10.0)	보통이다 (10.0)	-
	4 순위	-	-	-	-	필요없다 (1.0)	전혀 필요 없다 (1.0)	-
	5 순위	-	-	-	-	전혀 필요없다 (0.0)	필요 없다 (0.0)	-
선호하 는 한국어 수업/ 방식/ 교육 형태	1 순위	-	-	기자재이 용 (43.2)	-	정부 지원 기관 (41.0)	정부 지원 기관 (61.0)	-
	2 순위	-	-	자료 제시-그 림이나 사진 자료 (36.6)	-	민간 한글 학교 (23.0)	민간 한글 학교 (14.0)	-
	3 순위	-	-	실습실 이용 (24.5)	-	거주국 학력 인증기관 (16.0)	사설 교육 (11.0)	-
	4 순위	-	-	예문 제시 (23.7)	-	사설 교육 (7.0)	거주국 학력인증 기관 (8.0)	-
	5 순위	-	-	-	-	독학 (1.5)	독학 (1.0)	-
선호하 는 한국어 교사	1 순위	-	-	-	-	거주국 언어로 능숙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 (35.8)	한국어 교육 관련 학위나 자격증이 있는 전문 교사 (40.0)	-
	2 순위	-	-	-	-	한국어 교육 관련 학위나 자격증이 있는 전문 교사 (30.5)	한국에서 오래 거주했고 한국 문화 경험이 많은 교사 (28.0)	-

	3 순위	-	-	-	-	한국에서 오래 거주했고 한국 문화 경험이 많은 교사 (18.1)	거주국 언어로 능숙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 (25.0)	-
선호하 는 교재 및 교육 자료 유형	1 순위	-	-	-	-	거주국 언어로 번역된 교재 (26.8)	의사소통 위주의 교재/어휘 나 문법 교재 (25.4)	-
	2 순위	-	-	-	-	의사소통 위주의 교재 (22.9)	쓰기나 읽기 중심 교재 (21.5)	-
	3 순위	-	-	-	-	어휘나 문법 교재 (18.3)	거주국 언어로 번역된 교재 (15.1)	-
	4 순위	-	-	-	-	쓰기나 읽기 중심 교재 (17.5)	드라마, K-pop 문화 교재 (8.3)	-
	5 순위	-	-	-	-	드라마, K-pop 문화 교재 (8.9)	한국어 사전 (3.9)	-
	6 순위	-	-	-	-	한국어 사전 (4.0)	-	-
교재의 번역 여부		-	-	번역되어 있다 (60.4)	-	-	-	-
		-	-	그렇지 않다 (39.6)	-	-	-	-
사용한 사전의 유형		-	-	한국어- 러시아어 사전 (69.4)	-	-	-	-
		-	-	러시아어- 한국어 사전 (67.0)	-	-	-	-
		-	-	한국어- 한국어사 전 (10.3)	-	-	-	-
수업의 만족도	1 순위	-	-	불만족스 럽다 (34.8)	보통이다 (42.6)	보통 (55.5)	-	-
	2 순위	-	-	보통이다 (24.6)	만족 (31.7)	만족 (26.5)	-	-
	3 순위	-	-	만족스럽 다 (23.2)	매우 만족 (16.6)	매우 만족 (9.7)	-	-

	4 순위	-	-	매우 불만족스 럽다 (15.8)	불만족 (7.8)	불만족 (6.5)	-	-
	5 순위	-	-	매우 만족스 럽다 (1.7)	매우 불만족 (1.26)	매우 불만족 (1.9)	-	-
수업의 정보 및 한국어 교육에 가장 필요한 지원	1 순위	-	-	한국어 학습용 사전 (28.7)	전문적인 교사 (24.9)	전문 교사 양성 (31.4)	전문 교사 양성 (35.0)	-
	2 순위	-	-	시청각 수업을 위한 기자재 (27.5)	한국어 교재 및 부교재 (20.8)	교육 기관 설립 (23.2)	교육 기관 설립 (33.0)	-
	3 순위	-	-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26.3)	한국어 문화 자료 (17.0)	교재 및 교육자료 (20.1)	교재 및 교육자료 (16.0)	-
	4 순위	-	-	전문성을 갖춘 교사 (22.9)	시청각 수업을 위한 기자재 (14.9)	한국 방문 교육 지원 (8.4)	한국 방문 교육 지원 (7.0)	-
	5 순위	-	-	-	한국어 학습용 사전 (6.2)	-	-	-

5) 민족 정체성

이주 역사에 대한 인식, 민족 역사 학습 여부,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 교류 대상, 한국에 대한 태도, 한국 사람에 대한 느낌 등의 항목을 통해 재외 동포의 민족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다.

<표 169> 민족 정체성 영역의 문항 종합

국가별 조사 내용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 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이주 역사		-	-	0	-	-	0
한민족 역사 학습 여부		-	-	0	-	-	0
집안에 남아 있는 한민족 문화 ¹⁰³⁾		-	-	0	-	-	0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		0	-	0	0	0	0
국민 정체성에 대한 인식		-	-	0	0	-	0
동포와 교류 빈도		0	-	-	-	-	-
교류 대상	직업적	0	-	-	0	-	-
	사교적		-	-	0	-	-
	종교적		-	-	0	-	-
한국에 대한 태도		-	-	0	-	-	-
한국에 대한 느낌 (긍정, 부정)		-	-	0	-	-	-
한국 사람에 대한 느낌 (긍정, 부정)		-	-	0	-	-	-

(1) 이주 역사에 대한 인식

동포들의 이주 역사에 대한 인식 조사는 독립국가연합 동포와 재일 동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의 경우 고려인 이주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7.3%였고, 재일 동포들의 경우 이주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9%였다. 따라서 두 지역의 동포 모두 대체로 이주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3) 이 문항은 서술형 문항이기 때문에 본고의 설문 문항 종합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170> 이주 역사에 대한 인식

(단위: %)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	-	안다 (77.3)	-	-	이주 역사를 알고 있다 (74.9)
2순위	-	-	모른다 (22.7)	-	-	알고 있지 않다 (22.8)
3순위	-	-	-	-	-	모름/무응 답 (2.3)

(2) 한민족 역사에 대한 학습 경험

한민족 역사에 대한 학습 경험에 대해서도 독립국가연합 동포와 재일 동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한민족 역사에 대해 재일 동포의 경우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9%로 높은 반면, 독립국가연합 동포의 경우 절반 정도인 51%가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독립국가연합의 응답 비율도 적은 편은 아니지만, 재일 동포보다 한민족 역사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171> 한민족 역사에 대한 학습 경험

(단위: %)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1순위	-	-	배운적이 있다 (51)	-	-	배운적이 있다 (73.9)
2순위	-	-	배운적이 없다 (49)	-	-	배운적이 없다 (24.4)
3순위	-	-	-	-	-	모름/무응 답 (1.7)

(3)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재중 동포를 제외한 모든 동포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¹⁰⁴⁾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독립국가연합동포, 재미 동포, 재일 동포를 대상으로 거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재외 동포들은 전반적으로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높고 문화를 계승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민족 정체성에 비해 한국어 사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부분 높은 점수를 주며 동의했다. 그렇지만 한인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한민족 배경에 대해 잘 아는 것에는 보통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즉,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의 한민족 정체성은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의 국민 정체성의 경우, 소속감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민족 정체성에 비해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재미 동포의 한국적 성향과 미국적 성향을 비교해 본 결과, 영어를 하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과 다양한 커뮤니티 안에서 사는 것이 좋다는 항목만 미국적 성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적 성향의 점수가 높았다. 이를 통해 재미 동포들은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미국인과 어울려 살아가려 하고 사회생활을 위하여 영어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중남미 동포들 역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만, 민족 정체성에 비해 ‘거주국 언어만 하는 친구들은 한국어를 하는 나를 부러워한다’나 ‘한국어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언어이다’와 같이 언어 정체성을 묻는 질문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한국어 사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거주국 언어에 비해 적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재일 동포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민족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민족 정체성을 타인에게 쉽게 드러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민족

104) 2011년 <국의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에서도 동포들의 민족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으로 한국식 성과 일본식 성 사용 의식, 스포츠 경기 응원팀, 재일 한국인의 차세대 결혼관 등을 포함시켰지만 다른 보고서와 상이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에 본고의 종합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에게 배타적인 일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72>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

(단위: 5점 척도 평균값)

국가별 응답 순위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¹⁰⁵⁾	2016년 재일 동포	
	한민족 정체성	국민 정체성	한국적 성향	미국적 성향	한국인으로 서의 정체성	한민족 정체성	일본인 정체성
1순위	나는 한민족의 후손이라 는 것이 자랑스럽 다 (4.57)	나는 자국의 국민이라 는 것이 자랑스럽 다 (4.23)	한국 음식이 좋다 (4.52)	영어를 하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도움이 된다 (4.65)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4.84)	재일 동포 공동체 유지 (4.17)	나는 일본의 역사, 전통, 관습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다 (3.13)
2순위	나는 고려인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40)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국어를 배우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21)	다른 사람이 한국인을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다 (4.50)	다양한 민족 커뮤니티 속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92)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4.77)	문화 계승 (4.16)	나는 일본 국민이라 는 것이 자랑스럽 다 (2.55)
3순위	나는 한민족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4. 11)	자국에는 모든 민족성 을 아우르는 공통의 국민정체 성과 국민문화 가 있다(3.9 2)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 다/다른 한국인들 과 어울린다 (4.29)	미국 음식이 좋다 (3.54)	한국어를 좋아한다 (4.71)	조국 방문 희망 (4.10)	나는 일본 국민이라 고 느낀다 (2.19)
4순위	나는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다 (3.95)	나는 자국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3.88)	한국어를 아는 것이 사회적 성공에 도움이 된다 (3.97)	미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거 본다 (3.50)	한국 전통문 화를 계승해야 한다 (4.51)	한민족/조 선민족의 후손이라 서 자랑스러 움 (4.01)	-
5순위	나는 다른 사람들에 게 한반도와 한민족에	나는 자국의 역사, 전통, 관습에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거 본다 (3.80)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과 잘 어울린다 (3.45)	한인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4.50)	동포 역사를 알기 위해 노력 (3.83)	-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3.49)	대해 알고 노력한다. (3.86)					
6순위	나는 주로 한인들로 구성된 단체에 활발히 참여한다 (3.14)	나와 같은 소수민족은 자국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3.83)	한국 이름으로 불리는데 좋다 (3.76)	미국 음악을 즐겨 듣는다 (3.36)	다른 한국인들과 잘 어울린다 (4.46)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에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3.38)	-
7순위	나는 한민족 배경에 잘 안다 (3.08)	나는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잘 안다 (3.64)	한국 전통 문화를 지킨다 (3.75)	미국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32)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겨 본다 (4.30)	나는 민족 단체에 활발히 참여한다 (3.14)	-
8순위	-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국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3.62)	한국 음악을 즐겨 듣는다 (3.53)	다른 사람이 미국인을 무시하면 기분이 나쁘다(3.28)	한글로 읽고 쓰기는 배우기가 쉽다 (4.08)	나는 민족 역사에 대해 잘 안다 (3.03)	-
9순위	-	-	한국인들은 한국인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02)	미국 전통 문화 대부분을 지킨다(3.19)	한국 음악을 즐겨 듣는다 (4.0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2.96)	-
10순위	-	-	-	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미국 이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8)	거주국 언어만 하는 친구들은 한국어를 하나를 부러워한다 (3.75)	-	-
11순위	-	-	-	-	한국어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언어다 (3.52)	-	-

105)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멕시코의 경우,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 항목을 따로 기술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4) 교류 대상 및 빈도

동포들이 주로 교류하는 대상과 동포와의 교류 빈도에 대한 조사는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와 2014년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에서 이루어졌다.¹⁰⁶⁾

재미 동포의 경우, ‘당신은 다음의 상황에서 주로 어떤 사람과 교류합니까?’라는 질문 중에서 먼저 직업적으로 일을 할 때 주로 어떤 사람과 교류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주로 미국인과 교류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주로 한인과 교류한다는 응답의 약 세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미 동포들은 직업적 상황에서 주로 한인보다는 미국인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적인 상황에서는 응답자의 약 57%가 주로 한인과 교류하거나 한인과의 교류가 더 많다고 하였다. 주로 미국인과 교류하거나 미국인과의 교류가 더 많다고 한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적 교류와는 반대로 사교적 교류에 있어서는 주로 한인들 간의 교류가 더 많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종교적 상황에서 주로 누구와 교류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주로 한인과 교류한다는 응답과 한인과의 교류가 많다는 응답이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반면 주로 미국인과 교류하거나 미국인과의 교류가 많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이를 통해 재미 동포 사회에서 종교 활동이 주로 한인들끼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6)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의 설문 항목에는 동포와의 교류 빈도 및 교류 대상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나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제시하지 않아 본고의 종합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173> 교류 대상 및 빈도

(단위: %)

2014년 재미 동포			
상황별 응답 순위	직업적 교류	사교적 교류	종교적 교류
1순위	주로 미국인과 교류 (33.0)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29.3)	주로 한인과 교류 (52.4)
2순위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16.2)	주로 한인과 교류 (25.7)	한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미국인과의도 교류 (17.2)
3순위	반반 (16.1)	반반 (23.2)	해당 없음 (10.9)
4순위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15.2)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12.6)	반반 (8.9)
5순위	주로 한인과 교류 (11.1)	주로 미국인과 교류 (6.1)	주로 미국인과 교류 (4.7)
6순위	해당 없음 (4.9)	해당 없음 (0.7)	미국인과 교류 많지만 가끔 한국인과의도 교류 (4.1)

(5)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은 독립국가연합 동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국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에서는 연령이나 생애주기에 따라 응답자와 관련이 적은 문항들이 있어서 문항의 내용에 따라 해석을 개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보통 이상의 관심과 호감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배우자로 한국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한국과 관련성 있는 직업을 갖기를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이유는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이 이미 러시아 문화와 중앙아시아 국민으로 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모에 비교해서 본인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것은 비록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도 한국에 대한 지식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일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느낌’에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친

밀감을 갖는 정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한국 사람에 대한 느낌’에서도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여기서도 한국 사람에 대한 친밀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74>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

(단위: 5점 척도 평균)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인식 응답 순위	한국에 대한 태도	한국에 대한 느낌	한국 사람에 대한 느낌
1순위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4.59)	한국은 능력이 있다 (4.76)	한국 사람은 활동적이다 (4.70)
2순위	한국에 있는 내 나이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싶다 (4.14)	한국은 활동적이다 (4.75)	한국 사람은 능력이 있다 (4.67)
3순위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더 유리할 것이다 (3.74)	한국은 좋다 (4.64)	한국 사람은 좋다 (4.33)
4순위	향후 2~3년 내에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 (3.71)	한국은 친밀하다 (4.35)	한국 사람은 친밀하다 (4.24)
5순위	한국 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다 (3.52)	—	—
6순위	나는 나의 부모님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2.93)	—	—
7순위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할 계획이다 (2.60)	—	—
8순위	한국과 관련성 있는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다 (2.52)	—	—
9순위	나는 배우자로 한국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2.00)	—	—

6)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 영역에서는 한국 방문 경험, 한국 방문 횟수 및 빈도, 한국 체류 기간, 한국 방송 매체 접촉 빈도 및 시간·경로·느낌, 선

호하는 한국 방송 등을 통해 재외 동포의 한국어에 대한 노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표 175>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 영역의 문항 종합

조사 내용 \ 국가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 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한국 방문 경험	0	0	0	0	0	0
한국 방문 횟수 및 빈도	0	0		0	0	0
체류 기간	-	0	-	0	0	0
한국 방송 매체 접촉 빈도 및 시간	-	0	0	0	0	0
한국 방송 및 매체 접촉 경로	-	-	0	-	-	0
한국 방송 및 매체에 대한 느낌	-	-	0	-	-	0
가장 선호하는 한국 방송 프로그램 유형	-	0	-	0	0	0

(1) 한국 방문 경험 양상

재중 동포의 경우, 조사 대상자에 학교를 다니는 젊은 세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아직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한국과 문화·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재중 동포의 신흥 집거지가 된 칭다오 지역 재중 동포의 한국 방문이 가장 많았다. 독립국가연합 동포들 중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16.4%에 불과했다. 이는 여러 제약 조건들(비용, 비자, 연령, 연결망 등)로 인해 실제로 한국에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재미 동포들은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많았으며, 최근 5년간 방문한 비율도 70%에 이르고, 최근 5년간 5회 이상 방문한 비율도 10%에 가깝다.¹⁰⁷⁾ 중남미 동포들도 한국 방문 경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1회·2회·3회 방문 횟수 비율을 합치면 약 50%에 가까워¹⁰⁸⁾ 재미 동포에 비해서 방문 횟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재일 동포도 역시 방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86.4%였다. 또한 최

107) 재미 동포들의 최근 5년간 방문 횟수를 분석해 보면, '1회(29.1%)>방문 없음(28.7%)>2회(16.6%)>3회(9.7%)>5회 이상(9.5%)>4회(5.5%)'의 비율로 나타났다.

108) 중남미 동포들의 방문 횟수는 1회가 20.2%로 가장 높으며, 2회가 14.6%로 그 다음이고, 3회 방문 횟수 비율은 14.4%이다.

근 5년간 5회 이상 방문한 비율도 31.9%나 되었으며, 이들은 거의 매년 한국에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방문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수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체류 기간을 살펴보면 재중 동포의 경우 방문한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에는 단기 체류가 많았다. 재일 동포의 경우 최근 5년간의 체류 기간을 조사하였는데, 역시 방문한 적 없다고 응답하거나 무응답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의 체류의 비율이 높았다.

<표 176> 한국 방문 경험 양상

(단위: %)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¹⁰⁹⁾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 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¹¹⁰⁾	2016년 재일 동포
한국 방문 경험/ 방문 횟수 및 빈도	1순위	—	없음 (47.2)	없음 (83.6)	있음 (88.9)	있음 (79.4)	있음 (86.4)
	2순위	—	1회(21.9)	있음 (16.4)	없음 (10.8)	없음 (18.6)	없음 (11.4)
	3순위	—	2회(12.4)	—	—	—	—
	4순위	—	11회 이상 (14.5)	—	—	—	—
	5순위	—	6~10회 (4.0)	—	—	—	—
한국 체류 기간 (재일 동포-최근 5년간 한국 체류 기간)	1순위	—	없음 (46.5)	—	—	—	방문한적 없음/ 무응답 (47.5)
	2순위	—	1개월~ 1년 (21.1)	—	—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8.4)
	3순위	—	1개월 이하 (16.2)	—	—	—	1개월 이하 (19.1)
	4순위	—	1년~5년 (11.8)	—	—	—	1년 이상 (2.7)
	5순위	—	5년~10년 (3.8)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2.3)
	6순위	—	11년 이상 (0.5)	—	—	—	—

109) 2011년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의 설문지에는 한국 방문 경험 및 빈도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보고서에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 본고의 종합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10)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멕시코의 경우, ‘한국 방문 경험 양상’ 항목을 따로 기술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2) 한국 방송 시청 양상

재외 동포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방송을 시청하는 비율이 시청하지 않는 비율보다 높았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 예능·오락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중 동포들은 위성 방송을 통해 한국 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의 말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됨에 따라 언어 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방송을 보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그 비율이 27.1%에 불과해 많은 재중 동포들이 한국 방송을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은 뉴스를 청취하는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았다. 뉴스보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았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 대해 재미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의 비율이 90.4%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한편, 뉴스를 청취하는 응답자들 가운데 뉴스를 접하는 가장 빈번한 방법은 TV를 통해서였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뉴스를 접했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한국 뉴스를 청취하는 방법이 확연하게 달랐는데 10대~20대는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시청했고, 70대 이상은 주로 TV를 통해서 시청했다.

미주 지역은 한인 언론 매체를 통해 한국 방송을 접할 수 있는 다채널 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양적인 성장을 이룬 상태이다. 그러므로 한국 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재미 동포는 한국 방송을 시청하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접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드라마나 예능 오락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고 있다.

중남미 동포들은 인터넷 발달로 인해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 방송을 접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동포들이 매일 한국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북미 지역은 자체 방송국이 있는 곳도 있고 TV를 통해 방송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오히려 인터넷 방송을 보는 비율이 낮았는데, 남미 지역은 자체 방송국이 없어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보는 비율이 높았다.

재일 동포의 경우는 한국 방송을 안 본다는 응답이 33.4%였으나 그 외 76.6%의 재일 동포가 한국 방송을 시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드라마나 예능·오락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세대 동포와 70대 이상의 동포가 한국 방송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7> 한국 방송 시청 양상

(단위: %)

국가별 응답 순위		2011년 국외 동포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¹¹¹⁾	2016년 재일 동포
				뉴스	드라마			
한국 방송매체 접촉빈도 및 시간	1순위	—	안 봄(27.1)	전혀 안 듣는다 (39.4)	별로 안 본다 (29.3)	1시간 미만 (31.4)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6.0)	안 본다 (33.4)
	2순위	—	1시간 정도 (26.9)	별로 안 듣는다 (27.0)	전혀 안 듣는다 (22.1)	1~2시간 (27.0)	2~3시간 미만 (16.4)	1시간 미만 (29.0)
	3순위	—	2시간 정도 (21.2)	일주일에 1~2회 (20.0)	일주일에 1~2회 (21.4)	안 본다 (20.9)	3시간 이상 (13.9)	1~2시간 (20.4)
	4순위	—	4시간 이상 (13.8)	일주일에 3~4회 (7.8)	매일 (16.2)	2~3시간 (11.2)	안 본다 (13.6)	2~3시간 /3시간 이상 (7.3)
	5순위	—	3시간 이상 (10.9)	매일 (5.7)	일주일에 3~4회 (11.0)	3시간 이상 (8.3)	—	—
선 하 는 국 방 송 유 형	1순위	—	영화, 드라마 (54.0)	—	—	드라마 (35.3)	예능, 오락 (33.0)	드라마 (49.1)
	2순위	—	연예, 오락 (18.8)	—	—	예능, 오락 (32.5)	드라마 (23.4)	예능·오 락 (19.9)
	3순위	—	보도, 뉴스 (15.1)	—	—	뉴스 (16.9)	뉴스 (17.6)	뉴스 (19.2)
	4순위	—	시사교양 (1.8)	—	—	시사교양 (7.8)	시사교양 (14.4)	시사·교 양 (4.8)
	5순위	—	스포츠 (1.6)	—	—	스포츠 (3.8)	스포츠(4 .7)	스포츠 (4.5)
	6순위	—	기타 (8.8)	—	—	기타 (3.8)	기타 (1.9)	기타 (1.9)

111) 2015년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멕시코의 경우, ‘한국 방송 시청 양상’ 항목을 따로 기술하지 않아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3.2. 언어 변종 조사 내용 종합 및 분석

3.2.1. 언어 변종 조사 질문지 구성 종합

2011-16년 연구의 질문지 구성 분석을 통해 조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질문지는 자유 발화 수집을 목적으로 한 자유 주제에 대한 질문과 어휘, 문법, 의미, 음운 영역에서의 변종 수집을 목적으로 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정리하면 <표 178>과 같다. 빈칸의 경우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다른 질문들에 대한 응답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조사하였다.

<표 178>언어 변종 조사 질문지 구성 종합

국가별 조사 내용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 호칭어 • 농사 관련 • 전자 제품 등 생활 도구 관련 • 일상생활 관련 • 한국말 어휘 • 자체 변종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척/호칭 관련 • 명절 관련 • 음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어휘 • 호칭어, 친족어 • 돈을 세는 단위, 영어 고유 명사 사용 •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어휘 (의류, 음식, 주거 관련) • 전문 어휘 • 언어 문화 • 호칭어 (호칭어, 지칭어) • 금액/화폐 관련 어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족 관련 • 세시풍속 • 음식 및 식재료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어말어미 ‘-겠-’, ‘-았/었’ • 부정문, 부정부사 • 대격중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형, 의문형 종결어미 • 부정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사적 변이형(부정 의문문, 수식어 및 수량(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 표현 • 사동 표현 • 피동 표현
음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운 변이형(발음에 대한 자가 인식, 문장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운 (피조사자의 자연발화와 한국어와의 대조)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의 의미 (군중, 장악, 애인) 	—	—	—	—
상황 맥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른 변이형(병원, 시장) 	—

3.2.2. 한국어 변종 종합 및 분석

3.2.2.1. 어휘 영역 언어 변종 종합 분석

한국어 어휘 변종의 종합은 중국, 독립국가연합, 미국, 일본 지역에서 조사된 변종 어휘들을 크게 체언, 용언, 수식언으로 구분하여 종합의 대상으로 하였다.¹¹²⁾ 재외 동포 사회에서 쓰이는 한국어의 변이 형태는 현대 한국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옛말이나 방언 그리고 현지어의 영향을 받은 혼종어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재외 동포 집단이 이주민으로서 모국과 시간과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그들만의 사회 속에서 언어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 현지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비중이 줄어들어 따라 현대 한국어 표준 문법 규칙을 벗어난 점 등을 알 수 있다.

1) 체언류

체언류는 다시 명사류, 대명사류로 나누어 제시한다.

(1) 명사류

명사류는 다시 친족 어휘, 명절 및 기념일, 음식 및 식재료, 일반 사물 명사, 기타 명사로 나누어 제시한다.

① 친족 어휘

친족 어휘는 혈연이나 또는 혼인에 의한 가족 간의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민족의 경우에는 이러한 친족 어휘가 발달되어 세분화되어 있는데 재외 동포 실태 조사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발견되는 친족 어휘는 대개 선대로부터 사용되어 온 ‘아재, 아주매, 오라바이’ 등과 같은 방언형과 방언 변이형들이 전승되어 온 것이 대부분이지만 ‘브라트, 파파, 마마’ 등과 같은 현지어가 차용된 경우도 있다. 아래의 예들은 표준어형에 해당하는 현지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을 제시한 것이다.

112) 1. 중남미 지역은 외국어 변이형을 제시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2. 제시 방법은 중국:(중), 러시아:(러), 우즈베키스탄:(우), 카자흐스탄:(카), 미국:(미), 일본:(일)로 각각 제시한다.

고모, 작은할머니: 아재(우,카), 아주매(카)
 고모(아버지의 누나): 고모(중), 큰고모(중), 고무(중), 맏아매(중), 몰아매(중), 큰어매(중), 큰엄매(중)
 고모(아버지의 여동생): 애자(중), 고모(중,일), 고무(중,일)
 고모부: 고무부(일)
 남동생: 난동생(일), 난동생(일), 남돈생(일), 남동상(러), 남동생(일), 남동생(러,일), 남자동상(러), 남자동생(우), 브라트(우), 오라바이(우), 오래비(우), 오래비들이(우)
 남자아이: 서스나(우,카)
 남자형제: 오라방(우), 오라바이(우)
 남편: 남자이(우), 남재(카), 남재이(우,카), 남저(카), 남패이(러), 남패이(러), 남팬(러), 남팬(우), 남편이(우), 남편(러,우,카,일), 남푼(일), 영감(러), 남자(카),
 누나: 누나(러,일), 누님(일), 누비(우), 누이(우,러,일), 느비(우,카)
 늙은이: 노인(러), 느르근사람들(우), 늙은사람(러), 늙은이(러)
 동생: 돈생(일), 돈생(일), 동상(러,일), 동생(우,카,일), 동생이(러,우), 동생(러,우,카)
 딸: 따르(일), 따리(우), 딸(러,우,일), 딸내미(러)
 막내딸: 막내딸(러), 막내딸내미(러), 저르믄딸(우), 조끄만딸(카)
 맏누이: 맏누이(러)
 맏딸: 맏딸(러,우), 맏딸이(우), 큰딸(러), 큰딸래미(러)
 맏아들: 맏아들(우,카), 맏아들이(러), 큰아들(러),
 맏형: 맏해이(러), 맏행(러), 맏해이(러), 맏형님(러)
 며느리: 매누리(러,일), 매느리(러,일), 메느리(카,일), 며느리(우,일), 메누리(카), 메느리(러), 묘누리(일)
 부모: 부모(러,우,카), 어시(러,우,카)
 부인, 아내: 부인(러,우,카), 아주마이(러), 아주머이(러), 아줌마이(러), 안까이(우), 양카(러)
 사돈: 사돈(러), 사돈(카)
 사촌: 사촌(일), 사추이(우), 사춘(우,카)
 삼촌: 삼추이(우), 삼촌(러)
 손녀: 손냐(러), 손네(러,우), 손녀(러,일), 손네(러,카), 손뇨(일)
 손자, 손주: 손자(러,우,일), 손재(러,우,카), 손지(우), 송구(러), 송균(러,카)
 시누이: 그누비(카), 스늬(카), 시누비(우), 시누부(일), 시누이(일), 시애기

(우)

시부모: 시부모(일)

시아버지: 새애비(카), 시아바이(러,우,카), 시아버님(러), 시아버지(우,일),
시아보지(일), 시애비(우,카), 아버님(일), 아버지(일), 아보지(일),
아보님(일)

시어머니: 새미(우), 새애미(카), 시애미(우,카), 시어마이(러,우,카), 시어머
니(우,일), 시어머님(러), 시엄마이(우), 시오모니(일), 어머니(일),
어머님(일), 오모니(일), 오모님(일)

시할머니: 시할머니(일), 시할모니(일), 시함매(일)

신랑: 서방(카), 서방자(우), 서방자이(우), 신랑(러), 신랑(러)

신부: 새기(러,우), 새아가(우), 새애기(카), 섹시(러), 신부(러), 아가씨(우),
안까이(우)

아들: 아들(일), 아드리(카), 아들(러,우,카,일), 아들이(러)

아빠: 로빠(중), 빠(중), 빠바(중), 빠빠(중), 아바지(중), 아버지(중), 아부
지(중), 아빠(중)

아버지: 부친(러), 빠(중), 빠빠(중,카), 아바디(중), 아바이(러,우), 아바지
(중,러), 아버지(중,러,우,일), 아보지(일), 아부지(중,러,우,카,일), 아
빠(중,일), 아비(우), 파파(러), Papa(우)

아이: 아:(우,카), 아이(러,우,카)

아저씨: 아주바이(우), 아주번(우)

아주머니: 아주먼(우)

어머니: 마마(중,러,카), 아매(우), 애미(우), 어마(중), 어마니(중), 어마이
(러,카), 어머니(중,러,우,카,일), 어머이(중,러,우), 어메(러), 어모니
(일), 엄마(중,러,일), 엄마이(러,우), 엄매(중,러), 옴마(중,일),
Mama(우)

언니: 내위(우), 서애(우), 서외(우), 성:(카), 어이(러), 언니(러,카,일), 언
예(러), 온니(일), 해(러), 허이(러), 형님(러), 해(우,카), 헤이(우),
행님(우), 헐이(우), 형(카), 형님(우), 형이(우)

여동생: 녀동생(일), 여돈샌(일), 여돈생(일), 여동상(러), 여동새(카,일), 여
동생(러,카)

여자아이: 새(러), 새가(우), 새기(우), 새아기(우)

오빠: 만오빠(우), 오라바이(우), 오래비(우,카), 오빠(러,우,일)

올케: 올케(일)

이모: 이모(일)

이모부: 이모부(일)
 외삼촌: 삼촌(일), 아재(일), 외삼촌(일), 왜삼촌(일), 왜숙부(일)
 외숙모: 숙모(일), 아주마이(일), 아지매(일), 외숙모(일), 왜숙모(일)
 외아들: 독자아들(러), 독재아들(카)
 외할머니: 외할미(우), 외한매(일), 외할머니(일), 왜할모니(일), 할머니(일), 할모니(일), 함매(일)
 외할아버지: 외할배(일), 외할아버지(우,일), 왜할아보지(일), 할배(일), 할아버지(일), 할아보지(일)
 자식: 자석(우), 자숙(카), 자식(우)
 작은아들: 저르른아들(우)
 작은아버지: 삼촌(일), 삼촌(일), 작은아보지(일), 작은아버지(일), 작은아재(일)
 작은어머니: 차군매(일), 작은오모니(일), 작은옴마(일), 작은아지매(일), 작은어머니(일), 작은엄마(일)
 장남: 잔난(일), 장난(일), 장남(일)
 장녀: 장녀(일), 장뇨(일)
 장모: 장모(일)
 장모님: 가스어마이(카)
 장손: 장손(일)
 장인: 장인(일)
 장인어른: 가스아바이(카)
 조부모: 조부모(일)
 조카: 조카(러,일), 조캐(우)
 증손: 증소(러), 증소이(러,우), 증손(러,우), 증손이(러)
 증손자: 고손자(러), 증송구이(러)
 친구: 동무(러), 동미(러,우,카), 동지(우), 친구(러,우,카)
 친척: 친척기(우), 친척(러,우,카,일), 친척이(우), 친축(일), 칭척(일)
 큰아버지: 맏아바이(우), 큰아버지(일), 큰아재(일), 큰아버지(일)
 큰어머니: 맏아매(우), 큰어머니(일), 큰엄마(일), 큰오매(일), 큰옴마(일), 큰오모니(일)
 할아버지: 아바니(중), 아바이(중,우), 커바지(중), 켄어메(중), 큰아배(중), 큰아버지(중), 클바지(중), 클아바니(중), 클아바이(카), 클아바지(중), 한아바이(카), 한아버지(우), 한애비(우), 할바이(중), 할방(일), 할배(중,일), 할아바지(중,카), 할아버지(중,러,우,일), 할아보지(일),

할아버지(중,카)
 할머니: 아매(중,우,카), 켄어매(중), 큰아매(중), 클마니(중), 하르머니(우),
 한어머니(우), 할마시(러), 할마이(중), 할망(일), 할매(중,우), 할머니(중,러,우,카,일), 할머니(중), 할머니(일), 할미(러), 함매(중,일),
 함머이(중)
 형: 브라트(러), 형님(러), 헤이(우), 행(러), 현님(일), 형(러,우,일),
 형님(카,일), 흥님(일)
 형수: 형수(일)
 형제: 현제(일), 형제(일), 혼제(일)

② 명절 및 기념일

명절 및 기념일 관련 어휘는 한민족이 전통적으로 계승해 온 고유의 문화의 산물이며, 한민족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절 및 기념일 관련 어휘는 특히 현지어로 대치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대부분 원형 그대로 사용되는데 ‘멩절, 생진, 지사’ 등과 같은 다양한 방언형과 방언 변이형들이 발견되었다. 다만 동포들의 현지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명절 및 기념일은 점점 그 쓰임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결혼식: 결혼식(일), 혼례(일)
 단오: 단오(우,카), 단이(우), 오월단애(우)
 돌: 돌(러,우), 돌생지(우), 돌시(카), 돌식(러), 아:생지(우), 아:산지(우),
 아생진(러)
 돌잔치: 돌잔치(일)
 명절: 멩절(러), 멘절이(우), 멩절(우), 멩질(카), 먼절(일), 멩절(러,일),
 문줄(일)
 백일: 백날(러,카), 백일(러)
 성묘: 성묘(일)
 성인식: 성인식(일)
 세배: 세배(일)
 새해: 새해(러,우)
 생일: 생긴(러), 생일(러), 생지(우,카), 생진(러), 생진(우,카), 생진날(우)
 설: 설날(우), 설(러,우,카), 설날(우,카)
 설날: 설(일), 설날(일), 정월초하루(일)

오월단오: 오월단에(우), 단오(카), 오월단이(우)
 정월대보름: 대보름(일)
 제사: 제사(일), 지사(일)
 추석: 추석(러,우,카,일), 추석이(우), 추석이(우), 추석(러), 한가위(일)
 한식: 한서기(우), 한색이(우), 한식(우,카)
 환갑: 환갑이(러), 한가브(우), 한갑(우,일), 한갑이(우), 헨갑(우),
 한가비(카), 환갑(러,우,카,일)

③ 음식 및 식재료

음식 및 식재료 관련 어휘는 역시 한민족이 전통적으로 계승해온 고유의 문화의 산물이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이다. 여기서 발견되는 음식 및 식재료 어휘는 ‘가재미, 감재, 국시’ 등과 같이 대개 선대로부터 사용되어 온 방언형과 방언 변이형들이 전승되어 온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세대가 내려오면서 현지어로 대체될 수 없는 어휘는 그대로 사용되지만 현지어로 대체될 수 있는 어휘는 현지어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이 보였다. 이는 세대가 지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가루: 갈그(카), 갈글로(우), 갈기(우,카)
 가자미: 가재미(러)
 가지: 가지(러,우,일), 까지(카)
 가지반찬: 가지채(러,우), 까지채(카)
 간장: 간장(러,우,일), 간자이(우), 간재이(러), 지러이(우,카), 치러이(우),
 치레이(우)
 갈치: 가루치(일), 갈치(일)
 감: 감(일)
 감자: 감자(러,카,일), 감자이(우), 감저(러), 감재(우), 감지(카)
 감자반찬: 감자채(러,카), 감지채(우,카)
 계란: 계란(일)
 고구마: 고구마(일)
 고기: 고기(러,우,카)
 고등어: 고등어(일)
 고사리: 고사리(러,우)
 고사리반찬: 고사리채(우)

고수: 산채(우)
 고추: 고추(러,우,일), 고치(러,우,카,일), 꼬추(일)
 고추장: 고추잔(일), 고추장(일), 고치장(일)
 고춧가루: 고춧가루(일), 고치가루(일), 고치가르기(우), 고치카리(일),
 꼬춧가루(일)
 고추반찬: 고추채(우)
 곡식: 곡석(우), 곡식(카), 곡식이(우)
 곰탕: 곰탕(일)
 과일: 가실(우), 개실(우), 게실(러,카), 과일(러,우,카,일), 과실(러,일),
 패실(우,카)
 과자: 과자(일)
 구이: 구비(우)
 국: 국(러,우,일)
 국수: 국수(러,카), 국시(러,카)
 굴: 굴(러,카,일)
 기름: 기름(러,우,카), 기림(카)
 김치: 긴치(일), 김치(러,우,카,일), 킹치(일), 진치(일), 짐치(러,우,카,일)
 깍두기: 깍대기(러)
 깻잎: 깻잎(일)
 나물: 나물(일)
 다시마: 다시마(러)
 단것: 단거(우), 단것(러)
 달걀: 달걀(우,카), 달걀(러), 달가르(우)
 닭: 다르그(우), 달기(우,카), 달르그(우), 닭(러)
 닭고기: 닭고기(일), 달그고기(카), 닭고기(러,일)
 당근: 당근(일), 당근(일), 모르코비(러)
 대추: 대추(일)
 도라지반찬: 도라지채(우)
 도토리: 도토리(일), 돌토리(일)
 돼지고기: 대디고기(우), 대지고기(일), 더드고기(우), 돼지게기(러),
 돼지고기(러,카,일)
 된장: 댜장(일), 댜잔(일), 댜장(일)
 된장국: 댜장국(러), 북자이(러,우,카), 자이(우), 장(우), 코자이(우)
 두부: 두부(러,카,일), 두비(러), 드비(러,우,카)

딸기: 단딸기(우), 딸기(러)
 떡: 떡그(우,카), 떡(러,우,카,일), 떡이(우), 떡(일)
 라면: 라면(러,우)
 마늘: 마누리(우), 마늘(일), 마느르(우), 마늘(러,우,일)
 만두: 만두(러), 뽕세(우)
 먹이: 요(우)
 매주¹¹³⁾: 채기(우), 매지(우), 매질(러)
 멸치: 며르치(일), 멸치(일)
 명태: 맨태(일), 명태(일)
 무: 무(일), 무(일)
 목: 무기(우), 무끼(카), 목(러,일), 뭍(우)
 물: 무르(우), 물(우), 물이(러,우)
 물고기/생선: 물고기(러,우,카,일), 생선(러,일), 생손(일)
 미나리: 미나리(일)
 미역: 메기(우,카), 미역(러,일), 미욕(일)
 미역반찬: 매기채(우,카)
 미역국: 맥국(우), 미역국(러)
 반찬: 반찬(러), 채(우), 해(우), 해미(우,카)
 밤: 밤(일)
 밥: 맵(러), 밥(러,우), 밥이(우,카)
 배: 배(러,우,카,일)
 배추: 고레배채(우), 배차(러,카), 배채(우,카) 배채(러,우), 배추(러,우,카, 일)
 배추김치: 배채김치(카), 배채침치(우)
 벼: 베(카), 벼(우,카)
 복숭아: 복사(우), 복수아(우), 복숭아(러,일)
 부추: 부추(일), 염지(우), 전구지(일), 종구지(일)
 부추반찬: 염지채(우)
 부침개: 부침개(일), 찌짐(일), 치짐(일)
 불고기: 불고기(일)
 비빔밥: 비빔밥(일)
 빵: 빵(러,우)
 사과: 능금(우,카), 능금이(우), 사과(러,우,일)

113)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3: 160)”에는 ‘매주’로 되어 있으나, ‘메주’로 수정.

삭힌가자미: 식해(러,카)
 살구: 살구(러), 살기(우)
 상추: 상채(러), 상추(러)
 새우젓: 새베젓(러)
 소금: 소금(러,우,카,일)
 쇠고기: 쇠고기(우,카,일), 소고기(일)
 쇠고기탕: 쇠고기장물(우)
 수박: 수박(러,우,카,일), 수박이(우)
 숙주: 숙주(일)
 술: 수르(우), 수리(우), 술(러,우,카), 술이(우)
 시금치: 시금치(우), 시금치(일), 시꿈치(일)
 시래기: 시래기(일), 쓰래기(일)
 시래기(우거지)된장국: 시락작물(카), 시락장물(러), 시락장물이(카), 시락자
 무리(우), 시락자물(우), 시락자물이(우)
 시루떡: 시루떡(러), 시리떠그(우), 시리떡(러), 시리떡이(우)
 식혜: 단술(러)
 쌀: 쌀(러,우,일), 쌀이(러,우)
 양배추: 까다바이(중), 까다배(중), 까달바이(중), 까달배차(중), 까달배채
 (중), 까달배추(중), 까두배차(중), 까드바(중), 까드배(중), 까들배채
 (중), 까들배추(중), 다두배채(중), 다두차이(중), 다드배차(중), 다드
 배채(중), 다배추(중), 다투어채(중), 당배추(중), 대배채(중), 대지배
 채(중), 따다배(중), 따두배차(중), 따두배채(중), 따두차이(중), 따두
 채(중), 따드배채(중), 따떠우차이(중), 따또배채(중), 따또차이(중),
 따또채(중), 따터우차이(중), 양배차(중,러), 양배추(중,우)
 오이: 물외(우), 물이(우), 애(우), 오이(러), 왜(우), 외(러,우)
 오이반찬: 물이채(우), 외채(우)
 오이김치: 외김치(우)
 옥수수: 옥수구(우), 옥수기(우), 옥수수(러,우), 옥시(러)
 왕만두: 배고자(우), 배고재(카), 배고자(러), 뺨세(우), 뺨세(우)
 우영: 모우(러), 후키(러)
 음식: 음식(러,우,카), 음식(러,우), 음식(러,우)
 입쌀: 입쌀(우,카)
 장: 자이(우), 장(러,카), 장이(카)
 조기: 조구(일), 조기(일)

좁쌀: 조이쌀(우)
 증편: 증편이(카), 증편(러,카)
 차: 차이(러)
 찰떡: 차르떡이(우), 찰떠기(카), 찰떡(러,우,카), 찰떡이(러,우)
 찰떡구이: 굽이떡이(우)
 참기름: 참기름(일)
 참외: 참외(러,우,카)
 채소: 채소(러,우)
 콩: 코(우), 코이(우), 콩(러,우,카,일)
 콩나물: 치르구미(우), 콘나무르(일), 콘나물(일), 콩나물(러,일)
 콩나물반찬: 치르곰채(우), 치르곰채(우), 침곰채(우)
 탕/찌개/국: 자무리(우), 장물(러,우,카), 장물이(러)
 파: 루크(러), 파(러,우), 파이(카)
 팔: 열코이(우), 팔(러)
 팔죽: 오구래(우,카)
 포도: 포도(러,우,카)
 피망: 불가르까고추(우)
 호박: 호박(러,우,카,일), 호박이(우)
 호박반찬: 호박채(우)
 회: 해(우), 회(러,우,카,일)

④ 일반 사물 명사

일반 사물 명사 관련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이다. 여기서 발견되는 일반 사물 명사 어휘는 ‘가매, 가새’ 등과 같이 선대로부터 사용되어 온 방언형과 방언 변이형들이 전승되어 온 경우도 있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현지어로 대체되는 경향이 보인다. 특히 이주 후에 새롭게 생겨난 신문물과 관련된 어휘의 경우 이해 해당하는 현대 한국어 어휘보다는 현지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가마: 가매(우), 가마(일)
 가마술: 가매술(우), 가메(러)
 가위: 가새(우,카), 가샤(우), 가세(러)
 가위바위보: 가위돌보(중), 가위바위보(중), 가이바위보(중), 가이바이보

(중), 가이바이부(중), 가이뽀(중), 깡편체(중), 꿩지빠(중), 꿩찌과
(중), 돌가보(중), 목찍과(중), 비싸이하자(중), 원투쓰리한다(중), 장
가이싸이(중), 장개(중), 장개비기(중), 장개이썰이(중), 장괌보시
(중), 장경(중), 장깨보시(중), 장깨이뽕(중), 장괌세이(중), 장진세
(중), 장진짜자(중), 진공시츠(중)

경운기: 또락뜨(중), 뜨락또(중), 뜨락또르(중), 뜨락똥루(중), 소푸투라지
(중), 스푸투라지(중), 스푸트라지(중), 썬푸뎀라지(중), 썬푸지(중),
썬푸터라지(중), 썬푸튀라지(중), 썬푸트라지(중), 쏘푸(중), 쏘푸지
(중), 쏘푸토라지(중), 투라지(중), 툴라지(중), 튀라지(중)

노래방: 꺼팅(중), 노래방(중), 노랫방(중), 렌거팅(중), 런가방(중), 연가방
(중), 연가팅(중), 우팅(중), 카라오케(중), 칼로게(중), 커팅(중), 케
이티비(중)

냉장고: 냉동기(중), 냉장고(중), 냉장꼬(중), 텐뽕상(중), 뽕장고(중),
뽕상(중)

돈: 돈(러,우,일)

불펜: 루치카(러), 철필(우)

사장: 경리(중), 관리자(중), 라오뽀(중), 로바이(중), 로반(중), 사장님(중),
징리(중), 쯡쯡리(중), 총경리(중), 사장(일)

여권: 파스포르트(러,카), 여권(일)

옷: 옷(우,일), 우티(카), 우티르(우), 우틸(우), 옷틸(우)

월급: 공자(중), 공즈(중), 꿩쯔(중), 달공자(중), 로임(중), 봉급(중), 신봉
(중), 열급(중), 월급(중,일), 웨썬(중), 카이즈(중)

위성안테나: 안테나(중), 가마(중), 가마뚜경(중), 가매(중), 귀깨이(중), 꾸
깨(중), 꺾까이(중), 꺾깁(중), 꺾깨(중), 띠엔센(중), 밥가마(중), 솔
뚜까이(중), 솔뚜깨(중), 솔뚜경(중), 안테나(중), 안테나(중), 위생안
테나(중), 위성(중), 위성이마(중), 위성이매(중), 위성귀가이(중), 유
선뽕스가매(중), 천선(중), 텐선(중), 텐센(중), 텐센(중), 한국가매
(중), 한국바가지(중), 한국위성(중), 한국위성이매(중)

전기밥솥: 던기밥가매(중), 뽕뽕꼬(중), 뽕뽕꺾(중), 뽕판꺾(중), 뽕팡꺾(중),
밥가마(중), 밥가매(중), 밥솥(중), 전기가마(중), 전기밥가마(중), 전기밥가
매(중), 전기밥솥(중), 전기밥솥(숏,숏)(중), 전기솥(중), 쿠키(중)

점적 주사: 닝게르(중), 덴디(중), 뽕디(중), 뽕질(중), 뽕핑(중), 띠류(중),
링개르(중), 링거(중), 링겔(중), 링게르(중), 점적주사(중), 점적주사
(중), 주사(중), 혈관주사(중)

책: 책(러,우,일)

통: 토이(우), 통(우), 통제(러)

한복: 고려우티르(우), 고려우틸(우), 한복(우,일), 저고리(일), 조고리(일)

휴대전화: 손전화(중), 써우지(중), 쏘지(중), 전화(기)(중), 핸드폰(중), 스마트폰(일)

⑤ 기타 명사

한국어와 현지어가 혼용된 어휘들로 ‘정크+차, 매인티넌스+비, 티켓+값’과 같이 특정 한국어 명사가 영어 표현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명사구를 이룬 경우이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재미동포 조사에서 조사된 결과만 제시되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어휘들은 생산성을 가지고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 조사에서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어휘들에 대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장난 차: 정크차(미)

관리비: 매인티넌스비(미)

교통 위반 벌금: 티켓값(미)

국제 공항: 인터내셔널공항(미)

급여를 받는 직업: 샬러리직업(미)

반찬 도우미: 반찬헬퍼(미)

소유권: 오너권(미)

야채가게: 야채그로서리(미)

어려운 점: 에로사항(미), 에로점(미)

어린이 과정: 킨더과정(미)

여러 음식을 파는 식당: 델리가게(미)

연소득: 연인컴(미)

영업분야: 세일즈분야(미)

왕팬: 왕팬(미)

요리사: 주방쿡(미)

월급: 월페이(미)

음식을 포장해서 파는 식당: 테이크아웃집(미)

응급차/구급차: 이머진씨차(미)

일상복: 데이투데이아웃(미)

임대료: 렌트비(미)
 장기계획: 장기롱플랜(미)
 재단사: 커팅사(미)
 재봉사: 싱거사(미)
 전문직업: 전문잡(미)
 전액장학금: 풀장학금(미)
 주차비: 파킹비(미)
 주차비용: 파킹비용(미)
 주차장: 파킹장(미)
 준정비공: 준매카닉(미)
 지역사회: 로컬사회(미)
 큰 할인 행사: 대세일(미)
 팁을 받는 제도: 팁제(미)
 한인타운: 한타(미)
 11월: 노멤버월(미)¹¹⁴⁾
 5번가: 오애비뉴(미)

(2) 대명사류

대명사류 역시 다양한 방언형과 방언 변이형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났다.

거기: 거기(러,우,카,일), 거괴(카), 견게(러), 경게(우), 경기(우), 근게(러),
 갱게(우)

나: 내(우,카,일), 나(일)

누구: 누기(러, 카), 뉘기(카), 닉기(우)

무엇: 무스구(우), 무스그(카), 무시구(우), 무시기(러,우,카), 무엇(일), 머
 (일)

어디로: 어디르(우), 어디메(러,카), 어디메르(우), 어디로(일), 오데로(일)

여기: 여(러), 여기(러,우), 영개(러), 영기(카), 잉게(러,우,카), 여그(일),
 요기(일)

저기: 자기(러,우), 자비(러,우), 자빌로(러), 저기(일)

저기서: 정게서(우), 저기서(일)

114) ‘노멤버’의 잘못으로 보임.

2) 용언류

용언류에서는 방언형과 방언 변이형, 현지어를 차용한 혼종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재미동포의 경우 ‘어베이러블하다, 심플하다, 인터네셔널되다, 드롭시키다’와 같이 현지어 단어에 ‘-하다’, ‘-되다’, ‘-시키다’가 결합한 형태나 ‘렌트비, 파킹장, 티켓 값, 반찬 헬퍼’와 같이 현지어와 혼합되어 이루어진 파생 명사나 명사구가 활발하게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추후 조사에서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어휘들에 대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깝다: 가깝운(카), 가깝은(우), 가깝에(우), 가까이(우,일), 가깝다(우,카)

가난하다: 구차하다(러), 가난하다(일)

가능하다: 어베이러블하다(미), 가능하다(일)

가르치다: 가르치다(러,일), 글을 읽어주다(우), 배와 주다(러,우,카,일), 티칭하다(미)

가볍다: 라이트하다(미)

간단하다: 심플하다(미), 간단하다(일)

간섭하다: 터치하다(미)

강요하다: 푸시하다(미)

강의를하다: 렉처하다(미)

개발하다: 디벨롭하다(미)

개업하다: 런칭하다(미)

개업하다: 오픈하다(미)

개장하다: 오픈하다(미)

거절하다: 노하다(미)

거절하다: 리퓨즈하다(미), 거절하다(일)

건너뛰다: 스킵하다(미)

건조하다: 드라이하다(미)

걸쳐있다: 카바하다(미)

검사하다: 체크업하다(미)

결정을 하다: 디씨션을 만들다(미)

결혼하다: 결혼하다(러,일), 서바가다(러), 서바이가다(우), 서방가다(러,우,카), 시가가다(러), 시집가다(우,카,일), 장가가다(러,일), 장개가다(러,카), 장개들다(러)

경멸하다/무시하다: 룩다운하다(미), 무시하다(일)
 경쟁하다: 컴피트하다(미), 경쟁하다(일)
 계획을 짜다: 플랜하다(미)
 고달프다: 고달프다(우)
 고맙다: 고맙다(우,일), 아שמלל(러,카), 아שמלל(우)
 고소하다: 수하다(미)
 고생하다: 고상하다(러,카), 고새하다(러), 고생하다(우,일), 고사하다(우)
 고용하다: 하이어하다(미)
 고용하다: 하이얼하다(미)
 고정적이다: 스테이하다(미)
 곱다: 곱다(우,카)
 공부하다: 공부하다(우,카,일), 글 쓰다(우), 글 읽다(러,우,카), 읽다(러,우)
 공헌하다: 컨트리뷰션하다(미)
 관리하다: 매니지하다(미), 관리하다(일)
 팬찮다: 팬찮다(러,우,일), 일없다(러,우,카)
 괴롭히다: 바덜하다(미), 괴롭히다(일)
 교대하다: 엑스첸지하다(미)
 교육시키다: 에듀케이트하다(미)
 국제화되다: 인터네셔널되다(미)
 굵다: 베이크하다(미)
 권하다: 리퀘스트하다(미)
 글을 쓰다: 라이팅하다(미), 글쓰다(일)
 굶다: 크로스하다(미)
 기다리다: 기다루다(러), 기다리다(우,일), 지다리다(우)
 기도하다: 기도하다(우,카)
 기름지다: 지름지다(우)
 기본적인다: 베이식하다(미), 기본적인다(일)
 기분이 좋아지다: 업되다(미)
 기어를 올리다: 기어업하다(미)
 기억하다: 궁리하다(우,카), 기억하다(우,일), 생각 키우다(우)
 깨끗하다: 깨끗하다(러,우,일)
 끝내다: 피니시하다(미,일)
 나누다: 디바이드하다(미,일)
 나르다: 따다(러,우,카)

나쁘다: 나쁘다(러,우,일)
 낡았다: 올드하다(미)
 넓다: 너르다(우), 넓다(일)
 남겨두다: 세이브하다(미,일)
 넘겨주다: 토스하다(미), 넘겨주다(일)
 넘기다: 트랜스퍼하다(미), 넘기다(일)
 넣다: 옹다(우), 넣다(일)
 녹음하다: 리코딩하다(미), 녹음하다(일)
 놀라다: 소프레스하다(미), 놀라다(일)
 놓다: 옹다(러,우), 놓다(우,카,일)
 뇌를 자극하다: 스티물레잇브레인하다(미)
 느리다: 슬로우하다(미)
 느슨해지다: 루즈하다(미)
 다니다: 땡기다(러,우,카), 다니다(일)
 다림질하다: 프레스하다(미)
 다양하다: 버라이어티하다(미)
 달다: 달다(우)
 담백하다: 플레인하다(미)
 답변하다: 리플라이하다(미)
 대답하다: 대답하다(우,일)
 대출하다: 론하다(미)
 더하다: 에드하다(미)
 덩다: 덩다(우)
 데려가다: 픽업하다(미), 데려가다(일)
 데리러오다: 픽업하다(미)
 데우다: 데우다(우)
 도매하다: 홀세일하다(미)
 도와주다: 도바주다(우), 도배주다(우), 도와주다(우,일), 돕아주다(카), 어드
 미션하다(미), 헬프하다(미)
 도전이 되다: 챌린지하다(미)
 돌보다: 테이케어하다(미), 케얼하다(미)
 돌아오다: 리턴하다(미), 돌아오다(일)
 뒤집다: 턴오버하다(미)
 듣다: 듣다(우), 리스닝하다(미)

들리다: 들기다(우), 들리다(일)
 디자인하다: 디자인하다(미)
 디퍼해줄게: 디퍼하다(미)
 떨어뜨리다: 드롭시키다(미)
 똑똑하다: 스마트하다(미), 똑똑하다(일)
 마치다: 마감하다(카), 마치다(우,일)
 막지않다: 언클로지하다(미), 막지않다(일)
 만들다: 만들다(우,일), 맨들다(러,우,카)
 만족하다: 새리스파잉하다(미), 만족하다(일)
 만회하다: 메이크업하다(미)
 말이 되다: 메이크센스다(미)
 많다: 많다(우,카,일)
 말리다: 말려와다 되다(우), 말리다(우,일), 말리우다(우,카)
 맛있다: 맛있다(우,일)
 맵다/뜨겁다: 핫하다(미), 맵다(일)
 머물다: 스테이하다(미), 머물다(일)
 먹다: 먹다(우,일), 묵다(러,일)
 먹어보다: 츠라이하다(미)
 멈추다: 스탱하다(미), 멈추다(일)
 모르다: 모르다(우,일)
 모방하다: 카피하다(미)
 모으다: 모다(카), 몬다(우), 모으다(일)
 모자라다: 다베나이(러), 모자라다(우,일)
 못되다: 몹시개(러), 몹시리(러)
 무례하다: 루드하다(미)
 무섭다: 무섭다(우,일)
 문닫다: 클로즈되다(미)
 미치다: 크레이지하다(미)
 바꾸다: 트랜스퍼하다(미), 바꾸다(일)
 바느질하다: 싱글하다(미), 바느질하다(일)
 반갑다: 반갑다(우,일)
 반대하다: 반대하다(러,우,일)
 반복되다: 루틴하다(미)
 반복하다: 리피트하다(미), 반복하다(일)

반올림하다: 라운드하다(미)
방문하다: 비짓하다(미), 방문하다(일)
배우다: 배우다(러,우,일)
변경하다: 오퍼레이션하다(미)
병행하다: 컴바인하다(미)
보살피다: 케어하다(미)
보살피다: 텍케얼하다(미)
보전되다: 프리저브되다(미)
복사하다: 카피하다(미)
볶다: 볶다(러,우)
불쌍하다: 불싸하다(러), 불쌍하다(우,일)
부기하다: 북키펡하다(미)
불평하다: 컴플레인하다(미)
비슷하다: 비슷하다(우,일)
사업을시작하다: 비즈네스를열다(미)
살아남다: 서바이브하다(미)
색칠하다: 칼라링하다(미)
생각하다: 아이디어쓰다(미), 생각하다(일)
섞이다: 믹스되다(미)
선발하다: 픽업하다(미)
선지급하다: 다운하다(미)
설명하다: 디스크라이브하다(미), 설명하다(일)
소유하다: 온하다(미)
손해보다: 루즈하다(미)
수강하다: 클래스를테이크하다(미)
수영장: 풀장(미)
수정하다: 코렉트하다(미)
수프하다: 브러하다(미)
순응하다: 아클라메이트되다(미)
쉬다: 릴렉스하다(미)
쉬다: 오픈되다(미)
시도하다: 챗라이하다(미)
식민지배하다: 콜로니하다(미)
신용이 쌓이다: 크레딧되다(미)

심각하다: 시리어스하다(미)
 스카우트하다: 스카우트하다(미)
 스트레스가 많다: 스트레스풀하다(미)
 스트레칭하다: 스트레취하다(미)
 시다: 시그럽다(러)
 시원하다: 시원하다(우)
 싫다: 싫다(우, 일), 이라나이(러)
 심다: 수무다(러), 심구다(우, 카), 심그다(러), 심다(우, 카)
 싸다: 싸다(우, 일), 헐다(카), 헐하다(러)
 안전하다: 세이프하다(미), 안전하다(일)
 앓다: 앓다(우, 카)
 약하다: 위크하다(미)
 얇다: 쉘로우하다(미)
 양념하다: 매우다(우, 카), 들여다매우다(우)
 어렵다: 타프하다(미), 어렵다(일)
 어리석다: 실리하다(미)
 어울리다: 갯얼롱하다(미), 어울리다(일)
 어울리다: 소셜하다(미)
 언급하다: 리퍼하다(미)
 여위다: 예비다(러)
 연기하다: 액팅하다(미)
 연루되다: 인볼브되다(미)
 연습하다: 프랙티스하다(미)
 연하다: 연하다(우)
 열다: 오픈하다(미)
 열리다: 오픈되다(미)
 영업하다: 비즈니스하다(미, 일)
 오래가다: 롱런하다(미)
 완벽하다: 펄펙하다(미), 완벽하다(일)
 요리하다: 쿡하다(미), 요리하다(일)
 우울하다: 디프레스드하다(미)
 운영하다: 오퍼레이션하다(미)
 운이 좋다: 럭키다(미)
 운전하다: 드라이버하다(미)

유동성 있다: 플로우하다(미)
 유연하다: 플렉시블하다(미)
 유창하다: 프런틀리하다(미), 유창하다(일)
 유행에 민감하다: 트렌디하다(미)
 은퇴하다: 리타이어하다(미)
 이사하다: 무브하다(미), 이사하다(일)
 이야기하다: 코멘트하다(미)
 이중언어를 구사하다: 바이링구얼하다(미)
 이해되다: 언더스탠드되다(미)
 이해하다: 언더스탠드하다(미), 이해하다(일)
 익숙해지다: 유즈드가되다(미), 익숙해지다(일)
 익히다: 픽업하다(미)
 인기 있다: 파퓰러하다(미), 인기있다(일)
 인생경험을 얘기하다: 히스토리하다(미)
 일반적이다: 포멀하다(미)
 자라다: 자라다(러,우,일)
 자랑스럽다: 프라우드하다(미)
 자신감을 쌓다: 컨피던트를빌드하다(미)
 자유롭다: 후리덤하다(미), 자유롭다(일)
 잘난척하다: 이바타(러), 잘랑거리다(러)
 잘생기다: 핸썸하다(미)
 잠긴 것이 풀리다: 언락되다(미)
 잡수다: 잡수다(러,우,일)
 저축하다: 세이브하다(미)
 적다: 조금하다(우)
 적용하다: 어저스트하다(미), 적용하다(일)
 적응하다: 아답트되다(미)
 적응하다: 유스트되다(미)
 적자가나다: 마이너스되다(미)
 전문적이다: 프로페셔널하다(미), 전문적이다(일)
 전산자동화되다: 컴퓨터라이즈되다(미)
 전학하다: 트랜스퍼하다(미)
 전형적이다: 티피컬하다(미)
 정이 들다: 어태치되다(미)

정해지다: 셋업되다(미)
 제공하다: 설브하다(미)
 제공하다: 프로바이드하다(미)
 제조하다: 메니팩처하다(미)
 제한되다: 리스트릭트되다(미)
 조절되다: 컨트롤되다(미)
 졸업하다: 끝마치다(러), 졸업하다(우,카,일), 필하다(러,카)
 좋다: 좋다(러,우,일)
 좋아하다: 좋아하다(러,우,일)
 주문하다: 오더하다(미), 주문하다(일)
 죽다: 돌아가다(카,일), 산세나다(러), 상세나다(우,카), 세상 떠나가다(러),
 죽다(러,우,일)
 줄어들다: 타이트해지다(미), 줄어들다(일)
 중단되다: 스탑되다(미)
 지불하다: 페이하다(미)
 지원하다: 서포트하다(미)
 지원하다: 어플라이하다(미)
 집중적이다: 인텐시브하다(미)
 집중하다: 페이텐션하다(미)
 집중하다: 포커스하다(미)
 짓다: 빌드하다(미)
 차리다: 차리다(우,일), 채리다(러)
 참여시키다: 인볼브시키다(미)
 참여하다: 인볼브되다(미)
 참여하다: 인볼브하다(미), 참여하다(일)
 찾다: 서치하다(미)
 청구하다: 차지하다(미)
 챙기다: 챙기다(러,우)
 초대하다: 인바이트하다(미)
 초조하다: 널버스하다(미)
 추천하다: 레커맨하다(미), 추천하다(일)
 추측하다: 메이비하다(미), 추측하다(일)
 출판하다: 퍼블리쉬하다(미)
 충격받다: 삭받다(미)

충격받다: 쇼킹하다(미)
 취소하다: 캔슬하다(미)
 취직하다: 짜브가되다(미), 취직하다(일)
 침체되다: 다운되다(미)
 크다: 크다(우,카,일)
 타다: 번하다(미)
 탓하다: 브레임하다(미)
 태어나다: 나다(러,카), 본하다(미), 탄생하다(러), 태어나다(러,우,일)
 통과되다: 패스되다(미)
 통제하다: 컨트롤하다(미)
 특화되다: 스페셜라이즈되다(미)
 판독하다: 리딩하다(미)
 판매하다: 벤딩하다(미), 판매하다(일)
 팔다: 벤딩하다(미), 팔다(일)
 편성하다: 코디넷하다(미)
 편하다: 컴퓨터블하다(미), 편하다(일)
 평화롭다: 피스풀하다(미)
 포기하다: 기브업하다(미), 포기하다(일)
 필수이다: 리콰이어드이다(미)
 학구적이다: 아카데미하다(미)
 한국인이다: 코리안이다(미), 한국인이다(일)
 할 수 있다: 카바하다(미)
 할인하다: 다운시키다(미)
 할인하다: 어프하다(미)
 합격하다: 패스하다(미), 합격하다(일)
 합류하다: 조인하다(미)
 해석하다: 인터프리션하다(미)
 헛갈리다: 컨퓨즈되다(미)
 헛갈리다: 컨퓨즈하다(미)
 현대화되다: 모더나이즈되다(미)
 화상회의하다: 비디오컨퍼런싱하다(미)
 확대하다: 인라지하다(미)
 환승하다: 트랜스퍼하다(미)
 활동적이다: 액티브하다(미)

회복하다: 리커버하다(미), 회복하다(일)
흥미롭다: 인터레스팅하다(미), 흥미롭다(일)
힘들다: 바쁘다(러,우,카), 힘들다(러,일)
힘들어하다: 스트러글하다(미)

3) 수식어류

수식어류에서도 ‘가마이, 거진, 마이’와 같은 방언형과 방언 변이형, ‘프리로, 롱타임으로, 인텐시브로’와 같이 현지어 단어에 ‘-(으)로’가 결합한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추후 조사에서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어휘들에 대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끔/드문드문: 가끔(러,일), 두문두문(러), 드문드문(우)
가득: 가득(러), 가득가이(우), 가득(카), 골득(우)
가만히: 가마이(우), 가만히(일)
거의, 대부분: 거반(카), 다수(우), 거의(일), 거이(일), 거진(일), 대부분(일)
공짜로: 프리로(미), 공짜로(일)
그저: 거저(우), 고저(카), 그방(우), 그저(우,일), 구제(우)
높게: 하이로(미)
다시: 다시(우,일), 되비(카)
대충: 대추가나이(우), 대충(우,일)
따로: 달게(우), 달로(우), 따오(러), 따로(일)
많이: 마이(러,우), 많이(일)
먼저: 만저(우,카), 먼저(우,카,일), 몬저(일)
모두: 모다(카), 모두(우,일)
무슨: 무스기(우), 무슨(카,일)
별로: 별로(러,우,일), 별루(일)
아주/매우: 되게(우), 세개(우), 지내(우), 치내(우), 아주(일), 매우(일)
아직: 아지구(우), 아직(우,일), 안직(러)
오랜시간동안: 롱타임으로(미)
위주로: 포커스로(미), 위주로(일)
이제: 어저르(러), 어제(러), 오전(우)
자꾸: 자꾸(러,우,일), 자끼(우)

장기적으로: 룡런으로(미)

전혀: 민내(우), 지내(우), 진혀(카,일), 진혜(카)

정말: 저이마이(우), 정말(러,일), 창말(러)

조금: 작게(러), 조금(우,일), 쩌끔(러)

직접/혼자(서)/알아서: 자비(러), 자비르(우), 자빌(우), 자빌로(우), 제블로(카), 재배로(러), 재벨로(러), 재블로(카), 재비(러,카), 재빌로(러), 혼차(카), 직접(일), 혼자(일), 알아서(일)

집중적으로: 인텐시브로(미)

혼자서/스스로: 내절러(중), 재절르(중), 내혼차(중), 단간(중), 땀간(중), 자기재빌르(중), 자기절로(중), 자기절루(중), 재비절러(중), 재빌러(중), 재빌루(중), 재빌르(중), 제절로(중), 제절루(중), 쯔꺄(중), 혼자(중), 혼자서(일), 스스로(일)

65%까지: 업투옥십오프로(미)

3.2.2.2. 문법 영역 언어 변종 종합 분석

문법의 경우 연구 결과에 따라 변종의 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종의 유형을 종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¹¹⁵⁾ 먼저 각 연구에서 밝힌 변종의 유형을 모두 종합하면 다음 <표 179>와 같다.¹¹⁶⁾

<표 179> 문법 영역에서 나타난 언어 변종 조사 유형

		2012년 재중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재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유 형	종 결 어 미	서술형 종결 어미(합쇼체)	—	—	—
		의문형 종결 어미(합쇼체)	—	—	—
		청유형 종결 어미(합쇼체)	—	—	—
	부 사 위	부정 부사 ‘안’ ‘아니’의 위치 부정 부사 ‘아니’(‘아이’)	기타(부사 및 시제 사용)	부정 부사의 위치 오류	부정표현 (단형,장형) 사동표현

115)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태 조사에서 문법항목에 있어 공통된 항목이 아닌 개별 항목으로 진행된 점이다. 따라서 이를 공통된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연구 종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조사 설계 시 고려해야할 문제이다.

116) 독립국가연합 동포의 언어 실태를 조사한 2013년 연구에서는 어휘적인 측면에서의 언어 변종만 다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법 영역의 언어 변종에 대해 다룬 중국 미국 중남미 재일 동포의 언어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만을 종합하기로 한다.

	치	‘못’의 위치			(단형,장형) 피동표현 (단형,장형)
	용언 활용	용언 활용	용언활용 오류	용언 활용	용언 활용
	어휘 사용	—	어휘 사용 문제	연어 오류	—
	수사	—	수관형사 사용 오류	어휘 오류(수관형사)	—
	조사	—	체언 곡용(조사) 사용 오류	조사 오류	—
	오류		영어식 부정의문문 대답	—	—
		—	영한 번역식 어휘의 사용	—	—
		—	단위 명사의 단순화	—	—
		—	필수 성분 누락	—	—
		—	단어 중복 사용	—	—
		—	‘하다 되다’의 과잉 사용	—	—
		—	‘-고’의 과잉 사용	—	—
		—	—	어휘 오류(명사,동사, 형용사,부사)	—

		-	-	명사화 어휘 사용	-
		-	-	형용사화 어휘 사용	-
		-	-	음운 첨가	-
		-	-	접사 오류	-
		-	-	‘하다’ 사용 오류	-
기 타	대격 중출문	-	-	-	-

이들 중 복수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법 변종은 ‘부사 위치’, ‘용언 활용’, ‘어휘 사용’, ‘수관형사’, ‘조사오류’가 있다.

1) 부사위치

부사 위치 문제는 부사가 용언 앞에 놓이는지 아니면 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놓이는지의 문제이다. 부사는 일반적으로 용언 앞에 놓이는데 부정 부사의 경우, ‘안’과 ‘아니’ 또는 ‘못’의 위치 문제는 단순히 오류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함경도 방언의 경우는 대체로 ‘안’, ‘아이’, ‘못’의 위치가 용언 앞에 놓이기 때문에 피조사자의 인적 사항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끝으로 재일동포의 경우는 이러한 부사 위치가 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놓이는 용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부사 위치와 관련된 지역별 조사 결과는 <표180>과 같다.

<표 180> 복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변종 조사 결과 - 부사 위치

항목	2012년 재중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재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부사 위치	먹어 못 봤소(못 먹어 봤소) 떠 아니 가겠다 (안 떠나겠다) 떠 몬나오(못 떠 나오)	가보고 꼭 싶었 는데 (꼭 가보고 싶었 는데) 못 생각나가든요 (생각이 안 나거 든요)	내가 따라 안 잡 으면은 (내가 안 따라잡 으면은)	

2) 용언활용

용언이 서술어 혹은 관형어로 사용될 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나타내는 것과 유사하게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을 혼동하거나 불규칙용언의 활용에서 오류를 보이는 것과 같은 단순한 오류에 의한 것도 있고 ‘달르지, 불르고, 해셨던’ 등과 같이 방언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부사 위치와 관련된 지역별 조사 결과는 <표181>과 같다.

<표 181> 복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변종 조사 결과 - 용언 활용

항목	2012년 재중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재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용언 활용	같으대요 (같대요) 늘으신 것 (느신 것) 신기하는데 (신기한테) 오래지 않는 (오래지 않은) 와이프가 그런데 (와이프가 그러는데) 답답하는 (답답한) 서투르는 (서투른) 비슷하는데 (비슷한테) 안 써고(안 쓰고) 알 때는 (올 때는)	팬찮는데 (팬찮은데) 노른다고 (논다고) 놀을 거라고 (놀 거라고) 달르지(다르지) 달른(다른) 델러 갔어요 (데리러 갔어요) 몰르는(모르는) 밥 먹은대요 (밥 먹는데요) 밥 먹언도 (밥 먹어도) 불르고(부르고) 알으니깐 (아니까) 젊으다(젊다) 필요하는 (필요한) 해셨던(하셨던) 힘들으니까 (힘드니까)	-	살으니까 (사니까) 서투르는 (서투른) 시시하는거 (시시한거) 싫다하는 (싫다는) 그렇지 않는 (그렇지않은) 보내지 않는 (보내지 않은) 드르는(듣는)

3) 어휘 사용

한국에서는 쓰이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거나 한국어가 한국에서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나 주어나 서술어에 나타나는 명사와 용언이 제대로 호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어휘 사용과 관련된 지역별 조사 결과는 <표182>와 같다.

<표 182> 복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변종 조사 결과 - 어휘 사용

항목	2012년 재중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재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어휘 사용	-	졸업 말았고 (졸업했고) 명절을 쓰지 않고 (명절을 지내지 않고) 군인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자주 지내는 사람(자주 만나는 사람) 주로 없는 거 같아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못 생각나가든요 (생각이 안 나가든요) 일본집(일식집) 별로 약하고 (조금 약하고) 어휘력이 까먹을 수밖에 에(어휘를 까먹을 수밖에 에) 한국 자꾸 돌보지 말고 (한국을 자꾸 신경 쓰 지 말고) 휴교도 내고 (휴학제도 내고/휴학도 하고) 장을 받아 가야지 (장을 봐야지) 미국말만 해지니까(미 국말만 하게 되니까) 해가 내려가기 전에(해 가 지기 전에)	한국이랑 파라과이랑 놀면(경기하면) 포르투갈어가 더 많이 사용하고(사용되고) 애들 중에 비하면 (애들 중에 꼽으면) 예의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예의를 그렇게 잘 아 는 편은) 이민을 살려 온 거는 (이민을 온 거는) 한국어는 잃어버리는 거 같아요 (잊어버리다) 불리비아들이 많고 (불리비아인) 반이 고대로 똑바로 올 라가요 (곧바로) 믿음이 췌요 (강해요) 생서로운데 (생경한데) 조그만 때 (어린 때) 조그말 때 (어릴 때) 한국말이 자유스럽다 (자유롭다)	-

4) 수관형사

단위 명사에 맞지 않은 수관형사가 사용된 경우이다. 수관형사와 관련된 지역별 조사 결과는 <표183>과 같다.

<표 183> 복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변종 조사 결과 - 수관형사

항목	2012년 재중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재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수관형사 ¹¹⁷⁾	-	삼 끼를 먹었거든요 (세 끼를 먹었거든요) 두 주일 (이 주일) 십사 개 (열네 개)	오 개(다섯 개) 삼 개(세 개)	-

5) 조사 오류

조사 오류는 잘못된 조사를 사용한 경우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 조사를 사용한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오류는 주로 대치 오류가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오류와 관련된 지역별 조사 결과는 <표184>와 같다.

<표 184> 복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한 변종 조사 결과 - 조사 오류

항목	2012년 재중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재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조사오류	-	봄하고 가을하고를(봄하고 가을을) 대부분으로는(대부분은) 서울만 있어서(서울에만 있어서) 맨하탄으로 있었으면(맨하탄에서 있었으면) 한 시간 반을 걸리니까(한 시간 반이 걸리니까) 대화를 된다(대화가 된다)	새로운 걸 더 보이는(새로운 것이 더 보이는) 전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이(전통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에가처럼(한국에서처럼) 저는 같은 경우는(저와 같은 경우는)	-

117) 수관형사의 경우 해당 연구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3.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관련 2012-16 연구 종합 및 분석

본 절에서는 2012-16년 연구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정책을 종합 및 분석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국가별, 지역별로 제안된 정책의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이들을 다섯 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한국어 교육 정책의 목표 또는 설정,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 개발,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지원이 그 영역이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185>와 같다.

<표 185> 2012-16년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제언 종합

조사 내용		국가별	2012년 재중 동포	2013년 독립국가 연합 동포	2014년 재미 동포	2015년 중남미 동포	2016년 재일 동포
한국어 교육 정책 및 목표 또는 철학 설정			-	-	○	-	○
한국어 교육 환경 개선	한국어 및 민족 교육 기관 설립 및 지원		○	-	○	○	○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	-	○	-	○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재교육		○	-	○	○	○
	대학 내 한국어 관 련 학과 및 전공자 지원		○	-	-	-	○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 개발	현지 실정을 고려한 한 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	-	○	○	○
	가정 학습용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보 급		-	-	○	-	○
	한국 문화 교육 지원		○	-	-	-	○
	한국어와 동포어 차이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	○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지원	재외 동포 한국어 학 습자 대상 모국 연수 기회 및 이중언어 능 력 활용 기회 제공		○	-	-	○	○
	국내 체류 동포 대상 한국 문화 및 정체성 교육 지원		○	-	-	-	○

다음에서는 국가별, 지역별로 제안된 한국어 교육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그 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의 목표 설정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연구는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2)와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3),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6)이다. 먼저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2)는 민족의 전통 문화를 익히고 조선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한국어 교육의 목표로 보았다. 한국어 교육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 민족 정체성과 모국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은 재중 동포가 다른 국가의 동포들에 비해 조선족으로서의 확고한 유대감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3)에서는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신장이나 모국과의 연계 강화라는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기보다는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나 한국어 학습 동기의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다중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6)에서도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와 같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고려하여 정체성 강화보다는 현재의 일본어 능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한국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이중 언어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동포 사회별 특성과 다원화된 학습 동기를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제안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 한국어 교육 환경 개선

(1) 한국어 및 민족 교육 기관 지원 설립 및 지원

재외 동포 거주국 정부에서 인준하는 한국학교를 설립하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2012-16년 연구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또한 한글학교나 세종학당 등 기타 한국어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한국어 교육 기관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교육 여건, 즉 학교의 위치나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물론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타 한국어 교육 기관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마련돼 있는 경우가 많으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나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젊은

세대의 재외 동포일수록 도달하고자 하는 한국어 능력이 높아지는 최근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재외 동포들이 한국어교육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4)와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6)에서는 한국어 교육 매체로서 한국어 방송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먼저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4)에서는 한국어 방송을 재미 동포들을 위한 의사소통의 주요 도구이자 모국 관련 정보를 해외에 전달하는 창구이며 문화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인프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주말 학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부족한 학습량을 보완하고, 연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매체로서 방송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6)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거주 지역에 한국어 교육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교육 기관이 있더라도 방문하여 학습할 여건이 되지 않는 동포들에게 한국어 방송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어 방송을 통해 재외 동포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1)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재교육

재외 동포 거주국 별로 제공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이 당면한 과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 교원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기존 연구들 간의 이견이 없었다.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5)에서는 신임 교원 확보와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4)와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2)에서는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원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4)에서는 한글학교 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향후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전문성 있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 현직 한국어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대학 내 한국어 관련 학과 및 전공자 지원

전문성 있는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거주국 내 대학의 한국어 관련 학과와 해당 학과에서 수학하고 있는 전공자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다.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2)에서는 한국어학과에서 수학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를 위하여 한국어 교육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수 학습 방법론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재일 동포 언어 실태(2016)에서도 동일하게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일본 대학 내 한국어 관련 학과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전공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교원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4)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육 자료 개발

(1) 현지 실정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개발된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재와 기타 한국어 교육 자료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교재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개발하여 언어권 별로 제공하는 교재의 경우에도 현지 사정이 반영되지 않아서 현지 교육용으로서의 실제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향후 재외 동포를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 시 현지 실정과 수요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며, 현지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교재의 실제성과 교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재 외에 한국어 교수·학습 보조 자료로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자료가 개발·보급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재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현지 실정에 맞는 자료가 개발되어야 하며, 현지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보조 자료도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가정 학습용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재외 동포 자녀들이 정규 제도 교육에 진입하기 전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접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연구는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4)와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6)이었다.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4)의 한국어 교육 경험과 학습 장소에 대한 조사 결과, ‘가정’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경우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가정 외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6)에서도 계승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재외 동포들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가정 학습용 교육 자료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3) 한국 문화 교육 지원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먼저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2)에서는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기성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문화 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6)에서는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6)에서의 관점과는 달리 젊은 세대의 재일 동포들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한국어 능력의 필요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재일 동포들의 흥미 유발과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 문화 교육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 문화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4) 한국어와 동포어 차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한국어와 동

포어의 차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연구로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2)와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6)가 있었다.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2)에서는 재중 동포와의 교류를 위해 한국어와 조선말의 차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재중 동포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조선말이 한국어와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다고 보았다. 재일 동포 언어 실태(2012)에서도 한국어와 조선어의 차이를 밝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교육 과정 및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5)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지원

(1) 재외 동포 한국어 학습자 대상 모국 연수 기회 및 이중언어 능력 활용 기회 제공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재외 동포는 궁극적으로 거주국 언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 즉 이중언어 구사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중언어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기존 연구의 공통적인 제언이다. 특히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5)는 다중 언어 능력을 갖춘 동포들의 풍부한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중남미와 한국을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모국 수학의 기회를 통해 이중언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재중 동포(2012) 및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6)에서도 재일 동포들이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들의 한국어 학습을 더욱 독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향후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이와 같은 제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내 체류 동포 대상 한국 문화 및 정체성 교육 지원

거주국에서 살고 있는 재외 동포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 및 정체성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은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2)와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2016)에서 있었다.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2)에서는 법무부와 공조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재중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와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한국어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2016)에서도 국내 체류 동포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 문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4장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제언

재외 동포의 한국어 교육 정책이 점차 정비되고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환경이 매우 다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재외 동포의 요구가 반영된 한국어 교육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재외 동포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과 재외 동포의 요구에 맞는 교육목표를 재설정하는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목표 설정과 함께 앞으로 재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교육과정, 교육 자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유연한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공통적인 교육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역과 동포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별 한국어 교육 정책 또한 제언하고자 한다.

4.1.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제언

1)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목표의 다변화

지금까지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재외 동포에게 한국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고 한국 국민으로서 원만한 시민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 국어 교육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내국인과 재외 동포를 동일 선상에 두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외 동포는 국적 및 거주 지역, 체류 기간, 이주 세대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언어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런 재외 동포들에게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획일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특히 세대가 길어질수록 거주국 언어를 모국어로 여기고 한국어보다 거주국 언어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맞는 한국어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재외 동포의 인식과 요구 변화를 반영하여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외 동포 차세대들에게 민족 교육에 초점을 둔 한국어 교육이 아닌 세계 문화 속의 한국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이주 세대가 높은 재외 동포들에

게는 한국어가 모국어나 제2언어가 아닌 부모에게 물려받은 계승어¹¹⁸⁾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승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외 동포의 최종 성취 수준 목표도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재외 동포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전문적인 한국어 능력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외 동포가 속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전문적인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특히 재일 동포의 경우, 특수 목적의 고급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한국어 능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 성취 수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외 동포의 최종 성취 수준은 전문적인 한국어 능력이 되어야 하지만, 국가에 따른 재외 동포의 특성과 재외 동포가 속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

2) 한국어 교육 환경 개선 방안 마련

재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어 교수·학습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이 꼽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환경의 개선은 집합 교육과 재택 교육의 두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먼저 집합 교육의 경우 한국어 교육 기관의 확대 설치 및 시설 보수, 거주국 정부의 인준의 세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재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은 한국학교, 한글학교, 민족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 일본 등에서는 교육 기관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민족 정체성 교육 등을 희망하는 재외 동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 기관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미 교육 기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 보수 등의 물리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학교의 형태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인 학교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국과

118) ‘계승어’란 해당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후손에게 물려주어 계승된 언어이다(강승혜, 2013:83).

거주국 정부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준화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택 교육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는 재외 동포 한국어 학습자가 집합 교육 즉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학습한 내용을 가정에서도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은 재미·재중남미 동포 대상 언어 실태 조사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전일제 학교인 한국학교보다는 비정규 학교인 한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재중 동포들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자녀들을 전일제 조선족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한족 학교에 보내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전일제 학교보다는 토요학교 등에 보내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인다. 한글학교의 경우 일주일에 1회, 많으면 3~4시간, 적으면 1시간 정도 한국어 수업을 하게 된다. 이는 수업의 연속성과 몰입성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중섭(2014)에서도 제기된 문제이다. 따라서 한글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도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다면 한국어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재외 동포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부모용 지침서를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며, 재외 동포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읽기 자료나 워크북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전문성 있는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전문성 있는 한국어 교원의 양성과 재교육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신입 교원 확보, 교원 연수 기회 확대, 교원 자격 기준 강화, 처우 개선 등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과 관련된 사항은 재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당면한 과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현재 각 국가별로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는 한국학교나 한국교육원 등이 있긴 하지만 그 수가 부족한 지역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교원 파견 지원을 강화하거나 현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문 교사 파견이 힘든 상황이라면 현지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이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4) 재외 동포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 개발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요구와 학습자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에 앞서 학습자 요구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구조사를 매우 세밀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는 한국어 사용 상황,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 학습 장소 등을 설문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를 통해 재일 동포 학습자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학습 이유에 대해 ‘한국어/조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라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8개 항목 중 3순위로 높았고, 나고야 지역에서는 2순위로 높았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 재일 동포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연계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문화와 연계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의 요구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구조사를 실시하되 지금까지의 국가별 언어 실태 조사에서의 실시한 설문조사보다는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에 초점을 맞춘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설계하여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내 전문가 및 현지 교사의 의견도 들어 볼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거주지·체류 기간·이주 세대·언어 환경에 따라 재외 동포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재외 동포의 생애 주기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최고급 과정·취업·비즈니스와 같은 다양한 목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재외 동포용 한국어 및 한국어 문화 교재 개발은 1973년 최초의 정부 개발 재외 동포용 교재가 개발된 이후 40여 년 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범용 한국어 교재뿐만 아니라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까지 개발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재외 동포 교육용 현지 맞춤형 교재는 러시아권, 영어권, 일본어권, 프랑스어권, 베트남어권, 중국어권, 태국어권, 스페인어권, 독일어권, 인도네시아어권 등이 있는데, 더 많은 국가와 언어권의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현지의 사정에 더 익숙한 재외 동포를 위하여 교재의 외형적인 측면에서부터 현지의 특징을 살릴 필요가 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현지의 기후, 생활 습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주제 및 소재

선정이나 현지 재외 동포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어 수업 여건 등을 고려한 교육 내용 배열 및 분량 조정이 필요하다(김중섭, 2014:68). 또한 부교재, 학습서, 교구, 교사지침서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교재와 함께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5) 재외 동포의 이중 언어 능력 활용 기회 마련

정책적 지원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러한 환경의 수혜자인 학습자, 즉 재외 동포의 적극적인 학습 동기가 없다면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재외 동포의 한국어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이들의 이중언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나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모국 수학 지원이나 다중언어 능력을 갖춘 동포들의 풍부한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양국 간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재외 동포 차세대 특성에 맞는 한국어 교육 실시

미국, 캐나다, 중남미, 호주 및 뉴질랜드, 유럽의 재외 동포 사회에서는 이제 2세와 3세가 동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했고,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3세와 4세가 1세와 2세를 대체하였다. 거주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주류사회의 문화에 동화되었고 타민족과 혼인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대가 길어질수록 타민족 또는 타인종과의 결혼이 일반화되면서 일본에서는 배우자의 90%가 일본인이고 미국에서도 동포 2세의 경우에 50% 이상이 족외혼이라고 한다. 거주국 내에서 한인들을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주류민족과 결혼하게 되면 주류문화에 동화되고 족외혼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주류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선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한민족으로서 구별되는 특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의 재외 동포 정책은 기본적으로 차세대를 중심으로 삼을 수 밖에 없고 차세대로 하여금 거주국 사회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면서도 동시에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다. 이때 차세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정부의 차세대

정책의 핵심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차세대도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민 세대, 인적 자본, 거주국 사회문화에의 동화 정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서로 구별되는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점을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세대의 특성에 맞춰 재외 동포 정책과 한국어 교육 정책이 차별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재외 동포 차세대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한국어 학습 동기가 있는 동포와 그렇지 않은 동포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한국어 학습 환경에 따라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풍족한 동포와 그렇지 못한 동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외 동포 차세대의 유형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별 재외 동포 차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외 동포 정책 및 한국어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먼저, 한국어 학습 동기가 강한 차세대의 경우, 동포 사회의 리더이면서 해외인적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한국문화 전파, 한국 방문과 같은 사업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거주국 사회의 모범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한국어 학습 동기가 적은 차세대의 경우,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한국어 전승 의지를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전 세계에서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었기 때문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에게는 문화를 활용한 소프트 파워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은 한국어를 학습해야겠다는 동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한류와 같은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과 우호적 태도를 먼저 이끌어내도록 하고 그 중에서 한국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문화이해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끝으로 한국어 학습 동기가 높지만 한국어 학습의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한국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차세대를 위한 학습 환경의 개선 및 학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차세대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모든 차세대를 대상으로 계획 없이 하기보다는 차세대의 특성에 맞게 세부 하위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적합한 교육 정책과 기법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국가별 한국어 교육 정책 제언

4.2.1. 재중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재중 동포는 언어적 동질성과 조선어 사용 능력을 바탕으로 민족적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족들이 주로 모여 사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도 언어 중심의 공동체인 재중 동포 집단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이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서 흔들리고 있다. 전통 집거지의 인구수 및 조선족 학교의 감소와 신흥 집거지의 인구수 증가와 조선족 학교의 미비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재일 동포를 위한 한국어 정책은 학교 교육이라는 제도권 내의 한국어 교육의 측면과 언어 규범 및 한국어 보급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측면

먼저 한국어 교육의 경우 중국 내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교육 기관, 교사, 학습자, 학습 자료 지원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또한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1) 교육 기관 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실시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 기관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때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기관은 크게 조선족 학교, 한국 학교, 세종학당 등의 기타 교육 기관을 들 수 있다. 조선족 학교는 전통 집거지의 부실 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신흥 집거지에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 학교를 설립하여 조선족 학교를 병행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세종학당이나 한글 학교, 한국 문화원 등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외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대학 내 한국어학과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 과정, 교수법, 교육 자료 개발, 한국 학교와의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실시

재중 조선어 교원 및 기타 과목의 조선족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문화 연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3) 동포 대상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학습 지원

세대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기성세대의 경우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강좌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차세대는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연수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 동기가 보다 강화될 것이다. 또한 한국어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 제공할 필요도 있는데 한국어 말하기 대회, 글짓기 대회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4) 한국어 학습 자료 개발 및 배포

재중 조선족 학교에 한국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 보조 자료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출간된 소설이나 DVD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게임 등과 같은 재중 동포 차세대들에게 친숙한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 국내 체류 재중 동포 대상 정체성 교육

법무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중 동포들을 위한 한국 문화와 한민족에 대한 정체성 교육을 통하여 한국어에 대한 애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어 보급의 측면

(1) 언어 규범 관련

한중 수교 이후 많은 재중 동포들이 한국과 왕래하거나 체류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한국어 규범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어 규범을 한국어 규범으로 개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중 동포들은 중국어 외에도 한국어와 중국 조선어 간의 이중 언어 생활로 인한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언어 규범 개정이 필요하다.

(2) 한국어 보급 및 교육 자료 관련

한국어의 보급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와 조선어의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1세기 한민족 언어 정보화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개편하여 차세대 동포에게 보급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2.2. 독립국가연합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1) 한국어 교육 기관 지원

독립국가연합 지역의 한국어 변종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아래 세대로 갈수록 고려말 또는 사할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어나 고려말, 사할린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차세대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을 학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기관의 설립하여 교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 동포들의 한국어 학습 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하여 연속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의 한국어 사용 기회의 제공

차세대 동포의 경우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한국어 사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한국어 말하기 대회, 토론 대회 등을 통한 한국어 사용 기회를 제공한다면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모국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족 정체성의 함양 또한 독려한다면 한국어 능력 향상과 민족 정체성 함양의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독립국가연합 동포의 경우 한국어 수업에서 필요한 것으로 한국어 학습용 사전과 자료를 꼽았다. 따라서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의 생활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독립국가연합 동포의 경우 회화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말하기 수업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마련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수업 자료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시청각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자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현지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4) 전문성 있는 교원 양성 및 파견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의 경우에도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원 양성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동포들의 경우 원어민과의 회화 수업에 대한 요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전문 교원을 파견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4.2.3. 재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1) 한국어 교육 정책 목표의 다중 설정

재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민족 정체성의 신장이라는 고전적인 시각으로만 보기보다 재미 동포들의 인식과 요구 변화를 반영하여 다중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재미 동포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유는 정체성 함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취업에 유리하다거나 한류로 인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한국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재미 동포들은 전문성 있는 한국어 교원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하는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통해 재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기관의 대부분인 한글학교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원 연수,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현지 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자료 개발 지원

재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필요한 교육적 지원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현지 실정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 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하여도 현지의 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여 교육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재미 동포 아동 학습자가 한국어 교육 기관에 진입하기 전 가정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 학습용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령기 전 재미 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인 점을 고려했을 때 활동 또는 놀이형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4) 한국어 교육 기관 지원

재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은 주말에 1-2시간 정도 진행되는 한글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글학교나 한국 문화원 등의 한국어 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되는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관된 교육과정 내에서 재미 동포들이 보다 수준 높은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나 한국학과를 개설하고 자격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측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한국어 교육 매체로서의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재미 교포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TV 방송 시청 시간이 긴 편이고, 다양한 정보를 TV 방송을 통해 얻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방송을 지원하는 것도 재미 동포 대상 한국어 보급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재미 한국어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효과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일관성 있는 목표와 정책 비전이 계획되고 제도적인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4.2.4. 재중남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1)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중남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문성 있는 교원 양성에 대한 것이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미국과 비슷한 실정에 있기는 하나 한글학교나 한국교육원과 같은 한국어 교육 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이고,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전문성 또한 한국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중남미 지역에 새로 유입되는 한인의 수가 감소하는 것과 유학생이나 단기 거주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한국어 교원의 양성과 현재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교육과가 운영되고 있는

현지 대학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특히 과라과이국립교원대에는 30여 명 정도의 한국어교육 전공자가 있으므로 이들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2) 한국어 교육 기관의 지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거주국 정부로부터 교육과정을 인준 받은 한국어 교육 기관의 설립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는 한국학교가 있어도 초등 과정만 있기 때문에 중고등과정으로 이어지는 교육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거주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인준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중고등교육과정의 설립에 대해서도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한국학교 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의 경우에도 초등학생 위주의 교육과정만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남미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현지 실정을 고려한 교재 및 교육 자료 개발

미국 지역과 동일하게 현지 실정을 고려한 교재 및 보조적인 교육 자료의 개발 또한 한국어 교수, 학습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재중남미 동포의 경우 거주국 언어로 번역된 교재를 선호하였는데, 동일한 스페인어라도 중남미의 여러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기본 번역을 한 교재라도 다시 수정 및 교정을 거쳐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교재의 경우 현지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재 개발 전 현지의 요구 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고, 개발 과정에 현지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지의 실정을 고려한 교재와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재중남미 동포의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중남미 동포 1.5세나 2세의 경우 한국어 능력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세대 중남미 동포 중에 많은 수가 한국으로의 유학을 꿈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독려와 지원이 필요하

다. 특히 중남미에서 한국의 대학에 진학한 1.5세대나 2세대들의 경우는 특히 이중 언어 화자일 뿐만 아니라 영어 능력까지 갖춘 다중 언어 능통자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남미와 한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에도 적합한 인재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남미 동포 차세대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추적 조사하고 이들이 동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남미 동포들의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4.2.5. 재일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1) 이중 언어 능력 함양을 고려한 교육 목표 설정

재외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은 지금까지 민족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이루어져 왔다. 마찬가지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일 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도 민족 교육, 모어 교육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재일 동포일수록 일본어를 모어로 여기는 비율이 높고, 일본어 능력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대화 상황에서 한국어보다는 일본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비율도 동시에 높았다. 즉, 재일 동포에게 한국어는 모어의 지위라기보다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계승어로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⁹⁾

따라서 재일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민족 교육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현재의 일본어 능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한국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이중 언어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의 연계 방안 마련

한국어 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재

119) ‘계승어’란 해당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후손에게 물려주어 계승된 언어이다(강승혜, 2013:83).

일 동포들이 한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족 정체성에 대한 설문 항목의 응답 경향을 통해 재일 동포들은 이미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재일 동포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유로 ‘한국 문화의 이해’가 전체 8개 항목 중 3순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나 한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설문 항목에서 한국인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는 것에 강한 긍정을 보이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를 통해 동포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연계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3) 민족 학교 및 기타 한국어 교육 기관 지원 방안 마련

재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에서 브라질의 한국 학교가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공식 학교가 아니라고 언급한 바와 동일하게 재일 동포를 위한 일본 내 민족 학교의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인준한 공식 교육 기관이 아니다. 이로 인해 민족 학교를 졸업하고도 학위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일본 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비싼 학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교육 시설의 부실 또한 학비의 부담 다음으로 재일 동포들이 한국어 학습 시 어려운 점으로 꼽은 항목이다. 재일 동포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곳으로 학교가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 즉, 앞서 언급한 재일 동포의 이중 언어 능력 함양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통로로서 학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일 동포들은 민족 학교 외에도 한글학교, 사회 단체 등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기타 한국어 교육 기관의 자세한 실태와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일본 지역 한국어 교육 기관의 지원 규모와 방향을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재일 동포의 이중 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재중 동포나 재미 동포, 재중남미 동포가 일이나 취직 등의 실용적인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재일 동포들은 일본 사회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낮게 나타났다. 즉, 한국어 학습이 재일 동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일 동포의 한국어 능력의 경우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친숙한 상황에서의 한국어 수행은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수준으로 높아질수록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취업이나 업무 수행 등 사회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활용하기에는 재일 동포들의 한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중 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켜야 하고, 나아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논저류

- 강덕상·정진성(1999).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129-155.
- 강승혜(2013).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소고: 방향과 향후 과제.” 「언어 사실과 관점」 3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79-105.
- 강정희(2004). “재일 한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태도 조사: 오사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어문학」 86. 한국어문학회. 1-29.
- 곽충구(2000). “재외동포의 언어 연구.” 「어문학」 69, 한국어문학회, 1-41.
- _____(2008). 「2008년도 국외 집단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1. 국립국어원.
- _____(2008). 「2008년도 국외 집단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2. 국립국어원.
- 교육인적자원부(2002). “2002년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보도자료(2002. 2. 15.).”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5). “재외동포교육 강화방안 보도자료(2005. 4. 30.).” 교육인적자원부.
- 구자역(2008). 「재외동포 교육실태 및 인재육성 방안 연구 I: 중국 조선민족교육의 실태 및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근·고형일(2004). “재외한인 민족교육에 대한 평가.”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 연구단 국내학술회의」 31.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107-126.
- 김경근 외(2005). 「재외한인 민족교육의 실태」. 집문당.
- _____(2006). 「재외 한인의 민족교육관」. 북코리아.
- 김광열(2001). “1920-30년대 조선인 독일의 요인.” 「한일민족문제연구」 창간호. 35-70.
- 김기태(2007).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대성(1996). “재일 한국인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민수(1983). “해외 교포 자녀를 위한 국어교육의 효율적 방안: 일본편.” 「이중언어학」 1-1. 이중언어학회. 94-116.
- 김보향(2013). “이주민의 이중 언어 교육의 필요성.” 「영주어문」 26. 영주어문학회. 41-60.
- 김영미(1996). “한국어 세계화의 제문제”. 「이중언어학」 13. 이중언어학회. 35-62.
- 김정숙(2008).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초급 1단계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7. 이중언어학회. 61-83.

- _____(2010).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용한 재외동포 아동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42. 이중언어학회. 25-46.
- 김정숙 외(2008). 「재외한인 민족교육 모형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북코리아.
- 김정자(1994). “일본내의 한일 2언어 병용화자(한국인)의 code-switching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11-1. 이중언어학회. 71-96.
- 김정자(2002). 「재일한국인1세의 한국어 일본어 혼용 실태에 대한 연구: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태학사. 1-119.
- 김중섭(2014).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발의 성과 및 과제.” 『이중언어학』 54. 이중언어학회. 55-74.
- 김진호(2012). “한국어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 『아시아문화연구』 25.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59-281.
- 남윤진(2007). “동경지역 재일동포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Korean 교육 학술토론회 자료집』 2007-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37-51.
- 문지희(2013). “언어의 정치와 정체성의 재구성.” 『아프리카 연구』 33. 韓國外國語大學校 아프리카問題研究所. 3-24.
-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2002). 「지식·정보·문화 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국어 발전 종합 계획 시안: 세계화·정보화 등 국어사용 환경에 대비」.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 박갑수(2007).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오늘과 내일.” 『이중언어학』 33. 이중언어학회. 365-393.
- _____(2013). 「재외 동포 교육과 한국어교육」. 서울: 역락.
- 박경래(2002a). “중국 연변 조선족의 모국어 사용 실태.” 『사회언어학』 10-1. 한국사회언어학회. 113-145.
- 박경래(2002b). “중국 연변 조선족의 언어 태도.” 『사회언어학』 10-2. 한국사회언어학회. 59-86.
- 박선아(1996).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문제점.”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함(1998). “언어접촉: 그 승과 패의 양면성.” 『언어와 언어학』 2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1-21.
- 박영순(2005). “이중언어교육의 최근 동향과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 문제.” 『이중언어학』 28. 이중언어학회. 11-31.
- 박영실(2012). “재일 한국학교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통합 교육 연구: 재일 한국학교 고등학생 대상 요구분석을 기초로 하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채형(2011). “재외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미국의 한글학교·한국학교·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教育思想研究』 25-1. 韓國

教育思想研究會. 73-94.

박채형(2012). “우리나라 재외동포 교육정책의 변천 과정.”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학습자중심교육학회. 167-187.

송재목(2011). “재일동포 총련 조선학교의 교과 내용 변천: 국어과목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5-178.

시마 아쓰코(1993). “재일한국인 교육의 현황과 조사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요시다 카즈에(2016). “재일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관서지방 어린이 토요 학교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인진(1997). “중앙아시아 한인의 언어와 민족정체성.”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한국사회학회. 256-261.

_____(2001). “재외동포 본국진출의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13-1. 평화문제연구소. 75-108.

_____(2002). “세계 한민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와 한민족 정체성의 비교연구.” 「재외한인연구」 12-1. 재외한인학회. 5-65.

_____(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37-4. 한국사회학회. 101-142.

_____(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사.

_____(2004). “사회조사방법을 통한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연구」 16. 재외한인학회. 5-44.

_____(2006). “재외한인.” 「인구대사전」. 한국인구학회. 2439-2450.

_____(2010). “재외동포의 현황과 동포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방향.” 「한국어교육학회지」 131. 한국어교육학회. 49-77.

윤인진 외(2015).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한민족의식, 다문화 수용성, 접촉경험의 효과.” 「통일문제연구」 27-1. 평화문제연구소. 31-68.

이광규(2004). “언어문화교육과 재외동포.” 「언어와 문화」 1.

이병규(2008). “국외 한국어 교육 정책론 정립을 위한 탐색.” 「한국어교육」 19-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9.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35-43.

이상혁(2006). “재일교포 이중언어 사용자 및 일본인들의 우리말 명칭 인식 태도에 대한 고찰.” 「우리어문연구」 27. 우리어문학회. 501-526.

이영훈(1988). “민족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재일교포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이중언어학」 4. 이중언어학회. 66-81.

이정훈 · 윤인진(2008). “재일동포의 민족교육과 모국수학의 현황과 발전방안.” 「재외한인연구」 7-1. 재외한인학회. 175-222.

이중언어학회(1988).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이중언어학회지 4)」. 이중언어학회.

이중언어학회(1993).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이중언어학회지 10)」. 이중언어학회.

- 이중언어학회(1994). 「국제화시대의 이중언어교육(이중언어학회지 11)」. 이중언어학회.
- 임영철(1995). 「해외한국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장은영(2011).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관한 다중 사례연구.”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139-164.
- 재외동포재단(2015).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2007).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서울: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2009). 「CIS지역과 중국 동포사회 실태조사 및 한글학교 교육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 전기호(2003). 「일제시대 재일한국인 노동자계급의 상태와 전망」. 지식산업사.
- 정성호(1998). “해외 한인의 지역별 특성.” 「한국인구학」 21. 한국인구학회. 105-128.
- 정진성(2012). “‘재일동포’의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일본비평」 7.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58-287.
- 조향록(2010). 「한국어교육 정책론」. 한국문화사.
- 지역어조사추진위원회(2006). 「지역어 조사 질문지」. 국립국어원.
-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2013). 「재일동포 민족교육 현황조사」. 서울: 청암대학교.
- 홍효정(2005). “재일동포 청소년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ker, C.(2011). Foundations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79. Multilingual matters.
- Cho, Hyesun(2014). ‘It's very complicated’ exploring heritage language identity with heritage language teachers in a teacher preparation program. *Language and Education*, 28(2). Taylor & Francis. 181-195.
- Cooper, R. L.(1989). *Language Planning and Soci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 Mejía, A. M.(2006). Power, Prestige, and Bilingualism: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Elite Bilingual Education.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35. Multilingual matters.
- Eisenlohr, Patrick(2006). *Language ideology and imaginations of Indianness in Mauritius*.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 Henne, Richard Brian.(2003). *Tongue-tied: Sociocultural change, language, and language ideology among the Oglala Lakota(Pine Ridge Sioux)*.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Jeon, Mihyon(2007). Language Ideologies and Bilingual Education: A

Korean-American Perspective. *Language Awareness*, 16(2). Taylor & Francis. 114-130.

大阪市民族講師會(2004). 「共に生きる一民族教育の充実をめざして」. 大阪市民族講師會.

生越直樹(1983). “在日朝鮮人の言語生活.” 「言語生活」 376. 筑摩書房. 26-34.

_____(2011). “在日コリアンの言語使用.” 「在日コリアンの言語」. 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研究代表者 日比谷潤子). 3-10.

任榮哲(1992a). “二言語併用の社会言語学的研究ー在日・在米韓国人の実態調査の結果からー.” 「日本語学」 11-13. 明治書院.

_____(1992b). “在日韓国人の意識構造及び言語意識.” 「計量国語学」 18-5. 計量国語学会.

_____(1993). 「在日・在米韓国人および韓国人の言語生活の実態」. くろしお出版.

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編(2005).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真田信治・生越直樹・任榮哲編)」. 和泉書院.

真田信治監修・任榮哲編(2006). 「韓国人による日本社会言語学研究」. おうふう.

ソニア・リャン著・中西恭子訳(2005).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 在日朝鮮人とアイデンティティ」. 明石書店.

2. 웹사이트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도쿄한국학교 www.tokos.ed.jp

재외동포재단 www.okf.or.kr

재일본대한민국민단 www.mindan.org/kr

재일본한국인연합회 www.haninhe.com

주일한국교육원 www.kankoku.or.kr

총련 www.chongryon.com

한국국제교류재단 www.kf.or.kr

한국어세계화재단 www.glokorean.org

한국어진흥재단 www.klacusa.org

한국학술진흥재단 www.krf.or.kr

3. 재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 박경래 외(2012).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원미진 외(2014).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원미진 외(2015). 「브라질 외 중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임영철 외(2011).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한영균 외(2013).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부록 1> 재일 동포 언어 사용 실태 조사 한국어 설문지

설문지 번호: ()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의 한국어/조선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평소 생각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응답자의 정보와 응답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월 일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연구 책임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호철
e-mail: jplang@naver.com

※ 해당하는 것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I. 기본 정보

100.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101.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102. 현재 거주지(조사 지역)는 어디입니까?

- ① (도·부·현) _____ (도시) _____

103. 일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104. 부모님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 ① 부: (나라) _____ (도시) _____

- ② 모: (나라) _____ (도시) _____

105. 부모님과 배우자는 어느 민족 출신입니까?

- ① 부모님 민족 부 (_____) / 모 (_____)

- ② 배우자 민족 (_____)

- ③ 미혼

106. 현재 국적 또는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일본 국민 ② 한국/조선 국민인 동시에 일본 영주권자

- ③ 한국/조선 국민인 동시에 일본 비영주권자

- ④ 이중국적자 ⑤ 기타 (_____)

107. 일본으로 이주하셨습니까? 이주하셨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 ① 네 이전 거주 국가, 도시명 (_____)

이주 연도 (_____)년도, 이주 시 나이 (_____)세

(예) 대한민국 서울, 1992년도, 37세

- ② 아니요

108. 한국/조선에서 이주한 몇 세대입니까?

- ① 1세대 ② 2세대 ③ 3세대 이상

109. 현재 동포 사회단체(민단, 총련, 교회, 친목회등)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 참여 ② 비참여

110.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 ① 농림·어업·임업 ② 기능·기계 조작 및 조립 ③ 단순 노무
 ④ 판매·서비스직 ⑤ 사무직 ⑥ 전문가·임직원 및 관리자
 ⑦ 전업주부 ⑧ 학생 ⑨ 무직 ⑩ 기타(_____)

111.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와 그 학교의 종류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일본 학교	한국 학교	조선 학교	기타(해외)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대학원				
안 다님				

Ⅱ. 한국어/조선어에 대한 재일동포의 언어의식

Ⅱ-1. 언어의식과 태도 및 이해도

201. 모어(제1언어)라고 생각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어/조선어 ② 일본어 ③ 기타(_____)

202.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203.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204. 재일동포는 한국어/조선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205. 재일동포는 일본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206.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끼리는 한국어/조선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207. 한국어/조선어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208. 일본에서 한국어/조선어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점점 안 쓰게 되어 없어지고 말 것이다 ② 지금과 똑같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③ 점점 한국어/조선어로 바뀔 것이다 ④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209. 한국어/조선어, 일본어 중 어느 쪽을 더 잘 알아듣습니까?

- ① 한국어/조선어 ② 일본어

210.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에 대한 당신의 느낌을 아래 <보기>와 같이 제시된 표현과 가까운 쪽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보기>								
	1	2	3	4	5	6	7	
시골티(촌티)가 난다						√		세련되고 우아하다

210-1. 한국어/조선어에 대한 느낌

	1	2	3	4	5	6	7	
(1) 시골티(촌티)가 난다								세련되고 우아하다
(2) 간사해 보인다								진지해 보인다
(3) 가벼워 보인다								점잖고 믿음직스럽다
(4) 무뚝뚝하고 정이 없다								부드럽고 정감 있다
(5) 무식해 보인다								유식해 보인다
(6) 힘이 없어 보인다								썩썩하다

210-2. 일본어에 대한 느낌

	1	2	3	4	5	6	7	
(1) 시골티(촌티)가 난다								세련되고 우아하다
(2) 간사해 보인다								진지해 보인다
(3) 가벼워 보인다								점잖고 믿음직스럽다
(4) 무뚝뚝하고 정이 없다								부드럽고 정감 있다
(5) 무식해 보인다								유식해 보인다
(6) 힘이 없어 보인다								썩썩하다

211. 한국 사람(재일동포가 아님)들이 쓰는 한국어를 이해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211-1. 말만 듣고도 재일동포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211-2.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211-3. 한국 방송(드라마, 뉴스 등)을 보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그렇지 않다

Ⅱ-2. 언어 능력

Ⅱ-2-1. 말하기 능력

212. 한국어/조선어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① 아주 못한다 ②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한다 ⑤ 아주 잘한다

212-1. 해당하는 것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질 문	아주 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1) 나를 소개하는 간단한 인사나 물건을 살 때와 같은 기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2) 직업이나 취미 등 친숙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대화할 수 있다.					
(3) 사회적 사건 등 친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4) 연설이나 토론, 통역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대화할 수 있다.					

Ⅱ-2-2. 듣기 능력

213. 한국어/조선어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 ① 아주 못한다 ②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한다 ⑤ 아주 잘한다

213-1. 해당하는 것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질 문	아주 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1) 인사말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2) 광고나 일기 예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3) TV에서 하는 보도를 듣고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4)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는 연설이나 토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Ⅱ-2-3. 읽기 능력

214. 한국어/조선어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까?

- ① 아주 못한다 ②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한다 ⑤ 아주 잘한다

214-1. 해당하는 것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질 문	아주 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1) 간판이나 간단한 광고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2) 편지나 설명서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3) 잡지나 신문 기사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 전문 분야의 서적이나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Ⅱ-2-4. 쓰기 능력

215. 한국어/조선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① 아주 못한다 ②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한다 ⑤ 아주 잘한다

215-1. 해당하는 것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질 문	아주 못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1) 사람 이름이나 사물 이름 등을 쓸 수 있다.					
(2) 간단한 편지나 일기, 안내문 등을 쓸 수 있다.					
(3) 특정 분야의 주제를 소재로 글을 쓸 수 있다.					
(4) 전문 분야의 보고서를 쓸 수 있다.					

II-3. 언어 사용

216. 다음의 경우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보기>와 같이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 중 보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언어에는 1을, 그렇지 않은 언어에는 2를 써 주십시오. 해당하는 언어가 없는 경우에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기>		
질문	한국어/조선어	일본어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2	1

질문	한국어/조선어	일본어
(1) 한국어/조선어, 일본어 중에서 제일 잘하는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2) 일상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3) 가족끼리 말할 때 주로 쓰는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4) 한국어/조선어, 일본어 중에서 제일 알아듣기 편한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5) 한국어/조선어, 일본어 중에서 제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6)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제일 많이 쓰일 것 같은 말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217. 가족들에게 말할 때,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 중에서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질문	대부분 한국어/ 조선어로	한국어/ 조선어를 더 많이	절반씩	일본어를 더 많이	대부분 일본어로	해당 없음
(1)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에게 말할 때						
(2) 형제, 자매, 사촌 등에게 말할 때						
(3)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4) 한국인/조선인이 아닌 배우자나 사위, 며느리 등의 사람에게 말할 때						

218. 가족들이 귀하에게 말할 때,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 중에서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질문	대부분 한국어/ 조선어로	한국어/ 조선어를 더 많이	절반씩	일본어를 더 많이	대부분 일본어로	해당 없음
(1) 부모님, 조부모님 등 어른들이 나에게 말할 때						
(2) 형제, 자매, 사촌 등이 나에게 말할 때						
(3) 자녀나 손자, 손녀 등 손 아랫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4) 한국인/조선인이 아닌 배 우자나 사위, 며느리가 나에 게 말할 때						

219. 다음 상황에서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 중에서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질문	대부분 한국어/ 조선어로	한국어/ 조선어를 더 많이	절반씩	일본어를 더 많이	대부분 일본어로	해당 없음
(1) 재일동포들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회의할 때						
(2)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재 일동포들과 사교적으로 이야 기할 때						
(3) 일본인과 재일동포가 함 께 모인 자리에서 회의할 때						
(4) 일본인이 함께 있는 자 리에서 재일동포와 일상 이 야기를 할 때						
(5) 종교가 있다면, 종교 활동을 할 때						

220. 다음 상황에서 한국어/조선어와 일본어 중에서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질문	대부분 한국어/ 조선어로	한국어/ 조선어를 더 많이	절반씩	일본어를 더 많이	대부분 일본어로	해당 없음
(1)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할 때						
(2)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 때						
(3) 화가 났을 때나 재일동포와 말싸움을 할 때						
(4)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II-4. 언어 학습

221. 한국어/조선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21-1. 한국어/조선어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 ① 집에서 ② 학교에서 ③ 스스로 학습 ④ 사회 단체에서 ⑤ 학원에서
⑥ 부모에게 ⑦ 기타 (-----)

221-2. 한국어/조선어를 학습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① 3개월 미만 ② 6개월 미만 ③ 1년 이내 ④ 2~4년 이내
⑤ 5~9년 이내 ⑥ 10년 이상

221-3. 한국어/조선어를 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 ① 가족들이 모두 한국어/조선어를 했기 때문에 저절로 배웠다
② 재일동포라면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③ 지금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상에 필요해서 배웠다
④ 취직을 하거나 상급 학교에 갈 때 유리하기 때문에 배웠다
⑤ 한국/조선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웠다
⑥ 장래에 한국에 가서 살 계획이 있어서 배웠다
⑦ 가족이나 친척들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해서 배웠다
⑧ 기타 (-----)

221-4. 한국어/조선어를 배울 때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통학의 어려움 ② 교육 시설의 부실 ③ 학비의 부담 ④ 교육 내용의 부실
 ⑤ 교사의 지도능력 부족 ⑥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 ⑦ 힘든 점이 없었다
 ⑧ 기타 (-----)

II-5. 한민족/조선민족 정체성

222. 귀하는 재일동포 이주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223. 한민족/조선민족의 역사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24. 집안에 남아 있거나 귀하가 알고 있는 한민족/조선민족의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김치 담그기, 설 쇄기 등)

(-----)

225. 귀하는 다음의 상황에서 주로 어떤 사람과 교류합니까? 해당하는 곳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상대 상황	주로 재일동포 와 교류 한다	재일동포 와 교류가 많지만 가끔 일본 인과의 교 류한다	재일동포 와 일본 인과의 교류 정 도가 반 반이다	일본인과 교류가 많지만 가끔 재 일동포와 도 교류 한다	주로 일본인과 교류한다	해당 없음
(1) 직업적으로 일을 할 때						
(2) 사교적으로 교류할 때						
(3) 종교적으로 교류할 때						

226. 한민족/조선민족 정체성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2)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3) 나는 주로 한국인/조선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사회 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히 참여한다.					
(4) 나는 나의 한민족/조선민족 역사에 대해 잘 안다					
(5)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조선과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7) 나는 한국인/조선인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기회가 된다면 한국/조선을 자주 방문하고 싶다					
(9) 재일동포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27. 일본인 정체성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해당자만 답해 주십시오.)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일본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2) 나는 일본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3) 나는 일본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II-6. 한국 문화 및 미디어 접촉

228.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네 ② 아니요

229. 최근 5년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횟수와 체류 기간을 적어 주십시오.

횟수 (-----회) 총 체류 기간 (-----년 -----개월)

230. 하루 중 한국 방송 또는 한국 인터넷 미디어 시청 시간은 대략 몇 시간 정도입니까?

- ① 안 본다 ② 1시간 미만 ③ 1~2시간 ④ 2~3시간 ⑤ 3시간 이상

231. 한국 방송 또는 한국 인터넷 미디어 프로그램 중 가장 즐겨 보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① 드라마 ② 예능·오락 ③ 뉴스 ④ 스포츠 ⑤ 시사·교양
⑥ 기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연락처 또는 E-mail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시해 주신 설문 항목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때 재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연락처:

E-mail:

<부록 2>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일본어 설문지

質問票 番号: ()

[在日同胞の言語実態調査]

この調査は、現在日本国内に居住されている同胞の皆様の韓国語/朝鮮語の使用実態を把握するためのものです。

以下の質問に対する日頃の皆様のお考えを答えて頂ければ幸いです。お答えいただいた内容は研究目的にのみ使われ、ご提供いただいた情報は特定の個人が識別できる情報として公表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守秘義務は遵守いたします。

ご多忙のところ誠に恐縮ですが、どうかご回答いただければ幸甚です。

何卒ご協力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2016年 月 日

大韓民国国立国語院 [在日同胞言語実態調査]

研究責任者 高麗大学国語国文学科教授 崔鎬哲

e-mail: jplang@naver.com

※ 該当項目にV印をご記入ください。

I. 基本情報

100. 年齢

① 10代 ② 20代 ③ 30代 ④ 40代 ⑤ 50代 ⑥ 60代 ⑦ 70代以上

101. 性別

① 男性 ② 女性

102. 住所（調査地域）

① （都道府県）_____（都市）_____

103. 日本生まれですか。

① はい ② いいえ

104. ご両親の出生地

① 父：（国）_____（都市）_____

② 母：（国）_____（都市）_____

105. ご両親と配偶者はどの民族出身ですか。

① 両親 父（_____）/母（_____）

② 配偶者（_____）

③ 未婚

106. 現在の国籍または法的地位はどうなっていますか。

① 日本国民 ② 韓国籍／朝鮮籍でありながら日本永住者

③ 韓国籍／朝鮮籍でありながら日本非永住者

④ 二重国籍者 ⑤ その他（_____）

107. 日本への移住ですか。移住の場合、その時期

- ① はい 以前の居住国, 都市名 ()
移住年度 ()年, 移住時の年齢 ()歳
(例) 大韓民国ソウル, 1992年, 37歳
- ② いいえ

108. 韓国／朝鮮からの移住何世代にあたりますか。

- ① 1世代 ② 2世代 ③ 3世代以上

109. 現在、同胞社会団体（民団、総連、教会、親睦会等）に参加されていますか。

- ① 参加 ② 不参加

110. 職業

- ① 農林・漁業・林業 ② 技能・機械操作および組立 ③ 単純労務
④ 販売・サービス業 ⑤ 事務職 ⑥ 専門家・管理職（重役）
⑦ 専業主婦 ⑧ 学生 ⑨ 無職 ⑩ その他 ()

111. これまで通っていた学校とその学校の種類にV印をご記入ください。

	日本の学校	韓国学校	朝鮮学校	その他（海外）
小学校				
中学校				
高等学校				
専門学校				
大学				
大学院				
通っていない				

Ⅱ 韓国語／朝鮮語に対する在日同胞の言語意識

Ⅱ-1. 言語意識と態度および理解度

201. 母語（第一言語）と思っている言語。

- ① 韓国語／朝鮮語 ② 日本語 ③ その他(_____)

202. 在日同胞は韓国語／朝鮮語を知るべきだと思いますか。

- ① そう思う ② ややそう思う ③ どちらとも言えない
④ あまりそう思わない ⑤ そう思わない

203. 在日同胞は韓国語／朝鮮語を使うべきだと思いますか。

- ① そう思う ② ややそう思う ③ どちらとも言えない
④ あまりそう思わない ⑤ そう思わない

204. 在日同胞は韓国語／朝鮮語が上手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か。

- ① そう思う ② ややそう思う ③ どちらとも言えない
④ あまりそう思わない ⑤ そう思わない

205. 在日同胞は日本語が上手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か。

- ① そう思う ② ややそう思う ③ どちらとも言えない
④ あまりそう思わない ⑤ そう思わない

206. 日本に住んでいる在日同胞同士は韓国語／朝鮮語を使うべきだと思いますか。

- ① そう思う ② ややそう思う ③ どちらとも言えない
④ あまりそう思わない ⑤ そう思わない

207. 韓国語／朝鮮語を習いたいですか。

- ① そう思う ② ややそう思う ③ どちらとも言えない

- ④ あまりそう思わない ⑤ そう思わない

208. 日本における韓国語／朝鮮語の今後の見通し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

- ① だんだん使わなくなり、結局消えてしまう ② 今までとさほど変わらない
③ 徐々に韓国語／朝鮮語に変わっていく ④ ますます発展していく
⑤ よくわからない

209. 韓国語／朝鮮語と日本語と、どちらがよく聞き取れますか。

- ① 韓国語／朝鮮語 ② 日本語

210. 韓国語／朝鮮語と日本語に対するあなたの感じ方を、以下の例示のように、示された表現のうち近いほうに✓印をご記入ください。

<例示>								
	1	2	3	4	5	6	7	
田舎臭いイメージ						✓		洗練/優雅なイメージ

210-1. 韓国語／朝鮮語に対する感じ方

	1	2	3	4	5	6	7	
(1) 田舎臭い								洗練/優雅
(2) ズルい								真面目
(3) 軽い								頼もしい
(4) ぶっきらぼう								礼儀正しい/丁寧
(5) 無教養								教養がある
(6) ひ弱い								たくましい

210-2. 日本語に対する感じ方

	1	2	3	4	5	6	7	
(1) 田舎臭い								洗練/優雅
(2) ズルい								真面目
(3) 軽い								頼もしい
(4) ぶっきらぼう								礼儀正しい/丁寧
(5) 無教養								教養がある
(6) ひ弱い								たくましい

211. 韓国人（在日同胞を除く）が使う韓国語に関するあなたの理解度についてお聞かせください。

211-1. 相手のことばを聞いただけでその人が在日同胞なのか韓国人なのかを区別できますか。

- ① そう思う ② ややそう思う ③ どちらとも言えない
④ あまりそう思わない ⑤ そう思わない

211-2. 韓国人のしゃべる韓国語がよく聞き取れますか。

- ① そう思う ② ややそう思う ③ どちらとも言えない
④ あまりそう思わない ⑤ そう思わない

211-3. 韓国の放送（ドラマ、ニュース等）を見てどんな内容がよく理解できますか。

- ① そう思う ② ややそう思う ③ どちらとも言えない
④ あまりそう思わない ⑤ そう思わない

Ⅱ-2. 言語能力

Ⅱ-2-1. 話す能力

212. 韓国語／朝鮮語がどのくらい話せますか。

- ① できない ② ややできない ③ 普通 ④ ややできる ⑤ できる

212-1. 該当項目にV印をご記入ください。

質問	できない	やや できない	普通	やや できる	できる
(1) 自己紹介のための簡単な挨拶や買い物時の簡単な会話ができる。					
(2) 職業や趣味など馴染みのある事柄を話題に簡単な会話ができる。					
(3) 社会的事件のような馴染みのない事柄について説明や報告ができる。					
(4) 演説や討論、通訳など専門的な内容について会話できる。					

Ⅱ-2-2. 聞く能力

213. 韓国語／朝鮮語がどのくらい聞き取れますか。

①できない ② ややできない ③ 普通 ④ ややできる ⑤ できる

213-1. 該当項目にV印をご記入ください。

質問	できない	やや できない	普通	やや できる	できる
(1) 挨拶や簡単な文章が聞き取れる。					
(2) 広告や天気予報、家族や友達同士の会話などが聞き取れる。					
(3) テレビで流れるニュース報道がほぼ聞き取れる。					
(4) 専門的な内容に関する演説や討論が聞き取れる。					

Ⅱ-2-3. 読む能力

214. 韓国語／朝鮮語がどのくらい読めますか。

①できない ② ややできない ③ 普通 ④ ややできる ⑤ できる

214-1. 該当項目にV印をご記入ください。

質問	できない	やや できない	普通	やや できる	できる
(1) 看板や簡単な広告文が読める。					
(2) 手紙や説明書などが読める。					
(3) 雑誌や新聞記事などが読める。					
(4) 専門分野の書籍や文学作品が読める。					

Ⅱ-2-4. 書く能力

215. 韓国語／朝鮮語がどのくらい書けますか。

①できない ② ややできない ③ 普通 ④ ややできる ⑤ できる

215-1. 該当項目にV印をご記入ください。

質問	できない	やや できない	普通	やや できる	できる
(1) 人や物の名前などが書ける。					
(2) 簡単な手紙や日記、案内文などが書ける。					
(3) 特定分野の主題を題材に文章が書ける。					
(4) 専門分野の報告書が書ける。					

Ⅱ-3. 言語使用

216. 次の質問を読んで下の例示のように、韓国語／朝鮮語と日本語のうち、より頻繁に使う言語には1を、他方には2を書いてください。該当する言語がない場合には何も書かなくて結構です

<例示>

質問	韓国語／朝鮮語	日本語
お店で買い物をする際、最も多用する言語は？	2	1

質問	韓国語／朝鮮語	日本語
1. 最もよく出来る言語		
2. 日常生活の中でよく使う言語		
3. 家族の間でよく使う言語		
4. 聞き取りやすい言語		
5. あなたが考える必要不可欠な習得言語		
6. あなたの属する在日同胞コミュニティの中で、今後その使用が最も期待される言語		

217. 家族に話しかける時、韓国語／朝鮮語と日本語のうち、どちらを主に使いますか。該当項目にV印をご記入ください。

質問	ほぼ韓国語／朝鮮語	韓国語／朝鮮語をより多く	半々	日本語をより多く	ほぼ日本語	該当なし
(1) 両親や祖父母など目上の人に話しかける時						
(2) 兄弟、姉妹、従兄弟などに話しかける時						
(3) 息子・娘や孫など目下の人に話しかける時						
(4) 韓国人／朝鮮人ではない配偶者や婿、嫁などに話しかける時						

218. 家族に話しかけられる時、韓国語／朝鮮語と日本語と、どちらが主に使われますか。該当項目にV印をご記入ください。

質問	ほぼ韓国語／朝鮮語	韓国語／朝鮮語をより多く	半々	日本語をより多く	ほぼ日本語	該当なし
(1) 両親や祖父母など目上の人に話しかけられる時						
(2) 兄弟、姉妹、従兄弟などに話しかけられる時						
(3) 息子・娘や孫など目下の人に話しかけられる時						
(4) 韓国人／朝鮮人ではない配偶者や婿、嫁などに話しかけられる時						

219. 次のような状況（場面）では韓国語／朝鮮語と日本語のうち、どちらを主に使いますか。該当項目にV印をご記入ください。

質問	ほぼ韓国語／朝鮮語	韓国語／朝鮮語をより多く	半々	日本語をより多く	ほぼ日本語	該当なし
(1) 在日同胞らによる公式的な会合で会議をする時						
(2) 非公式的な場で在日同胞らと社交的な話をする時						
(3) 日本人と在日同胞が同じ場で会議をする時						
(4) 日本人と同じ場で在日同胞と世間話をする時						
(5) 宗教をお持ちの場合には、宗教活動をする時						

220. 次のような状況（場面）では韓国語／朝鮮語と日本語のうち、どちらを主に使いますか。該当項目にV印をご記入ください。

質問	ほぼ韓国語／朝鮮語	韓国語／朝鮮語をより多く	半々	日本語をより多く	ほぼ日本語	該当なし
(1) 数を数えたり計算をしたりする時						
(2) 祈りを捧げたり祈願したりする時						
(3) 怒ったり在日同胞と喧嘩したりする時						
(4) 頭の中で考え事をする時						

Ⅱ-4. 言語学習

221. 韓国語／朝鮮語を習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 ① ある ② ない

221-1. 韓国語／朝鮮語をどこで習いましたか。該当するものをすべてお選びください。

- ① 家で ② 学校で ③ 独学で ④ 社会団体で ⑤ 塾で
⑥ 両親から ⑦ その他(_____)

221-2. 韓国語／朝鮮語の学習期間

- ① 3ヶ月未満 ② 6ヶ月未満 ③ 1年以内 ④ 2～4年以内
⑤ 5～9年以内 ⑥ 10年以上

221-3. 韓国語／朝鮮語を習った理由は何ですか。該当するものをすべてお選びください。

- ① 他の家族が全員韓国語／朝鮮語が可能なので自然に身についた。
- ② 在日同胞なら当然習うべきだと思った。
- ③ 仕事柄必要に迫られて学んだ。
- ④ 就職や進学に役立つため学んだ。
- ⑤ 韓国／朝鮮文化を理解するために学んだ。
- ⑥ 将来は韓国に永住する予定なので学んだ。
- ⑦ 家族や親族間での円滑な意思疎通のために学んだ。
- ⑧ その他 (_____)

221-4. 韓国語／朝鮮語を習う時、最も大変だったことは何ですか。

- ① 通学の困難さ ② 教育施設の不備 ③ 学費の負担 ④ 教育内容の不誠実
- ⑤ 教師の指導能力の不足 ⑥ 周りからの否定的な評価 ⑦ 特になし
- ⑧ その他 (_____)

Ⅱ-5. 韓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

222. あなたは在日同胞の移住の歴史についてご存じですか。

- ① はい ② いいえ

223. 韓民族の歴史について習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

- ① ある ② ない

224. ご自宅に残っているか、または、あなたがご存じの韓民族の文化にはどんなものがありますか（例えば、キムチ作り、お正月の過ごし方など）。

(_____)

225. 次のような状況でどんなタイプの方と交流をされていますか。該当するものにV印をご記入ください。

相手 状況	主に在日同胞と交流	在日同胞との交流が多いが、たまに日本人とも交流	在日同胞と日本人との交流が半々	日本人との交流が多いが、たまに在日同胞とも交流	主に日本人と交流	該当なし
(1) 仕事上の付き合い						
(2) 社交上の付き合い						
(3) 宗教上の付き合い						

226. 韓民族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次のような事項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該当するものにV印をご記入ください。

質問	そう	ややそう	どちらとも言えない	ややそうでない	そうでない
(1) 私は韓民族の子孫であることを誇りに思っている。					
(2) 私は韓民族の歴史や伝統、慣習などについて詳しく知ろうと努力している。					
(3) 私は主に韓国人／朝鮮人で構成された組織や社会団体（協会、同好会、同郷会など）に積極的に参加している。					
(4) 私は我が韓民族の歴史に詳しい。					
(5) 私は韓民族に強い所属感を持っている。					
(6) 私は他の人に韓国と韓民族についてよく話す。					
(7) 私は韓国人／朝鮮人の文化や言語を保存・継承すべきだと思う。					
(8) 機会があれば韓国を頻繁に訪問したい。					
(9) 在日同胞共同体を維持することは大切だと思う。					

227. 日本人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次のような事項に対してどう
 思いますか。該当するものにV印をご記入ください（該当者のみ）。

質問	そう	ややそう	どちらとも 言えない	ややそうで ない	そうでない
(1) 私は日本国民であることを誇りに思っている。					
(2) 私は日本の歴史や伝統、慣習などについて詳しくなろうと努力している。					
(3) 私は私自身を日本国民と思っている。					

Ⅱ-6. 韓国文化およびメディア接触

228. 韓国を訪問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① はい ② いいえ

229. ここ5年間、韓国訪問の経験があれば、その回数と滞在期間をご記入ください。

回数（_____回） 総滞在期間（_____年 _____ヶ月）

230. 韓国の放送またはインターネットメディアの視聴時間は一日どのくらいですか。

① 見ない ② 1時間未満 ③ 1-2時間 ④ 2-3時間 ⑤ 3時間以上

231. 韓国の放送またはインターネットメディア番組のうち、よくご覧になっているジャンルはどれですか。

① ドラマ ② 芸能・娯楽 ③ ニュース ④ スポーツ ⑤ 時事・教養
 ⑥ その他(_____)

アンケートにご協力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最後に、ご連絡先または**E-mail**をお教え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ご提供いただいた情報は、ご記入の正確な把握が困難な時にのみ再確認のために使用するものです。

ご連絡先:

E-mail:

<부록 3>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심층 면접 조사 구술/질문지

<심층 면접 구술/질문지>

심층 면접 질문지		
유형	어휘	질문 예시
어휘	아버지, 어머니 등의 친족 명칭	부모 중에서 남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밥, 숟가락, 젓가락 등의 일상어	끼니마다 먹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온돌, 구두, 담배 등의 귀화어	바닥을 따뜻하게 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휴대전화, 가스 등의 차용어	손에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명절이나 세시 풍속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집안 행사가 있습니까?
	음식 관련 어휘	집 안에서 자주 먹는 우리 음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문법	연결어미	(밥을 먹고 난 뒤에 텔레비전을 볼 때) 밥을 <u>먹고서</u> 텔레비전을 보았다.
	대우법	할아버지() 신문을 보()다. 할아버지께서 잠을 ()신다.
	부정법	(밥 먹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려면) 아니, 아직 <u>안 먹었어</u> / 아니 아직 <u>먹지 않았어</u> .
	사동과 피동	(우스운 이야기를 하여 남을 웃게 할 때) 웃기다 잘못해서 손가락이 문틈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끼이다
구술 발화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내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생지, 나이, 띠, 성장지, 학력, 직업, 형제, 부모님의 고향, 부모님이 하신 일, 재일 한국인으로서 살면서의 고충 등)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배우자는 어느 지역 출신이고, 주로 어디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셨는지 결혼 과정에 대

		<p>하여 이야기해 주십시오.</p> <p>결혼 후 (시댁) 식구들은 누구누구 있었습니까?</p>
	생업 활동	<p>현재 또는 과거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p>
	음식 관련	<p>주로 해 드시는 주식과 부식(반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p> <p>주식을 만드는 재료와 조리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p> <p>부식(반찬)을 만드는 재료와 조리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p>
	세시 풍속	<p>절기에 따른 세시 풍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p>

<수행 연구진>

책임 연구원:	최호철(고려대학교)
공동 연구원:	윤인진(고려대학교)
	김정숙(고려대학교)
	임영철(중앙대학교)
	박경래(세명대학교)
	채성식(고려대학교)
현지 공동 연구원:	라경수(가쿠슈인여자대학교)
	문희진(아이치가쿠인대학교)
	목종균(간키대학교)
연구 보조원:	최창원(고려대학교)
	임형욱(고려대학교)
	김효은(고려대학교)
	원광연(고려대학교)
	손지은(고려대학교)
	김희상(고려대학교)
현지 연구 보조원:	김태영(와세다대학교)
	김미숙(아이치가쿠인대학교)
	오영민(간사이대학교)

<사업 담당자>

담당 연구원:	김문오(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연구관)
---------	----------------------

재일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송철의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13, 전송 02-2669-9737
발행일: 2016년 11월 30일
